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인다

1974 - 2010

교육방송36년, EBS공사창립 10주년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묻다

1974 - 2010

교육방송 36년, EBS공사창립 10주년

EBS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주년

우리나라 교육방송이
어느덧 거대한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 온 EBS 행복한 지식채널의 기록—
그 소중한 추억의 무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초록 빛깔로 아로새겨진 아름다운 역사를 교훈 삼아
국민 모두의 생활에 향기를 전하는 방송,
세계적인 교육전문 미디어그룹의 열매를 소중히 가꾸겠습니다.

EBS 
www.ebs.co.kr

MEMBER OF
INTERNATIONAL DOCUMENTARY COOPERATION
BETWEEN TVK, CAMBODIA AND EBS, KOREA

소중한 우리 아이의
첫 교육,

EBS가 희망과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엄마! EBS 아직 안 해요?”

아기를 보면 기쁨과 설렘으로 가슴이 뒹군 합니다.

인류의 다음 세대, 더 큰 희망과 미래가

유아 · 어린이들의 해맑은 눈망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다정하고 섬세한 마음을

유아 · 어린이 프로그램에 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다큐멘터리

그 중심에는
EBS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다큐멘터리 '시베리아 호랑이' 시리즈
아시아 최초의 공룡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
전 세계 다큐멘터리 감독의 로망 'EBS국제다큐영화제'

1990년대 자연 다큐멘터리로 새 역사를 시작한 이후,
이제 EBS 다큐멘터리의 역사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한국 학교교육의
변천사는 곧,
EBS의 역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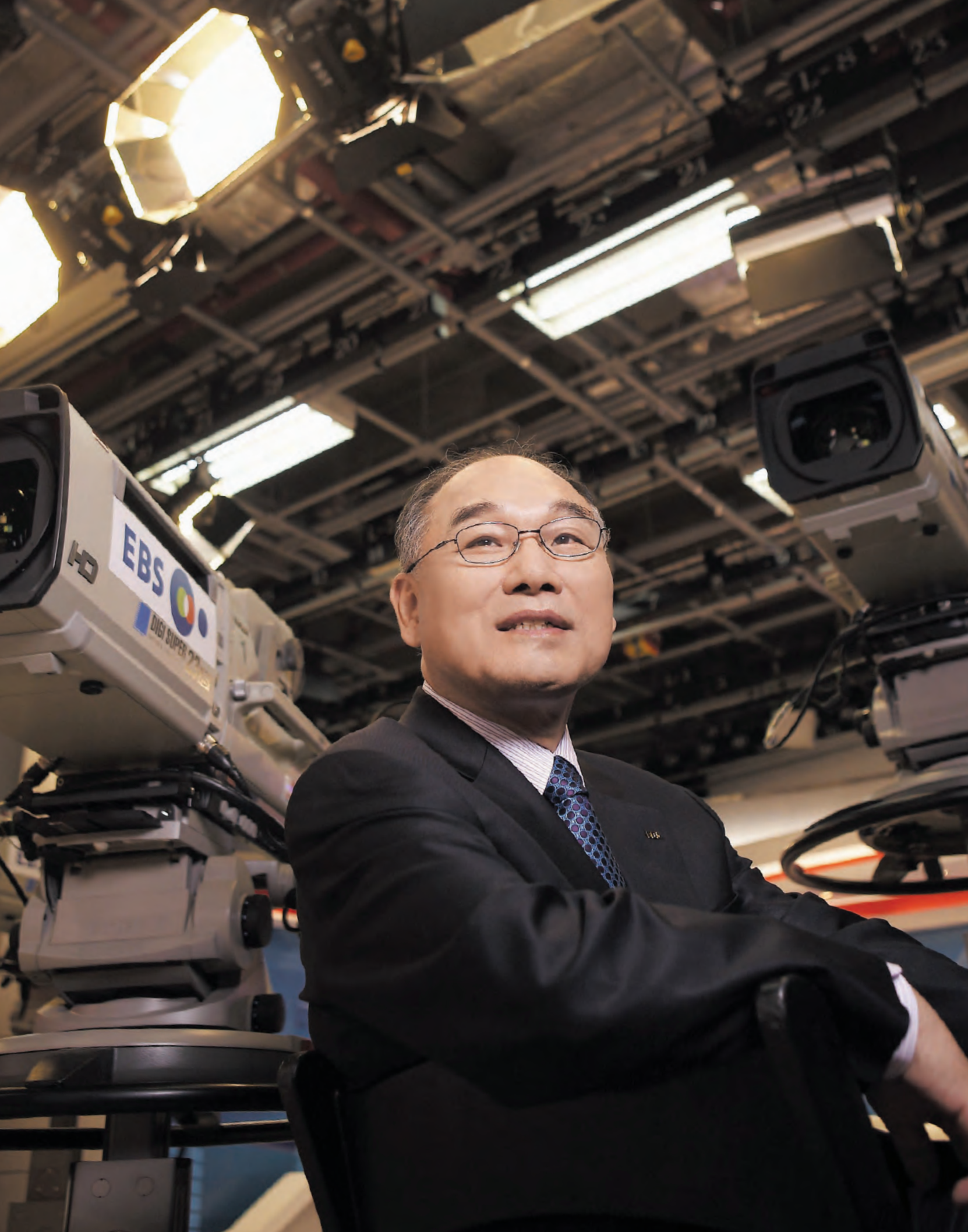
수확을 꿈꾸는 농부의 마음으로,
학교교육의
튼실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강의 프로그램 개발
세계를 놀라게 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국내 최고의 수능전속 강사단

1974년 라디오로 시작된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의 든든한 보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교교육의 보완, 사교육비 절감을 넘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원대한 꿈으로
교육방송은 새롭게 거듭납니다.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년의 세월 너머 100년 대계를 향한 출발선상에 서서

EBS가 뜻깊은 교육방송 36년 · 공사창립 10주년의 발걸음을 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봅니다. 혹자는 역사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양적인 기준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떻게 값진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 역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척도는 방송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얼마나 크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어떠한 방송철학과 윤리를 지니고 걸어왔는가 하는 질적인 생명력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안고 걸어온 지난 EBS의 역사가 더더욱 뜻 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EBS의 역사는 실로 우리나라의 교육사 · 방송사의 발달과 그 궤를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폐쇄했던 1974년,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고자 시작했던 교육방송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빛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후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은 누구도 걷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었고, 그래

서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2000년 공사 설립을 시작으로 EBS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성과가 우리의 자랑임에는 분명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일궈온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도전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세계적인 교육전문 미디어그룹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시청자와 함께하고, 시청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공유의 방송 · 참여의 방송 · 협력의 방송이 되어 사회적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선배 임직원과 현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36년 전, KEDI의 묵은 책장에서부터 자랑스러운 우리의 공사창립 10주년까지, 빈 지면에 우리의 공과를 꼼꼼하게 수록한 실무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EBS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 청취자에 대한 경의는 무엇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에 작은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사랑을 주신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기훈

Part.1

EBS 36-year History

Chapter.1 EBS, 교육의 씨앗을 뿌리다

- 019 **1. 교육, 방송을 만나다**
 교육의 중심, EBS의 시대
 태동
 <라디오학교> 방송, 그 빛과 그림자
 신비의 세계, TV학교방송의 시작
 학교방송, 다시 일어서다
 TV학교방송, 출항과 난파
- 027 **2. 시련 속의 대장정**
 한국교육개발원, 그 원대한 출항
 우면동 시대
 독자적인 교육방송 모색
 역사적인 최초의 컬러TV 수업
 표류되고 만 티콤사업
- 033 **3. 산고, 뒤이은 희망**
 불완전한 그러나 유일한 대안
 교육방송의 삼원화
 사업주체 변경
 TV과외, KBS 시행
 국보위의 교육개혁
 교육전용방송망 구축
 교육방송의 '정체성' 과 '목표' 확립
 KBS 제3TV의 시작
- 041 **4. 어둠 속의 빛, FM학교방송**
 교육방송의 명맥을 이은 FM라디오
 라디오 학교방송, 실효성 논란
 FM라디오 전용망 구축
- 044 **5. 교육방송, 신화의 시작**
 교육방송의 '전문성' 확립
 텔레비전 유치원의 시작
 시청률 하락과 그 원인
 난관 속에서 피어난 희망
 보충학습의 대안,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실험, 그리고 질적 개선
 학교교육 지키기
 과외금지 조치의 해금
 사교육과의 전쟁, TV고교가정학습
 놀라운 성공

1974
1989



Chapter.2 EBS, 교육방송의 꽃을 피우다

- 057 1. EBS 개국
 - 1990년 12월 27일
 - 교육방송, 빠를수록 좋다
 - 교육방송공사 vs KEDI 부설 교육방송
 - 열망
 - 개국, 그리고 희망
- 062 2. EBS, 조직의 역할과 위상
 - 새로운 편성, 새로운 논란
 - 조직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 외화의 수급과 우수 프로그램
 - FM라디오의 방송시간 확대
 - 오랜 숙원, 자체 송출의 시작
 - 방송장비의 보완
 - 미래 발전을 위한 논의
 - 시련과 갈등
 - 우울한 개편
 - 일보전진을 위하여
 - 교육방송원법을 둘러싼 논란
 - 대입수능, 신화의 시작
 - 이벤트의 새 장을 열다
 - 서서히 그 진가를 발휘하다
 - EBS FM의 변화
- 085 3. 바람을 이겨낸 열매는 달다
 - 교육방송, 재미있어졌다
 - 지금 EBS 보고 계십니까?
 - 시스템의 개선
 - 공사회, 그 지난한 과정
 - KBS와의 재통합 논의
 - ABU 가입과 새로운 프로그램
 - 부족한 예산과 자원 확보방안
 - 수학능력시험과 EBS
 - 방송시간 연장
 - EBS FM,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
- 103 4. 한국교육방송원의 출범과 위성방송
 - 입법
 - 한국교육방송원의 설립
 - 세계 최초의 디지털 위성교육방송
 - 위성교육방송의 내용과 성과
 - EBS의 정보제공과 인터넷
 - EBS FM, 큰 인기를 모으다
 - 경영혁신
 - 종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 방송
- 074 이준해 초대 원장 인터뷰
- 095 정연춘 2대 원장 인터뷰

내용 구성 ● EBS 36년사는 크게 통사, 부문사, 인터뷰,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통사에서는 1974년 라디오학교방송으로 시작한 교육방송의 탄생과 성장과정,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고, 부문사에서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사를 각각의 발전과정에 따라 서술하였다. 인터뷰는 역대 원장, 사장을 직접 만나 당시 소회와 후배 임직원들에게 바라는 점 등을 인터뷰하여 실었다. 부록에서는 편성표 변화, 역대 임원, 조직도 변천, 연표 등을 담았다.

표기 방법 ●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적용하였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만, 억, 조 등의 보조 단위를 사용하였다. 화폐 단위는 원과 달러를 기준으로 하였다.

Chapter.3 EBS, 교육의 열매를 맺다

- | | |
|--|---|
| <p>115 1.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출발
오랜 갈망의 실현,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제정
26년의 기다림
한국교육방송공사, 첫 편성
노력의 댓가
인터넷방송 개국
국민이 만들어준 CI
공사화, EBS FM의 변화</p> <p>129 2. 도곡동 시대
또 하나의 숙원, 도곡동 사옥
공영방송 EBS의 약속
디지털 방송의 시작
위성TV와 EBS플러스
기술연구소와 EBS Work
프로그램의 저널리즘 추구
자연 다큐멘터리의 신화, 시베리아 호랑이
심각한 망국병, 과외열풍
2·17 대책의 핵심은 EBS 수능강의
실질적 교육 평등, e러닝의 시작
열린 문화 1번지, EBS 스페이스 개관
다큐멘터리 시대정신 EIDF
드라마의 새 지평, EBS 문화사 시리즈
EBS FM, 외국어교육 전문채널로의 시동</p> | <p>155 3. 뉴미디어의 새로운 발견
세계 최초의 차세대 데이터 방송 시작
홈페이지 회원제의 성공
위성 DMB 시작
우리말연구소 설립
반짝반짝 라디오 '반디' 서비스
외국어전문사이트 EBSlang 개시
미주지역 한인들을 위한 EBS America 개국
EBS English 개국
EBS FM과 디지털 시대</p> <p>173 4. 백년대계 EBS, 새로운 꿈을 꾸다
공익채널의 선정
EBS America 위성채널 추가 런칭
언론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지상파 재허가 심사평가 1위
멀티미디어 DB플랫폼 사업의 시작
디지털 통합사옥의 꿈
사교육보다 경쟁력 높은 EBS 수능강의
교육과 방송,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p> <p>126 박홍수 초대 사장 인터뷰
138 김학천 2대 사장 인터뷰
153 고석만 3대 사장 인터뷰
171 권영만 4대 사장 인터뷰
184 구관서 5대 사장 인터뷰</p> |
|--|---|

2018

Part.2

EBS Programs History

Chapter.1 Preschooler & Children

- 194 <딩동댕 유치원>에서 <방귀대장 뽕뽕이>, <키득키득 실험실>까지
- 204 EBS의 20년 지기 똑딱이 아빠 김종석

Chapter.2 Documentary

- 206 다큐멘터리의 名家, EBS
- 214 박수용 PD와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Chapter.3 Schooling Broadcasting

- 216 교과방송 36년, 그 전환점의 기록
- 224 EBS가 낳은 스타 강사 서한샘

- 226 EBS 기본방송순서

APPENDIX

- 257 1. 한국교육방송원법
- 260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267 3.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 272 4. 한국교육방송공사 강령
- 276 5. 임원 및 이사회 명단
- 278 6. 주요 조직도 변천
- 282 7. EBS 사외보가 걸어온 길
- 286 8. EBS 연표
- 288 9. EBS 사람들



PART . 1

- 1974년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교육방송,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TV 방송 시작, 1990년 교육방송 개국, 1997년 위성교육방송 개국, 길고 긴 여원 속에 이루어졌던 2000년 공사 출범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 10주년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 속에서 교육방송으로서 가치를 지켜내고 평생교육의 동반자로 EBS는 그렇게 우리 곁에 있었다. 그 역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역사이자, 임직원 모두의 열정이 담긴 자긍심이기도 하다.

EBS **36-year** **HISTORY**

Chapter.1

EBS, 교육의 씨앗을 뿌리다

Chapter.2

EBS, 교육방송의 꽃을 피우다

Chapter.3

EBS, 교육의 열매를 맺다

chapter.

1974
1989

1

EBS, 교육의 씨앗을 뿌리다

1974년 5월 14일, 전날 종일 폭우가 쏟아진 탓에
기온은 봄날 같지 않게 쌀쌀했다. 이날 오전 10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면동 산2번지
현장에서 KEDI 산하 교육방송국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우면동 청사는 1975년 8월 31일 준공되었고, 그해
9월 27일부터 방송이 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우면동 시대'를 열게 되었다.



2010년 6월 22일
EBS 공사창립 10주년 기념식
└

198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현장
└

1. 교육, 방송을 만나다

교육의 중심, EBS의 시대

2010년 6월 22일, 아침 햇살이 EBS 도곡동 사옥에 휘감기고 있었다. 녹음 속에 숨어있던 EBS 사옥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EBS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 창립, 그 열 돌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로비는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나라 방송교육의 장이 시작된 지 36년, 공사창립 10주년의 기념비적 행사가 시작되었다.

곽덕훈 사장이 단상에 섰다. 10년의 공과를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는 뜻 깊은 순간이었다. 과거를 바탕으로의 미래를 기약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EBS는 세계적인 교육전문 미디어그룹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시청자와 늘 함께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공유의 방송·참여의 방송·협력의 방송이 되어 사회적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리매김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미디어 중심의 EBS를 교육 중심의 EBS로, 아날로그 기반의 EBS를 디지털 기반의 EBS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전문방송·디지털 미디어로서의 뜻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결의의 장이 된 것이다.

모두의 환호 속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마침내 열 살이 되었다. 36년간의 긴 태동, 기나긴 고통 끝에 공사로 거듭난 EBS가 새로운 사명을 안고 또 하나의 출발선상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1974년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교육방송,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TV 방송 시작, 1990년 독립, 교육방송 개국, 그리고 길고 긴 염원 속에 이루어졌던 공사 출범의 순간까지, EBS의 역사가 스쳐 지나갔다. 그 역사는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은 역사이자, 임직원 모두의 열정이 담긴 자긍심의 기록이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방송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지난한 시기를 헤쳐 왔던 선배 임직원들에게는 특히 더 큰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¹⁾

곽덕훈 사장 이하 간부들은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참석자들은 EBS 현관 앞에 내걸린 한 장의 현수막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

2010년 6월 22일 공사창립 10주년

EBS가 세계 최고 교육전문 미디어그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태동

이제 이야기는 교육방송이 잉태될 무렵인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교육방송의 흔적과 역사, 철학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때와 장소는 1951년 6월, 전쟁의 포성이 자욱하던 부산이다.

그 무렵, 전황은 남한에 유리했다. 전쟁 초기에는 부산 일대를 제외한 전역을 빼앗겼으나, 1950년 9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을 회복했다. 호전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여전히 궁핍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전국 각지의 피란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부산으로 모여들었다. 학교교육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포성과 화연 속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교육인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천막을 치고, 인근의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한 언론은 안병욱 선생의 제자였던 의료인 유태연의 회고를 빌려 이렇게 표현했다.

중학 3학년이던 어린 나는 학교가 다시 열렸다는 보수공원을 찾았다. 평퍼짐한 언덕 배기를 바라보는 길 어귀에 사과궤짝에서 뜯어냈음직한 널빤지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서울중학교 부산임시교사. 콧등이 시큰해움을 어찌지 못했다. 먹으로 쓴 글씨는 빗물에 씻겨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교실이라야 벽도 없고 지붕도 없다. 의자나 책상은 물론이다. 학년마다 십 수 명의 학생들이 흠바닥에 몰려 앉아 공부를 했다. 우리는 밥상만한 칠판을 나무에 기대어 놓고 지우개의 흰 백목가루를 털어가면서 누렇게 뜬 얼 굴이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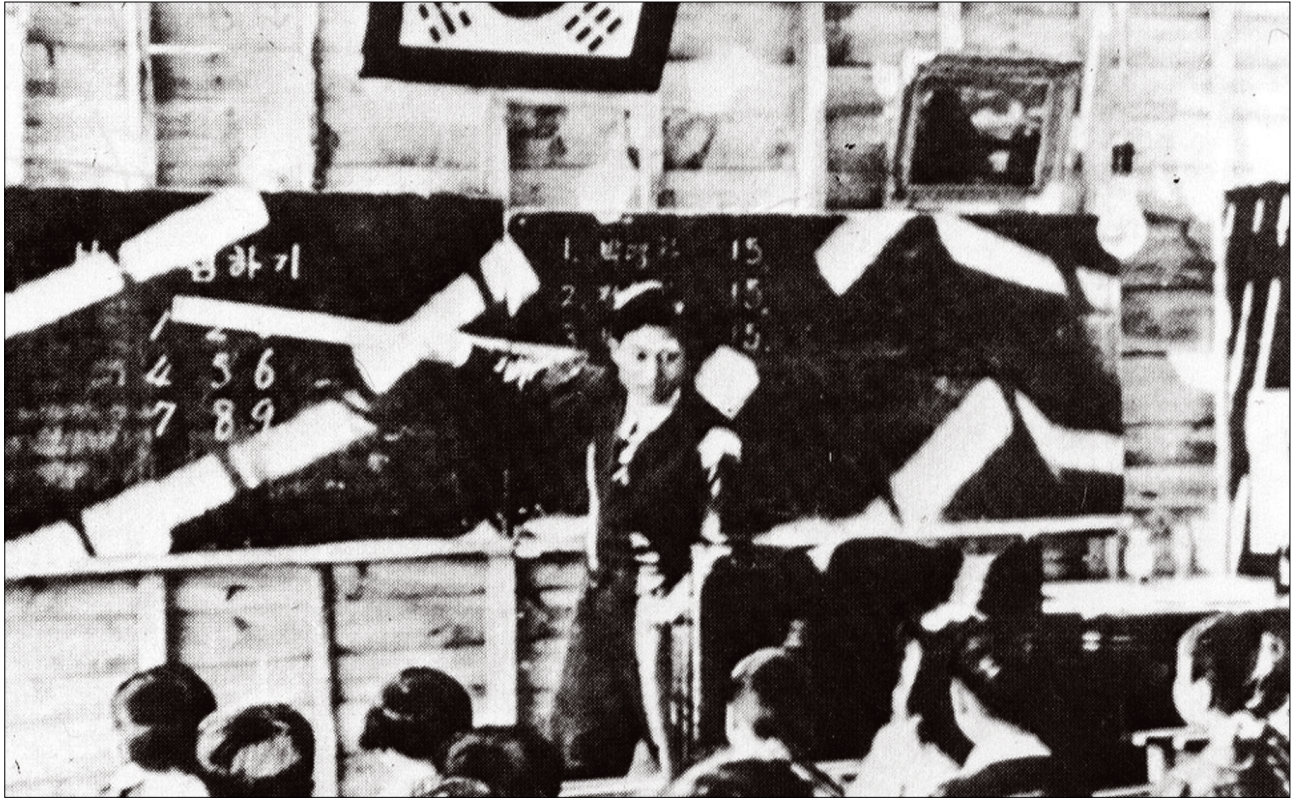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으나 부강한 국가의 희망은 '오직 교육에 있다'는 뜻있는 인사들의 의지, 그것은 국민 모두의 생각이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으로 교육이 중단된 1951년 1월 27일,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백낙준은 부산에서 서울피란민교육자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육구국이라는 격문을 보내 교육을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51년 4월에 제정된 교육특별조치요강³⁾이 그렇게 탄생했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1951년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의 취학률은 78%에 달했다. 전시상황인 데다가 피란지에서 이루어진 교육임을 생각한다면 경이적인 수치

1 | EBS의 현재 모습은 설립 초기와 비교한다면, 놀라울 정도다. 임직원은 2010년 현재 630여 명에 이르며, 2010년 예산액은 2,400억 원을 넘어섰다. EBS는 지상파TV를 비롯해서 총 7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 성장했다.

2 | 경향신문 1984년 2월 27일자

3 | 정부는 한국전쟁 중에서도 교육 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행했다. 1951년에 제정된 전시 하 교육특별조치요강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피란학생이 피란지에서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전시 중의 교육방침은 도덕교육 · 1인 1기능교육(기술교육) · 국방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1951년 3월에는 6 · 3 · 3 · 4제의 현행 학제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꾸준히 추진하여 1952년 6월 각 교육구와 교육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란 중에도 교육 관련 정책은 계속 입안되었다.



1951년 6월 부산의 판자집 국민학교 수업광경

4 | 1950년 한국전쟁으로 방송국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대구방송국과 부산방송국을 제외한 모든 방송국과 송신시설이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부산방송국이 중앙방송국으로 전시 방송체제를 갖추고 심리전에 나섰다.

임에 분명했다.

비록 정부가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는 정책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제반 여건은 좋지 못했다. 정보통신 시설이 파괴⁴됨에 따라 교사들에게 행정력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1951년 5월에 미국 공보원에서 라디오 수신기 500대를 문교부에 무상공급했다는 점이다. 문교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국민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마침내 1951년 6월 18일, <라디오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침 9시부터 15분 동안 학교방송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교육과 방송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라디오학교> 방송, 그 빛과 그림자

전쟁기간 동안 방송된 <라디오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효과 또한 상당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 이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편성표에 의하면 15분 분량이었던 <라디오학교>는 1954년부터 30분 분량으로 그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문교부와 교육단체 등이 방송교육의 효과를 크게 인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전까지의 <라디오학교> 방송이 교

사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전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자연히 실제 교과수업과 연관된 내용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라디오학교〉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55년부터였다. 그 무렵 학교현장에서는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 시기에 이러한 의제가 성립되었던 것은 교원들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음을 교육현장에서도 절감했기 때문이다.⁵⁾

그해 12월 26일, 서울 남산국민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 시내 국민학교 교장들과 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교육방송협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방송’이라는 용어가 처음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송협업체제가 구축되었다. 현장 교육인들로 이루어진 한국교육방송협회가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을 책임지고, 송출은 국립중앙방송(현 KBS, 이하 중앙방송)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56년 5월부터 국어·사회·음악 등 3개의 교과목이 1주일에 3일씩 오전·오후에 걸쳐 방송되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 방송예산은 곧 바닥을 보였고, 문교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국립중앙방송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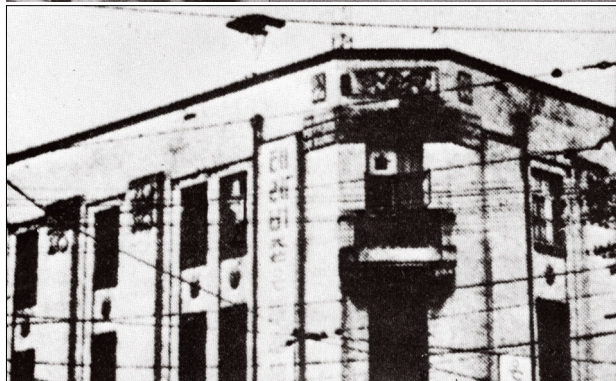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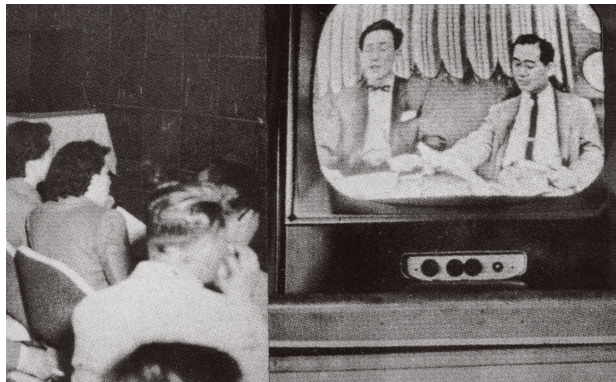
교육위원회가 방송제작을 담당하고, 중앙방송이 송출을 전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다. 1958년 8월 31일, 중앙방송이 낮방송을 시작하면서 학교방송의 대상은 중학교로까지 확대되었다.

초기에 비해 상대적인 발전을 구가했던 학교방송이 위기를 맞은 것은 1962년이였다. 그해 5월에 시청각교육원과 중앙방송이 함께 시행한 청취율 조사 결과, 라디오를 이용한 학교방송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이다.⁶⁾ 방송의 질적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뜻있는 교육자들은 방송교육이 더욱 내실화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저명한 동화작가이자 교육자인 강소천은 1962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

KA(중앙방송) 시간 중에 라디오 유치원이란 시간이 아침 9시부터 5분씩 날마다 있다. 이 시간의 거의는 노래로 매운다. KA의 전속단체인 아기노래회나 여러 유치원 아가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공부 시간도 있다. 그러나 그 절반을 차지해야 할 이야기 시간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다. 이

5 |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교원의 과반수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물러간 후,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1946년과 1947년에 각 시·도별로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졸업을 기다리기에는 교사 수가 너무 부족했다. 임시로 강습과·임시 초등교원양성과 등이 생겼다. 이와 같은 임시기관은 24개에 달했다. 전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여전하여 1965년까지 교원부족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나마 1951년 이화여자사범대학, 1954년 수도여자사범대학, 서울문리사범대학 등이 2년제로 편성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서구 교육이론을 공부한 이들에 의해 교수법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져갔다.

6 | 당시 조사에 의하면, 전 교실 수신이 가능한 학교는 36%에 불과했다. 라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24% 수준으로, 라디오 미보유학교가 40%에 달했다. 수신기의 부족도 문제였으나, 설령 준비되어 있다 해도 난청 문제 때문에 실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였다.



7 | HLKZ-TV는 주한미군의 도움으로 매일 밤 30분씩 AFKN-TV 채널을 통해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자체 연주소를 갖지 못했기에 오래 지속할 여건은 되지 못했다. 얼마 동안 명맥을 유지한 이 방송국은 1961년 10월 15일, 우리나라 TV방송의 기원이라는 명예만 지닌 채 영원히 문을 닫고 말았다.

8 | 비록 채 피지도 못했으나 HLKZ-TV는 우리나라 방송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HLKZ-TV가 문을 닫은 지 3개월 만인 1961년 12월 31일 저녁 9시, KBS가 첫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국 하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 정부가 개국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기에는 HLKZ-TV 직원들이 KBS 개국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셈이다.

9 |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견해차 때문이었다. 문교부는 국민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교육전문가들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오랜 논의 끝에 후자의 방안이 선택되었다.

1.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다. 사진은 KORCAD TV방송 모습

2. 1956년 5월 12일 종로 사거리 전 조흥은행 종로지점 건물에서 호출부호 HLKZ, 출력 100Kw, 채널 9로 개국한 KORCAD TV방송국

시간에 노래하는 무궁화니 말 짓기니 하는 방송을 낸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기들에게 아무 흥미 없는 시간이다. 아기들은 이 시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중략) 누가 15분 동안이나 지루하고 승거운 잔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부모들이 들어도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결국 1962년 8월 19일 방송 중단이 결정되었고, 이에 앞서 8월 12일 편성에서부터 당시 제2중앙방송에서 방송되던 <학교강좌>가 폐지되었다. 대신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11년 동안 열악한 방송교육의 현장을 지켜왔던 <라디오학교> 방송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만다.

신비의 세계, TV학교방송의 시작

TV학교방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56년의 일이다. 예산과 기술의 문제 등으로 인해 라디오에 비해 상당히 뒤늦게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상업방송인 HLKZ(KORCAD) TV방송국이 1956년 9월 1일, 최초의 TV학교방송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러나 이 회사의 재정은 그리 좋지 못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TV수상기는 채 300대가 되지 않았다. 광고 의뢰가 있을 리 없었다. 결국 이 회사는 적자운영을 견디지 못하고 개국 1년이 채 안 된 1957년 5월 6일, 한국일보 사주인 장기영 사장에게 매각되고 만다. 그는 사명을 대한방송주식회사(DBC)로 바꾸는 한편, 1957년 6월 7일 낮 방송시간을 1시간 신설했고 늘어난 분량을 학교방송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DBC로 개편된 후에도 재정난은 여전했다. 설상가상으로 1959년 2월 2일, 새벽에 일어난 원인불명의 화재는 HLKZ-TV 시설을 전소시켰다.⁷⁾ TV학교방송은 채 짝을 띄우기도 전에 사라지는 비운을 겪게된 것이다.⁸⁾

학교방송, 다시 일어서다

학교방송의 필요성은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1962년 12월 14일, 국가 재건최고회의는 문교부와 문공부에 학교방송의 재개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해인 1963년 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중앙교육연구소 강당에 20여 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이 모였다. 장장 4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⁹⁾

급한 일정이긴 했으나 새 학년부터 방송을 시작하자고 결정되었다. 학교방송의 운영은 중앙시청각교육원에서 담당하되, 중앙방송이 녹음·방송하기로 했다. 교과목은 국어·사생·자연·음악·특별활동 등 5가지였고,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으로 결정되었다.¹⁰⁾

첫 방송이 시작된 것은 그해 3월 11일이었다. 이후 새 정부는 6월 9일, 전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라디오 학교방송을 제2방송인 국제방송(CA)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다.¹¹⁾ 결과적으로 이 변경은 청취율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난청 현상이 더 심해졌고, 주파수 변경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청각교육위원회는 라디오 학교방송의 청취율 향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했다. 1966년부터 이러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년에 걸쳐 벽지학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67년에는 저녁시간대에도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과외수업의 폐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TV학교방송, 출항과 난파

1969년 1월 16일 11시, 문교부에는 비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초도순시가 예정되어 있는 박정희 대통령 일행이 오후로 그 일정을 연기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그날, 문교부 직원들의 불길했던 예감처럼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질문으로 초도순시를 시작했다.

“국민교육현장을 암송해 보시오.”

당시 고등교육국 조성옥 국장이 현장을 모두 외우자 대통령이 굳은 표정을 풀고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아들에게 현장을 암송하라고 했는데, 다 못 외웠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에서 한 번밖에 안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안에 못 외우면 밥을 안 주겠다고 했더니, 금방 그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순시 때는 교원이나 학생들에게 외우도록 할 것입니다.”

문교부 직원들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쓸어내렸다. 굳이 이 일화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교육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대통령은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당시 거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새마을운동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후일 실효성 문제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국민교육현장’의 제정과 전 국민에게 이를 암송케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대통령은 이후 문공부 초도순시에서도 방송의 교육적 기능 수행을 직접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지적한 것은 모두 3가지였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국영TV의 광고방송을 없앨 것, 그리고 KBS TV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할 것 등이었다. 서슬 퍼런 시절, 대통령의 지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당면과제였다.

이날의 사건은 우리나라 TV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일이었다. 명맥이 끊어졌던 TV학교방송이 새롭게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10 | 정규방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다. 일요일에는 학교뉴스 · 교육상담실 · 일요음악회 · 마이크탐방 · 반공도회(반공도덕) 등이 편성되었다.

11 | 중앙방송(지금의 KBS 1채널)은 농어촌 계몽 중심의 방송을 했고, 국제방송은 도시민 중심의 음악 · 오락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일각에서는 국영방송인 만큼 품위를 지키며 일반인에게 교양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중앙방송을 일반방송으로 전환하고, 학교방송 · 국군의 시간 · 영어강좌 및 독어강좌 등의 교양방송 · 대북방송 · 농가방송 등 특정 대상방송을 국제방송으로 전환했다.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 학교방송의 난청지역은 더 늘어나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



12 | 중앙시청각교육원의 모체는 1951년 6월에 발족된 한국시청각교육회다. 이들에 의해 시청각교육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8년 3월에는 정부와 USOM(주한미국경제원조처) 간의 협정에 의해 중앙시청각교육원이 설립되었다. 1974년에 중앙시청각교육원은 중앙교육행정연수원과 통합되어 중앙교육연구원이 되었다.

13 | '한국방송공사, KBS', 1977, 416면

1957년 이후, TV를 활용한 교육방송은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이미 HLKZ-TV의 실패를 경험한 터였기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가장 큰 난관은 TV수상기의 보급률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이다.

이미 1965년에는 KBS를 비롯하여, 동양TV가 방송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수상기의 증대는 필수적이었다. 방송사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고수익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TV수상기의 도입·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비록 교육방송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나, TV수상기의 보급률 제고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KBS는 시청률 증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앙시청각교육원¹²⁾에 TV를 통한 학교교육 시행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1966년 8월, 약 한 달에 걸쳐 매일 6시 5분부터 35분까지 30분 분량으로 <TV여름학교>가 시험 방송되었다. 우리나라 TV학교방송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빈약한 재정이 문제였다. TV수상기와 예산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은 채 시험방송에만 그치고 말았으나 <TV여름학교>는 방송을 활용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다. 특히, 현장의 상당수 교사들은 TV방송의 교육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KB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TV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96%에 달했다고 한다.¹³⁾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문공부를 향해 TV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언급한 배경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 문공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학교교육방송실시계획'이 발표되었다. 문공부 내에 학교방송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방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프로그램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BC·CBS·NHK 등 외국 방송사의 필름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KBS는 가시청 지역 확대를 위해 공간 구축되지 못한 송신소 정비에 나섰다. 우선 서울을 비롯한 대전·대구·광주·전주·부산·춘천 등 7개 지역의 방송망이 정비되었다. 마이크로웨이브 시설이 완공되는 11월부터는 전국방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그해 방송망 정비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3,266만 원.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본다면 적지않은 수치였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노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중앙시청각교육원이 그 임무를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출은 KBS가, 제작은 중앙시청각교육원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마침내 1969년 5월 5일, KBS 전파를 타고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국민학교 4학년·5학년·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교과목 방송이 시작되었다. 특히 가시청 지역 안에 있는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도록 했다.

상당수 교육인들의 열망이 담긴 원대한 꿈이었으나 그 시작은 순탄치 못했다. 앞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TV수상기 미확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당시 전국에서 TV수상기를 구비한 학교는 20개에 불과했다. 각 언론에서는 ‘텔레비전 없는 TV학교방송’이라면서 줄속행정이 빚은 문제라고 비판을 가했다.

결국 문교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의무교육특별교부금 6,300만 원을 가시청지역 대상 국민학교에 TV수상기 구입비로 지급했다. 중학교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성회비와 보유금 등 자체예산으로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학교 900대·중학교 240대 등 1,140대의 TV수상기가 확보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TV학교방송은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1969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범학교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다.¹⁴⁾ TV학교방송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현장 반응도 고무적이었다. 전체 국민학교의 44%, 중학교 15%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가끔 한다’는 비율도 각각 48%, 59%로 나타났다. 방송 시작 2년 만에 거둔 성과였다.

비록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예산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

14 | 1차 시험방송기간은 1969년 1학기로 국민학교 고학년·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사회·자연·예능 등의 과목이 방송되었다. 2차 기간은 1969년 2학기로 중학교 1학년 영어과 방송이 추가되었다. 1970년 4월 13일부터는 토요일에도 학교방송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TV 프로그램 제작 모습



15 | 기록에 따르면 1972년까지 우리나라의 농어촌·산간지방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많았다. 강원도와 충청북도·경상북도 등지의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전기 가설률이 불과 50%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TV 난청지역은 20%에 달했고, 미술 등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컬러TV여아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16 | KEDI 설립은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750만 달러 규모의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차관협정으로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문교부·경제기획원·미국 AID 등은 경비절감과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방안을 플로리다대학의 모건 교수 연구팀에게 의뢰하였다. 이들은 '교육비 절감과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초·중학교 교육체제 연구개발의 목적을 지닌 KEDI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모건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KEDI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결하지 못했다. KBS의 자료에 의하면 제작비와 전파료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연간 2억 원에 달했다. 당시 경제규모 측면에서 볼 때, 광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금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방송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⁵⁾ 방송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도 TV학교방송의 한계였다. 90분의 방송시간을 5개 과목으로 분산 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목당 방송시간은 15분에 불과했다.

문교부와 문공부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1973년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방송을 전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데 양 부처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73년 4월 9일, 중앙시청각교육원이 제작하고 KBS가 송출한 TV학교방송은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그 종언을 고했다.

1973년까지 이루어진 TV학교방송, 그것은 후일 EBS의 탄생과 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이 시기의 작은 씨앗, 그것이 EBS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진통이 필요했다. 초기부터 닦쳤던 난관, 그것은 EBS 탄생을 위한 잉태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었다.

2. 시련 속의 대장정

한국교육개발원, 그 원대한 출항

1972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재단법인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¹⁶⁾이 탄생한 것이다.

교육방송의 측면에서 KEDI의 개원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해 3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교육전문방송국의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KEDI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의 조직편제 시 운영부원장 산하에 기술지원국을 두었다. 그 아래, 방송편성실·방송제작실·방송기술실·송신소 등을 설치함으로써 교육방송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문교부는 KEDI 설립을 계기로 산하기관의 조직정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교육연구와 시행기관 등이 제각각 달랐으므로 정책 추진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1974년 4월 10일, 중앙시청각교육원이 중앙교



1974년 2월 8일
한국교육개발원 헌판식

육행정연수원과 합병되면서 중앙교육연구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새로 탄생된 중앙교육연구원은 교재 개발보다는 연수 중심의 조직이었다. 문교부는 관계법령을 통해 중앙시청각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라디오 학교방송을 KEDI로 이관할 것을 결정했다. 1974년 3월 28일, KEDI는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인 방송교육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그해 4월 1일부터 KEDI는 하루 3시간 분량의 라디오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KBS의 사회교육 방송망(970kHz)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방송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¹⁷⁾

우면동 시대

1974년 5월 14일, 전날 종일 폭우가 쏟아진 탓에 기온은 봄날 같지 않게 쌀쌀했다. 이날 오전 10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보이는 우면동 산2번지 현장에서 KEDI 산하 교육방송국 기공식이 개최되었다.¹⁸⁾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비 5억 원의 막대한 규모의 방송국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 규모는 대지 16만 5,000㎡였고, 5층으로 계획된 건물면적은 6,600㎡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계획되고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 TV방송을 염두에 두고 건축되었다는 사실이다. TV방송용으로 만든 400㎡ 규모의 A스튜디오, 220㎡ 규모의 B스튜디오가 설계되었다. FM라디오 방송을 위한 2개의 스튜디오도 제작하기로 했다. 청사 내에 위치한 조정실 등 부속실의 규모도 1,550㎡에 달했다.

청사 건설이 진행되면서 우면동 청사 뒷산인 우면산 일대에 57m 높이의 송신철타도 건립되었다. 우면동 청사는 1975년 8월 31일 준공되었고, 그해 9월 27일부터 방송이 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우면동 시대’를 열게 되었다.

17 | KEDI가 인수한 라디오 학교방송의 경우, 이미 1974년 1학기 편성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KEDI가 편성부터 시작한 것은 그해 9월, 2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당시 방송시간은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2시였다. 일요일은 1시간만 방송했다. 그해 편성비율을 보면, 교과학습 프로그램이 58% · 교과보조 프로그램이 26% · 중학교 영어 프로그램과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각각 8%였다.

18 | KEDI 설립 당시 교육방송국의 목표는 자체 송신 시설 완비 · 자체 방송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설치 등이었다. 중앙시청각교육원이 학교방송을 운영했을 때, KBS 송출장비 · 스튜디오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겪어야 했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우면동 청사 건립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이유였다. 우면동 청사 건립 이전에는 삼청동의 구 중앙교육행정연수원 교실, 경운동의 수운회관, 예장동의 구 중앙교육연구소를 빌려 사용했다.

1974년 5월 14일
우면동 교육방송국 청사 기공식

19 | 교육방송국 설립에 투자된 금액은 외자 700만 달러, 내자 7억 원이었다.

20 | 극초단파.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300~3만 메가사이클(Mega Cycle), 파장 1m 이하의 전파를 가리킨다. 성질이 빛과 비슷해서 지향성이 강하며, 적은 전력으로 멀리까지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전파의 폭이 넓고, 번개의 영향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방송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21 | 티콤사업 실패 이후, 1977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전파수신방안을 두고 협의했을 때 관련부처인 체신부·문교부 등은 티콤방식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문교부의 설득으로 티콤방식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22 | 2010년 우리나라가 최초의 원전 수출계약으로 기쁨에 빠졌을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최대 수혜자로 주목받았다. 대개 원자력발전 등 전기 관련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최초의 방송국을 건립한 회사로도 유명하다.

독자적인 교육방송 모색

TV학교방송의 중단이 논의되고 있던 1972년 하반기부터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TV학교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되어 있었을 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정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고 외국 금융기관 및 원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갔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미국국제개발처(이하 AID)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장기종합교육 계획에 의해 준비된 KEDI 및 교육방송국 설립을 위한 차관 공여가 핵심 사안이었다. AID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은 750만 달러였다.

한편, 미국수출입은행(이하 EXIM)에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수긍했다. EXIM과 교육부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EXIM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해마다 7%의 이자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700만 달러의 교육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AID와 EXIM 양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은 모두 1,450만 달러에 달했다.

문교부는 이 금액을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방송국 설립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¹⁹⁾ 정부는 TV교육방송을 재개한다는 목표 아래 1972년부터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마이크로웨이브방식과 티콤방식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이크로웨이브전파²⁰⁾의 경우 송신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즉 가시거리 이상으로 떨어진 지역이나, 산과 같이 높은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신이 불가능했다. 원거리는 기지국을 설치하여 단계별로 중계해야만 했다.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 특성으로 미루어 다수의 기지국이 건설된다면 난청지역 해소가 가능했으나 우리 경제규모로 그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티콤방식은 새로운 형식으로 주목받는 시스템이었다. 견인 로프로 지상 3km 상공에 기구를 띄운 후 극초단파를 지상으로 발사함으로써 방송이 이루어지는 형식이었다. 기구의 높이가 3km나 되었으므로 지역 선정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으로 극초단파를 발사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미얀마·이란 등지에서 시도되고 있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활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문교부는 티콤방식을 선택했다.²¹⁾ 티콤이 당시 세계 최대의 전기통신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²²⁾의 자회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여력이 있는 글로





컬러TV 전시장에 몰린 사람들
←

별 기업이라는 것이다.

1972년 12월 4일, 티콤방식에 의한 교육방송 전용 송신망 건설계획이 대통령 재가를 받음으로써 논란을 잠재웠다. KEDI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방송 실패 시 위약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EDI는 교육방송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974년 12월, 제천 봉양송신소가 완공되었다. KEDI는 1975년 3월 22일, 체신부 전 파관리국으로부터 교육방송의 무선국 허가를 취득했다. 극초단파 방식인 UHF 채널 20(HLGM-TV) · 채널26(HLGN-TV) · FM104.9MHz(HLGM-FM) 등 3개의 방송망이었다. 이 가운데 우선 20번 채널만 활용하여 15개 시범학교에서 시험방송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모두들 희망에 부풀 가운데 시험방송일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역사적인 최초의 컬러TV 수업

1975년 12월 12일 오전 11시, 안양서국민학교에는 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남덕우 KEDI 부원장과 윤동석 교장선생님 등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25인치 대형 텔레비전²³⁾이 설치된 3학년 1반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70여 명의 학생들과 관계자,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남덕우 부원장은 연신 시계를 바라보았다. 더디게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도 숨소리를 잊은 채 TV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11시 50분, 제천 봉양송신소에서 발사한 전파가 1만 피트 상공의 송신소를 거쳐 안양서국민학교로 날아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관교사와 기자들도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충천연색 영상이 브라운관에 가득 찼다. 기자들의

23 | 당시에는 가장 큰 화면이었다. 시험방송을 위해 칠판 왼쪽에 TV수상기가 자리를 잡았다.



1974년 10월 티콤기구 모습

1973년 12월 충북 제천시 봉양면 현박리에 티콤 송신소가 설치되었다.

24 | TV학교방송의 제작예산은 1,300만 원이었다. 국영TV의 특별회계예산인 8억 2,000만 원 가운데 배당 받은 금액이었다. 제작 담당인원은 총 13명이었다. 이들의 사명감은 대단했는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예산 때문에 채널이 어렵더라도 '제작시스템만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터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면 속에서는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처음 보는 컬러TV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중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했으나 시청 후 이루어진 토의는 매우 활발하고 진지했다.

한편, 이날 공개수업은 체육과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시행되었다. 특히 5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산수 수업은 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공개방송 이후, 남덕우 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 시험방송 중인 컬러TV 교육방송은 늦어도 1976년 3월까지 개국될 것입니다. TV를 통한 교육은 수업방법에 있어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일반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교육의 측면에서도 그것은 획기적인 일임에 분명했다.²⁴⁾

KEDI의 컬러TV 교육방송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수많은 비디오테이프가

우면동 청사에서 제작되었다. KEDI는 우선 15개 시범학교를 선정했다. 평균 세 학급당 한대씩 컬러TV 수상기를 제공했다. 1978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컬러TV로 교육방송을 시행한다는 것이 분명한 목표였다.

표류되고 만 티콤사업

1976년 3월 15일, 서울 시내의 15개 국민학교에서 시범방송이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이며 TV브라운관에 눈을 모으고 있었다. 12시 정각이 되었다. TV 화면에 잠음 소리와 함께 뿌연 화면이 나타났다. 처음에 환호성을 질렀던 학생들의 기대는 조금씩 허물어져갔다. 화면은 너무 흐렸고, 중간 중간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KEDI는 즉시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티콤사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일 경우에는 방송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해 봄부터 이듬해인 1977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험방송이 재개되었다. 결과는 더 좋지 않았다. 강풍으로 인해 케이블이 끊어져 기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폭설로 인해 기구 자체가 추락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1977년 2월 6일, 문교부·문공부·체신부·KEDI 등 관련기관의 대책회의가 열렸



TV 프로그램 제작 현장

다. 이 자리에서 티콤에 의한 교육방송 송출은 실패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해 8월 19일,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티콤사업의 종료 처리가 결정되었다.²⁵⁾ KEDI는 1977년 9월 10일, 시공사인 웨스팅하우스와 티콤에 전액배상을 요청했다. 티콤은 9월 하순에 부사장을 급파, 원인규명에 나서는 한편 문교부 관계자들과 배상 액수를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 2월 18일, 문교부는 티콤으로부터 총액 1,308만 9,000달러를 배상받는 데 합의했다. 현금 250만 달러와 1,058만 9,000달러 분량의 방송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방송기자재와 250만 달러는 후일, 교육방송의 송출과 제작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전량 KBS로 이관된다. 당시 티콤으로부터 받은 방송장비를 바탕으로 KBS는 최고의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TV교육방송이 다시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1980년의 일이었다.

25 | 각 언론들은 티콤사업의 실패를 두고 문교부와 KEDI를 정면 비판했다. 하지만 언론의 주요 논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전제로, 사업의 계속성을 당부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KEDI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26 | 동아일보 1977년 10월 6일자

3. 산고, 뒤이은 희망

불완전한 그러나 유일한 대안

1977년 10월 5일, 문교부에서 문공부·KEDI·KBS·기타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비록 웨스팅하우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으나, 그간 들여온 공력을 생각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KEDI 연구원들이 제작한 1만여 편에 이르는 시청각 교재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그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오갔다. 남은 대안은 이전에 검토했던 마이크로웨이브 중계방식이었다. 각 기관의 입장은 제각각 달랐다. 그나마 서로 다른 생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송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날 협의된 사항은 후일인 1990년 EBS 개국 이전까지 교육방송의 명운을 결정하는 초안이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티콤방식의 개발계획 전환 → 마이크로웨이브 중계방식

- 1978년 새로운 설비 시스템 구축
- 새해 예산 16억 8,000만 원 요청²⁶⁾

실무진은 보고서를 작성, 이를 각급 기관 책임자에게 공식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1977년 10월에 개최된 제57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티콤사업의 공식적인 종료·교육방송 수신방식을 지상방식으로 수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장관들은 이를 공식 화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왔던 티콤 기구를 통한 국내 최초의 컬러TV 교육방송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중계소 건설을 통해 방송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특히 KEDI의 입장은 교육방송의 독자적인 운영이었다. 가장 중요한 편성·프로그램 제작 등 모든 측면에서 KEDI는 철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었다.

결과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산확보라는 난제도 힘겨웠으나 교육방송의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문공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한 차례 실패한 마당에 또 다시 독자적인 방송 송출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교육방송의 당위성만 공유한 채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그나마 그해 12월 27일, 경제장관회의의 중간에 송신망을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 유일한 소득이었다.

교육방송의 삼원화

이듬해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지속되었다. 문교부·문공부의 견해차는 명확했다. 가장 큰 문제는 편성권·전파송출권의 주체 여부였다.²⁷⁾ 그러는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는 끊임없는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예산의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15% 인상되었는데, 콩나물 교실 해소·교원 확충·교과목 연구개발·책걸상 교체 등의 순으로 비중이 주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상당한 예산 증가분이 있었으나 교육방송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다는 것이다. 1978년 7월 26일, 국무총리 지시각서가 각급 기관에 하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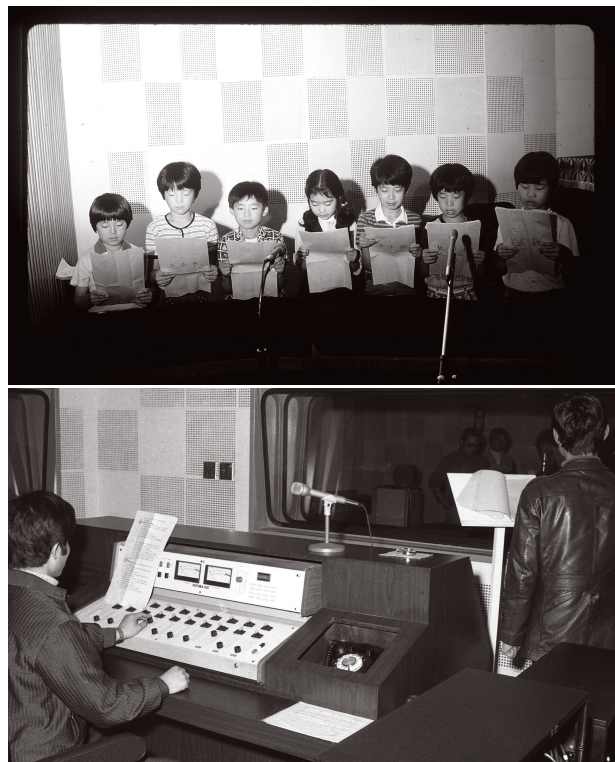
- 교육방송의 기본편성권 : 교육방송 심의위원회 신설·전담
- 세부편성 및 제작 : KEDI
- 송출 :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현장
7

비록 각 부처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나 교육방송의 재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육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쉬웠던 것은 모든 교육인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문공부와 KBS가 추진했던 것은 흑백 교육방송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국무총리 지시각서 하달 이후 사업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해 9월 1일에는 KEDI의 소속직원이었던 송신 기술요원 36명이 KBS로 이적했다. 10월에는 KEDI의 무선국 가허가가 취소되었다. KEDI가 도입했던 UHF TV 1개 망과 FM라디오 송출장비가 KBS로 이관되었다. KEDI는 이로써 방송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79년 4월 1일에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배상받은 장비를 KBS와 KEDI가 분할하는 데 합의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인 4월 14일, KBS는 티콤으로부터 받은 방송장비를 주축으로 UHF 방송의 전국 송신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해 7월 21일에는 대통령령 9545호에 의거하여 교육방송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방송망 설치 등 난제는 여전했지만 교육



28 |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인 1979년 12월, 문교부장관 · 문공부 장관이 바뀌었다. 이듬해인 1980년, KEDI원장도 교체되었다. 새로 임명된 홍용선 원장은 취임 직전인 1980년 6월, 업무진단반을 구성, KEDI업무를 전면 조사했다. 그 이후, KEDI 개혁의 임무를 띠고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29 | 동아일보 1980년 2월 8일자

방송은 곧 시행될 것처럼 보였다. 누구도 교육방송이 다시 난국에 빠지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²⁸⁾

사업주체 변경

1980년 2월 8일 오전, 최규하 대통령이 문교부를 초도순시했다. 뒤이어 오후에는 문공부를 찾았다. 보고 말미에 장관은 '교육TV 방영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600편 제작하고, 이를 위한 시범학교를 시·도별로 1개씩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문공부의 보고 가운데 핵심은 교육방송의 시행에 있었다. 특히 공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문공부 이수정 공보국장은 교육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그동안 TV교육방송을 놓고 문공부와 문교부 간에 이견이 있어서 실시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으나 최근 교육방송을 조속히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아 내년 초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공보국장은 또 "올해 필요한 교육방송 시설을 모두 갖추고 내년 초부터 KBS가 전담하여 교육방송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²⁹⁾

10·26 사태 이후 교육방송의 운영 주체는 이처럼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전까지 송출만 전담하는 것으로 역할이 한정되었던 KBS가 편성 책임까지 도맡아 운영하는 형식

TV 프로그램 제작 현장



으로 변경된 것이다.

실제로 그해 2월, KBS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제작을 담당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위해 KBS는 5차례에 걸쳐 방송전문가·YMCA·가족계획협회·대한적십자사 등 사회 각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이 간담회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협의되었고, 1980년 봄부터 시청자들의 학습요구를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갔다. 학습요구 조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되었는데, 직업별·계층별·연령별로 이를 세밀하게 실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여러 이유 때문이긴 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TV학교방송의 시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1980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본격적인 교육방송은 결국 이듬해로 시행이 연기되는 비운을 맞이한다. 이때부터 TV학교방송은 KEDI가, 사회교육방송은 KBS가 담당하게 되는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TV과의, KBS 시행

1980년 벽두부터 우리나라는 과외열풍에 휘말렸다. 1980년의 과외비용은 3,300억 원으로 문교부 1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³⁰⁾ 비공식 집계까지 합한다면, 문교부 전체 예산을 상회하는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이야기였다.³¹⁾

정부도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열기를 예의주시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초도순시에서 문교부는 '대학정원의 대폭 증원·교육세 신설·교육TV방송의 조속 시행' 등을 보고하고 과외근절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더 확대되어 급기야 사회문제로까지 번져나갔다.

과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문공부는 1980년 4월 20일, KBS로 하여금 대입 과외방송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1981년 교육방송의 전면적인 시행까지 기다리기에 과외와 사교육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³²⁾ 이 방송은 시청각교육의 의미,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다. 철저하게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막는다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런 연유로 대다수 언론에서는 'TV가정고교'라는 용어 대신 'TV과의', 'TV대입과의'라고 부른 것이다.³³⁾

KBS는 예산확보와 동시에 강사진 섭외를 추진했다. 문공부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KBS가 최종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국어·영어·수학 등의 세 과목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와 KBS의 이러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놀랄만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방송시간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심야시간대를 피해 줄 것을 요청

30 | 조선일보 1980년 6월 25일자

31 | 후일 집계된 바에 따르면 당시 개인별 과외비용은 평균 19,400원이었다. 중·고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많아져, 매월 10~15만 원, 대입시험 직전의 집중지도는 100~400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1985년 4월 11일자

32 | KBS의 교육방송 시행이 발표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넓히기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독이나 대입시험 위주로 진행되는 고교교육이 이러한 TV대입 강좌로 더 악화되는 역작용도 우려된다.(연세대 이형행 교육학과 교수)'
동아일보 1980년 4월 21일자

33 | KEDI 10년사·20년사 모두 우리나라 TV교육방송은 곧, '과외방송'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라고 기록했다.



34 | 초기 계획은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였다.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으려면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다.

35 | 교재는 매월 50만 부가 발행되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1,800원이었다고 한다. 발행처는 KBS사원상조회였다.

36 | 국어 백영근·박종호, 영어 채영기·이광웅, 수학 목영부·이택 선생 등이 처음 방송을 맡았다. 성동공고 수학교사였던 목영부 선생만이 현직교사였다.

37 | KBS는 방송 직후, 서울 509명·지방 589명을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했다. 고3의 경우 89%·고2의 경우 62%로 나타났다. 서울은 무려 96.1%에 달했다. 시청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도 24%가 TV가 없어서 보지 못한 경우였으므로 거의 대다수 학생이 본 셈이었다.

38 | 교육개혁조치 발표 이후, 맹주선 서강대 교무처장은 TV에서 다음과 같이 그 충격을 전했다. "7·30 교육개혁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오던 누적된 고통과 체증을 한꺼번에 해소하려는 방안 같습니다. 개혁안이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당황과 혼란이 예상되는데 우선 마음의 충격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는 등의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³⁴⁾ 그뿐만이 아니었다. 6월 11일에 서점에서 발매된 교재³⁵⁾는 50만 부가 전량 매진되었다. 예상했던 15만 부를 훨씬 넘어서는 결과였다. 그만큼 TV교육방송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다.

1980년 6월 1일, KBS는 TV과외방송을 시작했다. 최종 확정된 방송시간은 밤 11시 10분부터 새벽 0시 40분까지 1시간 30분이었다. 시청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오전 5시부터 재방송했다. TV과외방송의 영향은 갈수록 커졌다. 방송 시행 직후, 강남 지역의 사설학원 수강률은 20% 가까이 하락했고 방송교재 판매도 70만 부로 늘어났다.

방송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다. 처음 KBS의 발표와는 달리 강사진은 대개가 현역 학원 강사들³⁶⁾이었다. 내용 또한 학원 강의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각 신문사들이 이 돌풍에 대해 사설로 논평할 정도로 시청률은 대단했지만³⁷⁾ TV로 보는 학원 강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폐해를 줄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교육계의 시각은 그렇지 못했다.

이 방송이 곧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었다. 정부가 후일, 방송 제작을 교육전문가들인 KEDI에 이관하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국보위의 교육개혁

1980년 5월 31일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발족하고 일련의 강압통치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해 6월부터 시작된 국보위의 정책은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다.³⁸⁾ 특히 7월 30일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교육방송 시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국보위 대변인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981년부터 본고사 폐지, 내신성적·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
- 고교 이하 교과목수 축소·교육과정 수준 하향평준화
- 대학 졸업정원제 시행
- 대학 강의 전일 수업제 시행
- 대학진학 문호 개방·10만 5,000명에 이르도록 증원
- 현행 TV가정고교방송의 운영 개선·방영시간과 대상과목 확대
- 1981년부터 UHF 방식의 교육전용방송 시행
- 방송통신대학 확충·교육대학의 이수연한 연장

39 | 매일 2시간 30분씩 KBS가 프로그램을 우선 송출하고, 익일 새벽에 MBC가 이를 재방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MBC는 민간방송임에도 공익을 위해 교육방송 시간에는 광고를 넣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보위의 조치 가운데 눈길을 모은 것은 당시 KBS가 시행하던 TV가정고교 방송을 그해 9월 1일자로 KEDI에 이관한다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1981년에 교육전용방송을 시행한다는 계획은 이미 1979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나, 이미 운영하던 교육방송의 KEDI 이관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조치였다.

1980년 8월, 문교부·문공부·KEDI·방송통신대·KBS·MBC 등 방송 및 교육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후속조치가 논의되었다. 세부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시청권 확대 조치 : KBS·MBC에서 방송³⁹⁾
- 방송 제작 : KEDI
- 방송과목 확대 : 국·영·수 등 3개 과목에서 정치·경제·국사·윤리·생물·물리·화학·지구과학 등 8개 과목 추가
- 방송대상 확대 : 고3에서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
- 방송성격 변경 : 과외방송에서 보충·심화수업으로 변경
- 강사진 변경 : 학원 강사에서 교수·현직 교사로 변경
- 교재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제작

KBS의 TV가정고교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거의 해소되는 방안이었다. 1980년 9월 1일, KEDI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TV 고교 교육방송>이 전국에 방영되었다. 티콤사업 실패 이래, 무려 7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교육전용방송망 구축

1980년, KEDI는 교육전용방송국 개국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갔다. 10명으로 구성된 KEDI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매달렸다.

이전에 제작되었던 프로그램과는 질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티콤사업 이전까지만

40 | UHF 채널은 VHF에 비해 일반적으로 소리와 화면이 깨끗했다. 주파수의 파장이 짧고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파나 인공위성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았고 송신전파가 원거리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41 | ITV와 ETV는 각각 Instruction TV강의, Educational TV강의의 약자였다. 문교부는 ITV 원리를 내세웠고, 방송인들은 ETV의 성격을 보다 강조했다.

해도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대신’ 하는 수요 대체의 기능이 강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제작된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보완’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방향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KBS도 전국적인 송수신망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UHF⁴⁰ 형식의 방송이었으므로 만전을 기해야 했다. KBS는 16개 시·도 인근의 산 정상에 송신시설을 새롭게 설치, 연말까지 송수신망 구축을 완료했다.

1981년 1월 12일에 다시 문교부·문공부·KEDI, KBS·MBC 등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확정했다. KEDI와 KBS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50대 50으로 나누어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KBS는 성인 및 일반교양방송을, KEDI는 유아 프로그램 및 학교방송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송출은 전량 KBS에서 담당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교육방송을 전담할 FM라디오 채널도 새롭게 확충하기로 했다. 점점 교육전담 방송국의 기틀이 세워지고 있었다. 비록 완전히 독립된 형식은 아니었지만 KBS 제3TV라는 교육전용 채널의 신설은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임에는 틀림없었다.

교육방송의 ‘정체성’ 과 ‘목표’ 확립

새로운 시작을 앞둔 교육방송, 그것은 틀림없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갈등의 출발이기도 했다. 1980년 이른바 ‘TV과외방송’을 UHF 방식으로 시작하기까지에는 기술과 정책, 그리고 예산 등 모든 부문에서 갈등과 고초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랜 논의과정 속에서도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은 두 가지 사항이었다. 첫째, 방송으로 수업을 대신할 경우의 역할과 규모의 문제, 둘째, ‘순수한 교실수업 방식인가? 확대된 보완의 방식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가 그것이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 대립된 논의는 다음과 같았다.

- ITV : 섬이나 산악지대 등 외진 학교에는 도시에서 시행된 우수한 수업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전송·수신하도록 한다.
- ETV : 비록 서툰더라도 교육의 필요한 부분을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육으로 이행하고 방송에 적합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성한다.⁴¹⁾

기술적인 실험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될 무렵, 다행스럽게 이러한 논의는 의견의 접근을 보게 되었다. 후자인 ETV가 보다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교육방송이 처한 환경 때문이었다. ‘학교방송’은 KEDI에서 담당했지만, 일반인 대상의 ‘사회교육방송’은 KBS가 맡게 되면서, 방송인들이 편성권을 가졌기 때문이

다. 실제로 KBS는 KEDI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 모두에서 교과서의 범위를 지키도록 했다.⁴²⁾ 한편, KEDI 방송담당자들은 교육방송의 '정체성'과 '목표'를 찾아내는 연구를 병행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알맞은 구성방법은 개발되지 않았기에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 정치 언론학자 슈람(Wilber Schramm)이 주도한 미국령 사모아의 학교방송
- 호주의 사막에서 실시되는 단파 원격교육
- BBC가 운영하는 영국의 방송대학
- 맞춤형 제작소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는 캐나다의 방송학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끝에 KEDI는 '교육대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수업방식, 또는 수업을 보완해 주는 창의적 방법의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혹은 통제기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교육현장에서 연구·제작에 책임을 지는 운영자들이 독립적으로 기획해야 옳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이후 교육방송의 책임과 자율성이라는 지향목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KBS 제3TV의 시작 ⁴³⁾

1981년 2월 1일⁴⁴⁾ 오후 5시, 문교부장관·문공부장관·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여의도 KBS로 모여들었다. 그들 앞에는 대형 TV화면이 놓여 있었고, 채널번호는 43번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초조하게 흘러갔다. 5시 29분이 되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 시각, KBS 송신소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시곗바늘이 5시 30분에 당도하자 관악산 송신소를 거친 고주파 전파가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각 가정으로 향했다. 선명한 컬러 화면이 모습을 보였다. KBS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손을 맞잡았다. 그날 각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방송이 시작되었다.

- 5시 30분 방송안내 : 제3TV 교육방송 소개
- 5시 50분 개국특집 : 학교방송은 이렇게
- 7시 고교교육 : 국어·영어·수학·윤리·국토지리

42 | 고교의 과외방송 외에 모든 초·중등 대상 프로그램에 근거가 되는 교과서 쪽수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방침은 1980년대 초에 상당 기간 시행되었다.

43 | 원 계획은 3월 첫 주 월요일, 개학과 함께 방송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험방송 성공 이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빠른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문교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2월 첫 주 월요일에 방송이 시작되었다.

44 | FM라디오는 그날 오전 6시부터 방송이 시작되었다. FM방송 주파수는 104.5MHz였다.

- 9시 30분 특별기획 : 교육방송은 무엇인가
- 11시 TV공개대학 : 한국사상의 형성과 전래

이날의 방송을 시작으로 교육방송은 마침내 긴 시간 동안의 표류를 마감하고, 공식적인 새 장을 열게 되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의 홍웅선 원장은 TV교육채널의 독립적인 운영에 대해 이런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독립채널에 의한 교육방송 실시는 교육사로 보나, 방송사로 보나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방송은 전 국민을 평생교육의 혜택권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또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략) 컬러TV에 의한 교육방송의 매체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일선교사의 숨결이 뻗 수업보다야 클 리가 없겠으나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 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⁴⁵⁾

각 언론들은 교육방송의 미래가 중요하며 일제히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이례적으로 많은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교육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TV교육방송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특히 완전한 독립된 방송이 되지 못했음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1980년대 내내 제기될 문제인 편성과 제작 불일치 문제는 방송 시작과 동시에 사회 각계에서 우려했던 문제였던 것이다.

현재 부각된 문제를 한두 가지 지적한다면 교육 프로그램을 KEDI와 KBS가 이원화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교육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KEDI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일원화해서 전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며, 공개대학 강의가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이 있는데 영국 BBC나 일본 NHK 교양강좌처럼 강의내용이 책으로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의의 격조를 높여 주길 바란다.⁴⁶⁾

오랜 산고와도 같이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태어난 교육방송,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이라 불릴 만한 것이었다.

4. 어둠 속의 빛, FM학교방송

교육방송의 명맥을 이은 FM라디오

TV학교방송과는 달리 라디오를 활용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중앙시청화 교육원으로부터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한 KEDI는 라디오가 미치는 교육 효과에 주목했다. 별다른 여가시설이 없던 시절에 라디오 방송은 청소년들의 친구로 각광 받



1982년 라디오 공개 녹음 현장

던 매체였다.⁴⁷⁾

KEDI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KBS 사회교육 방송망(970kHz)을 통해 하루 3시간 방송했다. 당시의 방송은 문교부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선정되었는데, 해당 과목은 국민학교 4개, 중학교 1개였다.⁴⁸⁾

부족한 예산과 시간 속에서 KEDI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어온 과정이었으나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었다.⁴⁹⁾ 그나마 KEDI의 노력 덕분에 일정 수준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것이 위안거리였다.

라디오 학교방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시대적인 환경 탓이 컸다. 방송의 기능이 '다양한 시청각 자료 개발·활용'에 있었던 데 반해 라디오는 청각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라디오 학교방송은 TV에 비해 상대적인 관심도가 적었다. 기본적인 과목에 체육·미술 등의 과목이 추가된 것은 제3차 시범학교 종합시험이 행해졌던 1977년의 일이었다.

특히 그해부터 KEDI는 새로운 학습방법 개발·다양한 청각교육안 도입 등 이전까지와는 다른 시도를 지속해나갔다. 그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시도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학교현장의 참여 유도 : 공개 프로그램 <우리 우리 다함께>⁵⁰⁾ 신설
- 실제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 <어린이 마을>⁵¹⁾
- 학부모를 청취대상으로 확대 : 교사와 학부모의 시간 편성
- 1일 편성의 특징 고려 : <파랑새 퀴즈> 신설

47 | 1974년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여가선용 방법으로 라디오 청취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무려 26%에 달하는 학생들이 여가선용·교육 등의 목적으로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향신문 1974년 3월 2일자

48 | 국민학교(음악·국어·도덕·국사), 중학교(영어)

49 | 1974년 KEDI가 라디오 학교방송을 인수한 이래, 독립적인 채널망이 구성된 1981년 2월까지 방송시간은 하루 3시간에 불과했다. 그 시절, 방송제작은 KEDI가 담당했고 송출은 KBS가 맡았다.

50 | 일선학교 탐방 프로그램

51 | 공상과학 프로그램과 그 밖에 혼합형 프로그램을 통합했다.

52 | 조사대상 학교는 전국 6,426개의 국민학교였고, 응답학교는 4,979개였다. 이 가운데 241개 학교가 교육방송을 수업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일부 교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활용하는 학교는 19.8%인 984개 학교였다. 이 모두를 합쳐도 24.6%에 불과했다.

53 | 방통고 프로그램 1편의 강사 강사출연료는 5,000원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인문계 고교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기초학력이 없다면 애초 수강이 어려웠다. 교재분량도 너무 많아 짧은 방송강의로는 다룰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한편, 1979년 들어 티콤사업의 실패가 회자되자 라디오 학교방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KEDI는 요원한 TV학교방송 사업을 일단 중단하는 한편, 라디오 학교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의 보충수업이 가능하도록 편성에 변화를 꾀했다. 1979년 7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특별방송을 제작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방송은 당시 학생들에게 배포된 교재 '탐구생활'을 함께 풀어가는 형식이었다. 해마다 라디오 교육방송에서는 특별방송을 시행해서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티콤사업의 실패로 교육방송 전반에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KEDI의 노력 속에서 라디오를 통해 교육방송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라디오 학교방송, 실효성 논란

1974년부터 197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라디오 학교방송은 큰 성과를 남겼다. 그 사이 제작된 프로그램은 2만여 편에 달했다. 문교부와 KEDI는 더 나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학습효과 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한편 KEDI는 라디오 학교방송에 대한 학습 효율성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우수했으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KEDI 조사에 따르면 전국 6,426개 학교 가운데 교육방송을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부분적으로 방송을 참조하는 경우를 포함해도 25%를 넘지 못했다.⁵²⁾

수신을 저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도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전파를 이용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1979년에 KED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못 들을 때가 더 많다'는 학생들이 20.1%에 달했다. '절반 정도 듣는다'는 의견은 39.6%. 모두 합해도 약 40%의 학생들은 거의 듣지 못한다는 결과였다.⁵³⁾

강의내용의 질적인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강의내용이 각 교과목별로 15분 정도 밖에 할애하지 못함으로써 중요개념과 원리만 훑고 지나간다는 한계, 지나치게 낮은 강사 출연료 등으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조사결과였다.

KEDI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다. 독립 교육방송채널 확보, 녹음테이프 수업 활성화, 전담교사 확보, 가칭 한국통신교육원 설립, 처우 개선 및 장학금 지급 등이 그것이었다.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으나 교육전용 채널이 구축된 이유는 방송통신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덕분이었다.

FM라디오 전용망 구축

1980년 정부는 TV학교방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전문방송국 설립을 서둘렀다. KEDI의 제안처럼 교육전문방송국의 설립만이 유일한 해결대안이었다. 언론과 교육계의 관심은 UHF채널로 방영되는 TV에 모아져 있었으나, 일선학교에서는 FM라디오 개국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개국일은 1981년 2월 1일이었다. 오전 6시에 FM라디오는 KBS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새로운 방송국 개국이었으나 명칭과 송출의 변경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후부터는 KBS 제2라디오로 불리게 되었다. 방송시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본방송이 이루어졌고, 오후에는 1시간에 걸쳐 다시 재방송되었다. KEDI는 교육전문방송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방송이 나간 이후, 교육 FM라디오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경향신문은 라디오 교육방송의 개국을 이렇게 소개했다.

KBS 제2라디오라고 부르며, 현재의 KBS 제2라디오방송과 상당 부분의 프로그램을 강의 시간에 연결·운용케 된다. 국민학교 대상 학교방송은 매일 3시간에서 5시간으로 연장·강화하여 매일 아침 10시부터 방송한다. 각급 학교 대상 프로그램 외에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신설, 밤 8시부터 방송하는데 각급 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역시 KEDI가 제작을 맡게 된다. FM 전파로 발사되는 교육 라디오는 지역성이 강하고 전파에 잡음이 없으며, 음질이 뛰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중파에서 FM 개념으로 변천하는 추세다.

KEDI는 상대적으로 송신지역이 넓은 FM 채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제작을 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5. 교육방송, 신화의 시작

교육방송의 '전문성' 확립

교육방송이 시작되었다. 비록 출발은 'TV과외방송'이라는 형식이었으나, 방송 담당자들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다. 기술적인 난관이 해결되고 점차 시청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상적인 교육방송⁵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의 재구성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교육전공자나 교육학에 조

54 | '정상적인 교육방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 기존 방송의 일반적인 성향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 제한된 시간 속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방대한 학교수업을 흥미롭게 보완해주어야 한다.

55 | 특히 미개척 분야였던 유아 및 미취학 어린이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제작은 경험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전문 연구원과 프로듀서가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제작이 이루어졌다.

56 | KEDI가 담당한 평일 시간대는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오후 10시부터 11시로 한정되었다.

예가 깊은 사람을 방송제작자로 선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방송 프로듀서가 학교업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모든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방송 프로듀서와 학교교육 전공 연구원들을 모두 참여시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⁵⁵⁾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었기에 여러 나라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교육방송은 이 시스템을 보다 확대시켰다. 2년에서 3년 정도의 공동제작 이후, 방송 제작자와 연구원들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제작자들은 교과목의 내용선택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으며, 반대로 교과목 연구원들은 프로듀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 두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에는 갈등과 논쟁을 유발했지만, '흥미로우면서 유익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새로운 방법이 된 것이다.

텔레비전 유치원의 시작

출범 이듬해인 1982년, KEDI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수신시설 상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송신체제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발생했다. KEDI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프로그램 내용을 학교진도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었다. 게다가 방송시간대 또한 저녁시간대 2회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⁵⁶⁾ KEDI는 보충학습과 심화학습을 함께 배려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편성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1987년 12월 8일
교육방송 기술인협회 창립 총회





〈텔레비전 유치원〉 제작 현장

- 유아교육 : 흥미 유발을 위한 종합구성 ·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한 내용 전개
- 초등교육 : 2시간이라는 시간 제약을 고려하여 저학년 · 중학년 · 고학년 구분⁵⁷⁾
- 중 · 고등교육 : 기초학력의 폭넓은 보충교육으로 구성

현실적인 제약을 이겨내기 위한 편성이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하교 이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의 방송시간이었다. KEDI는 이를 유아교육에 할애하기로 결정하고 새 프로그램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텔레비전 유치원〉이 바로 그것이다. 하루 20분간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1981년 5월 23일, 토요일 오전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MBC는 〈뽀뽀뽀〉를 25분 동안 편성했고, KBS는 2TV를 통해 〈개구쟁이 철이〉, 〈어린이 위인전〉, 〈아기체조〉, 〈꿈나라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히 MBC의 〈뽀뽀뽀〉는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왕영은, 이용식 등은 그 프로그램 진행자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짧은 방송분량이었지만 어린이는 물론,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시청률 하락과 그 원인

교육전문방송국의 출범은 상당한 의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이원화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상급 정부부처도 제각각 달랐으므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었다.⁵⁸⁾

1983년부터는 방송통신대학의 일부 프로그램을 KBS에서 제작하다가, 방송통신대학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로써 이전까지 이원화되었던 방송은 한층 더 복잡한 구조로 변경되었다.

57 | 국어 · 산수 · 사회 · 자연 등 기본과목과 예체능 · 실과 · 특별활동 등으로 구분 제작했다. 기본과목은 학교 교과과정에 중심을 두었고, 나머지는 가정학습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58 | 교육전문방송국 개설 당시 원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문교부 : KEDI · 방송통신고등학교 · 방송통신대학 → 학교교과 프로그램 제작
 문공부 : KBS → 사회교육방송 제작 · 전체 프로그램 송출

59 | 당시 교육방송의 총 방송시간은 54시간 30분이 었다. 합의사항은 KEDI와 KBS가 50대 50의 비율로 제작·송출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이 비율을 거의 유지해서 KBS가 48.7%, KEDI가 51.3%의 시간을 할당받았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KBS가 33시간으로 60.5%를 차지했고, KEDI 담당은 21시간 30분으로 축소되었다.

60 | 교육방송은 물론이었고, 일반방송에서도 잦은 편성 변화가 있었다. 1981년과 1982년 사이의 1년 기간 동안 KBS 2TV의 경우 7차례에 걸쳐 편성을 변경했다. 지나친 시청률 경쟁·광고사업에 매달린 결과라며 각 언론들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중앙일보 1982년 2월 6일~30일자

61 | UHF 채널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이유도 있었다. 1975년 이후부터 생산된 TV는 기본적으로 UHF를 시청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고, 조작방법도 달랐다.

- KEDI : 유아·학교교과 프로그램 제작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방송통신대학 교과과정
- KBS : 사회교육방송·전체 프로그램 송출

삼원화된 시스템은 역효과를 초래했다. 기관 간 마찰이 표면화되었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잦은 시간대 변경·재방송 프로그램의 송출시간에 대한 이견 등도 기관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 KEDI와 KBS 사이에서 일어난 제반 합의사항은 수 차례에 걸쳐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 1981년 2월 : 50대 50의 비율로 방송편성 시작⁵⁹⁾
- 1981년 6월 : 6시간 분량의 일요일 재방송 프로그램, KBS가 5시간 30분 담당
- 1981년 11월 : KBS 1TV 교과 프로그램 평일 재방송 시작
- 1981년 12월 : 일요일 교과프로그램 KEDI분 30분으로 제한
- 1982년 12월 : MBC 교과 프로그램 평일 재방송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
- 1983년 3월 : 라디오 학교방송 1시간 단축

2년 사이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편성 시간대 변경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다. 갓 개국한 채널에서의 잦은 변화⁶⁰⁾는 '지속성'을 두고 오랜 시간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교육방송에게는 특히 큰 제약이 되었다. 개국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저조한 활용도를 보인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UHF 방송 가청권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었다.⁶¹⁾ 게다가 컬러 TV의 보급률도 여전히 부족해서 학생들의 TV시청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1982년과 1983년의 컬러TV 보급률은 17.1%·40.5%에 불과했다. 이 시기 TV교육방송의 시청률은 11.3%·27.1%에 그쳤다. TV보급률과 시청률의 동반 상승은 곧, 수상기의 보유 여부가 교육방송의 효율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실제로 1984년과 1985년 TV보급률이 74.4%·78.5%로 상승하게 되자, 시청률도 32.7%·36%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비록 시청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TV방송의 교육적인 활용도는 증가했다. TV 수상기 미비와 난시청 지역 때문에 저조한 시청률을 보완하기 위해 자료복사실을 확대 운영한 덕분이었다.

난관 속에서 피어난 희망

1974년 이래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 지 10년이 된 시점이었던 1984년 KEDI의 상황



1982년 TV 프로그램 제작 현장

은 초기보다 더 열악했다. 그해 방송제작비는 연간 7억 원에 불과했다. 교육방송용으로 배당된 KBS 예산이 90억 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여건이었는지 짐작 가능하다.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교육방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되었다. KEDI 주관 하에 열린 각종 세미나, 각급 교육단체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 독립된 교육방송국
- 예산의 독립 운영
- 방송 송출권 보유
- 가시청권 증대를 위해 채널 방식 변경

교육방송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시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KEDI는 UHF 채널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VHF 채널의 할당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당시 정부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 개최를 앞두고 막대한 시설 투자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육방송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KEDI를 중심으로 학계가 모여 한국 교육방송연구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1985년 9월 25일의 일이다. 이들은 후일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독립 교육방송국의 설립 여론을 환기해 나갔다.

62 | 국가기록원, 1980년대 교육정책

63 | 1985년 7월, 사회정화위원회에서 경인지역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97%의 국민들이 과외금지선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경향신문 1985년 11월 14일자

64 | 동아일보 1984년 12월 17일자

보충학습의 대안, 교육방송

1980년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핵심은 망국병인 과외 근절, 공교육 확립⁶²⁾으로 규정된다. 과도한 사교육 비용 때문에 이 정책은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⁶³⁾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의 보충학습도 전면 금지되었고, 사교육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1982년부터 각급 학교마다 1~2개 과목에 한해 시행되었던 보충수업은 1983년에 전체 학생의 20% 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일선의견이 개진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적어도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두 팔 걷고 나섰다.

1984년 4월 6일, 문교부는 각 시·도 학무국장회의를 열고 '중등학교 자율학습 보완 및 방학 중 보충수업 운영방안'을 시달함으로써 교내 보충수업을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일선학교에서는 보충수업과 학교교과의 경계를 두지 않고 진도 위주의 학습계획을 시행, 곧 파행이 이루어졌다.

문교부는 결국 1984년 11월 19일, 전국시·도교육위원회 관계관회의에서 겨울방학 기간 중 보충수업 폐지방침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정은 교육방송의 역할 증대를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날 하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방학 중 보충수업 전면 폐지
- 교육방송망을 활용하여 보충수업 방송 시행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개발
 - 17:30 ~ 20:00, 22:00 ~ 23:00 하루 총 3시간 30분
 - 국민학교, 중학교 전 학년 대상 및 고교 1·2학년 과정
 - 프로그램 개발은 KEDI 전담
- UHF 난시청 지역에서는 보충수업 허용

KEDI는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약 한 달간 겨울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방송 프로그램 안내 및 활용지침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교육방송의 입장에서 이것은 대단한 호기임에 분명했다. 방학숙제가 '교육방송의 시청'이라는 점은 방송교육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언론은 'TV교육방송 시청이 방학숙제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시청률이 매우 낮았고, 학교 활용도가 매우 낮았던 교육방송이 별안간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⁶⁴⁾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KEDI는 열과 성을 다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나섰다.

KEDI의 노력 끝에 만든 교육방송 프로그램은 교육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교육방송 시청률은 무려 52%에 달했다. 이후부터 문교부와 KEDI는 주입식 지식전달방식을 지양하는 한편, 보충학습 성격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실험, 그리고 질적 개선

KEDI는 교육방송이 학교현장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산간벽지 학교에 VTR 플레이어를 기증했으며, 별도의 상담실을 두어 자료복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다. 이를 계기로 점차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교육방송 프로그램 또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KEDI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출장녹화 기록을 세우는 등 구성원들의 노력이 보다 심화되었다. UHF 가시청 지역도 크게 늘어나 총 7개 지역의 수신율이 크게 향상되었다.⁶⁵⁾

교재개발과 연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 연구원들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내용 구성에 중점을 두었고, 방송 제작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교육 전문가와 방송 전문가들에 의한 이원적 제작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교교육 방송을 만들어내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1985년부터는 고교 3년 과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야외촬영과 야외녹화를 시행하도록 제작방침을 변경했다. 1986년들어서는 ENG 장비와 차량이 동원되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보다 효율화를 꾀했다. 방송자료실을 중심으로 각종 영상과 음향 자료 관리 등이 체계화되었으며,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들이 가시화되었다.

방송 송출 측면에서도 변화 양상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1987년에는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⁶⁶⁾의 송출방식이 변경되어 일반 VHF 채널로도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도 방송시간을 변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오후 5시 30분이었던 방송 시작 시각이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졌다. 밤 10시 이후에 방송되었던 고교 학습과정도 오후 8시에 모두 종료되도록 조정되었다. 이로써 그간 시청 방해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일반방송의 주시청시간과의 중복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같은 변화의 양상 속에서 교육방송의 VHF채널 전환·교육방송국 독립 논의는 붓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논의가 가속화되었고, 이는 곧 독립방송 EBS의 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

65 | 서울 일부와 삼척·대전·원주·서산·안동·제주 등이 그 지역이다.

66 | KBS의 송출 변경 문제로 채널도 바뀌었다. 1987년 3월 1일, 서울·부천·광명·시흥·인천·수원·안양·의정부·성남·파주·남양주·화성·광주·고양·김포·강화 지역에서는 UHF 대신 VHF채널 13번으로 시청이 가능해졌다.

1987년 <국교도덕>, 1989년 <우리동산> 야외 제작 현장



학교교육 지키기

교육방송의 정착을 위한 개선과 개혁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그 원칙은 교육방송을 학교의 현장에서 활용하되, 이를 앞지르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다 정제된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공교육의 합리적인 유지’가 바로 교육방송의 시행원칙이었던 것이다. 1980년대 내내 교육방송의 내용은 철저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삼았다. 진도는 일선학교의 프로그램에 맞추었다. 공교육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

반면 정부기관과 학생·학부모 등의 요구는 달랐다. 학교 진도와는 상관이 없는 ‘입시 전략’ 차원의 학원식 강의를 선호했다. 교육방송은 과외방송을 요구하는 여러 입장 속에서도 공교육 확립이라는 가치를 꾀꾸하게 견지했다. 학교교육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교육방송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좋은 방안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실행되기 어려웠다. 교사가 강의한 프로그램은 보관 후 학교에서 재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다. 이러한 재사용은 시청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교육방송의 피상적인 접촉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교재와 함께 프로그램 재사용까지 포함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액은 상당했다.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이 수치는 고등학교만 3조 원에 달할 정도였다. 또한 직·간접으로 대입문제출제에 교육방송교재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학교교육 보호차원에서 이를 사전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에도 대학입시의 궁극적인 성공방법은 학교교육의 충실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방송이 추구해온 공교육 보호정책⁶⁷⁾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사기업 출판사가 발행하던 방송교재의 출판이 어려워진 것이다. 교육방송은 일단 한시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한번에 강의했다. 교사선정기준도 바꾸어 우수한 학원강사를 활용토록 했다. 이것은 일단 표시되어 있는 학교진도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수용자의 반응은 상당 기간 뜨겁게 나타났고 프로그램과 방송교재가 학생들에게 다시 밀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방송이 교육책으로 활용한 방법이긴 했으나 그 후 여러 형태의 뉴미디어 활용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편성과 강의방법은 소비자 위주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과외금지 조치의 해금

1988년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억눌렸던 사교육 시장들의 불만이 일거에 터져 나왔다. 과외금지 조치로 된서리를 맞았던 각종 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과외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학력저하 주범이라는 인식이 널

67 | 즉 방송교사는 반드시 학교교사로 충당하고 교재는 실비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급하고, 원하는 학교에 프로그램 테이프를 제공하던 방침

68 | 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1988년 3월부터 14개 학교 교장·교사·학부모 1만1,675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보충수업 전면시행에 찬성사를 표했다. 경향신문 1988년 5월 4일자

69 | 동아일보는 1989년 1월 14일자 기사에서 재학생의 학원수강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의 기사를 게재했다.

70 | 현행 조치 지속·재학생 학원수강만 허용·대학생 과외교습만 허용·재학생 학원수강과 과외교습 허용 등이 제시된 방안이었다.

71 | 그러나 이날 회의결과와는 달리, 중앙교육심의위원회는 방학 중 재학생의 학원수강만 허용하고, 대학생 과외는 삭제한 의안을 상정했다. 회의결과를 정리한 위원장이 국민에게 줄 충격을 고려해 삭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월 25일에는 다시 대학생 과외 전면허용으로 바뀌는 등 혼선이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실제 과외허용 조치는 3개월 후인 1989년 4월부터 시행된다.

리 퍼져 있었고 더 이상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교육을 제한할 상황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자율적인 학습에 대한 갈망은 그만큼 커졌고,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문교부는 우선 가시화된 조치로 보충수업·자율학습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했다. 1988년 5월 4일의 일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학교장의 결정에 의한 자율적인 보충학습 전면 시행
- 학습 자료용 녹화 테이프의 제작 판매 허용⁶⁸⁾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부터 과외허용에 대한 논의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다니는 일이 심심치 않게 생겨났다.⁶⁹⁾ 정부 여당과 문교부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위원회는 몇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었다.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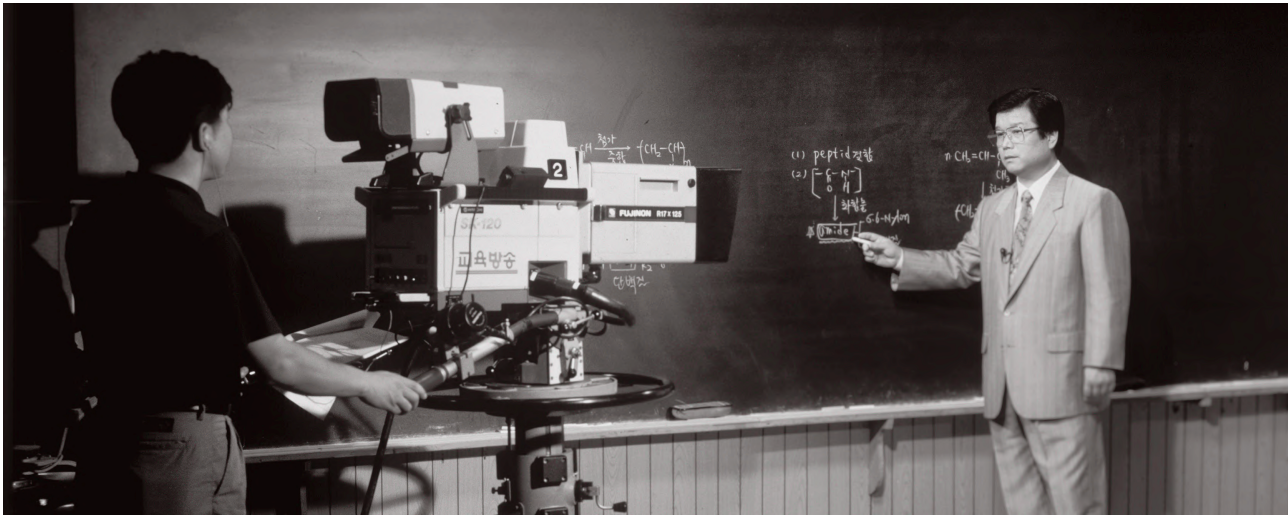
다음 날, 중앙교육심의위원회는 3시간 동안의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정규 수업기간이 아닌 방학 중에는 모든 과외를 허용하되, 현직 교사의 과외는 계속 금지한다'는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과외해금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⁷¹⁾

사교육과의 전쟁, TV고교가정학습

1988년 가을, KEDI는 과외해금이 곧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준비 자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KEDI의 방침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준비해나갔다.

- 정상적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고 효율적으로 입시에 대비하는 가정학습 프로그램 지향
- 원리이해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학습 결손 보전
- 내용의 수준 및 대상은 중상위권 학생으로 설정
- 보완교재·비디오자료 보급방안 마련

KEDI는 우수한 강사 확보를 추진했다. 그러나 일각의 생각은 달랐다. 현직교사들의 차트식 강의로는 시선을 모으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교수법·신선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아니라면 학생들은 곧바로 사교육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KEDI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강사진을 학원 강사에게까지 넓혔다. 그 결과 서한샘 선생·천신일 선생 등 당시 학원가의 최고 스타강사들이 이때 섭외되었다.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1989년 3월 39일 오후에는 경기여고에서 국어와 영어 등 두 과목에 대한 1회분 프로그램의 시사회가 열렸다. 반응은 좋았다.



〈TV고교가정학습〉 방송 녹화 현장
↓

이와 함께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비디오 학습자료도 제작 완료했다. TV방송이 중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 둔 것이다. TV방송의 교재도 발간되어 4월 10일부터 서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공

오랜 논란을 빚었던 과외금지 조치는 마침내 1990년대를 앞둔 1989년 4월 해금되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한 키워드였던 이 조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동시에 1989년 4월 17일 저녁 10시 10분, KBS 제3TV를 통해 〈TV고교가정학습〉이 전파를 탔다. KEDI 임직원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국어 과목의 서한샘 선생이 등장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열강했다. 뒤이어 한양대학교 이대석 교수의 영어 프로그램 〈문장과 동사 유형〉이, 권일춘 선생의 수학 과목 〈집합의 연산〉 강의를 이어졌다. 한 과목당 40분씩 약 2시간 동안의 강의가 방송됐다.

이날의 첫 방송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다음날 집계된 시청률은 밤 10시대에는 8%, 11시대에는 14%를 기록한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었다. 이 시청률은 대입 수험생을 둔 가정의 숫자와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것이었다.

이날 오후 전국의 대다수 학교에서는 TV시청을 위해 자율학습 시간을 단축,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켰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각 교실에서 TV를 시청하도록 했다. TV시청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VTR을 설치, 심야교실을 운영한 학교도 있었다.⁷²⁾ 일부 가정에서는 미처 귀가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 VTR로 학습내용을 녹화했다. 전자제품 대리점에 TV와 VTR을 구입하려는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일부 제품은 품귀현

72 | 서울 태릉고등학교는 2개의 교실에 VTR을 설치, 밤 11시까지 국어·영어 과목을 시청했고, 귀가문제로 수학은 다음날 녹화, 시청했다.
동아일보 1989년 4월 18일자

상을 빚었다. 교재 판매도 예상 밖의 호황이었다. 3개 과목의 방송교재로 30만 부의 초판을 인쇄했는데, 방송 개시 수일 전 매진되었다. 미처 교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재를 복사하느라 학교 일대의 문구점은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8월 14일부터는 국어·영어·수학 외에, 공통 필수과목인 국사·국민윤리와 선택과목인 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사회·지리 등의 교과목도 방영되기 시작했다.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상존했다. UHF채널의 수신 범위 한계·교육방송의 이원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난제들은 해결이 요원한 상태였다. 그러나 서서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TV교교가정학습>의 놀라운 성공을 지켜본 정부·여당이 사교육을 잠재울 유일한 대안이 교육방송임을 깨달은 것이다.

독립된 교육방송국의 설립! 그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염원해온 교육방송국의 꿈, 그 미래를 위해 KEDI의 방송 담당 직원들은 한층 더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1980년대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Chapter.

1999

2

EBS,

교육방송의 꽃을 피우다

1990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우면동 KEDI
사옥에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물려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 방송국이 출발하는
역사적인 자리였다.
임직원들은 한편으로는 기쁨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 속에서 행사를 지켜보았다.
교육전문방송의 출발은 오랜 염원이었으나,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난항을
임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그날 밤, 10년 만에 찾아온 추위와
어울리듯 어둠은 유난히 짙어보였다.



1990년 12월 27일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 개국 현판식
└

1990년 12월 27일
교육방송 개국 축하연
└

1] 개국 작업이 워낙 급하게 진행되었기에 교육 AM라디오는 그날 방송되지 못했다. KBS와 채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 AM라디오는 이듬해인 1991년 9월에 방송됐다.

2]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방송정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공영방송 조직구조 인력개선·공영방송 채널의 과점과 특성화·시청료 징수와 광고방송 문제 개선·교육방송 독립과 효율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13대 대통령 후보 공약집 중에서 발췌

1. EBS 개국

1990년 12월 27일

1990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우면동 KEDI 사옥에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몰려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 방송국이 출발하는 역사적인 자리였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 신세호 KEDI 원장을 비롯한 교육계와 방송계 인사들이 들어섰다. 마침내 행사가 시작되었다. 각계의 축하 메시지가 당도했다. 신세호 KEDI 원장은 '국민과 교육계의 열망을 받들어 망국병인 사교육 시장을 대체하고, 공교육 확립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방송사가 되겠다'고 새 출발의 각오를 밝혔다.

임직원들은 한편으로는 기쁨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 속에서 행사를 지켜보았다. 교육전문방송의 출발은 오랜 염원이었으나,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난항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장 안의 따뜻한 온기와는 달리 건물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임무와 가치가 주어졌다. 당장은 <TV고교가정학습> 등 학교교육 보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보다 활성화시켜야 했다. 자체송출 등 완전한 독립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직원들은 행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각각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후부터 방송될 EBS의 새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그간 KBS의 이름 아래 방송되었던 각 프로그램이 EBS 로고를 싣고 전파를 탔다. 새로 개국한 EBS의 당초 운영 계획은 1개의 TV채널과 AM·FM 등 두 개의 라디오 채널이었다.¹⁾

교육방송, 빠른수록 좋다

교육방송의 독립은 1980년대 내내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1987년에는 여당 대통령 후보가 '교육방송의 재정립'을 공약²⁾으로 내걸었다. 1989년에는 집권당 또한 교육방송국 개국을 위한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한 바 있었다. 모두가 교육방송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교육방송의 독립은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 연유로 KEDI 산하 방송노조와 PD협의회 등 새로

구성된 직능단체들도 독립된 교육방송국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³⁾ 그 결과, 1989년 2월 20일, 문교부는 교육방송의 독립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가칭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⁴⁾

문교부는 '전담교육방송 운영체제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치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가칭) 제정
- 대통령령으로 교육방송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실 · 문교부 · 문공부 · 체신부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위원 임명
- 전일제 TV 및 라디오 채널 각 1개씩 확보
- TV는 1일 16시간, 라디오는 1일 20시간 방송 시행
- 연간 운영비 : 정부 출연금 100억 원, 시청료 · 광고료 등의 공익자금에서 각각 100억 원 출연하여 총 300억 원 자금 확보
- 편성방향 : 평생교육의 체계화 · 학교교육의 보완 · 방송통신학교 교육 보완
- 전파방식 개선 : VHF 송신방식 확대 · 송신시설은 KBS 및 MBC 망 이용
- 개국 : 1990년 6월 중⁵⁾

방송 주무부서인 문공부는 새로운 민방 허용 · 교육방송의 공사화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운영 등 산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89년 4월, 방송제도연구위원회를 창립했다. TV가정학습 등의 영향으로 관심이 높아진 교육방송 등도 토론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위원회에 참석한 대내외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독립된 공사 형태의 방송국 설립에 동의했다.⁶⁾ 마침내 1989년 11월 3일, 민정당 의원입법안 가운데 하나로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 프로그램 제작 : 유아 · 초중고 · 청소년 · 학부모 · 교사 등 대상별 제작
- 종일방송체제 구축 : 학습과 평생교육 모두 전담 · 수업 중 시청 가능
- 방송비율 : 학교교과와 사회교육의 비중을 5대5로 하고, 전량 KEDI 제작
- 예산 : 1차분 373억 원 외 추가분은 방송위원회의 공익자금 출연
- 채널 및 송신 : 서울 · 경기지역은 13번 채널 활용, 지방은 KBS방송망 임대, 서울 경기지역은 KBS와 남산 · 관악송신소 공동사용⁷⁾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었기에 교육방송공사의 창립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3) 경향신문은 1989년 2월 3일자 기사를 통해 내부 구성원과 집권당 모두 독립된 교육방송국 설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기사 가운데 일부다. "KBS 제3TV로 방송되고 있는 교육방송이 분리 독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방송 PD협의회는 교육방송 독립을 1989년 사업목표로 발표했고, 여당인 민정당은 문교 · 문공 · 체신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4) 문교부가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편성 · 제작 · 예산의 이원화로 운영상 심각한 문제
 - 편성권 소재의 불투명으로 방송의 질 저하
 - 종사자 처우의 불균형 초래
 - 1일 방송시간(TV 3.5시간, 라디오 4시간) 부족 등 교육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불가
 - UHF 채널의 수신 상태 불량 등

5) '전담교육방송 운영체제 계획안' 중에서, 문교부, 1989

6) 3TV와 교육라디오는 독립시켜 교육방송공사를 설립, 운영토록 한다. 특히 3TV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는 방송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교육방송의 운영주체는 문교부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교육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보고서 1990.6. p.152

7) 의안번호 65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에서

8] KBS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의사를 밝혔다. "KBS가 1개의 TV채널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600억 원인데 시청료 징수액은 연간 1,000억 원 정도로 1989년 현재 시점으로도 6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KBS의 재정 여건상 시청료까지 교육방송에 충당하면 운영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아울러 "교육방송국의 분권 독립으로 인해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국이 내용과 운영 면에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첨부되었다.

9] 동아일보 1990년 1월 24일자

10] 당시 교육 관련법 중 상당수가 통과되지 못했다. 오직 사학재단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만 통과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교육법·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은 사장되었다가 후일 개정된다.

11] 방송구조개편안, 공보처, 1990년 6월 14일

1990년 12월 27일 교육방송 개국 행사



교육방송공사 vs KEDI 부설 교육방송

순항하는 듯 보였던 교육방송공사의 설립이 소용돌이에 빠진 것은 타 기관의 반대 때문이었다. 문공부와 KBS 등 관련 부서 및 기관들은 법안 발의 직후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KBS의 반대사가 거셌다. 1989년 11월 30일, KBS는 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청원하면서 내용·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원조달방안이 없다는 것이었다.⁸⁾

각 기관들의 반대에 의해 교육방송공사의 설립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교육방송공사법에 찬성해온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드러난 부분은 사장과 이사의 임명방안이었다. 정부에서 선임하도록 한 사장 및 이사 임명안은 방송의 독립성 훼손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이유였다.⁹⁾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뚜렷한 결론 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1990년 2월 28일, 교육방송공사법이 계류 중이었던 제148회 임시국회가 폐회되자 제출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¹⁰⁾

교육방송의 독립에 위해가 된 것은 일부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정치권의 역학 관계도 한몫했다. 3당 합당·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의 인위적 개편 등 정치권의 변화 양상도 영향을 미쳤다. 정치권의 관심은 교육방송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주무부서인 공보처는 민방 허용·KBS 개혁·교육방송공사 설립 등 주요 안건을 1990년 4월에 일괄 의사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차일피일 연기되었다. 기관 간 입장은 제각각 달랐고, 민방 허용 등 난제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교육방송공사 설립 의지도 희박해졌다.

이런 가운데 1990년 6월 14일, 공보처장관은 예정보다 두 달 늦게 '방송제도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공민영 혼합체제 : KBS1·2TV·MBC는 공영체제 유지, 새 민방 설립

- KBS 개혁 : 1·2TV 특성화, 3TV 독립 운영
- 방송사 주식 지분 소유 49% 이내로 제한
- MBC는 현행 체제 존속·유지
- 한국방송광고공사 유지 및 기능 강화
- KBS 제3TV 독립 : 문교부가 편성권을 담당하고, KEDI는 프로그램 제작, 송출은 KBS 담당¹¹⁾

약 1년 동안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이었다. 새로운 민방 허용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방송구조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¹²⁾ 교육방송공사를 희망해온 교육계와 뜻있는 인사들은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이 방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문교부가 방송국을 허가하고 한편으론 편성 등 문교부가 방송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방송을 정부가 직접 통제·운영하겠다는 의도였으므로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교육방송의 완전한 독립을 촉구했던 각 언론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문교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교육방송 개국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미 확보한 개국 준비자금 50억 원 외에 우면동 KEDI 사옥에 주조정실과 남산타워까지 보내는 송출시설 마련 자금으로 267억 원의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등 자금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10명 규모의 방송관리관실을 직제하고 KEDI 내에 교육방송국을 두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열망

새로 만들어질 교육방송국의 성격과 업무내용상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 간 업무 분담이 중요했다. 문교부·KBS·KEDI 부설 교육방송국 등이 대상기관이었다.

- 문교부 : 기획·편성·심의
- 교육방송국 : 프로그램 제작
- KBS : 송출¹³⁾

KEDI 내의 교육방송본부 임직원들은 이러한 조치에 격렬히 반대했다. 방송의 독립과 전문적인 교육방송의 기틀 확립을 위해 임시적인 방안에 불과한 교육방송 독립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다.

1990년 6월 27일, 교육방송본부 임직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방송독립전직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공보처의 방송구조개편계획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각계의 비판과 방송사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송법은 정확히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¹⁴⁾ 교육방송본부 임직원들은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교육방송공사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들의 의지는 결연했다. 방송 담당 부원장을 비롯한 국·실장 전원이 보직사표를 제출했고, 제작 PD 등 250명 전직원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추진의 열망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못했다. 정부가 12월 27일 교육방송을 개국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완전히 독립된 교육방송의 꿈은 그렇게 무산되고 말았다.

12) 조선일보는 1990년 6월 14일자 기사를 통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송제도 개편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3TV·2라디오·교육FM 등을 분리해 교육방송을 설립하는 것. 정부는 당초 교육방송공사의 설립을 검토했으나 그 대신 문교부가 편성권을 갖는 교육방송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사회교육까지를 포함하는 과거의 폭넓은 교육방송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

13) 동아일보는 6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이 조치가 임시적인 데 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교부장관에게 방송국 면허가 나오는 형태이지만 문교부는 총체적 책임만 지고 방송관리관실은 협의·조정·연락 업무만 맡으며 실질적인 기획·편성·제작 업무는 교육방송국 실무자들이 맡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다. 문교부는 일단 KEDI 조직 내에 교육방송국을 둔다는 방침이지만 방송국의 성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명실상부한 독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4) 6월 14일 방송구조개편안 발표, 6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7월 7일 국회문공위원회 접수, 7월 11일 수정안 제출 및 문공위 통과, 7월 14일 본회의 통과

교육방송 개국 후
중계차 앞에서 직원들의 기념 촬영
→



개국, 그리고 희망

KEDI 교육방송본부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개국 작업에 임해야 했다. 문교부의 목표는 1개의 TV채널, FM·AM 등 두 개의 라디오채널을 동시 개국한다는 것이었다. 방송시간은 전일방송을 목표로, 우선 TV의 경우 1일 10시간·라디오는 1일 20시간으로 확정되었다. 이전까지의 방송시간이 TV 4시간 20분·라디오 4시간이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수많은 신규인력이 공채되었고, 240억 원의 예산이 긴급 수혈되었다. 급한 대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지만 두 달 만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방도는 없었다.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다. 필요한 자금은 400억 원이었으나 1차 자금 이후의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다. 문교부는 결국 방영시간 계획을 대폭 축소, 하루 7시간 40분으로 결정했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교방송 외에 직업기술과 평생교육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라디오는 20시간 방송으로 운영하되, KBS의 반대로 AM채널은 추후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 방송국의 이름은 EBS로 결정되었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 TV채널 : 서울·경기 VHF 13, 기타지역 UHF
- FM라디오 : 104.5~107.9MHz
- AM라디오 : 1991년 9월 이후 603KHz로 방송
- 주요 내용 : 학교교육 보완 · 방송통신고 및 방송대 강의 ·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 TV가정학습 · 독학사교육 · 진로교육 · 교원교육 · 성인교육
- 송신체계 : KEDI 연주소 송신 → KBS 송신망을 통한 전국 송출
- 운영방식 : 운영주체는 문교부 · EBS는 KEDI 부설 형식

1990년 12월 27일,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지만 많은 국민의 희망을 안고 교육방송 EBS가 개국했다.

2. EBS, 조직의 역할과 위상

새로운 편성, 새로운 논란

새로운 홀로서기에는 많은 진통이 따랐다.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개국은 또 다른 난항의 시작이었다. 당장 기관장조차 선임되지 못했다. 결국 개국 이전의 KEDI 방송 담당 김학천 부원장이 임시로 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방송시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인력¹⁵⁾과 예산¹⁶⁾의 증가·증액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독립 이전에 하루 4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인력과 기자재로 평일 7시간 40분의 방송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PD와 미술제작 직원들이 과로로 실신하는 사태가 속출했다.¹⁷⁾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스튜디오와 촬영기·편집기기를 수시로 외부에서 임대해야 했다. ‘제작비 절감’이라는 정부 방침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이 없는 프로덕션에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청률을 제고하는 일도 있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방송담당 장학사를 두고, 교육방송 시청률이 높은 지역의 장학사에게 포상한다는 방침이 대표적인 경우였다.¹⁸⁾

편성에도 교육부의 입김이 가해졌다. EBS 방송시간이 오전으로 확대 연장되면서 교

15| 당시 EBS의 인원은 350여 명에 불과했다. 개국 직전 50여 명의 수습사원이 들어왔으나 여전히 태부족이었다.

16| 문교부가 당초 책정한 예산은 590억 원이었다. 그러나 47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경제기획원에 의해 그마저 214억 원으로 하향 책정되었다. 그중 국고부담은 90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금액은 광고·교재판매로 충당해야 했다. 그 무렵, KBS의 연간예산은 20배가 넘는 4,000억 원이었고, MBC도 3,500억 원에 달했다.

17| 동아일보 1991년 1월 22일자

18| 조선일보 1991년 1월 11일자

1991년 12월 사보 <교육방송> 창간호

1991년 12월 4일 이준해 원장 취임



19 | 1991년 1월 1일부터 문교부는 교육부로 개칭되었다. 문교부라는 명칭이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 | 동아일보 1991년 1월 22일자

교육방송 개국 후 다양한 사회교양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사진은 <하나뿐인 지구> 제작 현장

육부¹⁹⁾는 명상의 시간, 예절교육 등을 방송케 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상영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결국 고군분투하던 EBS PD들은 1991년 1월, 제작거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구두약속으로 인해 제작은 곧 정상화되었으나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잠복되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각 차이에 있었다. EBS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방송'에서 벗어나 '사회교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었다. 사회교육과 경쟁하는 정부 주도의 '과외방송'이 그들의 목표였다. 이미 개국 당시의 편성에서도 학교교육은 80% 이상이었고, 사회교육의 비중은 20%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교육방송을 통해 학교교육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언론들은 이러한 견해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교육방송의 기획·편성·운영 등 실권을 장악한 뒤 제작은 KEDI에게, 송출은 KBS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오히려 운용상의 난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교육계와 방송계가 교육방송을 사회교육매체로 보는 데 반해 정부는 학교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²⁰⁾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1991년 3월, 개국 후 정규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



EBS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편성 시간을 늘린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육부는 그에 반대했다. 교육부의 편성안은 평일에 고등학교 3학년 <TV가정교과>가 편성된 만큼,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EBS는 유일하게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된 일요일까지 학교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²¹⁾ 방송 4일 전까지도 편성이 확정되지 않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결국 절충점을 찾은 결과, 일요일 편성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양 등으로 혼재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논란 속에서 시행된 첫 편성의 비율은 학교교육 54%, 방송통신교육 10%, 교원 및 가정교육 4%, 진로·직업·기술교육 32%로 구성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편성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 교육과정에 준한 편성 프로그램 제작
- 학기별 편성으로 구분하되, 방학기간은 별도 편성
- 방송통신대학과정은 방송통신대학에 위임
- 평일방송은 학교교육, 통신교육, 진로·직업·기술교육 중심 편성
- 일요일에는 특집 편성

이러한 방침 아래 기본 편성이 확정되었다. EBS 최초 편성의 특징으로는 교원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강화 및 시간대 조정,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신설, 일요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시간대 설정 등을 꼽을 수 있었다. <교사의 시간>은 매일 오후 4시 45분부터 5시 15분까지 방송되어 교사들에게 정확한 교육계 소식과 교수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EBS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일 편성의 경우는 <직업의 세계>, <지구촌의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 혹은 이에 준하는 강의 중심으로 채워졌다. 이 시기에 성인 대상의 취미 교양물도 일부 편성되었는데, <EBS 바둑교실>²²⁾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조직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새로운 방송국으로 출범한 만큼 EBS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족한 인력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규정 등이 필요했다. EBS는 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13개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EBS의 역할과 기능에 합당한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991년 3월 인사규정·보수규정을 시작으로 그해 11월까지 다양한 규칙·규정이 제정되었다.²³⁾



EBS 개국과 함께 방송된 <EBS 바둑교실>

21) 교육부는 교육계 인사동정을 다룬 <EBS 기사판> 평일 편성,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다룬 <교육진단> 축소 등을 요구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동아일보 1991년 2월 25일자

22) <EBS 바둑교실>은 1990년 12월 27일, EBS 개국과 함께 첫 회가 방송되었다. 이후 2010년 4월 4일, 방송 1,000회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한국일보는 KBS의 <전국노래자랑>이 30년을 맞이했다고 화제가 되었는데, 양상국의 <EBS 바둑교실> 1,000회 돌파도 이에 못지않은 대기록' 이라고 언급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양상국 9단은 "공중파 방송에서 바둑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이 때, EBS가 20년간 독심있게 바둑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해서 1,000회를 맞았으니, 바둑계가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3) 1991년 3월 29일 인사규정·보수규정이 제정된 이후, 그해 11월까지 각종 규칙이 제정되었다. 조직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인사규정·보수규정·인사직원인사관리규칙·방송설비보존관리규정·전문 전속요원운영규칙·교육방송심의규정·부대사업운영규정·방송제작비지급규정·직무대리규정·사무분장규정·복무규정·위임전결규정·규정심 의위원회규정 등이 그것이었다.

24 | 이벤트 사업은 분기당 1회씩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개국 1주년 기념 음악회가 그 시발점으로 기록된다.

25 | EBS 노조는 10여 차례에 걸친 포괄단체교섭·공사 창립 및 위상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전국언론노조 가입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26 | 이준해 교육방송 초대 원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최우선 과제를 밝혔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방송의 위상과 관련한 문제로, 기급적 빠른 시일 안에 독립법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90년 12월, 교육방송이 현 체제로 재출범하기 전에 교육방송공사의 설립을 위해 실무를 맡은 적이 있고, 또 그것이 제반여건상 실현되지 못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27 | <지구촌의 다큐멘터리>의 외화 선정기준은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도 증진·안목 제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다. <일요특선>은 자연과 과학, EBS 다큐멘터리 영역 중 수준 높은 작품으로, <EBS가족극장>은 청소년들의 정서 교육과 가족시청을 통한 단란한 가정 생활 영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90년 12월 12일 EBS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
□



한편, EBS 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도 전개됐다. EBS는 이벤트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통해 EBS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1992년부터 다양한 이벤트가 시행되었고, 그 내용이 방송과 연계되었다.²⁴⁾

노동조합²⁵⁾도 역사를 시작했다. 이전까지 KEDI 산하에 있었던 노조는 1991년 6월, '한국교육방송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뒤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는 등 방송사 노조의 연대활동도 강화해 나갔다. 특히 노동조합은 EBS의 위상 제고를 위해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나갔다.

한편, 조직의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교육방송 소장으로 명명되었던 기관장 명칭이 1991년 10월 30일부로 원장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교육부의 내부사정과 EBS 구성원들의 반발로 선임되지 못했던 EBS 초대 기관장으로 이준해 원장이 선임되었다. 이준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EBS의 독립법인화'가 시급하다고 일갈하면서 당면과제와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²⁶⁾

EBS는 이와 같은 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독자성을 확보하는 한편, 방송사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외화의 수급과 우수 프로그램

개국 후 EBS의 당면 주요 과제는 일요일 프로그램 제작이었다. 개국 이전까지 일요일 방송의 대부분을 KBS가 담당했으므로 사회교육 분야에서는 전문역량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EBS는 편성 담당자를 영국 BBC 등에 파견하여 우수 외화 프로그램을 구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지구촌의 다큐멘터리>, <일요특선>, <EBS가족극장> 등의 프로그램은 방송 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991년 그해 수입된 외화의 수는 400여 편에 달했다.²⁷⁾ EBS

는 외화 수급에 공들이는 한편, 자체적으로 우수 프로그램 제작 노력을 시작했다. 그해 10월에는 처음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프로그램 제작기획서를 공모했다. 19일만에 걸친 모집기간 중 TV 부문 44편, 라디오 부문 13편이 접수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해 12월에는 EBS의 우수 프로그램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EBS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이었다. 예심과 본심으로 나뉘어 심사를 한 끝에 TV 부문에서는 <인간과 과학 - 절해고도 가거도 시리즈> 제3

편 '가거도의 거리'가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라디오 부문에서는 <국민학교 1학년 - 즐거운 생활> 편이 수상했다. 그밖에도 우수작품상 3편과 부문상 10편이 선정되는 등 조직 전반적으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열의를 북돋았다. 비록 제작여건은 타 방송사에 비해 부족했지만 우수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열정만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다.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면서 이전까지의 '과의방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EBS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사회교양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갔다. <직업의 세계>, <지구촌의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 등이 화제를 모았다. <직업의 세계>는 당시 EBS 제작여건을 고려한다면 가장 힘든 제작물 가운데 하나였다. 상당수 프로그램이 스튜디오 내에서 행해질 무렵, <직업의 세계>는 거의 대다수 촬영을 외부에서 진행해야 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 또는 직업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직을 돕기 위해 각 분야의 직업을 소개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시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하나뿐인 지구>는 1991년 가을 개편 때 신설된 프로그램이었다. 실생활과 관련된 환경오염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폐지·폐비닐·폐전지·세제 등의 공해물질과 자원 재활용 관련 아이템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이론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사례 속에서 환경 보존을 실천하도록 계도하는 내용 덕분에 시청자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각 분야의 직업을 소개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시도했던 <직업의 세계>



FM라디오의 방송시간 확대

TV와 함께 라디오도 큰 변화를 꾀했다. 이전까지의 방송시간은 하루 4시간이었으나 개국 이후부터는 1일 20시간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EBS는 크게 늘어난 방송시간을 고려하여 유아 프로그램, 국민학교 대상 교과 학습프로그램 및 보조학습프로그램, 방송통신고등학교 프로그램, 교사·학부모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 양질의 방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라디오 PD들이 채용되었고, 조직 또한 라디오 제작실에서 라디오제작1·2·3부 등으로 개편되었다. FM라디오의 시간대별 편성은 다음과 같았다.



-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방송통신대학 강좌 방송
- 오전 9시까지 영어 등 외국어 강좌
- 오전 10시까지 오늘의 명상 및 부모의 시간
- 정오까지 국민학교 학습과정 및 보조 과정(중간에 중학교 영어 듣기)
- 오후 1시까지 한낮의 음악선물 · 국민학교 특활영어 · 이주일의 명작
- 오후 2시까지 전통음악 · 음악감상 · 이야기샘(재)
- 오후 3시 30분까지 외국어 강좌
- 오후 4시까지 교사 대상 프로그램
- 오후 5시까지 방송통신대학강좌
- 오후 6시까지 중학가정학습
- 오후 8시까지 방송통신대학강좌
- 오후 9시까지 고교가정학습
- 오후 11시까지 방송통신고교강좌
- 오전 1시까지 방송통신대학강좌

이러한 편성은 1991년 2학기까지 지속 · 연계되었다. 이처럼 정규교과 과목을 보완하는데 집중한 결과, FM라디오는 학교교육의 보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오랜 숙원, 자체 송출의 시작

1991년 11월 1일은 우리나라 교육방송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었다. EBS가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방송의 자체송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티콤사업의 실패 이후, 10여 년이 넘는 기



1991년 11월 1일
오랜 숙원이었던 자체송출을 개시하였다.



28) 자체송출을 기념하는 행사가 그날 EBS 우면동 청사에서 열렸다. 김학천 EBS 원장 대리·교육부의 조규향 차관·신세호 KEDI 원장·KBS 손영호 부사장 등의 내외빈이 그 자리를 빛냈다.

29) 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으로는 주조시설 및 송신탑 등 송출 관련 시설 설치·무선국 허가 취득·방송순서 등 방송운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자체송출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이었다.

30) 한국교육신문은 EBS의 자체송출 덕분에 "TV 및 FM 채널은 물론, 앞으로 개설될 AM라디오의 생방송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1991년 11월 6일자

간 동안 교육방송의 송출은 KBS 송신망을 이용해야 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업무상 차질이 빚어졌으며, 기관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것도 사실이었다.

마침내 그날을 기점으로 교육방송 자체송출이라는 신기원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²⁸⁾ EBS 자체송출의 논의는 1년 전인 199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EBS를 개국하면서 자체송출 설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50%의 방송분량을 KBS가 제작하던 것을, EBS가 전량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자체송출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그 배경이었다.

EBS 기술본부는 주조정실에 필요한 장비발주를 시작으로 자체 송출을 준비했다. 주조정실의 공간 확보·전원설비 설치·마이크로웨이브를 위한 철탑공사 등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오랜 공사 끝에 새 철탑이 1991년 10월 9일에 완공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자체송출은 급박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학력고사방송을 생방송으로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교육부는 11월 1일을 자체송출일로 정했다.

1991년 10월 초, 자체송출 예정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으나 주요 핵심장비가 주조정실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EBS는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10월 4일, 송출업무 추진위원회²⁹⁾를 구성했으며, 기술본부·기술개발부가 나서서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일부시설을 외부에 의뢰하는 등 비상상태가 지속되었다.

드디어 11월 1일 우면동 EBS 주조정실에서 최초의 방송이 시작되었다.³⁰⁾ 오랜 시간 각고의 인내 끝에 얻어낸 성과였다. 호출부호는 HLQK-TV(UHF CH43·VHF13)였다. 이후, EBS는 기존의 KBS 여의도 연주소로 설정되어 있던 TV 및 FM라디오방송을 우면동 교육방송 연주소로 변경허가 및 고정국 변경허가를 취득했다.

방송장비의 보완

한편, EBS는 자체송출에 걸맞은 시스템 구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EBS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은 대개 1980년대 사용하던 것으로, 양적·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기술인력의 부족도 빼놓을 수 없는 고충 가운데 하나였다.

교육부와 EBS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OECF 차관³¹⁾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았다. 정부는 420만 달러와 6,100만 엔을 EBS에 배정하였고, 그 자금으로 VTR 등 56종 266점의 기자재를 신규 도입했다. 특히 TV편집실 신설·FM중계차 도입 등은 방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첨단 효과장비를 갖춘 TV편집실은 우면동 방송동에 신설되었다.

한편, FM중계차는 FM기술진의 간절한 숙원 가운데 하나였다. 자체기술로 설계된 이 중계차는 그간 일반차량으로 녹음장비를 운반해야 했던 어려움을 개선시켰다. 그밖에도 새로 도입된 시설·장비는 다음과 같았다.

- TV 구조정실 : Master Switcher 외 29종 64점
- FM 구조정실 : Master Switcher 외 10종 39점
- TV스튜디오 및 부조 개조
- 라디오 부조 3개 신설
- 우면산 구조정실에서 관악 송신소 사이의 STL 구성

서서히 EBS는 제 모습을 갖추어갔다. 이듬해인 1992년 5월에는 TV C스튜디오가 한 달 반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이전까지 간단한 더빙이나 ENG에 의한 인서트 촬영 장소로 활용성이 떨어졌던 C스튜디오는 완전한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카메라·조명·녹화 및 부조정실이 새로 갖추어진 덕분에 더빙 프로그램이나 강담 프로그램의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고질적인 스튜디오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미래 발전을 위한 논의

그 무렵, EBS는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조직의 발전체계를 정립하는 데 힘쓰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3월 9일부터 약 100일간에 걸쳐 EBS의 미래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종합경영진단이 시행되었다. 외부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되었다.



1992년 5월 8일 C스튜디오가 준공되는 등 자체송출에 걸맞은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

³¹⁾ OECF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이나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우리나라와는 198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차관 도입에 합의한 이래 5차례에 걸쳐 10억 9,600만 달러의 자금을 도입했다.



32) 인터뷰 결과, 직무의 책임·권한·직무목표·직무내용·직무 전문성 등은 만족할 수준을 보였다. 반면, 급여수준·인사고과·교육훈련·복리후생·전환배치·상사의 관리감독 등의 항목에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외부기관에 의한 최초의 경영진단이었고 앞으로 EBS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구성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사적인 지원을 위하여 3월 16일에는 각 부단위 협력책임자가 임명되었다. 이후 260명에 이르는 EBS 전 직원에 대한 개인별 인터뷰³²⁾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를 바탕 삼아 조직·재무·제작·장비·인원관리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분석작업이 이루어졌다.

6월 29일 저녁, 약 3시간에 걸쳐 경영진단 완료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직개선안과 적정인력 규모 산정을 통한 조직 활성화 방안, 방송제작과 연관된 적정시설 규모 산정 및 운용방안 등 앞으로 EBS의 발전에 도움이 될 자료가 다수 발표되었다. EBS는 이를 바탕 삼아 발전적 개편방안 수립에 나서게 된다.

한편, EBS의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간직해야 할 강령 제정도 추진되었다. 약 2개월에 걸쳐 기초안이 작성되었고, 심의과정과 최종수정이 이루어졌다. 6월 15일, 전문·6개항의 총강·22개항의 프로그램 준칙·7개항의 준칙으로 이루어진 EBS 강령이 제정됐다. 이처럼 그 무렵 시행된 경영진단·강령 제정 등 일련의 과정들은 그해 하반기 EBS의 발전적 개편 방안 수립의 기준점이 되었다.

시련과 갈등

EBS의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던 1992년 4월 28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시청률 전문조사 기관인 미디어서비스코리아가 EBS의 시청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발표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를 인용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EBS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84개의 프로그램 중 14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70개가 모두 시청률 0%를 기록,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



1992년 채용된 신입사원



률을 기록한 것은 국민학교 대상 학습교육으로 4%에 머물고 있고, 대학 입시생을 위한 <TV고교가정학습>도 2%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방송계 일각에서는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반응들이다.³³⁾

EBS가 갖고 있는 부족한 예산문제³⁴⁾, 정책의 문제점, 낙후된 여건의 등 구조적인 영향이 컸지만 참혹한 상황임에 분명했다. 교육계가 받은 충격도 상당했다.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교육이었으므로 이는 곧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각 사회단체들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비록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으나, 반대로 각계에서 EBS 운영현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언론들은 사실과 기사를 통해 EBS의 독립·공사화가 필요

33|경향신문 1992년 4월 29일자

34|조순형 의원은 “교육방송의 1년 총 제작편수인 2만 7,000여 편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신생방송국인 SBS의 1회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와 같다”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론을 통해 일갈했다.



1992년 미술부원





1992년 기술부원



35 | 경향신문 1992년 4월 30일자

36 | 1992년 운영·제작예산은 310억 원이었다. 그러나 1992년 5월경 이미 110억 원의 결손이 생긴 후였다.

37 | 조선일보 1992년 5월 2일자

하다며 여론을 반영했다.

EBS는 출범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인사와 재정은 KEDI가, 기본편성권과 심의권은 교육부가 장악하는 이원적 구조부터가 문제였다. 게다가 재정 역시 정부예산과 광고공사의 공익자금, 그리고 교재판매와 협찬광고 등으로 짜여 있다. 그 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비를 빼고 나면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예산은 태부족하게 마련이다.

우선 교육방송은 학습방송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교양교육·직업교육·사회교육을 위한 방송으로 시청대를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방송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함은 물론 독립된 재정 확보와 우수한 전문방송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³⁵⁾

시청률 제로의 충격에 뒤이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EBS를 강타했다. 예산 부족³⁶⁾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EBS는 1992년 5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 7시간 40분이었던 TV방송시간을 5시간 20분으로, 20시간이었던 라디오방송 또한 14시간 20분으로 단축한다³⁷⁾고 밝혔다.

예산이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재원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92년 EBS의 필요예산은 310억 원. 재원조달내용은 정부출연 131억 원·공익자금 50억 원·협찬광고수입 98억 원·자체수익 31억 원 등이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공익자금과 협찬광고수입이었다. EBS는 결국 제작 및 운영규모를 230억 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방송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방영했던 프로그램을 30% 정도 재방송한다는 방침을 세운다.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을 두고 사회에서는 교육부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EBS의 독립 공사화를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방송 초대 원장 이준해 前 원장을 만나다 1991. 12. 3 ~ 1992. 8. 26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아름다웠던 EBS의 추억

● 이십 년 전, 어둡기만 했던 그날

“자연의 힘이란 참 무섭더군요. 밤새 세찬 바람이 닥쳐오니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년 8월, 서울 시내를 태풍이 할퀴고 간 다음날, 분당 자택에서 만난 이준해 원장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첫 이야기를 그렇게 꺼냈다. 교육 관련 서적이 빼곡히 들어찬 서재 앞에 그의 치열했던 청춘이 담긴 흔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참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교육방송 원장으로 발령받았으니 말입니다. 처음 우면동을 방문했을 때, 열정에 차 있던 직원들의 눈빛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EBS와의 인연에 대한 첫 질문에 그는 추억의 한 자락을 잡으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교육방송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던 그 시절, EBS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KEDI 소속의 방송이라는 위상은 적지 않은 고난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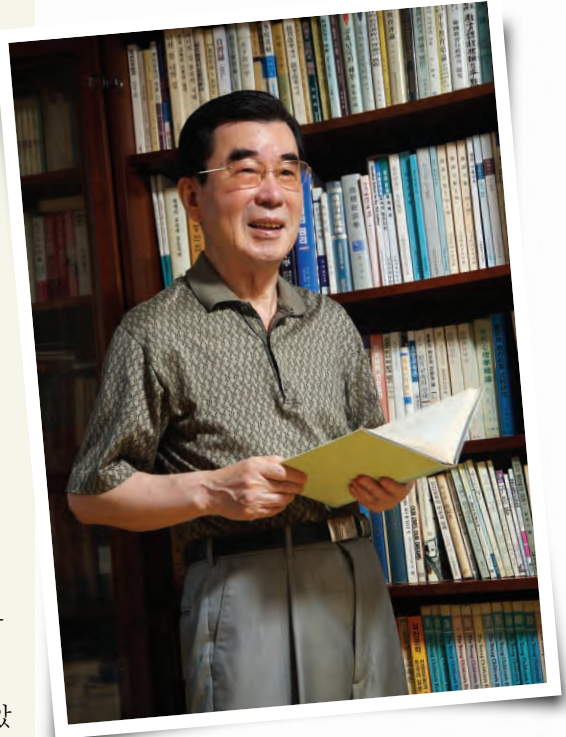
부족한 인력과 예산 때문에 ‘교육방송’ 다운 프로그램 제작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가 부임하기 전까지 교육방송 원장 자리는 1년 동안이나 공석에 놓일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어쩌면 그에게 20년 전 그날은 어둡이나 다르지 않을까 싶었다.

● 조직의 기틀을 다지다

“직원들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지금과 같은 훌륭한 방송사로 성장한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부임 후 가장 시급했던 일은 조직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었다. 그는 각종 제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정관 수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EBS의 혼, 우리나라 교육의 뿌리를 만드는 곳이었으므로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열성을 다했다.

“시설이나 인력, 직원들의 복지 등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계 부처를 찾아



가 교육방송의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더 컸다고 한다. 명목상으로는 교육방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여건 개선은 쉽지 않았다. 각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나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애뜻한 기억이 더 크게 남아 있다.

● 기억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지금 EBS 방송을 보면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프로그램 수준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당시에는 프로그램 제작 여건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외화를 수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우수한 다큐멘터리가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즉시 구매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든 작품은 아니었지만 시청자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작품들을 능가하는 날들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는 EBS 다큐멘터리를 지금도 놓치지 않고 시청한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EBS의 제작역량은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EBS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들 투철한 사명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제작진은 스스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청률만 생각하는 방송사라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교육과 미래를 책임져 왔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방송이 갖고 있는 힘, 그것은 곧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중간에 건너편 벽에 걸린 시계가 문득 눈에 밟혔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그 안에 ‘교육방송’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제 등산 등으로 소일하고 있지만 내 주변 곳곳에는 아직도 20년 세월 건너 교육방송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아련한 기억 너머에는 EBS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지도 모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거리 곳곳에는 지난 밤 폭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흔적을 지우지만 기억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남아 있을 것이다. EBS가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그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울한 개편

1992년 세출예산 232억 원을 기준으로 상반기 편성이 재조정되었다. 편성 조정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였는데, 기본편성은 유지하면서 인력·장비·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축소·폐지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에 방송되었던 <영상교실>이 폐지되고, 대신 <나도 발명가>³⁸⁾가 편성되었다. <딩동댕 유치원>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본방송을 폐지하고, 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 <함께 사는 사회>, <만나고 싶은 선생님> 등이 폐지되었고, <예술의 광장>이 재방송되었다. 그해 가을 편성을 시작할 당시에도 예산 부족 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 상업광고를 방영했으나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EBS는 개국 당시의 편성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편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시청자·청취자의 요구가 높은 내용 중 과거 제작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신설·편성
- 기존의 프로그램 중 시청취자의 요구가 높은 프로그램 재활용
- 기존 프로그램 중 시청취자의 감상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출연자의 시점에 의해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량 확대·조정

한편, 그해 8월에는 이준해 원장이 서울시 최초의 민선교육감으로 선임되면서 원장직을 중도 하차했고, 다음 달인 1992년 9월 정연춘 제2대 교육방송원장이 취임하였다. 정연춘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EBS의 공사화 추진·재정확보를 위한 상업광고 확대'의 뜻을 밝히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³⁹⁾ EBS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혁신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일보전진을 위하여

EBS는 재정난 타개와 시청률 제고를 위한 편성 개편 등 단기적인 방안과 함께 장기 발전방안의 수립을 모색했다.

1992년 5월 27일, 막중한 사명을 안고 기관발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 직급을 망라한 49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매머드급 TFT였다. 이 조직은 위상정립 분과·경영쇄신 분과·프로그램 분과로 나뉘어 약 7개월에 걸쳐 방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해 12월 31일, 이들은 장문의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 현 체제의 문제점 : 공영방송의 성격퇴색·운영체제의 3원화로 자율적 기관 운영 한계·운영예산의 영세성
- 향후 개편방향 : 평생교육을 구현하는 방송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특별법에 의

38 이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유는 발명협회로부터 프로그램 제작비의 일부를 보조받는다는 조건이었다. 예산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신설 프로그램이었다.

39 1992년 9월 9일, 정연춘 원장은 취임 일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인 교육방송의 독립화·재원 확충 등의 현안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내외의 의견을 모아 이를 실현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극적인 창의력을 발휘하여 부단히 연구개발함으로써 자아실현의 보람과 함께 교육방송의 품격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서로간의 이기주의와 갈등구조를 없애고 합심 단결하여 우리 교육방송 전체의 슬기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 경향신문 1992년 12월 12일자

41 | 시청률 0%, 예산부족으로 인한 방송 차질, 임기 중 원장의 전직

42 | 국회보, 1993년 4월 정부 제출 예정 158개 법안 심의

한 특수법인체의 성격 구현

- 방송운영 : 전국 규모의 TV채널 · 라디오 FM과 AM 운영(전일제 방송)
- 운영체제 : KEDI 부설 교육방송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로의 개편
- 운영재원 : 전체 수신료의 25% 확보 · 협찬광고 · 사업 활성화 등으로 1,100억 원 확보
- 인력구성 : 정원 800명의 방송사로 운영
- 청사확보 : 신축이전, 혹은 KEDI 내 부지에 신축 설립

EBS는 이 계획안을 중심으로 교육부 · 공보처 등 해당 부서에 정책건의를 계속하는 한편, 국회 교육청소년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교육방송의 새로운 위상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이 전개되면서 교육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대되어 갔다. 그해 열린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EBS의 자금을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공약⁴⁰⁾을 발표, EBS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교육방송원법을 둘러싼 논란

1992년에 있었던 일련의 파동⁴¹⁾은 EBS 구성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독립법인과 예산확보가 없다면 조직의 존폐조차 보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EBS는 1992년 12월에 확정된 기관발전대책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각계에 EBS의 독립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도 교육방송의 삼원화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교육부는 EBS의 독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국교육방송원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⁴²⁾ 1993년 2월의 일이었다.

비록 EBS의 독립을 기본전제로 하고는 있었으나 이 법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독립법인이었으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었다.

- 방송순서 편성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방송 원장은 이사회가 선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운영재원은 출연금 · 기금운영 수익금 · 차입금으로 충당한다.

EBS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계획은 유보되고 말았다.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공보처가 4월 1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해 새롭게 연구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공보처는 이를 위해 '공영방송발전 연구회(이하 공발연)'를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교육

44 | 이 조직의 탄생 목적은 공사 추진에 따른 EBS 위상정립방안 마련, 공사 사업계획서 작성, 공사설립을 위한 대외활동 및 홍보 등이었다.

45 | 경향신문 1993년 11월 30일자

46 | 교육방송의 독립공사가 계속 늦추어지자 사회 일각의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교육방송 소장을 역임한 김학천 건국대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글을 한겨레신문에 게재했다.

"교육부는 하루 빨리 교육방송을 공사화 해야 하며 만약 교육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는 영기구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보처의 입장에서든 수 십 개의 채널이 모두 '시장경쟁'을 벌이게 될 경우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교육문화적 수준을 유지하는 방송에 대해 경영대책을 보완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오락과 정치정보 이외의 방송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은 정부의 소유권 논리 하나로 무시되어도 괜찮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교육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정치적 활용을 고려하여 공사가 주춤거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문민정부의 체면과 국제화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상업방송들의 틈새에서 공적인 교육채널의 맥이 끊긴다면 영상매체의 마지막 문화적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 1994년 12월 1일자

47 | 이 제도가 확정된 것은 1991년 4월이었다. 입시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년간 대비할 유예기간은 2년이었다. 1993년에 들어서면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공발연은 10월 4일, EBS의 현황과 위상정립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BS는 공사설립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 10월 7일, EBS는 위상정립 추진 실무기획단⁴⁴⁾을 구성하고 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무기획단은 철저한 준비 끝에 공발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 역할 : 학교교육, 통신교육,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평생교육매체
- 성격 :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체(공사 체제)
- 조직과 운영 : 의결기관은 이사회(방송위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 집행기관은 사장(이사회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 감사기관은 감사(이사회 선임)
- 채널 규모 : TV 1개, 라디오 2개(FM · AM)
- 주요재원 : TV수신료, 공익자금(관계법령에 배분비율 명시)
- 보조재원 : 국고보조금, 교재 및 프로그램 판매 등 자체수익, 협찬 및 기업 등 광고수익, 기금 및 기부금

공발연은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11월 30일 방송구조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로부터 교육방송은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고, 그 대안으로는 공사화 또는 KBS 제3TV로의 흡수 방안을 제시했다.⁴⁵⁾ 정부는 공발연의 연구방안이 나오기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EBS의 독립 논의는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었다.⁴⁶⁾

대입수능, 신화의 시작

1993년이 시작되면서 EBS의 편성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대학입시제도의 혁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전까지 전 과목의 시험성적으로 대학입학생을 선발했던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신 두 차례의 시험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수능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명기) 제도⁴⁷⁾가 도입된 것이다.

EBS는 이듬해인 1992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9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 새 대입제도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을 제작 ·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입시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시기의 수능 관련 프로그램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월 3일 ~ 1월 7일 : 새 대입제도에 대한 안내 특집
- 1월 8일 ~ 1월 23일 : 언어 영역 소개
- 1월 24일 ~ 2월 19일 : 수리 탐구 영역 소개

- 2월 20일 ~ 2월 28일 : 외국어 영역 소개
- 2월 29일 : 특집

EBS는 방송에 그치지 않았다. 직접 설명회를 열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1993년 2월 15일, 서초구민회관에서 3시간에 걸친 대입수능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2,6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끝난 이 설명회에서 EBS는 새 입시제도와 수험생들의 대책 등을 안내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⁴⁸⁾

한편 <TV고교과정학습>은 그동안 학력고사 대비 방송에서 1993년 수능시험 대비 방송으로 체제와 형식을 바꾸었다. 언어, 외국어, 수리 영역 등 바뀐 입시제도에 맞춰 신속하게 제작, 방송되었다.

그해 첫 시험이 치러지기 직전인 7월 18일과 25일, EBS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마무리 점검' 방송을 시행했다. 18일 8시의 제1부 방송에서는 대학교수와 현직 교사들이 출연해서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에 대한 궁금증⁴⁹⁾을 풀이했다. 25일에 방송된 제2부에서는 수리 영역을 집중 탐구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수능시험에 대비했다.

수능시험에서 EBS의 역할은 눈부셨다. 시험이 끝난 직후인 오후 7시부터 10시 55분까지는 수능 출제와 검토 작업에 참여했던 교수·교사가 출연, 모범정답과 해설을 담당했다.

1차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EBS는 즉시 제2차 수능시험에 대비한 2단계 <TV고교과정학습>을 방영했다. EBS FM 라디오에서도 국어듣기와 영어듣기 방송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처음 시행된 새 제도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



48 | 4월 10일에는 부산시민회관에서 수능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도 교사, 학부모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49 | 문항별 배점·지문의 범위와 특징·난이도 조절·대비책 제안 등이었다.

1994년 10월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방송

50 | 이 대회는 이듬해인 1995년 제2회 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협찬사가 자금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51 | 이 대회는 철강협회가 1992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제1회 이후부터는 EBS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1995년까지 시행된 행사였다.

2차 시험이 있었던 11월 16일에도 EBS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빠른 문제풀이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FM라디오는 시험이 끝난 직후인 5시 20분부터 7시까지 국립평가원을 연결해서 문제풀이 생방송을 했다. TV에서도 오후 7시부터 9시 50분까지 해답과 풀이과정을 방송했으며, 그날 밤부터 5일 동안 매일 오후 9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문제 출제경향과 특징 등을 특집좌담으로 설명하는 특집이 방송되었다. EBS는 수능시험의 전문가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 후일, EBS가 과열 사교육을 차단하는 최전선에 서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벤트의 새 장을 열다

EBS는 1993년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했다. 개국 초기에 검토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루었던 사업이 이 무렵부터 대거 전개되었다.

1994년 4월 29일에는 제1회 EBS기 쟁탈 리틀야구대회가 장충리틀야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이벤트는 ‘인격도야 · 진정한 용기 ·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삼았다.⁵⁰⁾

전국 중고생 철강 글짓기 대회⁵¹⁾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원고를 공모 받았다. 무려 4,000여 편이 응모했는데, EBS는 6월 25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서귀포여중 2학년 오멋진 양과 부산 덕명여상의 박선이 양이 각각 중등부 · 고등부 대상을 수상했다. 어린이 여름캠프 · EBS청소년 독서감상문 공모가 그해 여름에 시행되었다. 특히 독서감상문 공모는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일까지 마감했는데, ‘93 책의 해’를 기념하는 이벤트로 대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독서의욕 고취 · 양서 보급과 생활화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93년 9월 11일
제1회 청소년 창작가요제



9월 11일에는 국민체육공단과 함께 '제1회 청소년 창작가요제'를 개최했다.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에서 서울 서문여고 차은주 양이 대상을 차지했다. 약 4,000여 명의 인파가 운집한 이 행사는 9월 19일 <청소년광장>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다.

그밖에도 1992년에 이어 창작국악동요제가 11월에 개최되었고, 12월에는 EBS 팝스 콘서트를 개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큰 관심을 모았던 '청소년을 위한 음악산책'이 있다. 1992년에 이어 1993년에 보다 활성화되었는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시행되었다. 매월 주제를 선정⁵²⁾한 후 우리나라 명문 음악대학 오케스트라가 참여한 이 공연은 라디오로도 방송되어 음악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서서히 그 진가를 발휘하다

EBS 임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EBS의 시청취율은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EBS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1993년 12월, EBS는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실태 및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대상은 340개 학교였고, 대상학생은 5,200명, 대상교사는 780명, 학부모는 5,200여 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들의 프로그램 활용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딩동댕 유치원>이 41.4%, <만들어 볼까요>가 38.5%로 선두권을 차지했다. <옛날옛날에>는 12.5%였고, 라디오 프로그램인 <이야기쌈>도 16.7%로 나타났다.

국민학교에서의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 TV는 32.6%였으며, 라디오도 12.1%로 나타났다. 활용률은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TV는 62.9%였으며, 라디오도 28.7%에 달했다. 시청률과 활용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자연>이었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나도 발명가>, <국민학교 특활영어>, <라디오의 국민학교 특활영어>, <이주일의 명작> 순이었다. <하늘천따지>, <과학이야기>, <빛을 남긴 사람들> 등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손꼽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시청률·프로그램 활용률도 상당히 높아졌다. 중학교의 경우 TV 시청률은 13.6%·라디오는 10%였다. 프로그램 활용률은 15.1%·4.1%였다. 고등학교의 시청률은 TV 47.3%, 라디오 프로그램은 3.6%였다. 활용률도 각각 24.2%·5.4%로 나타나는 등 적어도 학교교육 방송은 급격한 시청률 제고의 결과로 이어졌다.

52) 5월에는 '이 푸른 오월에'를 주제로 삼았다. 이후 6월에는 '여름의 문턱에서', 7월에는 '지리산 장마구름을 걷고', 8월에는 '한여름 밤의 꿈' 등이 공연되었다.





유아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심어준 프로그램 <만들어 볼까요>



더불어 일반인 대상의 프로그램 시청률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시청률 향상이 방송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1년 전 '시청률 저하'라는 충격적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EBS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임에 분명했다. 조선일보는 EBS의 시청률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상당한 의의를 부여했다.

최근 한 여론 조사기관이 TV 3사의 시청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방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EBS의 존재다. EBS가 학교교육 과정에 기초한 편성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교양교육을 포함하는 국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심화하면서 그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의 다큐멘터리〉 등 질 높은 교양프로그램은 이 방송의 자랑이다. 그래서 자주 시청하는 가구가 13%에 달하고, 가끔 시청하는 가구 수도 5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KBS 대비 9.2%에 불과한 제작비로 이만한 시청률을 올리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⁵³⁾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EBS 임직원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EBS FM의 변화

EBS 개국 이후, EBS FM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출력 증가와 자체송출⁵⁴⁾의 시작이었다. 주조정실 내에 아나부스와 작은 부조정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제작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비중도 점차 커져갔다. 〈학부모의 시간〉, 〈라디오 게시판〉, 〈한낮의 음악선물〉⁵⁵⁾ 등이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성인 대상 외국어 강좌 프로그램도 시선을 끌었다. 영어 외에 러시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파니아어, 독어 등이 그것인데, 특히 제2외국어 프로그램은 EBS FM에서만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학습 소수자도 놓치지 않고 배려한다는 것은 EBS FM의 운영취지로,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라디오방송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새로우면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국내 유일의 유아·어린이 대상의 라디오 프로그램 〈이야기샘〉⁵⁶⁾이 대표적이었다. 라디오 드라마 〈이주일의 명작〉, 〈빛을 남긴 사람들〉, 〈세계명작극장〉 등도 인기를 모은 프로그램이었다.

방학 기간 동안 방송된 〈탐구생활〉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전폭적인 관심을 모았다. 방학숙제를 위해 문의하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을 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

1992년에는 변화의 폭이 더 커졌다. 학교방송의 시간대가 크게 바뀌었으며, 국민학생

53| 조선일보 1993년 12월 20일자

54| FM 라디오의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KTA 유선망을 통해 방송되었다.

55| 이 프로그램은 1981년 8월에 신설된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정오의 음악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되었다가, 시간대에 따라 〈한낮의 음악선물〉, 〈오후의 음악선물〉로 프로그램명이 바뀌었다.

56| 이 프로그램은 1989년 3월부터 방송되었다. 유아들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없었기에 이 시도는 부모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57 | 인간문화재인 조상현 명창이 해설을 맡았다.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도했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이었다.

58 | 전국의 국민학교를 순방하면서 공개방송으로 진행했다. 어린이들의 학교생활과 자랑거리, 향토적 특성 등을 소개하여 애항심을 길러주도록 했다.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에 학년별·과목별 편성에서 학년 중심으로 조정되었다. <고교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라디오 외에 EBS TV를 통해 방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을 1·2학년으로 조정했다.

그밖에도 라디오 방송에서 그간 취약했던 직업 교육·진로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교방송 외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방송된 <우리들의 광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고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다.

1993년부터는 외국어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졌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었던 외국어 강좌가 주말까지 확대 편성되었다. 청취자의 접촉도가 강한 FM채널의 성격에 맞추어 오전시간대에는 <클래식과 함께>를, 낮 시간대에는 <우리가락 노랫가락>⁵⁷⁾ 등을 신설했다.

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 것도 그해 편성의 특징이었다. 어린이가 참여하는 공개 방송 프로그램인 <우리자랑 학교자랑>⁵⁸⁾,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저녁 시간대에 매일 편성되었다.

한편, 대학입학제도가 수능능력시험 평가 체제로 바뀌면서 EBS FM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수험생들이 외국어 영역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1회 영어 듣기능력평가를 시행했다. 교육부와 EBS가 공동주최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했다. 그 이후 정부는 수능시험 중, EBS FM을 통해 영어듣기시험을 치루도록 조치했다. 또한 수능시험의 정답과 해설을 가장 빠른 시간에 알려주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그램을 복사해 가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크게 늘어났다. 청취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S는 프로그램 복사 전담 인력을 확대해야했다.

3. 바람을 이겨낸 열매는 달다

교육방송, 재미있어졌다

1994년 방송환경의 변화로 EBS는 또 한번의 고비를 맞게된다. 우리나라에 71개에 달하는 케이블TV가 동시에 개국 준비에 돌입하면서 수많은 인력이 EBS를 떠난 것. 1994년 한 해 동안 EBS를 퇴사한 직원이 전체 직원의 30%에 가까운 90여 명에 달했다.

상황은 힘들어졌지만 남은 EBS 구성원들의 의지는 더 굳세졌다. 좋은 방송,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이 우리나라 교육방송의 기틀이 된다는

각오를 다졌다.

EBS의 1994년도 봄 편성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크게 늘렸고, 내용의 다양성도 확보했다. 편성 직후부터 언론과 시청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의 헤드라인만 살펴봐도 변화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짐작케 한다.

- EBS, 딱딱한 이미지 벗고 친숙한 채널 탈바꿈 (세계일보 2월 22일자)
- 교육방송, 문화·사회·교육방송으로 (한겨레신문 3월 8일자)
- 교육방송 인기 급상승 - 모든 연령층 함께 즐기는 평생방송 발돋움(한국일보 4월 29일자)
- 시청자 단체, EBS 변신 노력 긍정 평가 - YMCA 모니터 보고서, 봄철 개편 이례적 극찬(문화일보 4월 23일자)

특히 시청자 단체들의 모니터 보고서 결과는 EBS 구성원들을 들뜨게 할 정도로 극찬 일색이었다.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는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유익성과 흥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편성이라고 언급했다.⁵⁹⁾ 이 보고서는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유아·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성인 대상의 해외기획물·예술 프로그램 모두가 타 방송사와는 명확한 차별점을 보인다고 표현했다.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 교육기능에 오락성 가미
 - <꼬마요리사>·드라마 <언제나 푸른 마음>·만화 <신밧드의 모험>·<도레미 여행>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정확한 정보 및 흥미 제공
 - <미리 가본 대학>·<직업의 세계>⁶⁰⁾
- 성인 대상 프로그램 :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편성
 - <세계의 도시>⁶¹⁾·<시네마천국>⁶²⁾

그해 EBS의 신규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눈길을 모은 것은 <시네마천국>⁶³⁾과 <꼬마요리사>, <언제나 푸른 마음> 등이었다.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꼬마요리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미리 가본 대학>
 성인 대상 프로그램 <시네마천국>

59 | 경향신문 1994년 4월 21일자

60 | '대학과 직업세계의 정확한 실상을 전달함으로써 진로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평가였다.

61 |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의 의의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를 심층취재, 각기 다른 인간의 삶과 문화를 소개한 프로그램. 단순한 도시 관광의 관점에서 떠나 장애인 문제, 쓰레기 재활용 등 생활의 이면을 추적한 우수한 역작.'

62 | 이 프로그램은 '영화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에서 체계적인 영화정보와 지식을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3 | 조선일보는 '경쟁이 치열한 평일 밤 시간대의 프로그램으로 교육방송으로서는 경이적인 2%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64 | 신설프로그램은 유아 대상 2개, 국민학생 대상 2개, 청소년 대상 2개, 청장년 대상 6개 등 12개였다. 나머지는 시간대를 변동한 프로그램으로 정했다.

65 | 표 집은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정했다. 각 지역별로 도심·변두리를 구분했고, 남녀 학교를 동수로 선정했다. 대상기준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도록 했다. 예컨대 <부모의 시간>은 1살, 2살 동생이 있는 유치원 학생들의 엄마로 정하는 형식이었다.

66 | 각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점유율은 다음과 같았다. <꼬마요리사> 11%·48%, <신나는 ABC> 19%·66%, <어린이극장> 15%·44%, <언제나 푸른 마음> 9%·23%, <과학동산> 10%·26%였다.

67 | <다시 보는 영화> 5%·11%, <삶의 지혜> 4%·7%, <스크린영어> 3%·13%, <시네마천국> 3%·18%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시네마천국>은 방송 직후 성인 교양프로그램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영화감상 요령과 안목을 키우도록 기획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 영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진행자 구성·전문적인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도록 한 기획이 큰 성공을 거둔 원동력이었다. 조선일보는 EBS가 영화 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다고 언급했다.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특히 <꼬마요리사>가 찬사를 받았다. 아역을 맡은 노희지 양은 큰 인기를 모아 연예계로 진출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지금 EBS 보고 계십니까?

EBS의 새로운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각 언론들도 EBS의 변화를 대서특필하게 되자 EBS는 이를 보다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무렵, 추진되고 있던 EBS 공사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1994년 4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봄철 개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EBS가 대상으로 삼은 프로그램은 모두 27개⁶⁴에 달했다. 신규 편성된 프로그램은 물론, 학교방송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시청자 반응 조사였다. 각 프로그램별 표본크기는 조사 여건상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⁶⁵ 조사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그들은 TV시청여부·시청하고 있는 채널·타 채널 시청 시 시청한 적이 있는 여타 EBS 프로그램·EBS 선택 시 시간대의 적절성 및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놀라운 점이 확인되었다. 신규 편성된 프로그램이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꼬마요리사>, <신나는 ABC>, <어린이극장>, <언제나 푸른 마음>, <과학동산> 등⁶⁶ 유아·국민학교 대상 프로그램의 시청률·점유율은 매우 높았다. 청장년 대상의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⁶⁷

당시 EBS를 상징하고 있었던 <TV가정교과학습>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모았다.

외부기관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미디어서비스코리아의 조사결과에서 한때 0.1%의 시청률인 때와는 달리 평균 시청률은 4~5%까지 치솟았다. <시네마천국>과 <다시 보는 영화>, <언제나 푸른 마음>의 경우에는 15%에 가까운 일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것은 국내 지상파TV 3사를 능가하는 기록이었다. TV 3사 또한 순수교양물 시청률이 10% 안팎에 그치고, 미국이나 일본 등 교육방송이 튼튼히 뿌려 내린 나라의 인기 교육 프로그램이 5%선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히 '신화적인' 수치임에 분명했다.

모두가 함께 일궈낸 기쁨의 성과였다. 한편으론 EBS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사랑받는

채널'로 변화하기 시작한 그 추세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해 가을 개편까지 이어진 프로그램 혁신은 후일, EBS의 공사화·좋은 교양 프로그램 제작의 선구자라는 등식을 만들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시스템의 개선


1994년, EBS에서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오랜 노력 끝에 방송관리 전산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방송자료의 신규구입과 보관 의뢰자료, 소장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극대화되기에 이르렀다. 직원들은 새로 구비된 2대의 검색용 PC를 통해 직접 원하는 자료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BS 자료부가 방송자료의 전산화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991년 8월부터였다. EBS가 독립·운영되면서 KEDI 전산실에 연결된 전산처리 지원이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꾸준히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개국과 더불어 프로그램 제작이 크게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전산화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었다. EBS는 6월 22일, 원내 전산화추진위원회를 결성, 운영하면서 전체 데이터의 정리·전산화 작업에 돌입했다. 전문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약 3개월간의 노력으로 3종의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적용했다.

자료 관리는 자료의 특성을 감안, 4개의 파일로 분류되었고, 다양한 검색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테마화했다.⁶⁸⁾ 이 시스템은 이듬해인 1995년 보다 확대·발전했다. 한편, FM 라디오도 당시 추세에 맞추어 스테레오 방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EBS는 TFT를 구성하고, 스테레오 방송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1995년에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주조정실 스테레오 설비가 보완되었다.

TV 방송시간의 확대도 추진했다. 당시

68 | 4개의 파일은 외국영상자료·제작 테이프·인서트 자료·음반자료로 구분되었다. 특히 검색어를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자료명·내용·방송일자·부제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록 내용의 주요 장면까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1994년부터 자료 관리 시스템이 확대·발전되었다. 



69| 현재의 교육방송은 소유와 운영권이 교육부에 귀속되어있어(한국교육개발원부설기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경영이 불가능하며 방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방송은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설기구에서 독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전환해야 한다.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공영방송발전방안 연구보고서 1994. p.92

70| 독립공사화 예산은 단기안으로 선별적 광고를 허용하고, 장기안으로 KBS수신료 사용,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평생교육채널의 성격을 갖는다.
방송개발원, 2000년 방송정책연구보고서 1995.

71| 이 방안에는 1단계와 2단계가 있었다. 1단계는 공익자금·국고지원·광고수익·자체사업수익·프로그램 판매·CATV 프로그램 공급·선별적인 광고·수신료 등이었다. 2단계는 수신료·광고 및 지원금·사업수익 등이었다.

TV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오후 4시 30분부터 방송이 시작되는 관계로, 학교교육 프로그램은 수업 이후인 오후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었다. EBS는 방송시간이 확대되어야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신·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부출연금을 추가하기로 했고, 공보처는 공익자금 지원 확대, KBS는 송출비용 부담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듬해 EBS TV 방송시간의 확대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밖에도 당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시작한 PC통신 서비스망을 활용한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하이텔·천리안 등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망을 통해 요일별 방송 안내가 시작되었다. 각종 행사가 PC통신을 통해 청소년·대학생들에게 알려졌으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되었다. PC통신을 통한 서비스는 후일, 인터넷 방송 개국의 기반이 되었다.

공사화, 그 지난한 과정

1994년 9월 1일, EBS TV에 쉽게 접하기 힘든 광고가 방영되었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 모습 앞에서 정장 차림의 정연춘 원장이 직접 EBS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광고였다.

“EBS는 평생 교육매체로서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방송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 길지 않은 2분 정도의 분량이었으나 당시 EBS가 겪고 있던 공사화 문제와 맞물리면서 곧 광고는 화제가 되었다. 1993년부터 시작된 EBS 독립 논의는 계속 표류중이었고 오히려 새로운 논란만 야기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EBS는 1994년 2월 23일, EBS 공사추진실무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공사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기획단은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공사 관련법안 실무 작성, 공사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위상 정립을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했다.

정부도 EBS 독립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해 4월에 공발위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었다. 공발위의 제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재원은 공공단체기금·공공자금·사업이윤·국고보조금·수신료 일부·협찬광고 및 상업광고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보고였다.⁶⁹⁾

한편, 방송개발원에 의해 조직된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도 1년간의 연구 끝에 1994년 7월에 ‘2000년 방송환경의 변화와 한국방송정책’이라는 최종보고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도 공발연의 연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한다는 것⁷⁰⁾은 동일했다. 재원방안⁷¹⁾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1994년 9월 5일, 교육개혁위원회가 6개월간의 연구 끝에 발표한 교육개혁종합보고서도 EBS의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방송위원회 산하단체인 공발연과 방송개발원 산하의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의 결론이 모두 EBS의 공사화로 모아졌지만 정부의 모든 부서가 EBS 공사화를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KBS는 수신료 분담 등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EBS 공사화를 적극 반대했다. 공보처도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에 EBS 독립방안을 상정했으나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교육계는 EBS 공사화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방송이 크고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독립적이며 중립적이고 전문화된 공사체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 공정하게 내린 결론을 조금도 지체 말고 지금 당장 집행해야 한다.

지금 케이블TV 및 지역 민방출범을 앞두고 교육방송은 그동안 키워온 전문 인력의 대량유출과 공사화 지연으로 인한 극단적인 사기 저하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가까스로 키워온 방송의 준립기반마저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 염려된다. 교육방송의 조속한 공사화를 촉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⁷²⁾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EBS는 물론, 외부에서도 EBS 공사화 추진에 나서기 시작했다. 교육방송공사추진위원회는 10월 17일, EBS 공사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45개 시민단체 및 각 방송사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방송개혁국민회의도 교육방송의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뒤이어 EBS와 방송개혁국민회의는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화·경영위원회를 통한 인사 및 경영,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지향하는 고급 문화 채널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방송공사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2월 21일 정부 정책자문기구인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도 EBS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 정책 정부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⁷³⁾

1994년 제작한 대외 이미지 광고

1994년 12월 2일
교육방송독립공사 추진운동 전개

72) 동아일보 1994년 8월 30일자

73) 교육방송은 교육개혁차원에서 위상을 재정립·교육전문 독립채널로서 운영
공보처, 선진방송5개년 계획보고서, 1995. p.22



1994년 12월 27일
교육방송 살리기 직원대행회의
L

74| 406명의 조합원 중 365명이 참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323표, 반대 33표가 나왔다. EBS 직원의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했던 것이다.

75| 그 날 발표된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보처 산하 연구단체 3곳에서 교육방송을 공사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음에도 정부와 방송개발원 측은 이를 무시해 파행운명을 초래하고 있다. 광고 허용·시청료 수납·편성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육방송의 공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EBS 노조는 독립공사가 되지 않으면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⁷⁴⁾ 12월 26일, 개국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EBS 노조는 우면동 제1스튜디오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선언식⁷⁵⁾을 가졌다. 다음날인 12월 27일, 파업이 시작되었다. EBS는 간부사원을 투입하여 기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각 언론들은 EBS 파업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설을 통해 파업 중단·EBS 공사화를 적극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문제가 확산되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국무총리실에서 EBS 노조를 방문, 협상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파업 철회 조건으로 1995년 1월, 공보처와 교육부의 의견을 종합, 공사화 문제에 대한 정부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3일간의 파업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KBS와의 재통합 논의

새해가 시작되면서 EBS 공사화 논의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비록 파업에 동

참하지는 않았지만 EBS 간부사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전국 주요 일간지에 공사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EBS의 열악한 재정과 환경 때문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이 나선 가운데 1995년 1월 18일, 공보처·교육부·교육방송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교육방송 제도개선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갑론을박의 의견 끝에 교육방송을 KBS에 통합키로 하는 공보처의 안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교육방송의 인력·장비·시설 일체를 KBS에 이관하고, KBS 1TV는 시사정보·교양채널로, 2TV는 오락문화채널로 차별화하고, 추후 교육방송을 위성채널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각 방송사 노조는 이를 극렬하게 반대했다. EBS와 KBS는 물론, MBC·CBS 노동조합은 방송사 단일노조 준비위를 구성하고 ‘교육방송의 강제적인 KBS 재통합은 KBS와 교육방송을 다 망치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KBS의 조직비대를 빌미로, 교육방송의 독립성을 살리겠다고 분리시킨 EBS를 다시 강제로 재통합한다면, 이 나라의 마지막 무공해 방송인 EBS마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였다. 시민단체들도 두 팔을 걷어 올렸다.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교육방송 살리기 연대모임’이 결성되었다.

사회 각계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또다시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KBS 통합 안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갔던 것이다. 공보처는 끝 없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EBS의 위상 문제를 포함한 '선진방송발전5개년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모든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⁷⁶⁾

마침내 7월 14일, 공보처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선진방송발전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파행 중인 EBS를 독립채널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⁷⁷⁾ KBS와의 합병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방안도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 언론은 우리나라에서 교육방송은 천덕꾸러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의 선진방송발전5개년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교육방송은 또 한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정부가 교육방송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룬다고 해놓고, KBS 통합안 등 현실성 없는 대안만 제시하다가 교육부에 1996년 6월까지 교육방송의 재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⁷⁸⁾

ABU 가입과 새로운 프로그램

한편, 새로운 위상 정립 문제로 EBS가 난국에 빠져 있던 1995년 1월 13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간 추진해왔던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송연맹(이하 ABU)으로부터 회원사 가입 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ABU의 회원사가 되면서 전 세계 방송국들과의 신속·원활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 일을 계기로 세계적인 방송사로서의 면모를 인정받고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1994년부터 활발하게 추진했던 직원들의 해외연수도 보다 시스템화되는 등 EBS는 ABU 가입을 위상 강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확대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나갔다.

한편, 그해 EBS의 편성은 '과학', '정보', '교육개혁', '환경' 등을 주제로 삼았다. 대표적인 변화는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었다. 국내 과학기술의 산실인 KAIST와 공동 제작한 <이것이 첨단과학이다>·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당뇨나 암 등 여러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현장 보고서 <세계의 첨단과학>·발명가와 에피소드를 묶어 제작한 <만화로 보는 발견 이야기> 등은 방송 직후부터 인기를 끌었다. 그 가운데 특히 <이것이 첨단과학이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KAIST와의 협력⁷⁹⁾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밖에도 각광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선생님 질문 있어요>⁸⁰⁾를 빼놓을 수 없다. 첨단 미디어와 생방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국민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

76) 여전히 EBS의 독립공사화는 난항에 빠져들었다. 김학천 건국대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글로 이를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교육방송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위상을 재정립하며 교육전문독립채널이 되기 위한 자립방안을 지난 6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도의 모호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10여 년이 걸렸다. 그러나 교육개혁까지 들먹인 이 약속의 이행조짐은 아무 것도 없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민에게 이런 헛웃음을 하기 이전에 이미 교육방송은 방송개혁의 핵심이며 출발점이어야 할 정도로 처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제작비와 직원의 처우를 책임질 방안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전국 대상의 개방된 평생교육채널'이란 무거운 책무에도 불구하고 채널권(편성·인사)은 교육부장관이 쥐고, 운영은 교육개발원의 부설기구로 하고, 방송송출은 KBS의 신세를 지는 형편이다.

결국 교육과 방송을 연결시키는 신념을 지녔던 직원들도 생활고를 빌미로 해마다 무리를 지어 떠나곤 했다. 왜 정부는 이토록 끈질기게 채널의 '장악'만 유지할 뿐 제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않는 것인가. 전파를 통한 이 정도의 봉사조차 포기하면서 방송을 문화로서 꽃피운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중앙일보 1996년 7월 28일자

77) 기타 결정사안으로는 PP와 SO의 상호경영 허용, 2000년 이후 KBS 1TV 상업광고 전면폐지, 종합유선 방송국 복수 소유 단계적 허가,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 방송위원회 통합, 방송개발원과 언론연구원 통합 등이 있었다.

78) 조선일보 1995년 7월 20일자

79) 1995년 2월 14일, 대전 KAIST 회의실에서 EBS 정연춘 원장과 KAIST 심상철 원장이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50분 분량의 총 26편을 함께 만든다는 것이었다. 정보통신·생명공학·신소재 에너지 및 환경·로보틱스·차세대 교통 등 첨단과학 소재가 선정되면서 1995년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다.

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에서 선정하는 1995 어린이청소년방송상을 수상했다.



┌
〈딩동령 유치원〉



┌
〈하늘 다람쥐의 숲〉



〈컴퓨터 첫걸음〉

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전화나 팩시밀리, PC통신 등으로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즉석에서 해설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자연 다큐멘터리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파충류〉⁸¹, 〈물총새 부부의 여름나기〉, 〈송골매와 보라매〉, 〈야생의 성역-비무장지대〉 등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이 이어졌다. 후일, EBS가 자연 다큐멘터리의 최고 방송사로 인정받게 되는 시작이었던 것이다.

한편, EBS FM에서는 어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당시 큰 화두였던 '세계화 정책'에 호응했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선별하는 방법을 알려준 〈책나라 여행〉도 눈길을 모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다.

EBS FM은 특히 약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그해 11월 1일, 서울 경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EBS FM의 스테레오 방송⁸²을 시작함으로써 방송 음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81 | 방송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1996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였다.

82 | EBS는 교육 FM 전용 STL을 설치했으며 한국교육 FM 방송국 변경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라디오 FM의 스테레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1995년 3월 생방송으로 방송된 〈선생님 질문 있어요〉의 한 장면과 서경석, 이윤석 MC





교육방송 2대 원장 정연춘 前 원장을 만나다 1992. 9. 9 ~ 1995. 9. 8

교육방송 EBS 그리고 희망의 또 다른 이름

● 모든 것이 부족해도 열정만은 충만했다

먼저 식사를 했다. 인터뷰어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시간 선택이다. 시간을 잘 피하고, 잘 만들어내는 것. 예외가 있다면 인터뷰이의 의지다. 굳이 식사시간 직전에 약속을 하게 된 이유.

“후배들이 온다는 데 그냥 보낼 수 있나요. 게다가 옛 추억까지 되새겨야 하는데.”

EBS의 2대 원장 정연춘. 그를 만났다. “늘 직원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나 둘 교육방송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모자라 밤새 줄을 서야만 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가 부임했던 날은 1992년 9월 9일. EBS가 개국하고 채 2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 산하의 KEDI, 그리고 KEDI의 부설기관으로서의 교육방송. 당연히 편성권도 없었던 시절이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지만 차고 넘쳤던 것은 열정뿐이었습니다. 제작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안주하려고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EBS 프로그램은 교육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를 들곤 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언론과 사회단체들은 ‘EBS는 반드시 공사화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EBS 공사화를 위한 노력이 오래도록 이루어지곤 했다.

●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숨을 쉰다

“첫째도, 둘째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당면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방송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거니와 당시에도 시청률은 더 큰 가치가 되곤 했다. 제작비나 인력 등 현실 여건은 늘 뒤로 물렸다. 시청률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곤 했다.

“교육방송만큼은 시청률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상업 방송사들은 충분히 그 가치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펄떡펄떡 살아 숨 쉬는 생명력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여건의 개선이 필요했다. 부임 직후, 정부와 KEDI에게 제작여건의 개선을 무수히 많이 호소했다. 중계차가 자체기술로 설계되었고, 첨단 장비가 장착된 편집실도 구비되었다. 그러자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열망이 더 높히 타올랐다. 성과도 나타났다. 1993년 6월 <하나뿐인 지구>가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1994년 6월 <시네마천국>도 수상, 수많은 프로그램의 대외수상이 줄을 이었다.

그가 부임한 이후, 국민들과 함께한 이벤트도 참 많았다. 좋은 프로그램 제작, EBS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다. 창작국악가요제가 열렸고, 청소년창작가요제, 리틀야구대회, 어린이마라톤대회가 뒤를 이었다.

● 더 많은 홍보를 위하여

“CI가 필요해지더군요. 통일된 이미지로 다양한 행사를 수행할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EBS 최초의 CI가 탄생했다. 어떻게 해야 많은 국민들에게 EBS의 가치와 역할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원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했다. 촬영 시간 내내 고생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광고방송이 시작되었다.

“EBS는 평생 교육매체로서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방송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83] 그는 취임사를 통해 “학교교육의 뒷받침과 사회교육의 확대,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송”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방송의 취약한 재정과 제작 여건, 불안정한 위상이 교육방송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만큼 그동안 교육방송 발전을 위해 애써온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극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4] 이 법안의 뼈대는 1995년 7월, EBS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관련 부처 및 KBS와의 협의과정에서 핵심부분인 운영재원 마련 방법이 바뀌었다. 애초에 EBS는 수신료 15% 배분, 자체수신료 신설, 상업적 광고의 제한적 허용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큰 화제를 모은 사건이었다. EBS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일했던 때입니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누구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지금 열매가 된 것임을.

부족한 예산과 재원 확보방안

1995년 9월, EBS에 박홍수 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교육방송 독립 논의는 보다 활성화되었다.^{83]} 그 결과 교육부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1995년 10월 10일 교육방송의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원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기관명 : 한국교육방송원
- 기관형태 : 정부 출연 독립법인체
- 방송편성 : 교육부장관의 승인
- 주요사업 : TV·라디오 교육방송,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교재 및 영상매체 개발 보급, 기타 교육방송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사업
- 운영재원 : 정부출연금, TV수신료, 지방재정교부금, 공익자금, 자체수입⁸⁴⁾

가장 핵심사안인 운영재원은 정부와 전국의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출연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EBS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재원확보 방안이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교육부는 법안의 국회 내 심의를 요구했으나 각 부처의 반대가 여전히 거셌다. KBS는 수신료 징수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공보처도 상업광고 허용을 거부했다. 총무처와 재정경제원은 정부 출연금 증액에 난색을 표명했으며, 내무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재원 조달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 부처의 반대로 인하여 법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한겨레신문은 ‘교육방송의 하소연’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취임 3개월을 맞은 교육방송 원장이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동안 교육방송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교육방송을 독립시키고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으나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놓치게 되었다. 재정경제원은 KBS로의 재통합을 요구했으며, 총무처는 '교육방송을 정부 출연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며 신설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⁸⁵⁾

교육방송의 지난한 위상 정립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수학능력시험과 EBS

EBS가 수능방송으로 큰 활약을 보인 것은 첫 시험이 치러진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부터 시작된 방송 이후 해마다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TV고교가정학습>을 수강한 학생들이 EBS로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례도 많았다. 학원이나 과외 수강을 하지 않고 EBS 방송 시청만으로도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급증했다. 수능 당일에는 TV와 FM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로 문제풀이 방송을 했고, 문제 분석·향후 전망 제시·논술 대비 특강·진로지도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1995년 5월에 발표된 새로운 교육개혁안은 EBS로서는 또 다른 도전의 과제였다. 이전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재판매량, 높은 시청률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한 강의방송이 시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5·31교육개혁안'에는 학교선택권 보장·자율화의 폭 확대 등 여러 핵심 사안이 있었으나 특히 주목을 모은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혁신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국공립대의 본고사 폐지
- 필수자료인 종합생활기록부와 수능·논술·면접·실기 등으로 학생 선발
- 종합생활기록부는 과목별 성적은 물론, 학생의 다양한 적성·인성·봉사활동·특별활동 수록하는 종합평가 방식
- 사립대학의 신입생 제도 전면 자율화
- 대학입학 수능시험의 문항 수 대폭 확대

아울러 이 조치는 1997년 대학입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EBS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교과 프로그램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인 수능시험이 이전과는 달리 변별력을 높이고, 크게 어려워진다고 발표되었기에 EBS의 방송 프로그램은 큰 관심을 모았다. 1996년 2월 국립교육평가원이 새로운 교육개혁을 감안한 출제경향⁸⁶⁾을 밝히면서 EBS의 수능강의는 많은 호평을 받게 되었다. 특히 수능방송 언어영역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실제적인 질의와 응답

85 | 한겨레신문 1995년 12월 18일자

86 | 그 해 평가원이 밝힌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 수리탐구 부분에서 처음으로 6개 문제의 주관식 출제
- 영어 듣기 평가문제 17개로 증대
- 영어 전체 문항 5개 증대
- 수능 전체 문항 30개 증대(언어 5개, 수리탐구 20개, 외국어 5개 등)
- 전체 배점을 200점에서 400점으로 개선



87| 경향신문은 이만기 선생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보통 TV방송 수업은 단조롭게 마련이지만 그의 강의는 튀었다. 만득이 시리즈 같은 농담도 섞고, 연예인 이야기도 가미하면서 수업을 재미있게 했다. 또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 학생들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 소문이 번지면서 그는 단번에 명강사 대열에 올라섰다. 비결은 심도 있는 교과연구와 철저한 수업준비였다."

경향신문 1997년 11월 18일자

88| 처음 EBS가 방송시간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95년이었다. 그해 2월부터 5월까지 방송시간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3개월간 운영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공보처·체신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원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89| 제 반 문제로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시간은 평일 밤 12시 10분부터 익일 1시, 일요일에는 밤 12시부터 익일 1시까지였다.

90|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3시간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9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실질적인 중일방송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이루어짐에 따라 큰 인기를 모았다. 당시 방송 강의를 했던 이만기·천신일 선생은 뛰어난 강의 실력을 뽐내 스타강사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⁸⁷⁾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방송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이듬해 위성TV에 의한 방송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방송시간 연장

방송시간의 확대는 EBS의 오랜 요구⁸⁸⁾ 가운데 하나였다. 방과 후인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방송시간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녹화를 따로 해야만 실제적인 방송 수업이 가능했다. 방송시간 연장이 가능해진 것은 1995년 7월,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당시 공보처가 국회에 보고한 바는 1995년 하반기부터 TV 방송시간을 90분 증대하며, 나아가 1997년부터 중일방송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EBS는 이러한 정부 발표에 기준하여 공보처·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를 시행했고, 한편으로는 교육부에 방송연장 허가 신청계획안을 제출했다. EBS의 방송연장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 1단계 : 1996년 1월에 50분 확대 ⁸⁹⁾
- 2단계 : 1996년 하반기 3시간 확대 ⁹⁰⁾
- 3단계 : 1997년 3월에 3시간 확대 ⁹¹⁾

이듬해 3월 방송시간이 연장되었다. 1996년 3월 2일부터 EBS는 오후 4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8시간 30분 방송체제로 접어들었다. 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



1998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및 해설방송

1995년 당시 수능 교재



벽 1시까지 18시간 방송되었다. 케이블 교육TV의 개국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EBS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1시간 늘어난 체제로 새로운 편성으로 방송이 구성되었다. 그해 봄, EBS는 편성 개편의 기본 틀을 새롭게 했다.⁹²⁾ 교과 프로그램은 방송매체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대폭 재조정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 학교·학년 교과 편성을 지양하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학입시에서 비중이 커진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EBS수능특강>이 신설되었다. 특히 토요일에는 90분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와 전국 학생들을 전화·PC 통신·팩시밀리 등으로 연결하여 질의 응답하는 새로운 방식의 방송 수업을 시도했다. 새로운 프로그램 배치 외에도 흥미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우선 대중적인 스타들을 대거 출연자로 등장시켜 이목을 모았다.⁹³⁾ 동아일보는 '성공적'이라는 표현으로 EBS의 새로운 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⁹⁴⁾

한편, 가을개편에서도 이러한 방침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편성방침은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로서 인터넷 정보 프로그램 신설 및 교육개혁의 이념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열풍을 불러일으킨 인터넷 활용법을 부담 없이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학교교육 방송의 분야에서는 교육개혁의 실천사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열린 교육 열린 사회>는 교육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방송되었고, 교육문화뉴스인 <EBS 교육문화뉴스>도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특히, 평일에 편성된 <청소년 봉사대>는 봉사활동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도록 기획되었는데, 새로운 사회공헌 인식 제공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92) EBS 이미지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학교육·외국어교육 등의 영역 특화, 과학·어학 등의 프로그램을 대상 집단별로 균형 배치, 퀴즈·토크쇼 등 참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시도, 주말 학습 프로그램 폐지 등이었다.

93) 영화배우 조용원이 동국대 조재형 교수와 함께 <시네마천국> MC로 기용되었다. 한자 학습 프로그램인 <하늘천따지>는 코미디언 심형래가, 만들기 프로그램인 <만들어볼까요?>는 배우 여운계가 맡았다. <중2국어>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대 박동규 교수가 설명했다.

94) '학생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봄 편성은 성공적'이라고 언급했다. 동아일보 1996년 4월 3일자



95] 처음 방송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시도는 1991년부터였다. 그러나 타 회원사들의 반대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1996년 6월 14일, 방송협회 가입신청을 한 지 30여 일만에 드디어 정식 승인되었다.

한편, 라디오에서는 전반기 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유형별·대상별 시청 시간대를 분석함으로써 활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외국어 프로그램의 재방송 시간대를 조정했으며, <토익강좌>, <토플강좌>를 집중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일요일 아침에 연속 재방송했다. 그밖에도 진로교육·직업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시청자를 위해 심혈의 노력을 기울인 EBS의 성과는 다양한 외부 성과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열악한 제작환경과 제작비 부족으로 자비를 털어가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임직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기도 했다.

일련의 성과들은 EBS 임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타 방송사들로부터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그해 6월 14일, 부산 파라다이스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1996년 방송협회 이사회 석상에서 EBS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방송협회 가입이 정식 승인되기에 이르렀다.^{95]} 그간 교육부 산하의 기관으로 받아왔던 오해를 떨쳐내게 되었고, 그간 방송사로 인정받지 못해 제한되었던 방송대상 출품 및 방송협회 주관 연수, 방송시설 사용과 자료 활용 등이 가능해졌다. 세계방송연맹과 아시아방송연합 등 해외방송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BS FM,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

EBS TV가 질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EBS FM 또한 학교교육 중심의 방송 체제에서 조금씩 탈피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EBS FM의 편성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편성의 70%는 외국어와 학교교육 프로그램, 방송통신고등학교·방송통신대학의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었다.

1994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해 가을에는 <EBS교육소식>이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방송되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시간>, <교사의 시간> 앞에 편성되어 학부모·교사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했다.

일요일 편성도 크게 바뀌었다. 이른 아침인 7시에는 <TOEIC강좌>⁹⁶가 신설되어 직장인 등 성인들의 인기를 모았다. 한낮에는 팝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체계적인 해설과 들을 수 있는 <음악의 세계>⁹⁷, 우리 국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친근하게 청취자들에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일요 국악한마당>⁹⁸ 등이 편성되었다.

1995년에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던 편성에 큰 변화를 시도했다.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대거 신설되었다. 특히 <하얀 마음 파란 마음>⁹⁹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모았다. 그밖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재미있는 특활영어>, <노래로 배우는 영어>, 성인 대상의 <팝스 & 잉글리시>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한편, 1996년 들어서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매체의 특성을 보다 강화했다. EBS FM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의 교과 학습 프로그램이 폐지되었고, 대신 다수의 영어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학교교육 대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익강좌>, <토플강좌> 등의 방송시간이 확대되었고, <기초생활영어>, <생방송 영어퀴즈쇼> 등이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그해 전반기부터 생방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생방송 영어퀴즈쇼>, <생방송 스튜디오 1045> 등이 그것이다. <생방송 영어퀴즈쇼>는 문제풀이의 학습적인 효과와 쇼의 오락적인 효과를 접목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주 장원·월 장원 선발 등의 형식으로 인기를 모았다.

<생방송 스튜디오 1045>는 종합 교양매거진으로, 우리나라 라디오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된 프로그램이었다. 국내외 지역 통신원과 해외 통신원을 연결해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인기를 모았다.

그해 후반기에는 프로그램의 유형별·대상별 시청시간대를 분석해서 프로그램의 신설과 개편이 이루어졌다. 우선 외국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재방송 시간대를 조정했다. 아침에만 방송되었던 외국어 프로그램 <영어회화>, <에스파냐어 강좌>, <구텐모르겐>, <봉주르 라 프랑스>를 낮 시간대에 재방송함으로써 청취기회를 확대했다. 그밖에도 1996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인 <교사 영어연수>의 방송시간도 15분으로 편성했다.

96| 당시 TOEIC 전문강사인 임귀열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교수가 진행자로 나서서 큰 인기를 모았다.

97| 대중가수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던 고 김광석 씨가 진행을 맡아 칸초네, 락, 블루스,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했다.

98| 판소리 분야의 대표적인 장인 안숙선 씨가 진행을 맡았는데 '국악상식', '명인들의 삶' 등의 코너를 통해 국악의 이해도를 넓히고자 했다.

99| 국민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정보, 활동, 사연 등을 제공하는 종합구성 프로그램이었다. 교사와 학부모를 직접 연결하고 점심시간대에 방송, 교사와 부모의 청취를 용이하도록 했다.

<일요 국악한마당>
└

<영어퀴즈쇼>
└



100| 각 언론은 물론, 일선학교 교사들도 'EBS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101| 미디어오늘 조창완 기자 기고문

102| 1996년 입법계획 요지 및 일정 참조



4. 한국교육방송원의 출범과 위성방송

입법

1996년 벽두, 비록 한국교육방송원법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사회 각계의 여론은 EBS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부처 간 알력 때문에 법안 상정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EBS의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왔다.¹⁰⁰⁾ 미디어오늘에서는 다음과 같은 EBS 독립공사의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방송 공사화는 누구나가 수용하는 방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사화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들이 교육방송의 장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교육방송은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나가며 어떻게 교육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지금과 같이 서투른 짜집기로는 교육방송의 미래도 없다. 정부는 각종 연구단체들이 최적의 안으로 제시한 '공사화'를 추진해야 한다.¹⁰¹⁾

1996년 3월, 교육부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산하 독립법인체인 한국교육방송원법 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¹⁰²⁾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EBS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여전히 문제는 예산이었다.

EBS는 운영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독립법인도, 공사화도 요원한 일임을 깨달았다. 그해 2월, EBS는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상업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교양·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1996년 8월
〈학교밖 미술여행〉 제작 현장

우선 2월, EBS 멤버십 제도가 도입되었고, EBS 교육방송 후원회도 결성되었다. 특히 멤버십¹⁰³⁾ 제도는 각 제휴기관의 할인혜택은 물론, 교재구입이나 프로그램 복사 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재원 마련도 이루어졌다. 2월 21일에는 EBS 평생교육카드를 위한 계약을 삼성카드와 체결하였고, 3일 후인 24일에는 서울은행과 EBS 평생통장 발매를 위한 기본합의서가 조인되었다. EBS의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정부 각 부처도 교육방송 독립에 대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그해 8월 30일, 교육부는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랜 논의 끝에 1996년 12월 17일 마침내 한국교육방송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상세한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1996년 11월 5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정부 입법으로 국회 상정
- 1996년 11월 5일 국회 제도개선특위로 법안 이송
- 1996년 12월 9일 법안을 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심의·의결할 것을 합의
- 1996년 12월 12일 법안을 교육위원회로 이관
- 1996년 12월 13일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 폐기
- 1996년 12월 13일 국회 법사위 이송 심의 후 수정·주서작성
- 1996년 12월 16일 국회본회의 한국교육방송원법 의결

한국교육방송원의 설립

EBS 임직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으나 교육방송원법의 의결은 큰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많은 인사들이 EBS의 독립법인화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¹⁰⁴⁾

103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1만 2,000원이었다. 특별회원은 개인의 경우에 12만 원, 종합회원 60만 원, 단체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104 | 서강대학교 김규 교수 ·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의 윤선희 회장 · 이완기 서울대 교수 · 이경재 국회의원 · 신현덕 세계일보 생활과학부장 · 최영 한국외대 교수 · 이태수 서울대 교수 · 김성환 전주대 학사대 학장 등이 EBS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모두가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EBS가 되기를 희망했다.

1997년 3월 26일
한국교육방송원 창립기념식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1997년 1월 13일, 한국교육방송원법이 공포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기관형태 : 정부출연 독립법인
- 운영체제
 - 의결기관 : 이사회(이사장 · 원장 포함)
 - 집행기관 : 원장(이사회 선임 · 교육부장관 승인)
- 운영재원
 - 정부 출연금 ·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 교육방송 운영에 의한 수익금
 - 교육정보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 · 수수료 · 수익금 및 협찬금
 - 기타 수익금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편성의 독립이라는 데 있었다. 기존에는 '편성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새 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독자적 편성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EBS는 법령 공포와 함께 EBS 상표(서비스표)를 등록 출원했다. 업무상 신용 유지와 수요자 보호 등 기관 고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었다. 출원 상표명은 '한국교육방송원'과 '한국교육방송원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였다. EBS는 그밖에도 한국교육방송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갔다.

마침내 1997년 3월 26일 오전 11시, EBS 우면동 청사에서 한국교육방송원 창립기념

식과 초대 원장¹⁰⁵ 및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소장 취임식이 열렸다.

기념식이 거행된 이후, 한국교육방송원과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현판식¹⁰⁶이 열렸다. 그 모습을 많은 EBS 임직원들이 감회 젖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EBS는 다양한 특집방송으로 한국교육방송원의 새 출발을 시청취자들에게 알렸다. 3월 16일 TV에서는 <EBS 그 새로운 출발>을, 라디오에서는 <정보화 시대와 교육방송>을 방송했다. 마침내 독립편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7년 3월 26일 한국교육방송원 창립현판식

세계 최초의 디지털 위성교육방송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97년부터였다. 2년 전인 1995년 8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무궁화위성 1호가 절반의 성공¹⁰⁷을 거둔 뒤의 일이다. 위성 보유로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원대한 포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통신 및 방송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난시청 해소·고해상의 화질 등 방송 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전망이었다. EBS도 위성방송에 참여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 12월 13일부터 1996년 6월까지 DBS 시험방송을 시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¹⁰⁸

1호 위성을 보완하기 위한 무궁화위성 2호가 1996년 1월 14일, 성공적으로 지구궤도에 안착하게 되면서 위성방송의 관심은 더더욱 고조되었다. 이 위성을 통해 확보된 가용채널은 모두 12개. 그러나 각 부처 간의 이견으로 관련법이 마련되지 못해 실제 운



105 | 박흥수 원장은 KEDI부설 교육방송 3대 원장에 이어 한국교육방송원 초대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사장직을 역임했다. 박 원장은 취임사에서 “백찬 감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한편,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보편성 실현이라는 이상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06 | 이날 기념식에는 교육 및 방송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여 EBS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 박성득 정보통신부 차관, 유인중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김종서 KEDI 이사장, 유혁인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서병호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107 | 보조로켓의 고장으로 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그 결과 10년으로 예정되었던 수명은 4년 4개월로 단축되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궁화위성 2호를 위성을 이듬해인 1996년 1월 14일에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108 | 한국통신은 무궁화위성의 DBS(직접위성방송) 시험을 위해 1개의 자체채널과 EBS TV, KBS 1·2TV 등 지상파 3개 채널을 중계 재송신 형태로 공급받아 시험방송을 했다.

1997년 8월 24일 위성교육방송 개국 전야제



109 | KBS는 2년의 준비를 거쳐 위성방송을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내용의 부족 등으로 대중화나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동아일보 1997년 5월 8일자

110 |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그밖에도 위성 교육방송의 추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방송이 더욱 많이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방송이 위성방송 채널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11 | 매일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

112 | 다음의 내용이 핵심 사안으로 발표되었다. 교육 전문 위성채널 2개 확보 · 방과 후 교육시간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목 집중 방영 · 수능시험에 대비한 통합 교과 프로그램 편성 · 우수강사 공개모집 · 122억 원에 이르는 재원 : 광고 허용, 교재판매 수익, 국고보조금 · 113억 원을 투입하여 모든 학교에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113 | 위성교육방송에 대한 공청회는 7월 1일 부산 교원연수원, 8일 대구어린이회관, 9일 대전 시교육청, 10일 광주시민회관 등에서도 열렸다.

영되는 것은 KBS의 뉴스와 스포츠 채널뿐이었다.¹⁰⁹⁾

1996년 5월 31일, 교육부장관은¹¹⁰⁾ 5·31 교육개혁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석상에서 위성교육방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1997년이 시작되면서 위성방송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져갔다. 정부 여당은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4월의 당정회의를 통해 2개의 위성채널을 빠른 시간 안에 교육방송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¹¹¹⁾

4월 21일, 정부는 위성방송 기본방침을 마련,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우선 EBS가 사용할 2개의 위성채널을 활용해서 과외방송을 시작하고, 효과가 높을 경우 민영 위성방송의 채널도 교육 중심의 채널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5월 13일, 국무총리실은 위성교육방송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¹¹²⁾

EBS는 위성교육 방송 시스템 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6월 4일에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실용화 시험국 전파송출 가허가를 취득했고, 6월 26일에는 서울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위성교육방송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¹¹³⁾ 공청회는 전국의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 아래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 개최되었다. 공청회는 위성교육방송의 바람직한 방향과 프로그램 성격, 운영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다.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시청하겠다는 응답은 무려 88.7%에 달했다.

1997년 8월 20일 시험방송이 시행되었고, 4일 후인 8월 24일 저녁 6시에는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개국전야제 행사가 열렸다. 이 전야제는 지상파와 위성, 라디오로 생방송되었는데, EBS는 SNG로 백령도를 연결,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마침내 8월 25일 오후 2시 30분, 역사적인 EBS 위성방송 개국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

렸다. 개국 기념식은 고등학생 대상의 교육방송 위성 1TV와 초등·중학생 대상의 2TV 전파발사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위성교육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¹¹⁴⁾을 반영하듯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축사가 낭독되었다.

같은 날, EBS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위성 제1·2TV 실용화시험국 허가를 마침으로써 본격적인 위성방송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9월 1일부터는 위성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방송이 시행되었다. 공공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었기에 철저한 광고계제 가이드 라인이 정해졌다. 우선 EBS TV 지상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시간대의 100분의 5 범위로 한정했다. 광고 품목에도 엄격한 제한¹¹⁵⁾을 두어 주류 광고, 보습학원, 입시학원 및 어린이 대상 학교학습 관련 학원광고,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광고는 자체심의를 거쳐 방송되지 않도록 했다.

1997년, 첫 시작과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급박한 일정이 EBS 임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바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오는 기쁨의 다른 표현이었다.

위성교육방송의 내용과 성과

그해 8월 25일부터 시작된 위성교육방송은 두 개의 채널로 운용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 1TV와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TV는 학교교육을 근간으로 편성되었다. 1TV는 주당 55시간, 2TV는 72시간으로 총 127시간에 걸쳐 방송되었다. 인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급격한 방송시간의 확대는 EBS의 조직 체제의 개편을 요구했다. 1997년 7월 16일 이전까지 부제 체제였던 EBS 조직은 팀제로 전환되었다.¹¹⁶⁾ 뒤이어 12월 31일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차 조직개편을 단행

114 | 고건 국무총리, 이명현 교육부장관, 박성득 정통부 차관,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 이영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함종한 의원, 서한샘 의원, 윤세영 SBS 회장, 민병준 광고주협회 회장, 김하준 교원공제회 이사장, 김란수 한국교육방송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115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 시청대상이었기에 어느 방송매체보다 제한이 많았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을 두었는데, 타 방송사는 당시 모든 프로그램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광고가 시행되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16 | 이전까지의 58단위 조직이 62단위 조직으로 바뀌었다. 3본부 3실 12국 37부 3팀이었던 조직은 3본부 3실 12국 44팀으로 개편되었다.



1997년 11월 6일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한 위성방송 수신기 전달식

117 | 3본부 3실 12국 44팀에서 3본부 3실 12국 42팀으로 축소되었다.

118 | 전국의 1만 293개 학교 중 무작위로 추출한 1,166개 교가 조사대상이었다. 경향신문 1997년 9월 11일자

119 | 중학교와 초등학교 모두 398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120 | 위성수신장치는 90% 이상의 학교에서 구비한 상태였으나, 교실까지의 연결이 문제였다고 한다.

121 | 매일경제신문 9월 9일자

했다.¹¹⁷⁾ 직원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다. 위성교육방송의 성공 여부는 후일 공사화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임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위성교육방송은 놀라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9월 1일에 시행된 'EBS 위성방송 시청현황'¹¹⁸⁾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59.6%에 해당하는 학교가 방과 후 직접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의 학교 또한 프로그램을 사전녹화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대상의 78.9%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EBS 위성교육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 또한 58.4%의 학교가 위성방송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는 48.5%에 달했다.¹¹⁹⁾ 위성교육방송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설 부족이 그 원인이었는데, 위성 수신장치가 교실까지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¹²⁰⁾

가정에서의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 EBS가 위성교육방송을 시작한 이후, 케이블TV를 통해 교육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 가입률은 위성방송 개국 전달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을 상회했다.¹²¹⁾

한편, EBS는 위성교육방송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EBS 부설기관인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 시작한 이 서비스는 위성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문항과 해설을 제공했으며, 교과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왔다. 특히 위성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하여, 편집·저장했다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VOD 서비스를 통해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EBS의 정보제공과 인터넷

1998년에 들어서면서 EBS의 서비스는 더 다양해졌다. 특히 새로 구축된 인터넷 서비스는 그간 시간대가 맞지 않아 방송을 듣지 못한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1월 4일부터 시작된 EBS 교육정보 인터넷 서비스는 4월 15일 더 확대되면서 쌍방향 교육채널로의 입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미수신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큰 수혜자였는데, 희망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 방송내용도 서비스되면서 1997년 11월 이후부터 방송된 전 교과목에 대한 학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하스미디어 전용 인터넷으로도 방송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 처음에는 수험생을 위한 수능 대비 프로그램과 어학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으나 1998년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까지 확대·제공되었다.

1998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된 주조종실



한편, 그해 9월에는 EBS 산하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에서 전자교과서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전자교과서는 국어·영어·수학 등 3개 과목의 학년별 교과서 11개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듬해인 1999년 1월에는 ARS 교재판매가 시작되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여나갔다.

EBS FM, 큰 인기를 모으다

1997년 한국교육방송원의 출범과 동시에 FM라디오도 큰 폭의 개편을 추진했다. 교육·문화·정보 채널로서 보다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성인 대상의 고급 교양 프로그램,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었다.

특히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개편의 초점을 두었다. 재방송의 비중을 늘려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했고, 아침 시간대에 영어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했다. 아울러 아침 이동 시간을 겨냥한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취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이 <모닝 스페셜>¹²²⁾이다. 부담 없이 영어를 익히면서 시사와 날씨 등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인 이보영 씨와 외국인 진행자 아이작 도스트 등을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었으며, EBS FM의 영어 프로그램이 매우 효율적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¹²³⁾

한편, 1998년에는 EBS FM이 주관한 제1회 <고운노래 공모 발표회>¹²⁴⁾가 화제를 모았다. 댄스 음악과 랩의 흥수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동요를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는, 2010년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동요 보급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22 | 이 프로그램은 2000년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교양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영어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최초의 생방송이기도 했다.

123 | 한국경제신문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전국에 50여 개의 동아리가 생길 정도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0년 8월 21일자

124 | 서울경제신문은 이 행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분별한 대중음악의 흥수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의 말과 생각을 흉내 낸 가요가 아니라 자신들의 말과 생각이 표현된 동요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다.’ 서울경제신문 2009년 6월 29일자

<모닝 스페셜>
←



경영혁신

IMF 경제위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혁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공기업 민영화·유사부처 통폐합 등을 근간으로 한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방침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모든 공기관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정부 출연기관인 EBS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었다. EBS는 조직과 인력·예산 부문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8년 7월 교육방송의 구조조정 관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다음 달인 8월에는 정부의 교육방송 구조조정 지침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부원장 직제 폐지, 감사의 비상임화
- 부서 조직 개편을 통한 규모 축소
- 3본부 3실 12국을 1본부 2실 8국으로 개편
 - 편성본부는 편성국으로 축소 개편, 본부장 등 감축
 - 라디오제작국은 제작본부로 이관
 - 기획조정실, 총무국 인원 감축
- 퇴직금 지급률 하향 조정 및 퇴직급여 가산금 폐지
- 1999년 예산은 1998년 대비 인건비 포함 경상비 15% 삭감

이 방침은 노조와의 협의 끝에 일부가 그해 12월에 시행되었다. 부원장 직제가 폐지되었고, 감사는 비상임화되었다. 인력감축이 이루어져 26명의 인원이 EBS를 떠나야 했

다. 조직개편도 이루어졌다. 1998년 12월 17일에 확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3본부 3실 12국 43팀이 1본부 2실 8국 38팀으로 축소되었다. 그밖에도 시차근무제 조정, 대휴제의 적극적 활용 등 경제난 타개를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했다.

종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 방송

1998년 12월 16일, EBS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1997년 6월 11일에 확정된 교육방송 종합정보화 세부 추진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EBS가 당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이었다.

-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각종 정보의 체계적 관리·보존
- 향후 전개될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대한 대비

특히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했고,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의 설치는 홍보 및 복사보급 업무의 간소화·조직 간 정보 정체 현상 제거·부서 간 분산 관리 기능의 종합화·정보 추적을 통한 예측·분석업무의 활용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었다.

EBS는 교육방송 종합정보 마스터플랜 수립·3개 사업장에 대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하드웨어시스템 도입·방송정보 및 일반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LG-EDS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 1년간에 걸쳐 방대한 전산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네트워크 구축공사·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서버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사내 메일 시스템 및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EBS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우선 3개로 분리된 EBS 사무공간을 LAN으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사내 및 인터넷 메일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어 부서 간 정보공유가 용이해졌다.

프로그램 부제 단위별 편성정보가 체계화되면서 단위 프로그램의 부제·편성의도·내용·대상·방송시간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됐다. 시청자 상담원들은 이 시스템을 검색함으로써 기 방송작·방송예정작 모두에 대한 소개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프로그램을 복사하고 싶어도 정확한 방송일시·프로그램명·부제 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상담이 가능했으나, 이 시스템 정착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주제나 특징적인 장면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청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EBS는 1단계로 취해진 종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진 시스템의 적용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지속해 나갔다.

한편, 12월 1일에는 위성 1TV의 구조종실을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뒤이어 7일에는 지상파 구조종실까지 완전히 디지털화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화질과 음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EBS는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이전보다 2배 이상의 고화질과 CD롬 음질 수준의 방송을 송출하게 되었다. 또한 영상자료의 장기보존, 16대 9 비율의 와이드스크린 지원 등 향후 다가올 디지털 방송시대에 대한 대비도 충실히 해나갔다.

1999년이 시작되면서 EBS 공사화에 대한 논의가 또 한번 급격한 진전을 이루었다. EBS는 1999년 3월, 이러한 위상변화에 대비하여 지상파TV를 종합 사회교육채널로, 위성 1·2TV를 학교교육 보완채널로 차별화·전문화하고 방송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등 획기적인 편성개편을 단행했다.

시청자들이 방송시간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주당 방송시간을 각각 지상파TV 13시간, 위성 1TV 31시간 35분, 위성 2TV 15시간 5분씩 크게 늘어났고, 지상파TV의 평일 방송시간을 이전보다 3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시작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사회·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종일방송이 시행되었다. 공사를 향한 EBS의 전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었다.

Chapter.

2000
2010

3

EBS, 교육의 열매를 맺다

2010년 6월, 마침내 EBS가 교육방송 36년, 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10년 전, 20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향상된 위상 속에
EBS는 서 있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들에게
교육의 길을 터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EBS
어깨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 1997년 8월 25일 위성교육방송 개국후에도 인력 총원은 35명에 그쳤다. 방송채널이 2개나 늘었는데도 인력수급이 못미쳐, 송출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2|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상가를 임대해서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다. 주조 인력과 야외 촬영팀은 주차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근무했다. 사내 홍보팀 등은 본원에서 1.5km 이상 떨어진 정평빌딩 일부에서 근무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었다. 1인당 사무공간은 1.5㎡도 되지 못했다.

3| EBS 예산은 당시 KBS의 20분의 1, SBS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4| 노조는 파업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성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송출 편성인력의 34명 총원만으로는 파행제작이 불가 피하다." 동아일보 1997년 8월 28일자

5| 1997년 10월 9일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EBS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6| 1997년 12월 19일에 발표된 김대중 후보의 선거공약에서 EBS 위상 재정립과 공사화가 170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발표되었다.

1.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출발

오랜 갈망의 실현, 한국교육방송공사

성공적인 위성교육방송 개국 직후인 1997년 8월 28일, 우면동 사옥 앞에 EBS 노조원들이 모여들었다. 방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제작 여건은 너무나 열악했다. 인력¹⁾, 제작 공간²⁾, 자원³⁾ 등의 측면에서 위성방송 프로그램까지 제작하는 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따랐다.

그날부터 EBS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노조원들의 파업이유는 단지 처우개선 등의 문제가 아니었다. 재정경제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와 예산편성의 자율권 확보를, 교육부에 대해서는 청사 등 공간 확보와 인력증강⁴⁾ 등을 요구했다. 제 정당들에게는 EBS 위상 재정립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EBS는 파행 운영되었다. 일부 프로그램이 재방송되었으며, 대체 투입된 간부사원과 비노조원들이 과로로 입원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제1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EBS 파업 현장을 방문, 공사화의 추진 당위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각 정당과 시민단체⁵⁾는 EBS 문제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제1야당도 '새 청사 도입과 교육방송 공사화'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⁶⁾ 68일만에 걸친 장기 파업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듬해인 199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EBS 공사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위성방송의 확대 문제·KBS의 비대화 등 산적한 방송현안 가운데 EBS 공사화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새로운 방송질서 개편을 위해 다양한 토론회⁷⁾와 모임을 갖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안했다. 정치인과 학계가 참석한 21세기 방송연구소⁸⁾, 방송개혁국민회의 등은 조속한 EBS 공사화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발표했다. 전국방송노조연합에서도 EBS 공사화 등 '방송개혁 11대 과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정 건의서를 6,500여 명의 방송인 명의로 국회에 건의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단계적인 공사화 추진'이었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였다. EBS는 바로 '단계적인 공사화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원장 이하 전 직원이 나서 즉각적인 공사화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정부는 통합방송법 추진을 위한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각에서 KBS와의 재통합 문제가 재차 거론되는 가운데 1998년이 저물었다.

1999년이 시작되면서 방송개혁위원회는 EBS의 독립공사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⁹⁾ KBS도 EBS의 독립공사화에 호응했다. KBS는 '방송개혁위 의제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보고서에서 EBS에 대한 정부 출연금 중단과 자체 교재수입, 광고 수입 축소 등이 예상된다는 전제 아래, '수신료의 배분 없이는 교육방송의 공사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방송 공사화를 위한 수신료 배분에 적극 나섬으로써 교육방송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KBS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 아래, 연간 500억 원의 예산을 EBS에 지원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방송개혁위원회와 KBS가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은 정책 혼선과 조직 간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두 조직이 다시 합병되었을 경우에 정책 혼선이 따를 수 있으며 반발과 혼란이 자명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전향적인 자세임에는 분명했지만 EBS의 입장은 달랐다.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지면 1조 원에 육박한 금액이므로 15%인 1,500억 원 규모가 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특히 교육전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최소 1,000억 원의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방송개혁위원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9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마침내 방송개혁위원회는 1999년 2월 27일, 대통령에게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관급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방송위원회 설치
- KBS ITV는 시사, 보도 위주의 종합편성 채널로 특화



1997년 8월 28일 우면동 서옥 앞에서 노조원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7) 학계와 언론, 시민 등은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EBS의 공사화만이 교육방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의견의 결집이었다. 방정배 교수 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1998년과 1999년에 시민, 전문가, 행정 및 방송인이 개최한 방송개혁 관련 토론회는 500회를 상회했다고 한다.

8) 이 모임은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가졌는데, 'EBS는 공사를 설립하여 독립시키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재원조달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며, 학교 교육방송 말고도 사회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편성기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1998년 4월 15일자

9) 채널성격 : 공익적인 교육방송, 직업교육,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통일교육, 과학교육, 산업교육, 인성교육에 중점
EBS위상 : 독립공사화,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9, p52-53



1997년 9월 30일
여의도에서 열린 노조의 가두시위
L

- KBS 2TV는 문화, 예술, 교양, 소수계층, 지역연계 프로그램 방송
- 월 수신료는 2TV 광고 폐지하면서 인상
- MBC 총 매출액의 7% 이내의 금액을 공적 기여금으로 사회 환원
- 위성방송의 즉각 시행, 대기업 · 언론사 · 외국자본의 소유 33% 이내 허용
- EBS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교육방송공사로 위상 재정립

그밖에 EBS와 관련된 내용은 우선 직업 ·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등 공익적 교육방송이 되도록 하며, 사장은 방송위원장이 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예산과 결산은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위성채널은 1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오랜 세월, EBS가 추구했던 교육방송 공사의 씨앗이 화사한 봄날 속에 싹을 틔우게 된 것이다.

10 | 통합방송법안에는 위성방송 허용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1 | 동아일보 1999년 8월 23일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제정

정부 여당은 1999년 6월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방송 관계법을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은 방송발전기금의 출연과 TV수신료,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활용한 EBS 지원, 교육방송의 공사화가 주요 골자였다. 모두의 희망 속에 국회가 개원했으나 커다란 산고라도 겪듯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KBS 경영위원회의 설립 문제로 여야 간 합의가 실패한 것이 무산의 원인이었다. EBS는 물론, 위성방송에 진출하고자 했던 케이블TV 업계는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¹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사 설립을 기대했던 EBS는 점차 파행 운영되기 시작했다. 고질적인 예산 부족문제였다.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파행운영을 우려하고 나섰다. “돈이 없으니 협찬이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판다는 비난을 들어야 하고.”

EBS PD들의 푸념이다. EBS가 과도한 협찬으로 파행편성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EBS는 협찬이 없는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하거나 협찬을 붙이기로 했다. 그 원인은 재정난 때문이다. 1999년에 필요한 예산은 577억 원. 이 중 정부 출연금은 133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444억 원은 교재인세수입이나 협찬으로 자체 충당해야 한다.

EBS는 특히 이번 국회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의 기초를 마련한 교육방송공사법안이 통합방송법안에 묶여 통과되지 못하자 내년에도 빛투성이 살림에서 벗어날 수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¹¹

EBS의 파행운영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도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야당의 묵인 아래 여당 단독으로 통합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



1999년 12월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법 등 4개의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바로 옆 전문위원실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위원장의 법안심사 결과보고에서부터 법안 가결 선포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8분이었다. 1974년 KEDI 부설 교육방송으로 시작된 이래, 26년의 산고에 비한다면 8분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순간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12월 29일, 교육방송공사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년의 기다림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공포되자 EBS는 즉각적으로 공사설립준비위원회¹²⁾를 구성하고 공사 위상에 걸맞은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모두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1소위는 강령과 편성, 2소위는 조직과 인력·보수, 3소위는 홍보 외 공사 사업과 향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공사로의 위상 정립과 함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EBS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방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정부로부터 받아왔다.¹³⁾ 공사 설립 이후부터는 방송발전기금과 TV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게 된다. 199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산의 증가 덕분에 방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TV와 위성TV 등 전체 방송시간의 69%가 재방송이었으나 공사 설립 이후부터는 그 비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그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구하지 못했던 사회교

12| 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었다. 모든 직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생각이었다.

13| 국고출연금의 규모는 연간 13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정상적인 방송사 운영이 불가능했다.



2000년 5월 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박홍수 한국교육방송원 원장
└

2000년 5월 10일 공사 출범 기념
'2000 열린마당 대축제' 행사 개최
└

14| 이전까지 한국방송교육원장이라 칭했으나 허가장 변경에 의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변경되었다.

15| 이날 행사에는 각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고위직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민관식 전 국회의장, 최재승 의원, 김정기 방송위원장, 박권상 KBS 사장, 윤세영 SBS 회장,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 등이 자리를 빛냈다.

16| 6월 5일 <물총새 부부의 여름나기>, 6월 6일 <생명의 터-논>, 6월 7일 <하늘 다람쥐의 숲>, 6월 8일 <시베리아 호랑이 생포기>, 6월 9일 <한국의 고래를 찾아서>

육·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 가운데 하나였다. 예산 증대는 또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인터넷 시대·디지털 시대 속에서 EBS의 프로그램과 방송기술의 질적인 발전 또한 가능하게 된 것이다.

EBS는 공사 설립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취해 나갔다. 5월 9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사장으로 박홍수 전임 원장이 취임했다.¹⁴⁾ 박홍수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방송이 공사 출범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 직원은 방송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방송제작에 임해야 한다”고 감격 어린 일성을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홍수 사장은 “EBS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청사 확보와 열악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이후인 6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우면동 본사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내외빈 인사¹⁵⁾들

의 박수 속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현판이 걸리는 순간 임직원들은 감격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뒤이어 열린 기념행사에서 박홍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EBS가 한국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봉의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속도경영으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경영 효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전개되었다. 5월 10일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EBS 공사 출범 ‘2000 열린마당 대축제’가 개최되었다. 그밖에도 공사창립 특집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4월 30일 공사출범 특집 생방송 <국민대토론 21세기 EBS의 역할과 과제>
- 6월 공사창립 기념 앙코르 자연 다큐멘터리 시리즈¹⁶⁾
- 6월 30일 공사창립 특집 다큐멘터리 <EBS를 말한다>
- 7월 1일 공사창립 특집 교육대토론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하여> 1부
- 7월 2일 공사창립 특집 교육대토론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하여> 2부

한국교육방송공사, 첫 편성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한 EBS는 2000년 봄 편성을 혁신의 계기로 삼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안이 통과된 뒤였기에 특히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봄 편성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한편, 인터넷·정보 분야 등 교양 프로그램을 집중 방송한다는 데 있었다. 특히 1998년부터 약 2년 동안에 걸쳐 사전기획·제작했던 초등학교과 사전제작 프로그램 80편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국 BBC, 일본 NHK 수준에 버금가는 통합형 교과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제작했던 프로그램이 그해부터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학교교과과정에 연계돼 있으나 EBS의 독자적인 방송 커리큘럼에 따라 제작된 교과 프로그램들은 <미루의 요술글방>, <수학나라 아라별>, <슬기로운 생활-미미와 코코>, <즐거운 생활-야호! 짱아랑 번개랑> 등이다. EBS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0년부터 어린이 교육용 자연 다큐멘터리인 <과학의 눈> 등 140편을 사전 제작했다.

교사연수용 프로그램의 집중 편성도 그해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작된 <교사 바로 세우기> 특집과 교사 실무 연수 프로그램인 <어린이영어 이렇게 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연수>, <유아교육 교사 연수>, <학교현장보고> 등이 신설되었다.

인터넷 정보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이 생활을 바꾼다>, <클릭 쿨사이트>, <벤처강국 우리가 만든다> 등이 신설 방송되었다. 창의력과 상상력 계발을 위한 유아·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방귀대장 뽕뽕이>¹⁷⁾와 <클럼버스의 달걀>은 방송 이후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그해 가을편성은 시청대상별 시간대를 블럭화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중 평일 시간대를 유아·어린이·주부·성인 등 대상에 따라 블럭화함으로써 시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했다.¹⁸⁾

공영방송에 걸맞도록 캠페인과 미담뉴스 등 사회에 건강한 의제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가을부터 많이 방송되었다. <EBS기획시리즈>, 정보강국을 위한 국민 캠페인 프로그램인 <캠페인 920, 국민 여러분>, 미담뉴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뉴스>, 여성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삼색토크 여자>, <최완수의 우리 미술 바로보기> 등은

17) 2001년 1월에 출시된 뽕뽕이 비디오는 출시 두 달 만에 3만 5,000개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8)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는 성인 대상의 직업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주부 대상의 실용적 생활정보들이 자리를 잡았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오후 7시부터 8시 40분까지는 가족 대상의 에듀테인먼트 및 뉴스, 오후 8시 40분부터 11시 25분까지는 일반 성인 대상 교양 프로그램을, 오후 11시 25분부터 새벽 1시 10분까지는 고등학교 학교교육방송을 방송했다.

어린이 교육용 자연 다큐멘터리
<과학의 눈> 제작현장
7





큰 화제를 모은 <방귀대장 뽕뽕>

2000년 2월 19일 <딩동댕 유치원>
5,000회 특집 공개방송



공영방송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그밖에도 에듀테인먼트 성격을 강화한 프로그램과 온가족 시청을 위한 프로그램, 주부 대상의 실용적인 프로그램, 교육 현장의 건강함과 희망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등이 방송되었다.

19] <딩동댕 유치원>은 1999년부터 토요일특집으로 공개방송 '모여라 땡땡' 코너를 신설한 후, 시청자의 좋은 반응을 얻어 2000년 단독 프로그램으로 <모여라 땡땡>을 편성했다.

20] KBS·MBC 등 거대 방송사와의 직접적인 시청률 경쟁에서도 <딩동댕 유치원>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시청률조사기관 TNS미디어가 지난 2000년 7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KBS의 <TV유치원 하나둘셋>, MBC의 <뽕뽕>, EBS <딩동댕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청률 조사를 한 결과 <딩동댕 유치원>은 4~9세 유아·어린이 사이에서 평균 시청률 8.3%를 기록,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동안 KBS는 2.7%, MBC는 0.9%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한국경제 2000년 7월 20일자

노력의 댓가

2000년은 그간 EBS의 노력이 큰 결실을 보인 해였다. 공사로의 개편은 물론이고, 열과 성을 다해 제작했던 작품들이 크게 인정받은 해이기도 했다. 우선 EBS의 지난 역사를 함께했던 장수 프로그램들이 기념비적인 방송 횟수를 기록한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1982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한 <딩동댕 유치원>^{19]}이 2000년 2월 19일 방송 5,000회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다. 그간 단 한 차례의 공백도 없었던 EBS 최장수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타 방송사들이 유아 프로그램을 방송했다가 시청률 등 제반사정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기에 특히 의미가 남다른 프로그램이었다.^{20]}

2000년 2월 16일, 과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이 프로그램의 5,000회 방송을 축하하는 특집 공개방송 <야호! 땡땡 5,000>이 열렸다. 약 3,000여 명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판소리 신동 유태평양 군과 정음예술단의 국악무대, 유진박과 인형악단의 클래식 연주, 유니버설 발레단의 발레, 개그우먼 이성미와 함께한 서울시립가무단의 뮤지컬 등의 이벤트가 열려 자리를 빛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 프로그램의 5,000회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EBS의 최장수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이 19일로 5,000회를 맞이한다. 82년 3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딩동댕 유치원>은 초기에 원고 집필자 및 MC를 모두 유치원 교사로 구성, 다른 방송사의 유아 프로그램과 차별화 시켰다. 어린이 전문 MC 김종석과 도깨비 캐릭터 인형 '뚝딱이'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해 인기를 모았으며 지난해에는 어린이 공개방송을 실시했다. 그동안 공개방송에 참여한 부모와 어린이도 5만 명에 달하는 등 새 어린이 프로그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¹⁾

한편, 1994년 3월에 첫 방송된 <시네마천국>도 2002년 6월 16일, 300회를 맞이했다. 그간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걸작과 독립영화, 예술영화작가들을 특집으로 소개하는 등 독특한 내용 구성으로 영화 애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방송으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의 첫걸음은 열혈 영화인들의 열정에서 비롯됐다. 뜻있는 영화인들과 EBS가 만나 헐리우드식 오락영화 일색의 풍토를 바로잡고자 의기투합,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영화애호인들뿐만 아니라, 영화관계자와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단숨에 EBS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EBS는 이러한 의의를 알리고자 300회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그 의의를 되새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숨은 비디오 찾기,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 인터넷 영화여행, 단편영화 감상시간 등 가장 인기 있었던 코너들을 당시의 진행자들의 소개로 다시 만나보는 회고전으로 제작했다. 또한 영화계에서 영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감독·시나리오작가·평론가·기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21세기 한국영화가 나아갈 방향에

21) 매일경제신문 2000년 2월 29일자



22| 언론들은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렇게 언급했다.
'TV속 영화학교' 역할을 톡톡히 해온 EBS의 <시네마천국>(서울신문 6월 12일자)
'진지한 영화읽기, 다양한 영화 문화에 대한 탐색의 길'(서울경제 6월 12일자)
'작지만 깊이 있고 한결같은 영화천국'(경향신문 6월 12일자)

23| 3월 2일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회 지구환경영상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에 이어, 3월 8일에는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다큐멘터리 영상부문 프로특별상, 3월 22일 삼성언론상 시각영상부문상 등을 수상했다.

24| 1991년 'EBS 교육방송'이란 제호로 발간된 사보는 1995년 사내보인 '교육방송소식'과 사외보 'EBS 교육방송'으로 확대되었다. 사외보 'EBS 교육방송'은 1997년 'EBS 포커스', 2004년 'EBS 한사람'으로 제호를 변경,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다.

25| 2000년 3월에 시행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매일 일일 하이라이트가 업데이트되었으며, 프로그램 복사 주문을 에듀넷과 연결하는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국내외 다수의 상을 석권한
자연다큐멘터리 <눈>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되새겼다.²²⁾

한편, 그해에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시상도 줄을 이었다. 1999년에 방송된 자연다큐멘터리 <눈>이 2000년 3월, 국내외 다수의 상을 석권²³⁾한 가운데 수많은 프로그램들의 연이은 수상으로 EBS의 명성을 높여 주었다.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1990년 개국 때부터 거르지 않고 발간되어온 교육방송 사보가 100호²⁴⁾를 기록하는 성과도 있었다. EBS의 지난 노력이 역사가 되고, 한편으로는 빛나는 성과로 남게 된 것이다.

인터넷방송 개국

방송환경은 1990년대 말 IT기술의 급속한 발달 이래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력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EBS는 2000년 7월 22일,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매체를 통한 방송 서비스에 나섰다.²⁵⁾ 뉴미디어팀은 홈페이지 관리·VOD서비스 등을 통합 운영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사업 개발에 나섰다.

2000년 10월, EBS는 삼성SDS와 인터넷 교육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시대를 준비했다. 이로써 EBS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그간 부족했던 대국민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EBS는 기존의 VOD서비스 대행업체였던 하스미디어로부터 동영상 콘텐츠 작업을, 프리챌로부터 모든 라디오 개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인수했으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인코딩룸을 개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갔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대비한 서버 이전 작업이 마무리 된 12월 22일, 마침내 EBS 인터넷 방송 개국기념식이



개최되었다.

2001년 1월 1일, 새해 시작과 함께 EBS의 지상파·위성 1TV·2TV·FM라디오 등 4개 채널에 대한 VOD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시청취자들은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유·무료로 EBS의 모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개편된 홈페이지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 전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비회원제 서비스
- EBS 모든 프로그램의 VOD·AOD 자체 제작 및 서비스
- 분리 운영되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개별 홈페이지를 EBS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
- 사내 DB와 연계된 통합 인터넷 서비스 구현

그밖에도 EBS 인터넷 방송의 또 다른 특성은 동영상의 선명한 화질에 있었다. 지난 방송의 다시보기 서비스 용량을 대거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고화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디오방송의 경우도 일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송출 시스템을 갖추에 따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을 시범방송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EBS 인터넷 방송 시스템은 원투원 솔루션을 채택함으로써 고객 DB와 프로필 등 사용자 만족시스템을 통해 특화된 쌍방향 교육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었다. 인터넷 방송 시행 이후, 여러 순위별 검색사이트에서 EBS 홈페이지는 가장 접속률이 높은 사이트로 집계되는 등 시청자와 네티즌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이 만들어준 CI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 이후, EBS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각 채널별 성격을 차별화했으며, 생방송의 비중을 높이는 등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전개했다. 한편, EBS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성과가 높아지면서 일부 사설학원이 EBS의 로고와

2000년 10월 24일
인터넷교육 공동 사업을 위한 삼성SDS와의 제휴식
←

2000년 12월 22일
인터넷 방송 개국
↑



26]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인 EBS나 교육방송 등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호나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 학원영업을 함으로써 교육방송의 사업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7] 이 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주철환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포부를 피력했다. “늘 방송을 통해 인간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방송과 교육의 연대를 꿈꿔왔다. 라디오 진행은 그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일보 2000년 10월 17일자

CI, 인터넷 도메인 등을 유사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EBS의 기간 노력 덕분이긴 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심각한 폐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갔다. EBS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EBS의 유사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26]}

이 사건을 계기로 EBS는 CI의 개편 필요성을 절감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미래지향적인 방송상을 구현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BS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CI는 무려 349건 680점에 달했다.

새롭게 개편된 CI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21세기 방송환경에서 질적·양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EBS의 의지를 담았다. 이후, EBS의 프로그램과 간행물·홍보물 등에 새 CI가 EBS의 얼굴로 새겨지게 되었다.

공사화, EBS FM의 변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창립을 계기로 EBS FM도 새로운 변신을 꾀했다. 성인들 대상의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퇴근시간대를 겨냥한 최초의 영어 종합매거진 프로그램 〈이브닝 스페셜〉은 시사와 경제 등 성인들의 관심사를 영어로 진행했는데, 청취자들은 아침시간대에 편성된 〈모닝 스페셜〉과 함께 출·퇴근시간대에 영어매거진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대학입학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제2외국어 프로그램도 편성되었다. 〈고교 독일어 강좌〉와 〈고교 프랑스어 강좌〉가 신설되어 사교육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후반기에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주철환이 만나는 세상〉^{27]}이 편성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대, 이 시대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통찰하면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다.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편성도 눈길을 끌었다. 주중에 방송된 어학 프로그램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종합편으로 제작하여 일요일에 방송한 것이다. 〈중국어회화〉, 〈라디오토플〉, 〈라디오토익〉, 〈일본어회화〉 등이 그것인데, 주중과 주말의 반복 학습을 통해 회화학습의 효과를 높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은 교과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되었던 EBS FM이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등 어학전문채널로, 시사·교양의 전문성을 높인 정보문화채널로, 정체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사장 박홍수 前 사장을 만나다 1995. 9. 16 ~ 2001. 10. 21

열정 그리고 개혁, EBS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키워드

●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이야기

잠시 헛갈릴 법도 했다. 춘천고속도로에서 돌아나오자마자 나타난 붉고 푸른 건물. 순간 만화 속 캐릭터 세상이 떠오른 것이다. 호수와 산, 그리고 산들바람 사이에 고즈넉하게 서 있는 곳.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이다. 이곳에서 박홍수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사장을 만났다.

“객지생활 50년 만에 고향인 춘천시 서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학창시절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의 공식직함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신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3D 입체영상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급성장세에 들어설 것입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구름 빵’과 ‘피들리 팜’이 입체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디즈니사에서 18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한 전문가를 초빙해 만든 총 156편의 야심작이다. 이미 KBS·EBS 등 국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국내외의 52개 방송사들로부터 의향서를 받았거나 방영을 위한 교섭 활동을 펼치는 중이라고 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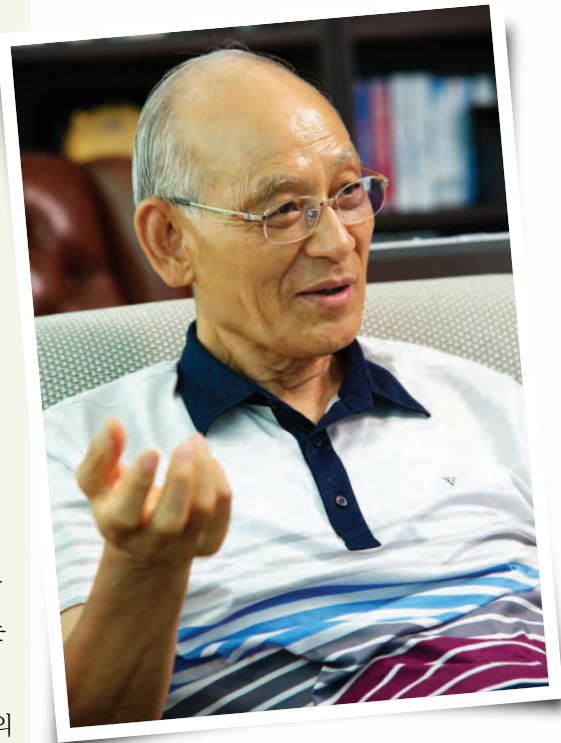
취재진이 방문한 시간에도 그는 외국 방송사와의 영문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중이었다.

● 정성은 사람을 감복시킨다

그는 독특한 기록을 갖고 있다. EBS 역임 기간 동안 그의 명함은 세 번 바뀌었다. 교육방송 3대 원장, 독립기관 한국방송교육원 초대 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사장이 그것이다. 재임 기간도 가장 길다. 1995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6년 동안 EBS를 이끌었다.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참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부의 감독이 지나칠 정도로 심했습니다. 여직원들의



치마 길이까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편성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방송이 혼재되어 있어서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우선 방송 시간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지 않았다. 방송시간이 늘어나면서 송출을 담당했던 KBS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시간 확대는 달성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전국 각지의 KBS 송신소를 직접 찾아 다녔다. 맨손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늘 삼겹살이나 과일이 쥐어져 있었다.

“함께 고기를 구워먹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송신소는 외진 곳에 있는데, 사람이 찾아가니 늘 반가워들 하더군요. 1년 동안 그렇게 KBS 송신소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KBS 사장 얼굴은 몰라도 EBS 사장과는 친한 KBS 직원들이 늘어났다. 이들의 지원 사격 덕분에 1996년 오전방송이 무리 없이 추진되었다.

“열과 성을 다하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관계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 위성교육방송, EBS에는 명분이 있다

1996년 무궁화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위성시험방송 사업자 선정이 화제가 되었다. EBS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1995년 당시만 해도 예산이 워낙 없었기에 타 방송사들이 모두 시행하던 FM라디오 스테레오 방송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테레오 방송을 위해 노력할 때 위성방송 사업자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사교육 문제가 상당히 심했는데, 위성방송을 학교 교과방송으로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운도 따랐다. 그가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할 때 옆 연구실의 교수가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다. 적어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위성교육방송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들 반겼다. 그렇게 위성교육방송을 EBS에서 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위성방송이었다. EBS의 위상이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공사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다.

● 세계 수준의 자연 다큐멘터리 포문을 열다

오전방송이 시작되면서 방송시간도 늘어났고, 위성교육방송도 개국했다. 인력과 처우는 그대로인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나자 직원들의 불만이 쌓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EBS의 꿈

인 공사화가 달성된다는 믿음이였다.

“EBS의 역할이 더 커져야만 정부에도 공사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1998년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이었다. 혁신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는 것도 이즈음 박 사장의 단골주머니였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야만 공사화가 가능하고, 예산 확보도 가능해진다는 논리였다. 위성방송 개국으로 지상파 TV가 사회교육 채널로 정착된 마당에 프로그램이 수준이 못 미친다면 그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자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방송의 격을 높일 수 있고,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뛰어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박수용 PD 등을 필두로 특수촬영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의 파충류>, <시베리아 호랑이> 시리즈를 비롯한 수작들의 대외 수상이 이어지면서 EBS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신화를 써나갔다.

● 숙원사업의 해결

예산 부족은 EBS의 오랜 문제였다. 개국 이래 단 한 번도 예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실무자 시각에서 사업을 보니 예산확보의 길이 보였다. 이전까지 외부에 의뢰했던 출판사업을 직영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협박을 가한 적도 있었다.

또 다른 숙원사업도 많았다. 수년째 가입하지 못한 방송협회 가입이 그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임 이후 EBS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하고 묻자, 방송협회 가입이라고 직원들이 말하더군요. 당시 방송협회장과 교류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방송협회 가입이 곧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EBS의 대외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공헌은 EBS의 공사화였다. 이 문제로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날 정도로 그의 노력은 대단했다. 그가 초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열과 성을 다했기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만약 위성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EBS의 공사화는 더 후일의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사화 직후에 참으로 기뻐던 일이 생각납니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비로소 그때

가 되어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직원들이 EBS 성장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도 박 사장의 역할이 컸다. EBS 직원들은 다른 어떤 방송사보다 앞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누구보다 급변하는 방송 정책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BS의 발전상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흐뭇하다. 그러나 아직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한다.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열정을 갖고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잃는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게 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EBS의 발전은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사 10주년을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가슴에 담아두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2. 도곡동 시대

또 하나의 숙원, 도곡동 사옥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 이후, EBS는 디지털 방송 시작, 위성채널의 본격 운영 등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과 또한 우수해 그 사이, 외부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하고 있었다.

EBS의 위상은 높아진 반면 협소한 공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EBS는 우면동 본사 사옥이 부족해서 서초 2동과 방이동 등 5개 지역에서 분산·근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되고 있었다. 공사 설립 시 사옥 문제 해결을 모색했으나 막대한 자금 소요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EBS는 효율성 제고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신사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새 사옥 물색에 들어갔다. 입지조건은 가급적 출연자들의 왕래가 편한 지역이었다.

약 두 달에 걸친 사옥 모색 끝에 EBS는 2001년 8월, 강남구 도곡동 소재의 한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소는 강남구 도곡동 463번지·464-3번지였다. 건물 규모는 전체 18,491㎡로 지하 3층·지상 7층으로 고질적인 공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EBS는 약 5개월에 걸쳐 방송국 용도의 건물로 개조한 후, 이듬해인 2002년 4월부터 부서별로 입주했다. 송출과 스튜디오 시설이 완비된 우면동 방송시설은



2002년 6월 22일
공사창립 2주년 및 신사옥 입주 기념식
←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 사무공간은 모두 도곡동으로 이전했다.

2002년 6월 22일, EBS 도곡동 신사옥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EBS공사 창립 2주년 및 신사옥 입주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인사 외에도 강대인 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MBC 사장 등 방송관계자와 이재정 국회의원 등 다수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학천 사장²⁸⁾은 창립 2주년 기념사를 통해 “시청자의 필요에 직결되는 직업·환경·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입시 보완교육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새 사옥에서 EBS의 비전이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영방송 EBS의 약속

EBS는 보다 확고한 교육적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EBS가 ‘입시교육의 완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EBS의 당면과제는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실현, 전 국민의 문화정서 격상이었던 것이다.

현실여건으로 인해 수험생 대상의 방송을 시행했지만 그것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여러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입시교육과 사교육은 각 가정의 경제력을 위협했으며, 학생들에게도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지경으로 만드는 해악이었다. EBS는 이러한 문제를 ‘한시적 사회병폐’로 진단하고, 그 원인부터 제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비용을 줄여주는 처방을 취한 것이다.

초기에 EBS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공영방송 모델 만들

28| 김학천 사장은 2001년 10월 24일 취임했다.

29) EBS도 디지털 방송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2000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지상파 방송 4사가 모여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30) 위성방송은 위성 발사 등 선행조치가 필요했다. 정부가 지상파 방송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결정 내린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31) 방송법 개정 등의 이유로 위성디지털 방송은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한동안 표류해야 했다.

기'였다. 그 실천방안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확대, 교육 저널리즘의 활성화, 환경 프로그램의 사회화, 수준 높은 문화 및 통일교육의 실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 교육 저널리즘 활성화 : 사교육비 · 학벌주의 · 교육 서열화 · 적성교육의 취약 · 선수학습 병폐 등에 관하여 비판적 분석과 공개
- 환경프로그램의 사회화 : 심미적 기록에 그치지 쉬운 다큐멘터리 및 환경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사회적 감시기능까지 포함
- 수준 높은 문화 및 통일교육 :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필요한 역사 및 문예 측면의 드라마 장르를 교육적으로 제작. 통일교육의 경우에는 관찰의 폭을 넓히고 객관화

EBS의 이러한 노력들은 당장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EBS가 공사화된다면 시행하겠다고 했던 약속이었기에 눈앞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영방송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시청률 중심으로 제작되던 방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으며, 프로그램의 흐름에 균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영방송의 모델 만들기, 공사화를 전제로 했던 EBS의 약속이 서서히 실행되었던 것이다.

디지털 방송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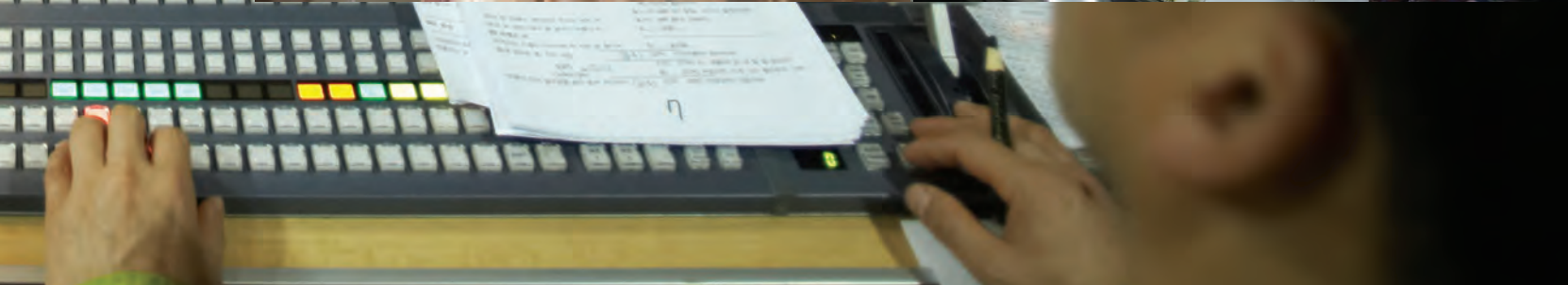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지상파TV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영국 · 미국 · 일본 등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디지털TV 방송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TV 제작에 성공한 가전업체들이 높은 수출고를 올렸으나 3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²⁹⁾

더 이상 신기술을 미뤄둘 수 없었던 정부는 2001년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³⁰⁾ 2000년에 KBS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방송장비 음향기기전에서 국산장비와 TV수상기를 이용한 디지털TV 실험방송에 성공했다. 게다가 무궁화위성 3호의 발사 덕분에 위성디지털TV 방송이 2002년 3월에 시행된다는 계획은 지상파 방송사들로 하여금 이를 본격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³¹⁾ 한편, EBS가 디지털방송을 모색했던 것은 1998년의 일이다. 당시에는 디지털방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1개의 HD와 3개의 SD를 기본으로 하고 추후 데이터 방송을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ON AIR







그러나 2001년 1월 3일,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디지털TV의 경우에는 HD든 SD든 6MHz 대역에 1개의 방송만 내보낸다”는 방침으로 인해 시스템 변경을 추진했다. 기존의 HD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SD 인코더를 예비 장비로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EBS는 그해 2월 27일 기술부문에서 DTV TFT를 발족한 데 이어, 6월 8일에는 정보통신부에 DTV방송국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디지털방송은 방송 송출 신호를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해 보내고, 각 가정은 디지털TV나 수신카드를 일반TV에 내장해 시청하는 형식이였다. 간단한 시스템 같지만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가정에서의 수신까지 방송형태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였다. 우선 방송콘텐츠가 디지털화되어야 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압축·송신하는 기술 및 디지털 신호를 다시 푸는 수신기술이 필요했다. 이러한 첨단기술이 내장된 디지털TV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 쌍방향 기능이 가능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EBS는 8월 16일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취득했다. 주파수는 497MHz였고, 물리적 채널은 18번·가상채널은 10번을 부여받았다. 10월에는 DTV에 대한 전계강도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체신청으로부터 연주소 DTV에 대한 시설 수검과 관악산 송신소에 대한 수검이 진행되었다. 10월 22일부터 시험방송이 시작되었고, 이후인 2001년 11월 5일, 디지털방송이 본격 시행되었다.³²⁾

SBS에 이은 두 번째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였다.³³⁾ EBS는 다음 달인 12월, 16톤 규모의 디지털 중계차를 도입하는 등 HD TV 제작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 했다.

위성TV와 EBS플러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케이블 등 방송경로는 훨씬 더 다양해졌다. 거기에 무

2001년 12월 21일 16톤 규모의 디지털 중계차 도입

32| 방송 초기에는 SD급 제작물을 HD급으로 신호변환하는 방식이었는데, 후일 고화질의 HD TV로 제작·방송이 시작되었다.

33| SBS는 10월 26일 디지털 방송을 시행했으며, KBS 1TV는 11월 5일부터, 2TV는 12월 31일부터 본방송이 시작되었다. MBC의 디지털 방송 시작은 12월 2일이였다.

34] 당시 운영되고 있던 위성방송은 KBS가 2개 채널, EBS가 2개 채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1개 채널이었다. 이 채널들은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운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작했던 시험방송 수준이었다.

35] 많은 방송사업자들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129개 TV 채널(102개 사업자), 98개 오디오 채널(6개 사업자) 등이었다. TV 채널의 경우 평균 2.2대 1, 오디오채널은 1.96대 1의 경쟁률이었다.

공화위성 3호 등 추가로 확보된 위성방송채널 등으로 방송가에는 큰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EBS는 이미 1997년 위성방송을 수행한 이래, 수능 대비 학교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었다.

한편, 무궁화위성의 추가 등 각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성TV 시대가 도래했다. 이전까지 위성방송은 EBS와 KBS, 방송통신대학 방송만이 시행되고 있었으나^{34]} 정부는 2001년 하반기에 위성방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채널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방송계는 물론이고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들도 일제히 위성TV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위성방송의 본격 시행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예측되었기 때문이었다.

새롭게 시행될 위성방송은 우선 유무선 통신망을 결합하여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데이터 채널을 통해 인터넷 검색과 이메일·홈킹·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이전까지의 홈쇼핑·인터넷 상거래를 대체하는 등 가정의 정보화가 크게 발전된다는 전망이었다.

게다가 위성방송은 100% 디지털 방식으로 송수신되므로 화질과 음향의 질적 차원이 달랐다. 한 언론의 평가대로 레이저디스크로 영화를 보고 콤팩트디스크로 음악을 듣는 일까지 가능하므로 '흑백TV에서 컬러TV로의 변화에 못지않은' 일대 변혁이 시작된다는 평가였다.

2000년 12월, 정부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과 한국위성방송 등 두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한 후, KDB를 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로 선정했다. KDB는 이른 시간 안에 채널 사업자를 확정한다는 계획 아래 채널 사업자 선정에 추진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케이블TV와 프로그램공급사(PP), 독립프로덕션, 인터넷 방송사, 신규사업자, 대기업들의 참여선언이 이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KDB가 확정된 그해 채널수는 74개였다. KDB는 그 가운데 30개는 오락형 채널로, 나머지는 교양형과 정보형 채널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35]}

2001년 6월 15일, KDB는 채널 사용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EBS는 교육 부문의 단독채널 사용자로 확정되었다. 그간 위성 1TV·위성 2TV에서 쌓아올린 훌륭한 성과 때문이었다.

이듬해인 2002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위성방송이 시작되었다. EBS는 이전까지의 위성TV라는 이름 대신 'EBS플러스'로 개명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채널명 '플러스'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종합채널 지상파 EBS에 더해 보다 확장된 교육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로써 고교 학교채널이었던 위성 1TV는 'EBS플러스1'으로, 초등·중학 교과채널인 2TV는 'EBS플러스2'로 바뀌게 되었다.

나아가 2004년에는 'EBS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전환하였고, 24시간 방송체제를 운영하여 시청자 편의를 도모했다. 'EBS플러스2'는 중학·직업채널로 특화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BS는 새로운 위성방송 시대를 맞아 이전까지의 교과 프로그램 이외에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는 등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갔다.

기술연구소와 EBS Work

EBS가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위성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2003년 1월 14일, 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방송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비록 연구소 등록은 하지 못했으나 구성원들의 목표는 보다 원대했다. HD/SD 동시방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방송 시스템의 자동화,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연구 시스템과 관련 예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주요 업무는 정책동향과 전망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HD/SD 동시방송시스템 구축, 데이터방송서비스 시스템 도입, 오디오파일 시스템 도입 등 기술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서서히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곧이어, 차세대 데이터 방송이라는 결과로 가시화된다.

한편, 2003년 1월 14일 인터넷 직업방송 EBS Work도 개설되었다. 방송과 인터넷을 연계한 국내 최대의 직업방송으로 평가³⁶⁾된 EBS Work의 뿌리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에 노동부와 연계하여 제작한 인터넷 직업훈련 방송이 그 모태였다. 이 사이트는 이전까지의 직업 관련 홈페이지와 완벽하게 차별화된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담에서부터 취업까지 제공된 원스톱서비스 덕분이었다. 이용자는 적성검사와 진로지도·온라인 강의·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서비스까지 직업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EBS Work 사이트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었다.

기본메뉴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VOD를 시청할 수 있는 <EBS 직업방송>, 적성검사를 통해 직업에 대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의 세계>, 경영 직무·외국어·자격증·IT디자인·IT정보기술 등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강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채용을 알선하는 <채용>, 지속적인 후속관리와 맞춤형 학습관리를 해주는 <나의 EBS Work> 등 수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한편, 무엇보다 이 사이트가 주목받은 이유는 기존의 인터넷 통신훈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학습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인터넷 통신훈련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이었기에 수혜대상이 대기업 재직 근로자로 국한된다는 문제점

36) 당시 인터넷 주소는 www.ebswork.co.kr였다. 한편 EBS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직업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이트는 유례가 없는 것" 이라면 서 "EBS가 이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수능 등 입시 위주 방송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밀접한 직업 교육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3년 1월 22일자

37 | 문화일보 2003년 1월 23일자

38 | <역사탐구-과거와의 대화>, <지성과의 만남>, <이주현의 미술기행> 등이 그것이다.

39 | <지금은 시청자 시대>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E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수용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비평적 안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2002년 6월 16일 방송한
<지금은 시청자 시대>

이 지적되고 있었다. 게다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직무와 사무자동화에 집중한 결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나 생산직 근로자들이 소외받았다는 사실도 일찍부터 지적되어 온 바였다. 반면 EBS Work는 방송과 인터넷으로 동시에 제공됨으로써 수혜자의 편차를 줄였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데 있었다. EBS는 평생교육의 일환인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EBS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다.

프로그램의 저널리즘 추구

EBS는 개국 이후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학천 사장은 'EBS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실용주의에 있다'³⁷⁾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편성 원칙을 정립해 나갔다. 2002년 봄 편성에서부터 그러한 특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해 편성의 목표는 교육방송 정체성 확보, 프로그램의 실용성 강화, 채널별 차별화 추구 등이었다. 이러한 방침 아래 EBS 대표 프로그램 개발, 교육현장의 건강한 아젠다 설정, 중장년층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해부터 직업정보 및 실용적 프로그램³⁸⁾과 옴부즈맨 프로그램³⁹⁾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눈길을 모았던 것은 교육 현장의 건강한 아젠다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PD리포트>는 학원 및 청소년 문제 등 범교육 현안을 취재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본격 PD저널 프로그램이었다.

<학교 이야기>는 학교 현장의 수범 사례를 소재로 삼은 다큐드라마였다. 학교 붕괴와 교권 상실 등 부정적인 학교 현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일선 교사의 감동적인 교육 활동이나 학생들 간의 에피소드 등 우리 교육 현실의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균형감 있게 다룬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2~3년간에 걸쳐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정신은 저널리즘 강화로 모아졌다. 드라마적인 극작술, 구성기술 등을 도입해 프로그램의 저널리즘 정신이 가미되었다.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었다. 특히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토론 프로그램을 일주일 내내 특집 편성, 교육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갔다. 이것이 기반이 되면서 EBS는 채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2대 사장 김학천 前 사장을 만나다 2001. 10. 22 ~ 2003. 7. 10

아름다웠던 교육방송과의 한 시절, 그리고 나무 한 그루의 행복

● 자연이 만든 아름다움의 가치

주변은 온통 숲으로 가득했다. 푸른 녹음 속으로 걸어가는 길.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법한 찰라, 대문이 툇럭 열렸다. 한적한 경기도 성남 소재, 김학천 사장의 자택이다.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강아지들. 그 뒤로 김학천 사장이 직접 가꾼 텃밭이 보인다. 며칠 전 불어닥친 태풍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풍년이었을 거라며 안타까워 한다.

“건국대학교 교수 시절, 꼭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꼭 교육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소중히 할수록 더 빛나고 더 가치 있어지니까요.”

한국교육방송공사 2대 사장 김학천. 그러나 그가 EBS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10월, KEDI로 입사하여 책임연구원·편성심의실장·제작국장·기획국장·심의실장·수석연구원·교육방송 본부장까지 두루 거친 EBS의 산 역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EBS 개국 당시 교육방송 원장 대행직까지 역임했으니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직서를 냈습니다. 교육방송공사가 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90년 EBS 독립 이후, 교육방송 원장 대행직을 역임하다가 그는 EBS를 훌연히 떠났다.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정한 의미

홀연히 떠난 것만은 아니었다. 1990년대 내내 EBS의 위상 재정립 문제가 불거지면 그는 두팔 벗고 나섰다. 건국대학교 신방과 조교수 시절에도, 선진방송정책 연구자문위원 및 방송개혁국민회의 집행위원장 시절에도 한결같이 EBS의 독립공사만이 우리나라 교육의 길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설파했다.

“독립적인 편성권을 갖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방송이 걸어야 할 진정한 가치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열악함이야 비할 바도 아니었다. 거대 방송사의 드라마 한 편 제작비면 EBS의 일년치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도 남을 정도였다. EBS의 공사화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1990년대에는 EBS에 몸을 두지는 않았지만 늘 그 뜻을 함께 했습니다. 직원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제겐 기쁨이었습니다.”

● 더 빛나는 EBS의 비상을 꿈꾸다

마침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 그가 제2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취임 이후 살펴보니 비록 공사로의 변화는 있었지만 제작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주고자 배려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EBS의 프로그램들은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필두로 성인 교양물 부문에서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그의 이야기처럼 창의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빛을 본 것이다.

“교육방송이 학교교육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합니다. 평생 동안의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장 시절 특히 우수한 성인 교양물이 많이 제작된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 학교교육은 물론, 성인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교육방송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디지털 방송장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보다 친숙한 EBS로 변모되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오래도록 공사화를 추구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독립적이면서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국민들의 평생 교육기관으로 자리잡는 것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았다. 초기였기에 조직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느라 더 많

은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송과 교육에 대한 윤리,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EBS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사 10년이 시스템 정비에 노력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방송철학과 교육윤리 확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뉘엿뉘엿 지는 석양, 돌아나오는 길 저편에서 그는 계속 손을 흔들며 서 있었다. EBS와 청춘을 함께 한 거인의 모습이었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신화, 시베리아 호랑이

2003년 8월 14일과 8월 15일,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계가 주목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미 EBS가 1990년대 말 야생 호랑이를 직접 촬영한 다큐멘터리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작 <시베리아, 잃어버린 한국의 야생동물을 찾아서>가 큰 호평을 받았고, 당시 각종 방송상을 휩쓰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기에 2003년의 방송 또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2003년에 방송된 <밀림 이야기>는 박수용 PD와 이효종 PD가 2001년부터 두 해 겨울을 꼬박 시베리아에서 보내며 촬영한 다큐멘터리였다.⁴⁰⁾ 이 작품은 2부작으로 제1편 <시베리아 호랑이 3대의 죽음>과 제2편 <침묵의 추적자들>⁴¹⁾로 구성되었다. 1편에서는 연해주와 동해 해안과 돌 계곡에서 호랑이 3대가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촬영하는 동안 호랑이 세 마리가 3대에 걸쳐 죽음을 맞는 장면을 촬영, 멸종위기의 심각성을 그대로 말해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40) 1997년에 방송된 <시베리아...>는 방송위원회 제작지원부문 대상을 비롯해 PD연합회의 올해의 PD상, TV특집부문상, 제35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등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41) 1편의 연출은 박수용 PD가, 2편은 이효종 PD가 맡았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신화가 된 <시베리아 호랑이>

42]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들이 월 평균 23만 8,000원의 비용을 사교육에 지출한다는 통계였다. 과외를 시키는 이유는 학교·학년에 상관 없이 모두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2004년 6월 30일자

43] 교육부는 2003년 5월 말 산하 학교정책실에 '사교육비 대책팀'을 편제했다. 6월 5일에는 KEDI에 사교육비 실태 조사와 경감 대책정책연구를 의뢰하였고, 7월 8일에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44] 당시 공청회 소식을 다룬 언론 기사 대다수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것은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기도 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적되었지만 임시변통식 방법으로는 날로 확대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고 본다.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이다. 생활기록부 성적을 고교졸업에 대한 '합격 불합격' 즉, 패스 난패스로 전환할 경우에 대한 후유증이다. 현 실정으로 보아 그나마 되고 있는 공교육 체제는 하루 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문화일보 2003년 10월 15일자

45] 한국경제신문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사교육 문제는 참여정부 최대 현안으로 떠 오른 상태다. 교육이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했고, 경제부처들은 부동산, 특히 강남 땅값 상승 문제의 주범으로 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14일자

46] 정부의 대안은 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학제의 개편과 사설학원들의 관리·감독 강화가 경감방안의 골자였다.

제2편 <침묵의 추적자들>에서는 호랑이를 추적하고 자연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제작진이 겪었던 경험과 자연에 대한 느낌을 담았다.

호랑이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은 마치 동물처럼 예민하고 예리한 감각을 가질 만큼 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 일각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해 수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2003년 10월 15일에는 평양 인민문화대궁정 영상물 소개관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심각한 망국병, 과외열풍

EBS가 자연 다큐멘터리 등 교양 프로그램 제작에만 공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학교교육의 활성화와 수능방송을 위한 노력도 한층 더 강화했다.

그 무렵, 사교육⁴²⁾은 도를 넘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은 갈수록 위축되었다. KEDI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전체 사교육비는 13조 6,485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01년 조사 당시보다 무려 22.8%나 급증한 수치였다.

참여정부는 사교육 열풍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이 선정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였다. 공교육 내실화의 실질적인 의미는 사교육 확산 방지였다.

정부는 2003년 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⁴³⁾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2003년 10월 14일 대전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까지 정부와 KEDI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청회⁴⁴⁾를 개최했다. 뚜렷한 방안은 없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에 분명했다. 2003년 1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사교육 경감 대책⁴⁵⁾을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 무렵까지 정부의 대책은 수능방식 등 제도 개선에 집중되었다.⁴⁶⁾ 실제로 이런 방안만으로는 사교육을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EBS는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대안이 교육방송의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2003년 9월 5일, 부산시교육정보원과의 EBS 콘텐츠 제공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EBS의 방송채널 가운데 하나를 수능전문채널로 특화한다는 아이디어였다. 그 때만 해도 교육부는 EBS의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간 방송을 통한 교육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한 인식에는 교육부가 EBS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는 측면도 적지 않았다. 2002년 리서치플러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EBS 학습 프로그램의 활용률은 서울의 경

우 79.8%에 달했다. 광역시는 71.9%, 중·소도시와 읍·면은 각각 77.1%, 76.6%라는 놀라운 수치였다. 게다가 EBS 방송을 활용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3조2,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⁴⁷⁾

교육부가 EBS의 역할과 공로를 새롭게 평가하게 된 것은 그해 말의 일이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그해 열린 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으로 최고강사진이 출연하는 EBS 인터넷 강의'를 제안했다. 고무적인 일이었다.

EBS는 그해 9월 말, 'EBS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EBS 활용에 따른 직접적인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약 7,700억 원에 달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본격적인 수능방송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2·17 대책의 핵심은 EBS 수능강의

정부는 이 제안을 눈여겨보았다. 2004년 2월 17일,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2·17대책이다. 단기대책인 '사교육 수요 공교육 내 흡수', 중기대책인 '학교교육 내실화', 장기대책인 '사회문화 풍토개선' 등을 총망라한 교육개혁 청사진이었다.

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모은 것은 EBS 수능강의를 활성화하여 e러닝 체제를 구축하여 사교육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2·17 대책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계획이었으나, 대다수 언론들은 'EBS강의 수능 출제 반영'을 그 핵심으로 보도⁴⁸⁾했다. EBS와 연관된 2·17대책의 핵심사안은 다음과 같았다.

- EBS수능강의와 수능의 연계 강화
 -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 시청으로 수능시험 대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사전기획단계에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조, 제작
 - 인터넷을 통한 수능강의 무료 서비스
 - 방과 후 학교시설을 이용한 EBS 강의 프로그램 시청 및 사이버 학습 권장
- EBS플러스1 채널을 수능전문방송으로 특화
 -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제작 확대
 - 중위권 학생을 위한 현행 방송강의에서 상하위권 학생을 위한 수준별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신설
 - 전국 최고의 강사진을 기용하여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

EBS 수능강의 개국은 4월 1일에 하기로 결정되었다. 신학기에 맞추기 위해 3월부터 당

47) EBS는 그간 방송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1980년 과외전면조치 때에는 <TV고교방송>으로, 1989년 과외허용 때에는 <TV고교가정학습>으로, 1994년 수능시험 도입 때에는 수능방송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1997년에는 위성교육 방송으로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48) 각 언론은 비판적인 시작이었다. 당시 언론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보충수업·EBS교육으로 사교육비 절감

(YTN,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EBS강화

(한국경제신문, 2004년 2월 17일)

EBS강의서 수능 출제 - 4월부터 전문채널 운영

(국민일보, 2004년 2월 17일)

EBS만 보면 수능시험 볼게 하겠다

(프레시안, 2004년 2월 17일)



2004년 4월 1일 EBS 수능강의 개국

└

49 |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LG CNS를 파트너로 선정했다.

50 |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정식보고를 받고 '인터넷 대란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추가 장비가 필요해졌다.

51 | 동영상 데이터 스트리밍에 필요한 장비다.

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 결과, 한 달을 늦추었으나 남은 기간을 고려한다면 그 조치도 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EBS는 TFT를 조직하고 대행사 선정⁴⁹⁾, 콘셉트 확정 등 숨겨진 개국작업에 돌입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e러닝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터였기에 작업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서버 다운이나 속도 저하 등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EBS는 우선 가상 접속자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5만 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서버구축이 시급했다. 즉시 장비 발주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EBS에 동시접속자 수를 1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했다.⁵⁰⁾ 시간이 부족했다. 인터넷 수능강의 시스템 추가 구축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추가 규모가 워낙 컸기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CDN장비⁵¹⁾와 네트워크 장비가 두 배 이상 필요했고, 추가회선도 확보해야 했다. 서버 등 하드웨어의 용량 및 수량, 사용자 서비스 인력을 확대했다. 300Kbps의 속도로 120Mb의 동영상 정보를 10만 명이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무후무한 사업이 직원들의 한 달 넘는 밤샘작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제작사의 사정으로 개국 하루 직전에야 장비가 완전히 도착했다. EBS는 그것을 설치 완료하는 데 성공했다. 운영기간 한 달 남짓에 불과했던 'EBS 수능강의 합동상황실'. 본격적인 e러닝 사업의 탄생에는 그만큼의 산고가 뒤따랐던 것이다.

ON AIR







EBS 수능강의
합동상황실 운영

실질적 교육 평등, e러닝의 시작

2004년 3월 31일 수능방송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총리와 정보통신부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e러닝 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이었다. 고석만 사장도 ‘EBS 수능방송 · 인터넷 강의 출범에 즈음하여’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17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위성방송 · 인터넷 강의와 수준별 이동수업 · 보충학습을 시작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과외비를 줄이자는 목적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하게는 발달된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21세기형 인재육성으로 우리 교육이 전환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⁵²⁾

EBS가 오는 4월 1일을 기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EBS 수능전문 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 최고의 강사진에 의한 초·중·고등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쌍방향 서비스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절묘하게 조화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온라인 상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명실상부한 원스톱 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e러닝 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모델은 그 내용과 규모 면에서 세계 초유의 교육 모델이 될 것입니다.⁵³⁾

마침내 2004년 4월 1일, 새벽 2시를 기해 EBSi가 오픈되었다. 종합상황실에 모여든 많은 관계자들은 긴장된 얼굴로 모니터를 들여다 보았다. 새벽 2시 10분임에도 KT · 하나로통신 · 데이콤 · 두루넷 등 상용망 운영업체별 EBS 서버접속 상황이 10분 단위로 체크되었다. 흥분과 감격 속에 EBSi가 성공적으로 오픈된 것이다.

그날 이후, 24시간 근무체제의 종합상황실⁵⁴⁾은 4월 6일까지 운영되었다. 모두가 우

52|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안병영 장관 ·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명의로 2004년 3월 31일에 발표되었다.

53| 2004년 3월 24일, 한국교육방송공사 고석만 사장 명의로 발표되었다.

54| LG CNS 정병철 사장까지 비상대책실에 나와 있을 정도로 협력사들도 충력을 다했다.

55] LG CNS의 담당자는 자사 사보에 EBS 프로젝트의 후일담을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놀라운 성공의 감격이 그대로 느껴진다.

"EBS 프로젝트의 시작을 전후하여, 국내의 우수 전문가들과 심지어 사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달만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EBS 프로젝트는 그것이 기우였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56] 고석만 사장은 2003년 7월 24일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적 재원의 숙제를 풀기 위해 평생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본분의 목적에 충실하자고 하면서 "장인정신을 지니고 다큐멘터리 정신을 기조로 사실주의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역설했다. 이후 그는 EIDF · EBS Space · 문화사 드라마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갔다.

려했지만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EBSi의 시작이었다.^{55]}

한편, EBS는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해 회원 가입 이후, 수강신청해야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신청한 강의에 대해서는 '마이 클래스'를 통해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했다.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한 '입시 정보', 주요 교육뉴스 및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EBS i 뉴스', '입시 · 진학 정보' 등은 수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된 콘텐츠였다. 7월 1일에는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화질 개선 · 개인정보 보호 · 커뮤니티 및 LMS 보완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시행 등 차원 높은 방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BSi는 놀라운 성공을 기록했다. 100일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회원 가입자 100만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온라인 업계의 접속 순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랭키 닷컴은 5월 19일부터 온라인 중 · 고학습 분야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그 효과도 상당히 높았다. e러닝 100일 특집으로 제작된 EBS 특별기획 'e러닝과 한국교육의 미래' 제작진의 조사에 따르면 수강 학생의 75.7%가 수능강의에 만족했다. 수능강의 이후에는 학원수강과 과외 등 사교육을 줄였다는 학생이 32.1%에 달했다. 정부와 EBS의 생각대로 사교육 확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외국에서도 e러닝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해 태국 교육부 일행이 EBS를 방문, 실태조사에 나선 것을 필두로 일본의 사가시 부시장과 시의회 의원,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관계자, APEC 국제협력원 초청 각국의 연수단, 중국의 CETV 대표, 브루나이 · 칠레 등 APEC 회원사 연수단 등이 방문하는 등 세계 방송계와 교육계의 화제를 모았다. 한편, EBS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재외 동포 대상의 e러닝 사업 구축, 11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재 지원 등의 공헌활동을 통해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진정한 교육평등의 시대, 공교육 확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열린 문화 1번지, EBS 스페이스 개관

2004년 3월 25일, 유례없는 새로운 시도가 EBS 사옥 1층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던 EBS가 본격적으로 고급문화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첫 걸음을 위해 'EBS 스페이스' 건립한 것이다.

그 시작은 2003년 12월이었다. 5개월 전인 2003년 7월에 취임한 고석만 사장^{56]}은 EBS는 강당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TFT를 구성,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1층 강당을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높이 든 EBS 스페이스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

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새로운 '음악세계의 발견'을 주방향으로 설정하고 수준 높은 양질의 공연을 회원제로 개방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객석은 151석으로 어느 공간에서든 공연자의 숨소리까지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⁵⁷⁾ 게다가 품격을 높인 인테리어와 무대를 감싸 안는 형식으로 꾸며진 반원형 공간 등으로 기존의 공연문화에서는 즐길 수 없는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EBS 스페이스는 그동안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연무대를 갖지 못했던 실력과 뮤지션들에게 활동 공간과 관객과의 만남을 마련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었다. 이전까지 방송계는 물론, 공연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기에 이러한 시도는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많은 언론들이 EBS 스페이스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⁵⁸⁾

EBS 스페이스는 4월 1일에 공식 개관했다. 그해 4월 한 달 동안 시청자들의 관심을 일거에 사로잡는 수준 높은 공연이 필요했다. 소프라노 신영옥을 필두로 재

즈가수 윤희정과 BMK·일본 퓨전재즈 뮤지션 히로타카 이즈미·사쿠라이 테즈오·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루마·색소폰 연주자 정성조·대니정·피아니스트 신관웅 등 다양한 분야의 실력과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했다.

공연의 완성도는 물론 관람 신청방법도 간단해서 금세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BS 스페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공연날짜와 관람시간을 선택하면 되는 형식이였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에 <EBS 스페이스-공감>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다.

EBS는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고급 예술문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방송 여부와는 상관없이 월 20일 이상의 공연을 추진했다. 매일매일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EBS를 감싸주었다. 개관 직후부터 EBS 스페이스는 큰 인기를 모았다. 첫 공연이 시작된 그해 4



2004년 4월 1일
EBS 스페이스 개관
↑

57) 국민일보는 공연 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서울 도곡동 EBS사옥 1층에 마련된 'EBS 스페이스'는 좌석 수 151석의 초소형 공연장이지만,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민일보 2005년 3월 30일자

2004년 8월 30일 개최된
제1회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EIDF)



58 |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EBS 스페이스에 대해 평가했다. “EBS가 방영중인 ‘EBS 스페이스-공감’을 향한 시청자들의 반향이 뜨겁다. 방송가에선 공연과 방송이 행복하게 결합한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경향신문 2005년 1월 27일자

59 | 고석만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EIDF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역량을 보여 왔던 EBS 입장에서 사회·문화적 다큐멘터리로 관심을 확대하는 기회이며, 시청자들에게 다큐하면 ‘무겁고 재미없는 것’이란 인식을 깨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일보 2004년 8월 30일자

60 | 제1회 다큐영화제 주제는 ‘변혁의 아시아’였다.

월, 공연 횟수는 23회에 달했고 공연 관람 신청자 수는 1만 5,000명 선이었다. 그해 공연 횟수는 201회였고, 방청객 수는 20만 9,999명이었다.

한편, EBS는 성공적인 공연에 힘입어 그해 10월 4일부터 EBS 스페이스 전시관도 개관했다. 전시관 내용 또한 방송됨으로써 공연은 물론, 전시까지 콘텐츠가 확대되었다. 김태중 작가의 설치미술작품인 ‘낙서금지’를 필두로, 회화 및 영상·사진·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EBS 임직원뿐 아니라 EBS를 찾은 방문자, 공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EBS는 이후에도 이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큐멘터리 시대정신 EIDF

2004년 8월 30일, EIDF(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가 공식 개막했다. 이 행사가 시작된 것은 그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EBS는 개국 이래 세계의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왔고, 제작과 방영에서 여느 거대 방송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저력과 열정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다큐멘터리로 널리 이름을 알린 EBS는 이를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락성 중심으로 제작되는 우리나라 방송 제작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사실성의 힘을 널리 보여준다는 목표였다.⁵⁹⁾ EIDF는 그런 의도에서 탄생되었다.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EBS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처음 시작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였고, 우수작품·우수작가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기에 임직원들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큐 영화제⁶⁰⁾ 준비를 해야 했다. 해외 영화제의 다큐 파트 프로그래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국내외 다큐 제작자들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개막행사는 서울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개막식 직후, 개막 상영작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미국다큐멘터리스트 크리스틴 초이의 신작 '주부의 얼음땀', '누가 빈센트친을 죽였나'가 방영되었다.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의 향기로 젖어갔다.

다큐멘터리 상영과 함께 각종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개막식 당일에는 '아시아 다큐멘터리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도 개최하였다. 크리스틴 초이의 발제와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드라 루쉬 국제다큐멘터리협회(IDA) 사무총장·'즐거운 나의 집'의 왕샤오룽 감독, 서현석 연세대 영상 대학원 교수 등이 초청 연사로 참석해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 도곡동 EBS 사옥 1층 EBS 스페이스에서는 매일 시사회와 초청감독과의 대화가 마련되었고, 1층 특설전시장에서는 폴리처상 수상작가인 존 카플란 등 6인의 다큐 사진작가 작품이 전시되었다. 상설공연장인 EBS 스페이스에서는 각국의 전통음악을 선사하는 '아시아 음악축제'가 매일 공연됐다.

다양한 토론회도 눈길을 끌었다. 8월 31일 한국방송작가협회 포럼이 개최된 데 이어 9월 1일에는 방송프로듀서 연합회 포럼, 2일과 4일 사이에는 한국다큐멘터리 촬영감독 포럼, 5일에는 한국다큐멘터리 사진학회 포럼 등이 줄을 이었다. 매일 초청 감독과의 대화도 열려 방청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1회 행사에서 상영된 주요 작품들은 세계 수준의 작품들이었다. 총 4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경쟁부문에는 12편이 선정되었는데, 2002년 발리 나이트클럽폭발사건을 인도네시아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제인 월터스의 '천국의 희망 발리', 알자지라 뉴스룸을 취재해 2004년 시카고 국제다큐멘터리 혁신상을 수상한 예하네 나우자임의 '알자지라 뉴스룸', 인도 뭄바이의 700만 통근자의 통근여정을 담은 '여정', 한국 다큐작가의 평양방문기인 박성미·최승호의 '평양에서의 8일' 등이 주목받았다. 그 중 중국의 문화 혁명과 현대화를 거치며 시대의 희생자가 되어 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다룬 중국 작품 '안녕 나의 집'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⁶¹⁾

'오늘의 아시아' 섹션에 출품된 상하이 출신의 유명한 트랜스젠더 무용수 진시앙에 대한 휴먼다큐 '트랜스젠더 진시앙',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상을 수상한 '정오의 신비한 대상' 등도 화제가 되었다.

한편, EIDF는 세계 방송 사상 유례가 없는 시도로도 큰 관심을

61) 심사위원단은 '개인에 대한 깊은 성찰과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서 한 나라의 역사와 개인의 관계를 훌륭히 탐구한 점'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62] 한국일보는 '신선한 도발' 이었다고 언급했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돌린 채널에서 다큐멘터리가 종일 방송됐다면 반드시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의 다큐 전문 채널로 생각할 것이다. 선입견을 깨는 신선한 도발이 있었다. 지상파TV인 EBS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정규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만으로 한 주일간을 방송하는 무모하리 만치 파격적인 편성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004년 9월 8일자

모았다. 행사 기간 동안, EBS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제외하고 오직 다큐멘터리로만 종일 편성한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한 것. 지상파TV 가운데 일주일 내내 최고 수준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사례는 EBS가 유일했다. 많은 언론이 교육방송만이 할 수 있는 실험적인 편성이었다고 극찬하는 등 EIDF는 내내 화제를 모았다.^{62]}

2010년 현재, 제7회를 맞이한 이 영화제는 EBS의 다큐멘터리 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드라마의 새 지평, EBS 문화사 시리즈

2004년 9월 11일, EBS의 새로운 시도가 방송계의 화제가 되었다. EBS 역사상 최초로 제작·방영된 미니시리즈 형식의 문화사 드라마 <명동백작>이 그날 첫 선을 보인 것이다.

EBS가 처음 문화사 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그해 상반기였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문화의 역사를 드라마 형식으로 흥미롭게 구성하여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전체 3부로 방송한다는 계획 아래 제1편은 1950년대 해방 직후부터 5·16군사쿠데타까지, 제2편은 1960·1970년대를 다룬 작품으로 10·26사태까지, 제3편은 6·10민주항쟁까지 다루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BS는 1편의 제목을 소설가 이봉구의 별명인 '명동백작'으로 정하고 극본 및 제작에 돌입했다. 집필은 드라마 '아내', '왕과 비', '명성황후' 등을 집필한 정하연 작가가 맡았다. 후일, 문화사 시리즈를 일회용 오락거리로서의 드라마가 아닌 소장가치가 있는 문화상품으로서의 문화사 드라마로 제작, 교육용 자료로 소장본 DVD판까지 보급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 같은 역사기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명동백작>은 두 명의 PD가 배치돼 각각 극 연출과 고증·취재를 나누어 담당했다.

EBS 문화사 시리즈 <명동백작>

┌





1950년대 명동은 문화의 중심지였다. 유행이 시작되는 곳이면서, 온갖 멋쟁이들이 모여드는 멋의 공간이었다. 술과 음악과 문학이 넘쳐흐르는 낭만의 거리이기도 했고, 분노와 절망과 사랑과 청춘이 술잔 속에 녹아 광란하는 슬픔의 거리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비록 가난했지만 문화 예술적 감성이 깃들었던 1950년대 명동을 배경으로 그 시대, 문인들과 화가 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배우는 국내 연기파 배우들이 맡았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명동백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설가 이봉구 역은 연기파 뮤지컬 배우 박철호, 시인 김수영은 탤런트 이진우, 그의 부인 김현경은 탤런트 김성령이 각각 맡았다. 서른 한 살의 나이에 자살한 여류작가 전혜린은 탤런트 이재은,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은 탤런트 차광수, 해설자는 탤런트 정보석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명동백작〉 제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예산 부족⁶³과 고증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이 이어졌다. 그러나 뜻있는 출연진과 작가들의 지원과 고증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EBS는 고증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했다. 문화사 시리즈를 표방한 만큼 가급적 당시 상황과 시대상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4년 9월 17일에는 당시, 명동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했던 문학·연극·무용계 원로 10여 명을 시사회에 초청, 조연을 구했다.⁶⁴ 이 드라마의 첫 회 분을 함께 시청한 원로들은 김수영·박인환·오상순·이봉구 등 등장인물들에 대한 추억담을 나누고, 드라마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명동백작〉은 여러 언론과 방송계로부터 화제를 모으면서 방영되었다.⁶⁵

이후 2004년 12월 11일부터는 문화사 시리즈 제2편 〈100인의 증언, 60년대 문화를 말한다〉가 10부작으로 제작·방영되었다. 이 작품은 100명의 인터뷰를 통해 1960년대 문화계의 주요 흐름을 정리하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⁶⁶

문화사 시리즈 제3편은 2005년 1월 22일, 다큐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으로 방송되었다. 김지하·김승옥·김중태 등 6·3항쟁의 주역들을 중심인물로 제작했다.⁶⁷

EBS 문화사 시리즈 3편
(지금도 마로니에는)
┘

63 | “제작비는 KBS·MBC 등 거대 방송사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작가는 평소 원고료의 10%만 받았고, 배우들도 절반에 불과한 출연료를 받았다고 한다. 모두가 우수 작품을 만들겠다는 열의 때문이었다.”
서울신문 2004년 9월 10일자

64 | 이날 시사회는 고은 시인, 박태진 시인, 황금찬 시인, 권영민 서울대 인문대 교수, 염무웅 문학평론가(이상 문학계), 장민호(원로 연극배우), 백성희(원로 연극배우), 차범석 극작가(이상 연극계), 김백봉 무용가, 고석만 EBS 사장, 박창순 EBS 방송본부장, 김세원 EBS 이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65 |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모으자 한 출판사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소설가 이봉구(1916-1983)의 시·소설을 모아 1992년 ‘명동,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던 책을 ‘명동백작’으로 이름을 바꿔 재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작품은 이달의 PD상을 수상한 데 이어, 시청자가 뽑은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 2004 그리메상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66 | 탤런트 정보석이 진행을 맡은 이 작품은 그해, 방송학회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67 | 이 작품은 제41회 백상예술대상 TV교양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68 | 동아일보 2001년 1월 10일자

69 | 방송통신대학 강좌는 2008년 하반기에 완전히 방송통신대학 측으로 이관되었다.

70 | 한국일보는 이러한 편성안에 대해 'EBS라디오 외국어채널화 될까' 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는 'EBS FM, 외국어 전문화 편성안 확정'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한국일보 2001년 2월 14일자, 연합뉴스 2001년 3월 5일자

EBS FM, 외국어교육 전문채널로의 시동

2001년에 들어서면서 FM라디오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BS FM의 경우,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라디오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체 방송시간의 32%에 달하는 방송통신대학 강좌였다. 채널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방송통신대학 측에 이관해야 했으나 여건을 그렇지 못했다. 실제로 EBS는 2000년에 방송통신대학 강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⁶⁸⁾을 밝힌 바 있었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해 입장을 철회한 바 있었다.⁶⁹⁾

EBS FM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 아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려나갔다.⁷⁰⁾ 당시 EBS FM에서 외국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였는데, 2001년 개편 이후에는 58%로 크게 늘어났다. <헤럴드 트리뷴>, <팝스 잉글리시>, <비즈니스 영어>, <왕초보 영어>, <초등교사 영어>, <초등3년 영어>, <영어동화>, <김삿갓 영어 방랑기> 등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대거 편성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3대 사장 **고석만** 前 사장을 만나다 2003. 7. 23 ~ 2005. 2. 17

EBS와 함께 했던 새로운 시도 한 시대는 프로그램만이 증명한다

● 연출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인터뷰 이전부터 몇 번이나 질의서를 확인했다. 2000년대 중반, 전국민적으로 EBS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인식시켜준 3대 고석만 사장.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질의하기에 주요 사건이 너무 많았다. 굵직한 것만 꼽아도 금세 열 손가락을 넘어간다. 잠시의 고민도 허락지 않고 초로의 신사가 나타나 악수를 청한다. 그가 건네준 명함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총감독 고석만'

우리에게는 EBS 중흥기를 연 수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수 역전 앞에 디지털 거리가 조성됩니다. 물론 풍겨오는 바다내음과 자그마한 마을, 그리고 디지털 거리. 이런 기획이면 여수 이미지가 확 바뀌지 않을까요.”

영락 없는 예술가의 모습이다. 연출도 예술의 중요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은 굳이 다시 끄집어낼 필요도 없다. 연출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문득 스쳐 지나간다.

● 시청률 조사를 중지하시오

“부임 직후, EBS 문화를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시청률 조사 금지였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마치 금단현상처럼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러나 EBS가 시청률에 연연하는 순간, 좋은 프로그램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조직 전반적으로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다. 각 제작진마다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나가야 할 방향,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주체의식이 생기면서 프로그램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방송사는 모름지기 프로그램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제 모든 원칙에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속성입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 모든 PD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역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 드렸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

“방송사는 프로그램만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사회상과 일상적인 사용언어, 방송기술 등이 모두 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 3대 추진과제, 그리고 새로운 EBS

그의 재임기간 동안 EBS는 다양한 시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드라마로 제작된 ‘EBS 文化史 시리즈’, 매일 라이브 공연장 ‘EBS 스페이스’, EBS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EIDF)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경제사와 정치사는 있는데 왜 그토록 중요한 문화사는 조명받지 못했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벗어난 직후, 경제는 낙후되어 있었지만 문화만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사 시리즈는 그렇게 기획되었다. 드라마 <명동백작>, <지금도 마로니에는> 등은 세간의 화제 속에서 방송되었다. EIDF는 더 극적이다.

“EBS가 나가야 할 방향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로의 접근- 그것은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교양의 측면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다큐멘터리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2004년 EIDF가 시작된 계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성공 가능성을 보았던 것일까.



71 | 전자신문은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계 최초의 의의를 평가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가 ACAP방식 지상파 데이터방송을 표준 규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보다 앞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들웨어를 우리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적용하고 셋톱박스 등 관련 방송장비를 거의 국산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데이터방송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신문 2004년 6월 4일자

72 | 이 프로그램은 원래 1973년 2월 MBC에서 시작했다. 1996년 10월에 중영되었다가 1997년 1월, EBS를 통해 새롭게 부활했다. 2006년 봄부터는 학교대항전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을 바꾸기도 했다.

73 | 연합뉴스 2003년 6월 23일자

“보통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기에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종일 다큐멘터리만 방송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방송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우리는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한다. 스페이스 공감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 작은 강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우리 시대의 패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EBS 안에서 기타소리가 울리는 모습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작은 공간에서 진정한 문화가 싹튼다고 믿습니다.”

열정에 찬 목소리는 방송 현장에서 있는 거인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정말 세상은 바뀔 수 있는가. 열정과 신념, 새로운 상상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적어도 EBS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EBS국제다큐영화제에서, EBS 스페이스에서 EBS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3. 뉴미디어의 새로운 발견

세계 최초의 차세대 데이터 방송 시작

2004년 6월 24일, EBS는 미국식 규격의 양방향 차세대 데이터 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⁷¹⁾ 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방송 실험국을 허가받아 미국식 디지털 지상파 데이터방송 규격인 ATSC 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표준에 기반을 둔 양방향 데이터 실험방송을 개시한 것이다.

이 방송은 EBS가 정보통신부 주관의 디지털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중 KT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EBS의 시험방송은 특히 양방향 교육(T-Education)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프로그램 연동형 양방향 데이터 방송으로는 학습형 퀴즈를 선택하여 개발·완료했다. EBS의 시스템 특성으로 인해 시험방송은 우선 <EBS장학퀴즈>와 <토끼와 까꿍> 등 2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시험방송이 시작되긴 했으나 전 가구로 방송되지는 못했다. 시범가구로 지정되어, 디지털 데이터 방송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를 보유한 가정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다.

시험방송 이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일요일 오전 9시 10분, <EBS장학퀴즈>⁷²⁾가 방송되면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통해 직접 퀴즈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⁷³⁾ 본인의 성적과 순위 등도 데이터 방송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EBS



DIGI SUPER 23 XS

HD

X223x7D 4E 7-10mm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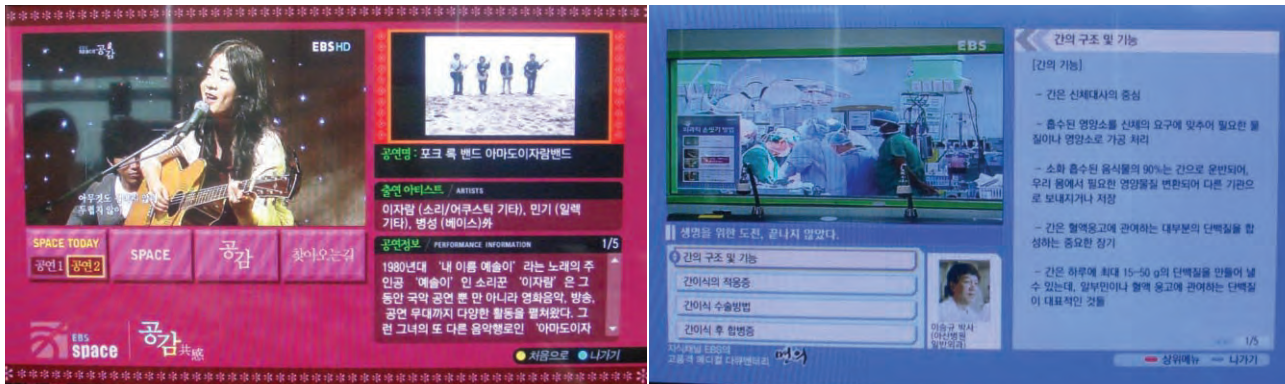
SONY

1

EBS



DIGI SUPER 23 XS



〈토끼와 까꿍〉은 18개월~30개월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은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놀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독립형 정보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EBS 데이터 방송의 초기화면의 카테고리는 최신정보·취업뱅크·공연정보 등으로 구분되었다. '최신정보' 카테고리에는 교육·수능·IT·청소년 등으로 구분된 상세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취업뱅크'에는 구인정보와 각 기업의 기본사항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공연정보'에는 EBS 스페이스 등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 업데이트되어 시청자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했다.

EBS는 실험방송의 성공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는 TV'에서 '참여하는 TV'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홈페이지 회원제의 성공

인터넷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EBS는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시청자와의 만남을 강화했다.

EBS가 새로운 방송환경을 위해 이와 같은 노력을 시행하는 가운데, 2004년 8월 홈페이지 회원 600만 명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회원제 서비스로 변경되었던 2001년 6월 이래, 3년 만에 이룩해낸 성과였다. 이것은 대단한 기록임에 분명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3,0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 가운데 무려 20%에 해당하는 네티즌들이 EBS 회원으로 가입한 셈이었다. 게다가 2004년 4월에서 시작된 EBSi 회원은 제외한 결과라는 점, 오락 콘텐츠가 아니라 학습요소가 강한 사이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EBS 홈페이지의 인기 비결은 무엇보다 알찬 콘텐츠에 있었다. 1999년 5월 첫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EBS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EBS 데이터방송 서비스(EBS 스페이스 공감)에서는 음악공연 정보를, 〈명의〉에서는 분야별 최고 의사와 관련 건강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74|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식과 미국식의 선정방안을 놓고 한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은 오히려 관심을 집중시켰다. 2003년에는 11월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식과 유럽식의 디지털TV방송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될 정도였다.

75| 위성 DMB는 위성을 통해 신호를 전송하고, 지상파 DMB의 경우 방송국이 지상중계기를 통해 신호를 전송하는 게 차이점이었다. 지상파 DMB나 위성 DMB나 이동수신이 다 가능했다. 그러나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 DMB는 시속 100km이상의 속도에서도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이동형 서비스에 더 강점이 있었다. 두 방식 모두 밀폐된 실내나 지하 등의 전파음영 지역이 생기지만 중계기 설치로 이를 극복한다는 계획이었다.

2004년 3월
DMB용 위성 '한별' 발사



기울인 바 있었다. 사이버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온 영향이었다. 특히 수준 높은 외국어 강의는 EBS 홈페이지 회원 수 증가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모토에 걸맞은 풍부한 콘텐츠 제공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이다. EBS는 명실상부한 에듀테인먼트 허브 사이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수 콘텐츠의 재가공 배치,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홈페이지 활성화를 계속 추구해 나갔다.

위성 DMB 시작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은 2000년대 들어와 보다 본격화되었다. 방송경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특히 방송환경이 급변하면서 2005년을 전후로 DMB 방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⁷⁴⁾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미국과 영국 등 방송 선진국들도 DMB가 향후 미래방송을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DMB는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약자로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신개념의 방송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특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이동하면서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송가의 태풍으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

DMB 방송은 지상파와 위성파⁷⁵⁾로 구분되었는데, 가정과 차량, 야외 등에서 고음질·다채널의 오디오 서비스, 고속 이동 중에도 끊김이 없는 비디오 서비스, 그리고 뉴스와 교통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단말기만 있다면 24시간 동안 듣고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잠음이 없는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했고, 문자 서비스 및 화상 서비스까지 가능했다.

2004년 2월, 위성 DMB 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다음 달인 3월에 SK텔레콤은 세계 최초의 DMB용 위성인 '한별'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는 위성 DMB 방송일정을 확정하고, 그해 12월 미디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EBS는 2003년부터 DMB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DMB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DMB 사업자 참여 및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EBS는 DMB 사업을 통해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그리고 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EBS의 위상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EBS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교육 콘텐츠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5년 9월 5일
EBSu, 위성DMB 종합교육채널 출범 기념식

이듬해인 2005년 6월 20일, EBS와 TU미디어⁷⁶는 위성 DMB를 통한 교육방송 활성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EBS는 TU미디어의 채널 한 개를 임대받아 어학·문학·과학·역사·예술 등 다양한 교육 교양 프로그램과 수능전문 프로그램 등 종합교육채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위성 DMB 시청자들의 정보취득 및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고, 수능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 및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었다. 두 회사의 합의에 의해 2005년 7월부터 위성 DMB를 통한 EBS 방송이 가능해졌다.

EBS는 우선 7월부터 기존 케이블방송에서 수능 중심으로 방송되고 있는 'EBS 플러스1'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9월부터 교양·교육·수능·직업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교육 채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BS는 즉시 방송 편성에 들어갔다. 주중에는 성인 대상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압축 편성했으며, 주말 일부 시간대에는 인기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블록 편성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 편성했다. 수능방송은 주요 시청층인 학생들의 매체 접근성을 고려해 야간시간대에 방송을 제공했다.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등 현재 성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강좌도 집중 방송한다는 계획이었다.

2005년 7월 1일, EBSu라고 명명된 위성 DMB 방송이 시작된 데 이어, 9월 5일에는 도곡동 본사 3층에서 출범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날의 기념식은 종합교육채널로 출발한 EBSu를 홍보하는 한편, 성공적인 채널 운영을 위해 EBS와 TU미디어 사이의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권영만 사장⁷⁷은 “뉴미디어 시대에 위성 DMB를 활용한 디지털 시대 교육편차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하면서 “모바일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76| TU미디어는 SK텔레콤의 자회사로 2001년에 출범했다. 위성제작 및 시험에 주력했으며, 2004년 3월,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77| 권영만 사장은 EBS 부사장을 역임하여 당시 진행되던 사업을 가장 잘 이끌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능강의 사업을 본계도에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8 | EBS는 대표적인 라디오 영어프로그램인 <모닝스페셜>과 <초보탈출 잉글리시 고고> 등에서 '보이는 라디오' 서비스를 시작했다. EBS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동영상 중계서비스를 통해 이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영어 자막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EBSu의 프로그램은 TU미디어 5번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 타 위성 DMB 방송과는 달리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신제한장치를 해제함으로써 수신기가 있다면, 월 가입비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말연구소 설립

2006년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공식 반포한 지 560년이 되는 해였다. EBS는 2006년 EBS의 중점기획 가운데 하나로 '올바른 한글문화 장려'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갔다.

EBS는 올바른 언어교육의 핵심기관으로서 우리 문자인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2006년 2월, 우리말연구소를 설립했다. 개설 이후 우리말연구소는 EBS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말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해 8월, '우리말 실력 겨루기' 문항을 제출하는 등 각종 활동을 취해 나갔다.

또한 그해 5월에는 국립국어원과 언어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반짝반짝 라디오 '반디' 서비스

미디어가 급속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2000년 초반부터 라디오의 위기가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EBS FM은 2003년 외국어 전문교육으로 특화한 이래, 2005년 사회교육을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발전을 모색했다. 라디오 전반적인 청취율은 하락했지만 외국어교육과 수능방송 등으로 EBS FM은 많은 인기를 모으는 중이었다.⁷⁸⁾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라디오 방송사들은 저마다 활로 모색에 나섰다. 기존의 라디오 매체를 이용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른바 '라디오 혁명'이라 불릴만한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라디오 없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그 발전의 모색은 인터넷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가정이나 사무실마다 급속히 발전된 PC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다. 인터넷 라디오의 등장 이전에도 PC와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를 듣는 방법은 가능했다. 온에어 서비스가 그것이다. 이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즉시 방송이 중계되는 형식이었다. 녹음된 내용은 주문형 오디오 방식으로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번거롭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게다가 가끔 소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불안정한데다가 버퍼링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방식이 개선된 것이 버추얼 라디오였다. 전파가 아닌 인터넷 경로를 통해 방송을



2006년 7월 1일
보이는 라디오 시스템 '반디' 서비스 개시
←

듣도록 한 것으로, 가장 큰 차이는 '보다 쉽고 간편하며 단순한 방법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PC에 라디오를 십자고 발상을 전환한 덕분이다. PC에 라디오 장치와 부속들을 직접 넣을 수는 없지만 대신 소프트웨어적으로 라디오처럼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EBS는 2006년 7월 1일, 버추얼 시스템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보이는 라디오' 시스템을 선보였다. 새로운 시스템의 명칭은 '반디'로 정했다. '형설지공'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전 국민이 평생교육을 하는데 반딧불 같은 길잡이가 되겠다는 의미였다. '반디'는 버퍼링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EBS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타 방송사들보다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었으며, 보이는 라디오를 비롯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자랑했다.

'반디'는 런칭 직후, 두 달 만에 다운로드 횟수 10만 회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EBS FM은 청취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탄생 100일을 맞아 '형설지공-반디 모아 책 읽자'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라디오를 듣다가 플레이어 위를 날아다니는 '반디' 들을 클릭해서 잡는 형식이었다. 가장 많은 반디를 모은 참여자 100명에게는 책 5권을 선물로 제공했다.

EBS FM 라디오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기술적인 발전을 구가하면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갔다.

외국어전문사이트 EBSlang 개시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갈수록 높아졌다. 어학 학습을 위



EBSlang 홈페이지
L

79| 2005년 영어 사교육비는 한 해 15조 원에 달했다.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을 영어에 쏟아 붓는 실정이었다.

80| 개 국 당시 이 방송의 슬로건은 폴 인 랭귀지(Fall in language)로 정했다. 영어는 물론, 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아랍어 등 6개국 학습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추가로 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네덜란드어·터키어 등을 추가해 모두 15개국 언어 학습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81| EBSlang은 개국 1주년 기념으로 1일 영어마을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전개했다.

82| 교 포 들 중 중장년층이 EBS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영어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또한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해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 등 EBS는 외국어 학습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⁷⁹⁾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외국어 학습은 FM라디오와 EBS플러스 1·2 등을 통해 시청취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한편, 인터넷 등 새로운 방송경로의 확산이 이어지면서 쌍방향 정보 제공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EBS는 자체수의 증진과 시청취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어 학습 사이트를 모색하게 되었다.

EBS는 이전과는 달리 전체 사이트 제작과 운영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2005년 12월부터 외국어 학습 사이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강좌선정 및 교수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외국어 학습 사이트 구축은 콘텐츠 제작과 사이트 구축 운영으로 크게 나뉘어 진행되었다.

콘텐츠는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안을 사용했다. 방송을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웹 기반의 전용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서비스하도록 한 것이다. 2006년 1월부터 강좌 제작이 시작되었다. EBS는 2006년 5월에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이트 구축작업에 매진했다.

마침내 7월 28일, EBS 외국어 학습 사이트인 EBSlang⁸⁰⁾이 오픈·운영되기에 이르렀다. EBS는 사이트 안에 학습관리시스템인 LMS를 구축하였으며, 검색·사전 및 단어장·번역·플래시게임, 커뮤니티, 문항관리 등의 기능을 통해 흥미는 물론, 직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사이트 구축 이후, 적극적인 홍보가 시작되었다. 이에 힘입어 EBSlang은 8월에 1만 5,000명에 가까운 방문자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EBS는 구축 직후부터 온라인 외국어 학습 사이트 가운데 2위를 선점,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⁸¹⁾

미주지역 한인들을 위한 EBS America 개국

EBS는 그간 지식의 창조와 나눔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4년부터 해외교민들을 위해 EBS 교육콘텐츠 해외무상지원 서비스를 꾸준히 벌여온 EBS는 2006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콘텐츠 지원을 위해 EBS America라는 채널을 개국하기에 이른다. EBS America가 개국되기 이전에도 EBS의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일본·호주 등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 이미 큰 인기를 누리는 중이었다. 그 당시에는 재외교포 대상의 위성방송 KN TV를 통해 하루 1시간 가량 <방귀대장 뽕뽕이>와 <고!고!기글스> 등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Hello! 안녕하세요>⁸²⁾가 방송되고 있었다. 또한 2006년 3월에 신설된 CJ Media Japan을 통해서도 EBS문화시리





즈인 <명동백작>과 <지금도 마로니에>가 방송되는 중이었다. 호주의 교육채널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이 1일 3시간 편성되는 등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은 미주지역에서도 끊임없이 EBS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를 원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EBS는 2006년 3월 21일, 미주지역의 위성방송인 TAN⁸³⁾과 계약을 체결하고, 1개의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주지역에서도 EBS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은 본방송 8시간과 재방송을 포함해 전일방송체제로 운영되었다.

EBS는 교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한 후 대상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포들의 요청에 의해 오전에는 <방귀대장 뽕뽕이>를 비롯한 어린이 프로그램⁸⁴⁾을 중심으로 편성했고, 오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물⁸⁵⁾이 방송되도록 했다.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등은 방송 후 큰 인기를 얻었다. 그밖에도 한글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⁸⁶⁾

우리나라에서 방송된 내용이 약 2주의 간격으로 신속하게 공급된 것도 EBS America만의 장점이었다. 이미 TAN TV는 KBS·MBC·SBS·YTN 등의 방송국들이 진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뉴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두 달 후에야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현지의 비디오 사업자들이 대여 및 판매사업을 먼저 한 후에야 공급이 가능한 구조였다. EBS는 이러한 경로 없이 즉시 방송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현지에서도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EBS America의 개국으로 EBS는 지식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세계 진출에 대한 경험도 쌓게 되었다.



83) TAN(The Asia Network)은 미주지역의 한국어 위성TV였다. 1987년에 미국정부로부터 인가받아 1991년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2006년 당시에는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 송출하고 있었다. 교민 1세대·1.5세대·2세대들을 위한 자막방송도 하고 있었다.

84) <고고!기글스>, <딩동댕 유치원>, <만들어볼까요>, <리아의 수학놀이>가 최초로 편성되었다.

85) <도올 김용옥의 알기 쉬운 동양고전-노자와 21세기>, <도올의 논술세대를 위한 철학교실>, <생방송 60분 부모>, <최고의 요리비결>, <살림의 여왕> 등

86)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Hello! 안녕하세요>, <우리말 우리글>이, 교민 1세대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영어단기정복>, <English cafe> 등이 있었다.

2006년 5월 1일
EBS America 방송 개시
←

87| 사교육 시장에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음에도 2005년 우리 국민들의 토플(TOEFL) 성적은 227개 국가 중 93위, 아시아 32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했다.

세계일보 2007년 3월 27일자

88| EBS는 영어 학습을 위한 교재는 따로 출판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을 제공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초·중학생의 약 10%가 이 채널을 활용할 경우 연간 사교육비 7,200억 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BS English 개국

우리 사회에서 ‘영어 교육’에는 늘 난항이 따랐다. 영어권 문화가 아닌데다가 인근에 영어권 국가도 없었기에 실제적이면서 활용 가능한 언어교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영어교육은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는 주범으로도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2005년에 발표된 각종 통계지표에 따르면 조기 유학생을 비롯하여, 해외 어학연수생은 2001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57%·65%로 크게 증가했다. 해외에 유출되는 금액도 급증해서 3조 3,000억 원에 달했다. 한 민간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6년 11월 무렵, 영어 관련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무려 15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⁸⁷⁾ 사회적 지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더 큰 난제는 지역·계층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어 학습 능력의 격차였다. 영어는 특히 사교육이 집중되는 분야였기에 소득의 격차가 곧 영어교육 수준의 격차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었다.⁸⁸⁾

EBS는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영어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 아래 2007년 4월 6일,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를 개국했다. 이날 열린 개국식에는 당시 사교육 문제를 반영하듯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기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그날 개국 축사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한 전제적인 투자”라고 언급하면서 “국민 누구나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안방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EBS 영어교육 방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산간벽지와 같은 취약지구에서도 저렴하게 영어교육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다. 뒤이어 전남 고흥 우도 분교와 경남 울주군 삼평초등학교

2007년 4월 6일
영어교육채널, EBS English 개국



교를 삼원으로 연결해 영어사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기대와 바람을 생생하게 전했다.

EBS English는 설립 취지에 걸맞은 편성방향을 확립하고 유아·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성인대상 프로그램·교사 연수 및 교사용 프로그램으로 각각 구분해서 제작했다. 특히 소외 계층의 영어격차 해소, 도시 농촌 간 학생들의 영어격차 해소에 주력했다.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애니메이션형·인형극형·게임형 등 유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교과서를 비롯한 학교에서의 교육 커리큘럼과 연동된 수준별 프로그램도 편성되었다. 일일 시사 프로그램과 우수 다큐멘터리, 영어회화 및 비즈니스 영어 등은 성인 대상의 영어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었다.⁸⁹⁾

한편 EBS English는 제한적인 시청자 층을 갖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EBS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e러닝 사업을 보다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영어교육 전문 사이트도 함께 구축했다. 개국과 동시에 운영된 인터넷 영어교육 전문 사이트(www.ebse.co.kr)는 방송과의 연계를 감안해서 VOD 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히 영어교육방송 EBS English는 반복학습이 꼭 필요한 어학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또한 학년이 같다고 모두 한결 같을 수 없는 학습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인별 수준에 맞춰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VOD 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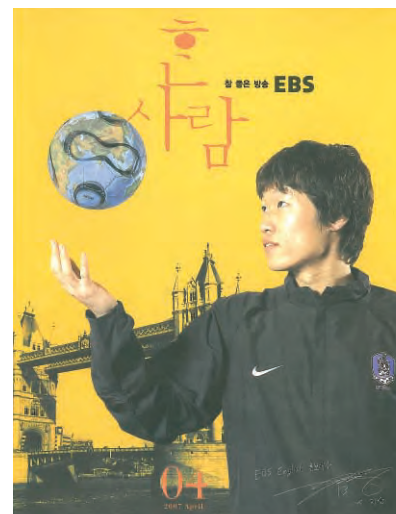
그밖에도 영어교육 전문 사이트라는 취지에 맞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인지발달 및 언어 학습능력을 고려한 커리큘럼 설계로 학부모들이 쉽게 아이들의 영어학습을 지도할 수 있게끔 했다. 초등학생용 영어교육 콘텐츠 3단계와 중학생용 콘텐츠 14과정을 교재 없이, 또는 무료 PDF 파일로 다운받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방송이 수업시간에 활용될 수 있는 학습법 위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사이트에서는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단원 테스트와 형성평가 문제를 제공했다. 또한 서로의 고충과 문제해결방안,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사 전용 게시판도 운영했으며, 학습에 흥미를 높여줄 게임과 영어동화, 명작소설 등 다양한 부가학습 콘텐츠도 큰 인기를 모았다.

EBS의 영어교육 전문사이트는 인터넷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게임을 학습에 적용시킨 <배틀퀴즈>는 흥미를 주면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방도 대표적인 참여형 콘텐츠였다. 이 사이트는 오픈 즉시 큰 성공을 거두었다. 3개월 만에 가입회원은 1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온라인 영어교육 사이트 가운데 수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자리 잡아갔다.

89) 'EBS English'의 홍보대사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이었다. 홍보대사 위촉 제안을 받아들인 박지성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도울 수 있다"며 "EBS English를 통해 청소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BS English 홍보대사
박지성 선수(EBS 사외보 2007년 4월호 표지)
7





90 | D-Cart 시스템은 호주 ABC방송이 개발한 것으로 특히 음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91 | 문화현장을 생생하게 안내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다양한 문화정보와 함께 문화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고자 기획되었다.

92 | 쉽게 듣기 힘든 제3세계 음악을 소개한 프로그램이었다. 샹송과 칸초네, 파두 등의 유럽음악과 라틴음악을 소개함으로써 라디오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93 | 국내 전문가와 해외 통신원들이 국내외의 시사문제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94 | <한영애의 문화 한 페이지>에서는 국내문화는 물론, 해외통신원을 연결하여 생생한 세계의 문화정보를 제공했다. <부모의 시간>에서도 세계 각국 부모들의 공통관심사를 다루는 등 글로벌 관점을 도입했다.

그밖에도 영어방송의 전문성 홍보·편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교원 중시의 연구 및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영어교육연구회를 지원하기도 했다.

EBS FM과 디지털 시대

2004년에 들어서면서 EBS FM에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오디오 파일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이전까지의 방송은 릴테이프에 의해 제작되어 음질이 우수하지 못했고, 편집과 이동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EBS FM은 이를 개선하고자 디카트 시스템⁹⁰⁾을 도입했다. 또한 프로그램 송출은 물론, 제작 업무의 일부분까지 디지털화를 추구했으며, 프로그램 자료를 디지털 오디오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아카이빙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EBS FM의 방대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되었다.

한편, EBS FM은 채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표 프로그램 육성에 나섰다. <한영애의 문화 한 페이지>⁹¹⁾, <전기현의 세계음악기행>⁹²⁾ 등이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다.

후반기 EBS FM의 편성 목표는 ‘월드 EBS 시대를 연다’로 정하고 이에 걸맞은 개편을 추진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국내외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며, 어학·정보·문화 프로그램을 월드 EBS 관점에 부합하도록 일부 변경했다.

<김민웅의 월드센터>⁹³⁾가 신설되었고, <부모의 시간>, <한영애의 문화 한페이지>⁹⁴⁾ 등은 코너 개편을 통해 글로벌 정보를 제공했다.

사회 각 분야의 명사와 원로들로부터 듣는 삶의 철학 <만나고 싶었습니다>, 소리명창인 <안숙선의 소리마당>, <라디오 문학관>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2005년에는 <월드FM 손석춘입니다>가 신설되어 국내외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프로

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김진수의 충전, 영파워>는 문화적 향유가 쉽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주고, 문화적으로 간접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어 초보자들을 위한 버라이어티 <초보탈출, English Go! Go!>도 주목받은 프로그램이었다.

후반기에는 어학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스타트! 김과장>, 문화 정보 프로그램인 <임동창의 풍류기행>, <EBS오디오북>, 중국 소개 프로그램인 <니하오마> 등이 편성되어 인기를 끌었다.

한편, 2006년에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콘텐츠형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아침과 저녁 출퇴근, 혹은 등·하교시에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보영의 포켓 잉글리시>가 편성되었다. 영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뜻과 쓰임새를 알려준 <문덕의 어휘대첩>, 실용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문형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58분 영어> 등이 그것이다. 어학 프로그램도 큰 폭으로 바뀌어⁹⁵ 청취자들의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후반기에는 실용 지식과 상담 프로그램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광기·이지희의 알토란>⁹⁶, <최형만·박수림의 속 시원한 라디오>⁹⁷, <한창완의 학교종이 땡땡땡>⁹⁸ 등이 편성되어 생활 속의 실용정보를 제공했다. <차이나 스페셜>과 <서경원의 JPT> 등은 새롭게 편성된 제2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이었다.

2007년 전반기에는 공영방송 EBS의 채널 특성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랑해요 코리아>였는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교육 관련 뉴스를 분석하고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 <교육매거진 오늘>, 실용적인 시사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 <생방송 최광기·황현희의 시사난타> 등이 편

95 | <김대균의 NEW 토익>, <조오제의 토익 리스닝>, <강주영의 HSK>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96 |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 웰빙, 자녀교육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엄선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97 | 생활법률과 경제, 재테크 정보 등 유용한 실용지식과 인생상담이 웃음을 통해 전해지도록 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었다.

98 |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문제와 주제를 두고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EBS FM <초보탈출 잉글리시 고교>

성되어 EBS FM의 명성을 이어갔다.

후반기에는 보다 새로운 교양정보가 제공되었다.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는 <책으로 만나는 세상>, 음악, 영화 역사, 경제 등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라디오 교양시리즈>, 등이 청취자들을 찾아갔다.

그밖에도 재미와 실용성을 강화한 새로운 제2외국어 시리즈 프로그램 <입에서 톡-러 시아어 · 베트남어 · 독일어> 등이 편성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4대 사장 권영만 前 사장을 만나다 2005. 3. 16 ~ 2006. 9. 18

새로운 방송 시대의 개막, 그리고 희망이 있어서 빛났던 한 시절

● 이제 추억이 된 순간

“돌이켜 보면 위기의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방송은 순간의 실수도 결코 용서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인천 OBS W 사장으로 재직 중인 권영만 4대 사장은 추억담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가 재임했던 200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 방송환경이 급변하던 시기였다.

각 방송사들마다 새로운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때이기도 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EBS도 새로운 유형의 방송을 많이 시행했다. 인터넷 수능강의가 시작되었고, 차세대 데이터방송 · 라디오 버추얼 시스템 ‘반디’ 개시 등이 그것이다.

“그 무렵의 방송환경이 그랬습니다. IT의 급속한 발달로 새로운 매체 · 새로운 경로가 유행처럼 번졌던 때입니다. EBS도 그 시절, 새로운 경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활성화된 인터넷 수능방송입니다.”

EBS에서의 첫 업무는 IT방송이었다. 임명 다음날부터 즉시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인 EBSi의 개국작업에 투입되었다. 난항의 연속이었다.

“한 달 안에 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만 명 동시접속 서버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버가 개국 하루 전날이 되어서야 겨우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 e러닝 사업과 DMB 방송

“EBS는 e러닝 사업의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조사된 바에 의하면 2조 2,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상당수 IT기업과 교육 콘텐츠 기업들은 그러한 덕을 많이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러닝 사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트였다. 사용자의 규모나 시스템 범위 등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EBS는 뒤이어 차세대 디지털 방송도 시작했다. 쌍방향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화제를 모았다. FM라디오의 ‘반디’ 서비스는 거대 방송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다.

DMB 방송도 그의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한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던 셈이다.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토대를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되어서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상파 DMB 신청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차기 기회가 오게 되면 EBS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EBS는 지금 위성 DMB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 차별화된 콘텐츠가 미래를 좌우한다

“보람된 일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일이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의견을 내면 뭐 하나, 어차피 안 될 텐데’ 라는 식의 문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공사가 된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많았다. 정부나 타 기관과 협의를 거치다 보면 사업은 의례 축소되거나 불투명해졌다. EBS ‘논술강의’는 그나마 잘 시행된 경우에 속한다.

“타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시행하지 말고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논술강의였습니다. 교육부도 사교육 시장에서도 장기간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논술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논술을 중시하고 있지만, 현실여건상 공교육에서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애초의 계획은 거창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교재를 만들고 이를 강의한다는 것이었다. 예산 배정 문제 때문에 8권의 책을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

그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다고 회고한다. 무엇인가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현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99) 케이블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 채널을 의무 편성해야만 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성 방송분야에 선정된 채널에 대해 분야별 1개 이상의 채널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남겼다.

“EBS 사장 시절에도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매체는 이전과 달리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제작사들이 생기면서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EBS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업방송과 같은 논리, 같은 방법으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새로우면서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 등이 선행된다면, EBS의 앞날은 더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4. 백년대계 EBS, 새로운 꿈을 꾸다

공익채널의 선정

2007년 11월, EBS 위성채널인 EBS 플러스 1·2·English 채널 모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공익채널로 지정받았다. 국민의 교육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온갖 노력을 다해온 결과였다.

공익채널 지정 제도는 케이블TV와 위성TV에서 공익적 성격의 채널이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였다. 오락채널이 채널을 석권하기 쉬운 위성·케이블 등을 방지한다면 전파 모두가 공익 대신 흥미 위주로 일방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⁹⁹⁾

당시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SO) 수는 70개에 불과했다. 반면 채널 선정을 원하는 프로그램 공급자(PP)는 200개 이상이었다. 상업성을 중시하는 종합유선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는 당연히 공익방송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는 상업성 논리로 채널을 할당받기 어려운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사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공익채널을 지정하고 있었다. 2005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EBS 플러스1·플러스2가 공익채널로 지정받은 바 있었다.

한편, 2007년이 시작되면서 EBS는 인터넷과 위성으로 방송되고 있던 EBS English에 대해 공익채널로의 지정을 요청했다. 당시 EBS English를 시청할 수 있는 위성TV 가입자는 200만 명에 불과했으나 공익채널로 지정된다면, 1,300만 명에 이르는 케이블TV 가입자도 EBS English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EBS의 위성 3개 채널이 모두 공익채널로 지정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며 반발했다. 각 방송사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EBS외에도 다양한

교육 PP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EBS플러스1과 플러스2는 그간 수능분야와 교육 분야에 속해 수준 높은 방송을 계속 해왔다. 두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시청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이었다. 수능교육 전문채널을 표방하는 EBS플러스1의 시청대상은 180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고등학생이었다. '수능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었지만 내신부터 논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공교육 보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 수능방송 EBSi와 연계해 수준별 맞춤형 학습 제공과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고등학생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었다.

초등·중학 및 직업교육 채널인 EBS플러스2의 주요 시청대상은 390만 명의 초등학생과 200만 명의 중학생으로, 이들에게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각각 연간 8조 500여억 원·4조 5,000여억 원에 달해,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를 네 배나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이 채널 또한 막대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학습 자료를 전국적으로 제공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EBS English는 EBS플러스1과 플러스2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보완과 과도한 영어 사교육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방송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데 반해, 교육수요는 계속 확대됨에 따라 충족되지 못했던 영어교육 관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EBS English의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은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었다.

EBS는 이러한 점들을 통해 3개 채널의 공익채널 지정이 우리나라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알렸다. 2007년 11월 3일, 방송위원회는 EBS의 3개 채널을 2008년



인터넷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학생들
←

100 | 2005년 공익채널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공익성 방송 분야의 17개 채널이 선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에는 6개 분야에 12개 채널을 선정했으며, 2008년에는 동일분야에서 11개 채널로 그 수를 줄였다.

101 | EBSe 개국 당시의 회원 수는 85만 명에 달했다. 그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현재 211만 명으로 늘어났다. 월평균 VOD 이용건수도 51만 건에서 151만 건으로 확대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공익채널로 지정했다. 특히 방송위원회가 공익채널의 수를 줄인 끝에 이루어진 결실 이어서 그 가치는 더했다.¹⁰⁰⁾

지난 수년간 좋은 프로그램,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해온 EBS의 결실이기도 했다.¹⁰¹⁾

EBS America 위성채널 추가 런칭

EBS America는 개국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외교민과 주재원들이 한국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한국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호평 속에서 EBS는 또 다른 위성방송 사업자인 KISBI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성채널을 추가 런칭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EBS America는 개국 2년 만에 시청자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중미 지역에서 2개의 위성채널을 확보하면서도 별도로 EBS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지에서 자생력 이상의 수익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EBS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EBS America는 추가 런칭 시 주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북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동부와 서부의 시차가 3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재방송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내용상으로는 유아 및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했다.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 역사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편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했다.

추가 런칭한 EBS America는 2개의 위성을 통해 24시간 전일 방송함으로써 북미지역의 교민들은 한국에서와 같은 시간대에 누구나 EBS를 손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EBS America 위성송출 시설







EBS HD TV
EBS HD TV

HD TV

언론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2006년 6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EBS는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법안이 12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어났다.¹⁰²⁾

이 법안은 KBS와 EBS도 다른 공사들처럼 기획예산처의 예산감독을 받고, 기획예산처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KBS와 EBS의 이사회 구성에 관여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영방송 역시 경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예산의 낭비와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시와 같은 사후승인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⁰³⁾

2000년 공사출범 후 EBS는 예산 및 인사에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감사원과 무소속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산을 감독받았으나 사실상 사후승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법안의 발의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에 심각한 해가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언론노조 등 각계의 항의가 잇따랐다.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법은 방송의 독립성을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했으며, 자율성 대신 정부 구속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EBS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EBS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하여 올바른 여론의 형성, 정치적 중립성 유지, 민주적 시민교육 등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방송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EB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4월 11일,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EBS,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시켰다. 기획예산처가 EBS와 KBS의 경우 기관의 특성 및 근거 법령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적은 기관으로 보고 지정유보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곧, 대외적으로 E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EBS는 방송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계기가 된 것은 2007년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었다. 시행령은 보도 프로그램을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전문편성을 하도록 되어

102) 방송노조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마치 일반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처럼 취급,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기존의 법안이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던 반면,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KBS와 EBS를 제외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103) 연합뉴스 2007년 2월 7일자

2007년 12월 4일
EBS의 뉴스보도가 허가되었다.



104| 그 해 열린 국정감사 결과,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메인 뉴스에서 교육·문화 뉴스의 비율이 평균 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 관련 뉴스는 평균 4%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의 보도 기능 강화가 필요함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미디어오늘 2007년 10월 1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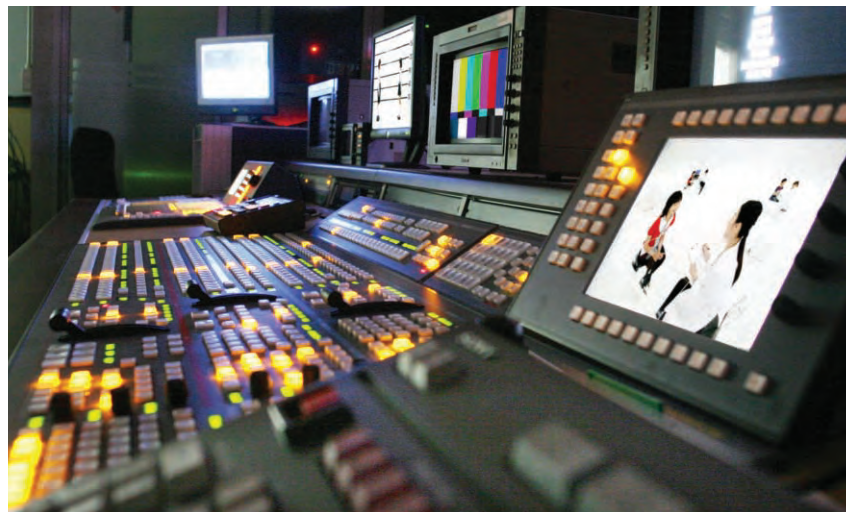
105| 한국일보 2007년 10월 23일자

있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OUN) 등 3개 공채널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 아리랑TV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EBS는 보다 엄격해진 편성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방송위원회 법제부는 입법 취지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무분별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EBS의 입장은 달랐다. E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편성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본 것이다.

EBS는 8월 27일, 기존 허가장의 '보도제외' 문구를 없애고 대신 '교육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이라는 문구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허가장 변경 신청서를 방송위에 제출했다. 학부모와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정보를 EBS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¹⁰⁴⁾ 한국일보는 사실을 통해 EBS의 보도기능이 필요하다고 게재하기도 했다.

EBS가 처음 방송 허가를 받을 때 '보도 제외' 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은 다른 방송은 '보도 가능' 이라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제 와서 그런 조건을 엉뚱한 채널에 특혜를 주기 위한 빌미로 활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방송위는 보도 프로그램 허용 조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¹⁰⁵⁾

EBS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2007년 12월 4일,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EBS가 제출한 허가장 변경 신청 가운데 교육 관련 뉴스를 보도할 수 있도록 변경 신청 내용 중 일부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EBS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등 언론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평가 1위

2008년 9월 10일, 각 언론들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결과를 보도했다. 각 언론들은 일제히 EBS가 방송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익채널 지정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였다. 재허가 심사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방송사들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장명령 불이행 사례,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시청자 권익보호,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평가, 방송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높은 점수를 받은 방송사일수록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신뢰성 있는 경영을 했다는 의미였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3년마다 한 차례씩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 결과 EBS는 KBS, MBC, SBS, 지역 민영방송 등 2007년도 재허가 대상인 지상파 방송국 총 290개 중, EBS가 총점 747.7점(1,000점 만점)을 얻어 전체 1위로 재허가 심사를 통과했다.¹⁰⁶⁾

106 | 2007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추천백서 중. 이번 조사에서 KBS 1TV는 743.10점, SBS 725.38점, MBC 700.78점, KBS 2TV 696.17점을 받았다.

107 | KBS 제1TV가 761.99점, SBS가 699.91점, KBS 제2TV가 698.82점, MBC가 677.71점을 각각 얻었다.

이러한 평가는 그간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EBS의 노력이 반영된 덕분이었다. EBS는 심사위원회 정책건의사항이었던 ‘교육관련 보도에 대한 기능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2007년도 재허가 추천과는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교육관련 보도 허가를 취득했다. 또한 권고사항이었던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 근거를 마련할 것’에 대해 즉시 EBS정관에 이를 명시하였고, ‘교육장르 확대편성 등을 통해 채널 정체성을 강화할 것’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 기획 다큐멘터리를 집중 편성하고 교육연구소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EBS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였다. EBS의 방송평가는 500점 만점에 422.82점으로 2위인 KBS 1TV보다 11.37점 높은 것이었다. 심사평가에서는 3위에 그쳤으나 총점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프로그램의 우수성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10년의 지상파 재심사에서도 총 평가 점수 900점 만점 가운데 795.47점으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¹⁰⁷⁾

한편, EBS는 2009년 12월에 발표된 DTV 지상파 방송국 가운데 재허가 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심사대상 20개 방송국 가운데 EBS는 방송평가 부문에서 422.01점을, 심사평가에서 392.38점을 획득하여 총점 814.39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멀티미디어 DB플랫폼 사업의 시작

EBS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고, 그것을 관리 복사·제공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EBS 프로그램의 복사를 요청하면 그것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자료들이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EBS는 2008년 12월 17일, KT 및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KT-EBS-마이크로소프트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현장을 대상으로 콘텐츠 DB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컨소시엄은 EBS가 보유한 20만 개의 방송자료를 기반으로 유례없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데 있었다. 특히 EBS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어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3사는 즉시 EBS 교육 자료에 대한 DB작업에 돌입했다. EBS는 20만 개에 이르는 방대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KT가 이 프로그램을 1분에서 5분 안팎의 동영상 클립으로 재가공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영상 관련 솔루션을 통해 플랫폼화하는 형식이였다.

컨소시엄은 우선 <딩동댕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 전문 프로그램과 각종 학습·교양·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재가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용 방송 콘텐츠 약 2만 5,000건을 DB화했다. 총 830시간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EBS의 맞춤형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멀티미디어 DB 플랫폼의 탄생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방대한 학습 데이터베이스 실현이라는 데 의의가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었으나 상용화된 사례가 없었다. 그 이유는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양이 지극히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EBS는 다시 한 번 그 필요성과 위상,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교육 미디어 그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용 동영상 데이터베이스는 전국 대다수의 교사들이 이용하는 티나라¹⁰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됨으로써 활용률이 제고되도록 했다.

디지털 통합사육의 꿈

EBS의 해묵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족한 공간이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위상이 재정립된 이후, 도곡동에 청사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공간은 부족했다. 스튜디오와 일부 설비도 우면동에 있었으며, 부족한 공간 해소를 위해 도곡동 인근에 사무공간을 임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EBS는 공간문제는 물론, 새로운 EBS의 꿈

108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80%인 12만 명의 교사가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사이트다. 수업준비와 실제 수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 교수법 등이 제공되고 있다.

2009년 6월 19일
공사창립 9주년 및 통합사육 건립 선포식

EBS디지털 통합사육 조감도



을 실현하고자 디지털 통합사옥의 구축에 나섰다.

2009년 6월 19일, EBS는 공사 창립 9주년 및 통합사옥 건립 선포식을 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 기념식은 EBS공사창립 9주년을 자축하는 1부 기념식과 EBS디지털 통합사옥 건립 추진을 선언하는 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특히 2부 순서에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희 교총회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구관서 사장¹⁰⁹⁾은 “공사 창립 9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그간 일궈낸 EBS의 성장과 발전은 국민들의 기대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오랜 숙원사업인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EBS의 오랜 숙원인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에는 부족한 공간문제도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었다. EBS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옥은 교육·체험·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디지털 기능의 총합체를 의미했다. 이를 통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전문 미디어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꿈이었다.

또한 2013년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디지털 시대에도 굳건한 평등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목적이 있었다. 국민에게는 열린 체험공간을 제공하며, 동시에 교육소외계층에게는 또 다른 교육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최근 추세에 걸맞게 오프라인을 활용한 교육, 에듀테인먼트, 교양·문화 등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국민과 방송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EBS가 꿈꾸는 통합사육의 모습이다.

EBS는 방송의 제작·송출 기능을 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시청자 참여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육, 누구나 함께 하고 누구나 방송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디지털 통합사육 건립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¹¹⁰⁾

109 구 관서 사장은 2006년 9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5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110 한 편, 2010년 10월 27일 EBS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방송제작 및 업무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연되어 온 고양시 한류월드 내 디지털통합사육 건립을 2011년부터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5대 사장 **구관서** 前 사장을 만나다 2006. 9. 19 ~ 2009. 10. 14

새로운 콘텐츠로 한 발 앞선 성장의 길을 향해 EBS, 무한한 자긍심의 힘

● 짧지만 긴 인연

구름 속으로 태양이 숨어들자 그때서야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산업정보대학이 보였다. 경삿길을 올라서자 이 대학의 고풍스런 본관 건물이 나타났다.

구관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전 사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는 곳이다. 명함을 주고받은 후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먼저 근황에 대해 질문했다.

“EBS 사장 퇴임 이후 대구산업정보대학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마도 제 평생 천직인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그리고 대학의 총장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최일선 자리를 걸어오고 있는 중이다. ‘교육이 천직이자 팔자’ 라면서 EBS와의 인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교육부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EBS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곤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오가며 만난 EBS 사람들은 늘 열정에 차 있었다고 한다. 사명감으로 뭉친 직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엮일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EBS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이 당면과제였습니다. 이미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 위상을 정립한 후였기에 앞으로의 미래상 구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EBS의 경쟁력은 곧, EBS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타 방송사와 같은 방법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는 우선 다큐멘터리 편성을 추진했다. 뉴스처럼 일정한 시간이 되면 EBS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이 시작된다는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준다는 계획이었다.

“EBS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큐멘터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PD를 양성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 매일 다큐멘터리 편성을 목표로 19명의 PD들이 모여 집중작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선보인 것이 2008년 봄편성의 <다큐프라임>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수준높은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는 <다큐프라임>은 EBS가 ‘다큐멘터리 名家’로 명성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또한 영상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EBS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구상한 개념은 ‘디지털 커리큘럼’이었다.

“EBS가 갖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와 앞으로도 계속 제작될 콘텐츠 중 교과학습과 연계해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교수법 개선은 물론 EBS도 경쟁력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가 특히 아쉬워 한 부분은 EBS의 고질적인 예산 부족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런 것이 참 많이 기억에 남더군요.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순간, 추진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결국 늘 해왔던 방식 그대로 고수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대입 수능과 EBS의 경쟁력

그의 재임 시절, EBS는 수능방송으로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현재는 수능시험과의 연계율이 더 커지면서 사교육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EBS가 주목받고 있다.

“수능방송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교육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다른 형태의 과외방송이 있음에도 왜 EBS가 수능방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EBS의 경쟁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EBS 직원들에게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다. “EBS가 평생교육 차원의 교양 프로그램만으로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능방송만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재임 기간에도 늘 강조한 것은 EBS 소속으로서의 자긍심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EBS인의 자긍심을 갖고 고유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EBS의 경쟁력은 무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1| 광덕훈 사장은 2010년 5월 11일, 방송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EBS가 1996년 방송협회에 가입한 지 14년만의 경사였다.

사교육보다 경쟁력 높은 EBS 수능강의

2009년 10월 15일, EBS 사장에 광덕훈 KERIS 전 원장이¹¹¹⁾ 임명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먼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목적 규정을 인용한 후,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이 과업으로 적절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원
-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EBS
- 국민에 유익한 공영방송 EBS
- 디지털 교육방송을 선도하는 EBS
- 글로벌 교육과 창의적 교육을 선도하는 EBS

광덕훈 사장의 취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은 전사회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정부의 대책 방안은 EBS의 역할 강화로 요약되었다. 학원영업 시간제한, 특목고의 개혁 등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그 가운데 우선 현실적인 것은 사교육보다 경쟁력이 높은 EBS 수능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EBS의 수능방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능 문제 출제 시 EBS 수능강의 연계율을 당시 30%에서 7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었다. EBS의 위상은 대폭 높아졌고, 사교육과의 전쟁 일선에 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EBS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던 수능방송을 대폭 개편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변화를 추구했다.

- 최고 수준의 강사 영입
- 수능 · 내신의 수준별 강의
- 미디어를 활용한 압축클릭형 강의
- 수능 연계율 및 완성도를 높인 수능교재 제작

EBS는 이러한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연간 커리큘럼과 강사진에 대대적인 혁신을 취했다. 1년 전인 2009년 10월, 서울 · 수도권 수험생을 대상으로 강의진 선호도를 조사했고, 그 결과 학생들의 신뢰도가 높은 스타강사를 영입했다. 공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EBS로서는 과감한 변신을 꾀한 것이다. 아울러 커리큘럼에도 변화를 주어 새로운 강좌가 방송에 나가도록 했다.

EBS가 2010년에 개설할 강좌 수는 모두 810개에 달했다. 우선 양적으로도 2009년에 비해 훨씬 앞서는 수치였다. 이전까지는 방송하지 않았던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강좌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15일
임명장을 받은 곽덕훈 사장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강원도 면은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



이전까지는 학업 수준을 3단계로 분류했으나 2010년 편성에서는 6단계로 한층 더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중위권 수험생 중심에서 최상위권 수험생들까지 EBS수능강의를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연간 커리큘럼은 11월 수능을 중심으로 삼았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시행한 6월·9월 모의고사에 맞추어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수능교재와 강의를 사전에 기획·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압축 클립형 강의를 제작, 제공했다. 교재를 중심으로 클립형 강의 형식을 도입해 손쉽고 빠른 이해가 이루어지게 했다. 학생들은 등·하교시간은 물론, EBS 교재를 활용하는 방과 후 수업이나 자율학습시간, 그리고 평소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인터넷 강의를 즐겨듣는 수험생들의 학습 환경을 반영해서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PMP용 수능강좌를 개설했다. 50분 분량의 EBS '수능특강' 과 고1·2 내신강좌를 5~10분 분량으로 압축한 프로그램이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약 800여 편의 압축강의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EBS는 수능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¹¹²⁾을 기울였다. 우선 교과부와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MOU가 2010년 3월 10일에 체결되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교과부 장관과 부산시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협의회장단, 박덕훈 EBS 사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그리고 교원·학부모·연구기관·대학 등 각계 대표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체결된 내용은 초·중·고교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기획·제작,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 간 연계 강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상호협력 등이었다.¹¹³⁾

교재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도 배가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위원과 EBS 집필진 간의 공동연수 프로그램, 교재공모제, 문항공모제 등을 통해 보다 우수한 교재가 발간되도록 했다.

EBS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어두운 저녁, 학원을 찾는 대신 안방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사교육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심도 EBS로 집중되었다. 2010년 3월 19일에는 대통령이 EBS를 직접 방문, EBS의 수능방송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7층 스튜디오를 방문, EBS수능방송 제작현장을 시찰하고 제작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언제까지 학부모가 학원에 정보를 얻으러 다녀야



2010년 3월 수능 강의 질 제고 및 강의 활성화를 위한 전속강사단 출범

2010년 3월 10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BS·교과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MOU 체결

¹¹²⁾ EBS는 수능강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가정학습 및 학교교육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0년 1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학교교육본부'가 신설되었고, '교육방송연구소'가 사장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¹¹³⁾ 연합뉴스는 이날의 MOU 체결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교육비 절감 원년’이라는 올해 정책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간에도 이뤄졌던 EBS와 평가원의 협력 활동을 공식화·실질화한다는 것이었다.”
연합뉴스 2010년 3월 10일자

2010년 3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방문(EBS 수능강의 개선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대화)



114| 각 언론은 대통령의 EBS방문을 크게 보도했다. '기난한 학생들이 교육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BS 강의만 듣고도 대학 갈 수 있어야' 이 대통령 EBS 본사 방문(조선일보 3월 20일자)
이대통령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 수 있게'(동아일보 3월 20일자)
MB 'EBS, 다양한 강의를 우리 손자도 봐야 할 테니'(중앙일보 3월 20일자)

115| EBS 수능시범학교는 부산 강서고등학교, 대구 동부고등학교, 광주 운남고등학교, 대전 반석고등학교, 울산 신정고등학교, 충북 청주 금천고등학교, 충남 외국어고등학교, 경남 마산여자고등학교 등 8개교였다.

하고,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해야 하나"라며 "EBS 방송과 수능의 연계율을 7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으로 노심초사하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EBS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¹¹⁴⁾

한편, EBS는 수능강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충북 청주 금천고등학교 등 8개의 수능시범학교를 지정했다. 수능시범학교는 EBS의 수능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형식이였다. 각 지역별로 1개교¹¹⁵⁾씩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EBS의 협력 아래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 방송,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마침내 EBS가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10년 전, 20년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향상된 위상 속에 맞이한 교육방송 36년.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들에게 교육의 길을 터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EBS 어깨 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6월 22일, 수많은 각계 인사들이 EBS에게 교육의 길을 걷는데 힘을 써달라고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서 그간 EBS가 이루어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교육을 살리는 전진기지로서 교육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EBS의 저력을 실감합니다. 앞으로도 EBS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최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수능강의에 대한 개선조치가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초중학습과 영어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국민의 합의에 따라 EBS가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문을 연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EBS가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방송이라 생각하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를 비롯해 전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EBS가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EBS 이사회 이춘호 이사장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EBS는 잘 알고 있다.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향후 다가올 미래에 훌륭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는 마음일 것이다. 광덕훈 사장은 앞으로의 각오를 이렇게 다짐한 바 있다.

EBS는 이제 보다 글로벌한 사고와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미디어 교육전문그룹으로 태어나고자 다시 한 번 힘찬 도약을 합니다.

교육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하고 독창적인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발굴·기획하여 평생교육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EBS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채널, 열린 서비스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위하여 EDRB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하여 EBS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전문 미디어그룹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립기념식이 끝난 후 광덕훈 사장은 각오를 다지며 길 위에서 있었다. 그 옆에는 임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교육방송의 씨를 뿌리고, 꽃을 맺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36년. 그 긴 세월을 뒤로 하고 EBS는 천천히 그러나 목표를 향한 분명한 발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다.



PART . 2

- 10년 동안 어린이와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방귀대장 뽕뽕이>,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장수 유아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한국의 파종류>, 북한 중앙TV에까지 소개된 <시베리아 호랑이>를 비롯한 다큐 프로그램, 사교육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학교교육 프로그램 등 타 방송사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왔다. 교육방송 36년·공사창립 10주년을 넘어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진출의 과제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앞으로의 미래 개척을 위한 디딤돌이었기에 진정한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EBS Programs HISTORY

Chapter.1

Preschooler & Children

Chapter.2

Documentary

Chapter.3

Schooling Broadcasting

〈딩동댕 유치원〉에서 〈키득키득 실험실〉까지,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28년

아이 좋아~ 모두 모두 다모였네~

2010년 4월 29일 낮 12시,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 제 각각 엄마와 아빠의 손을 맞잡은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강하게 묻어 있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EBS 공사창립 10주년 기념 EBS 캐릭터 대잔치' 이벤트장이었다. 1982년 교육방송 최초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인 〈텔레비전 유치원〉 이래, EBS의 모든 캐릭터가 한 자리에 모인 뜻깊은 순간이었다. 어린이들의 얼굴에 가득 담긴 호기심 뒤편으로 색색의 풍선과 장식물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가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한 방향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이 일제히 달려간 곳은 '캐릭터존'. 방귀대장 뽕뽕이를 필두로 귀여운 펭귄 친구 뽀로로와 친구들, 두바

두바 눈보리, 〈딩동댕 유치원〉의 번개맨, 아기 공룡 깨미, 선물공룡 디보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TV에서 본 다양한 캐릭터와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 1시부터는 모든 캐릭터들이 등장, 최고가 되기 위해 펼쳐지는 모험과 도전이 뮤지컬 형식의 공연으로 열렸다. 4시에는 지난 10년간 어린이들과 함께 해온 〈모여라 딩동댕〉 500회 특집 공개방송이 열렸다. 꾸러기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내용이었다. 6,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1982년 이래 28년 동안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역사가 고스란이 담긴 자리였다.

그 긴 시간 동안 EBS는 한 순간의 멈춤도 없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창조해왔던 것이다.

① 웃음 왕국의 하하하 왕은 자신의 생일날 어린이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최고의 캐릭터에게 트로피를 주겠다고 선언한다. 각 캐릭터들이 다양한 장기자랑을 펼치고 최고 캐릭터를 발표하려는 순간, 트로피가 없어진다. 어린이들의 웃음과 행복을 싫어하는 악당 짓임을 알게 된 캐릭터들이 트로피를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딩동댕 유치원〉



〈즐거운 생활〉

유아 프로그램의 전형 〈딩동댕 유치원〉

1982년, 교육방송 최초의 유아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❶ 초기 명칭은 〈텔레비전 유치원〉이었는데 약 20분 분량이었다. 이 방송은 처음부터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교육방송 유아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교육방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도 새 헌법 29

조가 규정한 평생교육의 위상에 그만큼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104회 실시되는 유아교육은 유치원이 태부족해서 취원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유치원에 가지 못한 대부분의 유아나 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짐작된다.❷

EBS가 〈텔레비전 유치원〉을 편성했을 때, 이미 KBS와 MBC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EBS 프로그램이

타 방송사와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점은 유치원 교과과정을 이수하기 힘든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교육방송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텔레비전 유치원〉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과정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아이들의 신체발육을 위한 체조, 종이접기, 공작 만들기 등 가정에서 TV를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코너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취학 전 아동의 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고 원만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교육방송이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갖 시행된 오전 시간대에는 KBS의 〈통통통〉과 MBC의 〈뽀뽀뽀〉가 방송되었고, 저녁에는 교육방송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등 바야흐로 3사가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시기였다.

EBS는 1989년 〈텔레비전 유치원〉을 〈딩동댕 유치원〉으로 변경한 후 계속 프로그램의 형식을 바꾸어 가면서 방송을 지속했다. 특히 타 방송사가 시청률 등을 이유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을 폐지한 이후에도 EBS는 계속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결과, 2000년 2월 19일 방송 5,000회라는 금자탑을 쌓기에 이르렀다. 단 한 차례의 공백도 없었던 EBS 최장수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❸

❶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프로그램은 KBS의 〈우리 귀염둥이〉로 알려져 있다.

❷ 동아일보 1981년 2월 5일자

❸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딩동댕 유치원〉에는 많은 캐릭터가 존재했다. 웅이 형, 독칠이, 독순이, 텅구, 탕구, 통구, 빙고, 동이언니, 별이 등은 많은 인기를 모은 캐릭터였다. 특히 초창기부터 만이 역할을 충실히 해낸 동이언니는 세월을 건너 많은 진행자들이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대 동이언니 이연경을 비롯해서 이지영, 이해정, 강세정, 김수현, 정인선, 정성미, 이상미 등이 동이언니로 활동했다.

압도적인 시청률, 새로운 형식 도전

학교 교육방송 중심의 편성방침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까지도 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딩동댕 유치원>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EBS 개국 직후까지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거기에 변화가 생겨난 것은 1993년 3월의 일이다. 큰 인기를 모은 <만들어 볼까요>가 그해 봄 편성으로 새롭게 방송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기 놀이를 통해 유아의 창의력을 계발하는 <만들어 볼까요>는 수많은 화제 속에서 방송되었다.⑤ 이와 함께 1994년에 방송된 <꼬마요리사>는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작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날이면 동네 놀이터가 텅 비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방송 진행자였던 노희지 어린이의 인기는 대단해서 전국 구스타 대접을 받기도 했다.

터진 김밥 찌그러진 김밥 싫어 싫어. 슬금슬금 사알짝 깨끗하게 예쁘게 모두모두 똑같이. 참기름을 살짝살짝.

EBS TV의 <꼬마요리사>는 경쾌한 랩송과 울동에 맞춰 어린이들에게 요리 한가지씩을 선보이는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노희지 양이 깜찍한 용모와 톡톡 튀는 진행으로 꼬마 시청자들 사이에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⑥

1990년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출동! 초록수비대> 등의 프로그램을 필두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난 할 수 있어요>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다. 독창적이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 가운데 21세기형 어린이를 발굴·밀착취재하여 소개했다. 6mm 카메라



로 어린이들의 일상을 촬영하여 감동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전달되도록 했다. 특히, 개구쟁이 어린이 7명의 <동자승 체험기>는 진한 감동을 일으킨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는 특히 실험적인 프로그램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1995년 3월에 첫 선을 보인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의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PC통신이나 팩시밀리, 전화 등을 이용해 질의하면 스튜디오에 출연한 교사들이 즉시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처음으로 생방송되었는데, 스튜디오의 출연자와 가정의 어린이들이 토론을 하는 등 실험적인 형식으로 각광받았다. 이와 같은 구성의 독창성과 참신함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방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후일,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⑤ 당시 MC를 보았던 길은정, 여운계, 정선희 씨 등은 큰 인기를 모았다.

⑥ 동아일보 1994년 11월 30일자



〈출동! 초록수비대〉

〈선생님 질문 있어요〉

〈점프〉

로 보다 확대·발전하게 된다.

〈출동! 초록수비대〉는 환경교육의 효과가 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성장기부터 자연친화적인 인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인성 도모를 모색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EBS 프로그램은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

EBS 프로그램은 시청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개발원이 1997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분석한 EBS시청률 베스트 10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EBS 프로그램의 시청점유율은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10세 이하와 10대 시청자에 대한 시청점유율은 70%를 넘어서는 프로그램이 즐비했다.

가구 대상의 시청점유율로 따져 상위 랭크를 차지한 〈과학놀이터〉(54%), 〈딩동댕 유치원〉(34%), 〈만들어 볼까요〉(31%) 등은 10세 이하 시청자 대상 점유율이 70%를 상회했다. 프로그램의 시청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시간대에 TV를 보는 가구 중에서 채널을 EBS로 선택하는 가구가 많음을 뜻한다.⁷⁾

EBS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어린이와 부모는 물론 시청자단체, 방송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았다.

〈만들어 볼까요〉

⁷⁾ 연합뉴스 1996년 7월 12일자





〈방귀대장 뽕뽕이〉

방귀대장 뽕뽕이 탄생하다

2000년 공사 출범 이후, 새로운 시도의 작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국내 최초의 어린이 교육용 자연 다큐 〈과학의 눈〉은 140편에 이르는 작품을 사전 제작했다.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 계발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귀대장 뽕뽕이〉였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도로 시작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기존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대부분은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으나, 〈방귀대장 뽕뽕이〉는 연령층을 그보다 낮추었다는 특성이 있었다.^⑧ 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교육' 적이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가르치고 전달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이 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⑨ 흥미로운 것은 왜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항상 누나나

언니가 나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는 흔히 유치원 교사나 초등교사는 여성이라는 등식의 성 고정화 관념에 의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성적인 캐릭터인 '뽕뽕이'와 남자인 '짜잔형'이 MC를 맡았다.^⑩ 폭발적인 캐릭터 인기를 업고, 〈방귀대장 뽕뽕이〉의 비디오가 출시되었고, 교재·DVD·인형 등이 순차적으로 출시되었다. 이는 EBS의 대표적인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2002년 방귀대장 뽕뽕이는 문화관광부로부터 '10대 우수캐릭터'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EBS는 뽕뽕이의 인기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뽕뽕이랑 야야야〉를 편성했다. 매주 공개방송을 통해 유아와 엄마들의 상호작용을 보다 강화하고, 짜잔형, 뽕뽕이 인형들과 함께 춤과 노래 및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함께 했다.^⑪

⑧ 주요 시청 대상층은 3~4세 어린이였다.

⑨ 2001년 〈방귀대장 뽕뽕이〉는 제28회 방송대상 어린이·청소년 부문 작품상을, 이듬해에는 방송대상 우수상 등 다수상을 수상했다.

⑩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캐릭터인 뽕뽕이도 성별이 분명치 않았다. 실제 제작진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뽕뽕이의 성별은 '굳이 따지지 않는다'였고, 뽕뽕이는 '여자아이에 가깝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⑪ 2001년 5월 30일에는 '뽕뽕이 그림그리기' 잔치가 열렸고, 그해 8월 11일에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전국의 어린이들을 찾아서

〈방귀대장 뽕뽕이〉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 EBS는 시청자와 호흡하는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2000년에는 〈딩동댕 유치원〉의 한 코너였던 〈모여라 땡땡땡〉을 독립 편성했다. 스튜디오 안에서만 진행되는 〈딩동댕 유치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요일집으로 작은 공연장을 대관한 방송이 인기를 모으게 되자, 이를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여라 땡땡땡〉의 시작은 이같은 공익성에서 비롯되었다. 장애인, 낙도 지역의 어린이 등 문화체험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연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초청하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공개방송이라는 점도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이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모았다. 매회 관람 경쟁률만 5대 1을 넘을 정도였다. 인기를 모은 비결은 어린이들이 TV속의 캐릭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¹² 녹화 중간에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미디어교육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인기를 모으며 계속 방송되었는데, 2010년 5월에는 방송 500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2010년 현재 50만 관객(어린이 기준)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유아·어린이 공개방송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1년에는 〈바나나를 탄 끼끼〉, 〈요리조리 팡팡〉, 〈춤추는 소녀 와와〉 등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바나나를 탄 끼끼〉는 24개월~48개월 유아들을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원송이 끼끼가 요술봉인 바나나를 가지고 보트, 비행기, 글자 등으로 변신¹³시켜 유아들을 상상 의 세계로 안내했다.



¹²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캐릭터 '번개맨'은 특히 많은 인기를 모았다. 등장 인물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아이들은 일제히 '번개맨!'을 외치며 그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린다. '번개맨'은 '뽀로로'와 '뽕뽕이'를 제치고 2010년 EBS 캐릭터 대잔치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캐릭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¹³ 첫 회에서는 먹었을 때, 만졌을 때, 냄새를 맡았을 때 등 바나나에 대한 아이들의 체험을 언어로 표현해 보고 끼끼가 보여주는 타는 바나나, 꿀깍이가 보여주는 글자 바나나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나나를 접하도록 했다.

〈요리조리 팡팡〉은 요리를 통해 과학원리와 창의성을 키우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이다. 요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을 배가하도록 하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호평 받은 작품이었다.¹⁴

〈춤추는 소녀 와와〉도 독특한 시도로 주목받았다.¹⁵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상 과학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클래식 음악교육을 추구했다. 길을 가다가도 즐거운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는 주인공 와와가 음악권법을 익혀, 사이보그 대왕 ‘제로’를 물리치는 과정을 담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EBS의 다양한 시도가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한글과 음악, 숫자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였다. EBS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모은 여러 캐릭터를 활용하여 비디오, DVD 등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해나갔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유아들의 연령을 더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18개월부터 30개월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놀이 신체



동작을 함께 하도록 한 〈토끼가 까꿍〉, 유아들의 청각능력 및 표현력 발달을 위한 〈바나나를 탄 끼끼〉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밖에도 유아들에게 친숙한 인형극을 통해 인성발달에 도움을 준 동화여행 〈까모랑 쓱쓱〉 등도 주목받은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신기원을 개척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된 3D애니메이션이라는 점 외에도 캐릭터 사업의 놀라운 성공으로 방송계의 이목을 모았다. 해외에도 수출되는 등 우리나라 캐릭터의 가능성을 보여

준 작품이었다. 한 매체는 뽀로로의 놀라운 성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상품 로열티로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만 130억 원. 매년 창출해내는 브랜드 가치 약 5,000여억 원, 전 세계 110개국 수출, 배용준·김연아와 함께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이 화려한 수식어의 ‘국민 스타’는

누굴까. 바로 올해로 겨우 만 일곱 살 된 꼬마 펭귄 뽀로로다. 뽀로로의 인기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영국, 일본, 중국 등 110개국에서 뽀로로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으며 애니메이션 방영된 곳만 해도 17개국에 이른다. 애니메이션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일본에서도 100개국 이상 수출된 캐릭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2004년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유럽 공중파 방송에 진출한 뽀로로는 프랑스 국영 방송 TF1에서 방영되며 공중파 동시간대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¹⁶

〈토끼가 까꿍〉



¹⁴ 국민일보에 이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노희지의 꼬마요리〉 포맷을 응용한 〈요리조리 팡팡〉은 요리재료에 담겨져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바케트 성위의 달걀잔치’의 경우 달걀을 식초에 담가놓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왕달걀이 되고 김치에 달걀껍질을 넣어두면 젓산현상을 막아 김치가 시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등 요리와 함께 과학상식을 배우는 코너다.” 국민일보 2001년 8월 27일자

¹⁵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고정 출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¹⁶ 레이디경향 2010년 11월호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케이블TV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어린이 대상의 애니메이션 채널이 다수 등장하게 되자, EBS도 시청자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전에는 사전제작된 작품들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현장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생방송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시청자와의 소통을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가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링크형 프로그램 <톡! 톡! 보니하니>는 첫 방송 직후부터 꾸준한 인기를 모았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매일 참여하는 인원은 2,0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작품이라는 점,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녹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은 2000년대 후반에 확대 편성되었다. 이 무렵 방송된 <아빠랑 나랑 부비부비 빠빠>도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다. 아빠와 놀고 싶어도 어떻게 놀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와 놀아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아빠들을 위해 제작된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빠와 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인지능력의 발달로 규칙이 있는 게임을 즐기는 6~8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근육 발달은 물론, 공간지각력과 논리 사고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2006년에 이 작품은 ABU TV 어린이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역사 드라마 <점프>도 인기를 모은 프로그램이었다. 스스로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직접 그 인물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한 이 드라마는 큰 인기를 모아 시즌2까지 제작되기도 했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기존에 인기를 모은 캐릭터 대신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으로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뽕뽕! 그림책버스>, 자연 체험 프로그램 <가족놀이터 하늘땅 별땅>¹⁷, 유아의 신체활동 발달을 위한 <알록달록 콩콩이>, 창의력 제고를 위한 <천사랑>¹⁸ 등이 그런 작품들이었다.

¹⁷ 서울신문은 이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가족놀이터 하늘땅 별땅>은 가족이 함께 목장으로 찾아가 밤도 까고 갯벌에서 진흙놀이도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투호 던지기,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 체험이 양념으로 더해지고, 개그맨 정성환의 재치있는 진행이 흥미를 더한다.” 서울신문 2006년 9월 27일자

¹⁸ 이 프로그램은 뽕뽕이와 뽕뽕이를 잇는 캐릭터로 주목받았다. 마이데일리는 2006년 10월 30일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구름 위에 떠있는 천사마을 ‘천사랑’이 배경이 돼 아이들에게 친숙한 천사와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주된 시청자는 4~6세의 유아로 인형극의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창의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톡!톡! 보니하니>



<아빠랑 나랑 부비부비 빠빠>

2008년에는 집에 숨어있는 캐릭터 '또또바'를 찾는 놀이 프로그램 <또또바를 찾아라>¹⁹가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또또바가 숨는 장소인 컵, 텔레비전, 청소기 등 일상의 사물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입체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컵은 '또또바'가 헤엄치는 수영장, 전화기는 우주선, 청소기 손잡이는 돌고래 등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각광받았다.

음식에 대한 친근감을 안겨준 유아교육 프로그램 <아무아무 참참>도 인기를 모은 프로그램이었다.

2009년 전반기에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새로운 시도가 많았다. 무엇보다 이목이 집중된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와 동화를 접목한 신개념 프로그램 <다큐동화 달팽이>와 유아 대상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리얼리티쇼 - 유아독존>²⁰, <하하불의 상상놀이터>였다. 세 작품 모두 사전기획·사전제작된 작품으로 시선을 모았다.

그밖에도 어린이 역사 과학 모험극 <스파크>, 어린이퀴즈쇼 <퀴즈장사 만만세>, 3D캐릭터와 함께 호기심을 풀어보는 <깨미랑 부카채카> 등도 새롭게 선보였다.

2010년 봄, EBS는 공사창립 10주년을 맞아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2010년 봄 개편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묶어 편성하는 링크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이 시기에 눈길을 모은 프로그램은 새롭게 선보인 과학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 어린이 대상의 과학교육 프로그램 <키득키득 실험실> 등이었다. <키득키득 실험실>은 요리와 과학적 상식을 접목시킨 데 이어 향후 스포츠, 미술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¹⁹ 시청자단체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은 EBS 프로그램의 내용과 편성을 분석, 그 결과를 공개했다. <또또바를 찾아라>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어졌다.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재미도 있으면서 관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발한 아이템'

²⁰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이 이 프로그램을 극찬했다. '어린이 리얼리티쇼'라는 신(新) 장르도 등장했다. EBS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리얼리티쇼-유아독존>은 4~5명의 어린이들이 매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담아내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용 '패밀리가 떴다'나 '박2일'의 어린이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매회 특별한 미션이 주어진다. 예컨대 강원도 오지마을 외딴 집에서 하룻밤 지내기라는 과제가 주어지면 부모님도 없고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과거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도전

2010년 EBS의 대표적인 유아·어린이 캐릭터 <방귀대장 뽕뽕이>가 10살이 되었다. EBS 공사창립과 동시에 태어난 동갑내기다. 하나의 캐릭터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지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은 EBS의 자량이 아닐 수 없었다.

많은 언론들은 방귀대장 뽕뽕이의 열살맞이 생일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일등 캐릭터 (CBS 노컷뉴스)

어린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각, 청각, 움직임 강조한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 (한국일보)

국산 캐릭터의 자존심과 가능성을 보여준 '방귀대장 뽕뽕이' (전자신문)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의 힘 (조선일보)

10년이 지났어도 봉제시장 1위를 유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과 관심 받아 (세계일보)

외부에서 이러한 찬사를 보낸 것은 비단 뽕뽕이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가능성 모색을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던 EBS의 노력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10년 동안 어린이와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방귀대장 뽕뽕이>,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장수 유아 프로그램 <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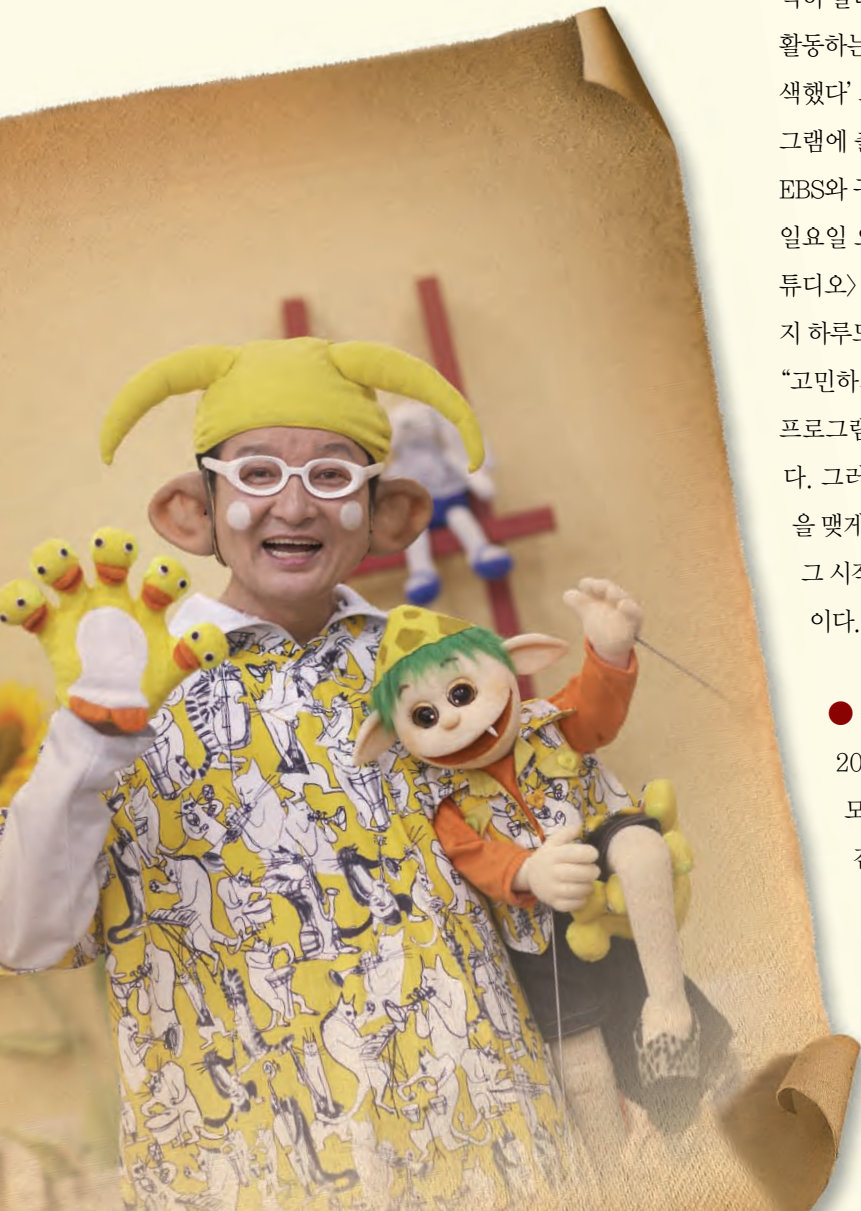
땡 유치원>, 국산 캐릭터의 해외 진출을 시작한 <뽕뽕뽕 뽕로로> 등 EBS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왔다. 교육방송 36년·공사창립 10주년을 넘어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진출의 과제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앞으로의 미래 개척을 위한 디딤돌이었기에 진정한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딩동땡 유치원 5,000회 특집 공개방송>

EBS에 깃든 똑딱이 아빠의

향기.



● 운명의 갈림길

똑딱이 아빠 김중석을 만났다. 프로그램 촬영을 마친 후였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똑딱이 아빠의 상징, 플라스틱 안경테가 들려 있었다. 그는 연습 때에도 어디론가 이동할 때에도 이 안경테만큼은 꼭 들고 다닌다고 했다.

그가 <딩동댕 유치원>의 똑딱이 아빠가 된 것은 벌써 15년째다. EBS와 인연을 맺은 것은 더 오래 전이다. 1990년 무렵이니 무려 20년이 지났다. EBS 36년 역사에서 3분의 2는 그와 함께 보낸 세월들이다. 오래된 시간만큼 그는 EBS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역사나 다름없다. EBS에게 그가 소중한 만큼, 그에게도 EBS는 친구 같은 존재다. 가까이에서 오래 사귄 친구— “처음 EBS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1년입니다. EBS가 개국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그는 개그맨 출신이다. 그러나 개그맨으로 활동하는 동안 ‘무엇인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했다’고 표현한다. 그러던 차에 여러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제 길을 찾았다. 일이 잘 되려고 그랬는지 EBS와 구두로 출연합의를 하고나자 MBC에서 연락이 왔다. 일요일 오전에 방송되던 당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 MC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EBS와 구두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고민하지 않았다면 거짓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어린이 프로그램을 몇 살까지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두합의도 약속이라는 생각 때문에 EBS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20년을 이어오리라곤 그도 미처 생각치 못했을 것이다.

● 똑딱이 아빠의 시작

20년 세월이 흘렀어도 매일 TV화면을 통해 만나는 그의 모습에서는 전혀 세월을 느낄 수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 같은 말투로 아이들 곁에 있다. 연예인이라면 부담이 될 정도로 스스로 이미지 고착화에 빠진 것이다.

“프랑스 유아 프로그램 전문가 가운데 70세가 넘는 분이 있더군요. 국민 배우로 칭송받는 분인데 저와 유사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분처럼 프랑스는 나이 등 어떠한 제한 없이 적임자다 싶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혹은 그 시간을 넘어서까지 활동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지요.”



캐릭터 ‘뚝딱이 아빠’의 탄생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외국 캐릭터가 판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서 ‘도깨비’를 차용했습니다.” 귀여운 아기 도깨비를 아빠도 없이 키울 수는 없는 일. 그렇게 그는 뚝딱이 아빠가 되었다.

● 28년 전통의 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저는 뚝딱이 아빠로 불리는 게 정말 좋아요. 사람이 캐릭터화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전무할 겁니다.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대중에 알려려면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저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을 한결 같은 캐릭터로 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EBS에 참 고마운 부분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의 역사는 1982년부터 시작된다. EBS의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도, MC도 최장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당시, 방송사들은 오전방송이 시행되자 유아들의 기상시간인 오전 7시~8시 사이에 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했다. KEDI 소속의 교육방송에는 오전방송이 없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뚝딱이 아빠도 〈딩동댕 유치원〉의 역사에 대해 잘 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당시 인기를 모았던 타 방송

사들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복학습·지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딩동댕 유치원〉은 오직 EBS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공부욕심이 많은 연예인으로도 유명하다. 동국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에서 광고학 석사를, 동국대에서 아동학 석사를, 그리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 과정을 준비 중이다.

지금은 서정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그의 손에는 그래서인지 늘 한 권의 책이 들려있다. 책 몇 권을 싸 들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그의 특기라고 한다. 조용한 속소를 하나 빌려 1박 2일간 책만 읽다 돌아오는 짧은 독서여행이 그가 즐기는 코스라고 한다.

얼마 전에는 학내 교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학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았다. 그 사실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그는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뚝딱이 아빠로 평생 활동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원한 벗과 친구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은 좋은 연구성과를 남긴 교수로,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뚝딱이 아빠로 오래도록 활약하는 것 뿐이라고 한다. 욕심이 과한 것일까? 아니다. 그의 노력에 비한다면 이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작은 결과일 뿐이다.

2

EBS Programs History
Documentary

다큐멘터리의 名家, EBS

자연다큐멘터리, 신화 창조

1996년 3월 29일 오후 6시, EBS PD와 카메라감독이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 모였다. 어둠과 야생의 사투, 카메라 앵글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을 뿜어대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이윽고 사회를 보던 이계진·염정아 씨가 이들을 호명했다.

“제32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 EBS 다큐멘터리 <한국의 파충류> 박수용 PD!”^❶
한국 자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신화가 쓰여

지는 순간이었다. 1985년 이래 10여 년간 백상예술대상에서 자연 다큐멘터리가 대상을 수상한 적은 없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드라마가 주로 수상해왔다. 10년이 넘는 그 기나긴 침묵의 공백을 깬 것은, 부족한 자본과 설비에도 불구하고, 오직 열정만으로 버텨온 EBS의 자연 다큐멘터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EBS는 자연 다큐멘터리는 물론, 한국 다큐멘터리 방송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다.



❶ 다큐멘터리가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것은 1979년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 있었다. 1984년 KBS <신왕오천축국전>, 1985년 MBC <한국의 나비>, 그리고 1996년 EBS의 <한국의 파충류>다.

문화적 암흑기, 그러나

1991년 EBS 개국 이후의 첫 편성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편성권을 갖고 있었던 정부가 EBS의 편성안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공보처는 교육방송이 수입·요청한 다큐멘터리〈아시아의 젊은이들〉을 추천 불가했다. '일반교양물'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방송 제작팀은 '교육과 교양의 차이를 명확히 정의해보라'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윤곽이 잡힌 개편안을 보면 평일 방영시간 7시간 40분 중 사회교육 부문에는 〈직업의 세계〉, 〈지구촌의 다큐멘터리〉 등 2개 프로그램 1시간 가량만이 할당되고 나머지는 모두 학교교육의 연장 및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다.^②

이 사건은 EBS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의 수난사를 상징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그러했으니, 방송의 암흑기였던 1980년대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편성권마저 KBS가 갖고 있었으며, 사회교육 방송은 KBS 1·2TV가 전담한다는 방침 때문에 다큐멘터리 등 EBS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정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사교육의 대체수단으로서의 학교 교육 방송이었다.

1990년 12월, EBS 개국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편성 주체였던 문교부는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사회교육 방송의 확대를 계속 경계했다. EBS를 사교육의 대체수단으로 본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나마 과학

및 인문적 소양을 길러준다는 명분 아래 1992년부터 일부 외화 다큐멘터리^③가 방영되었다.

한편,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사회교육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EBS 편성안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학교교육과 별도의 과외채널 운용은 교육 정상화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공공재산인 전파를 특정계층에만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제한된 공공시설인 방송전파를 인구의 2%도 안 되는 입시생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낭비이며, 만약 과외가 필요하다면 비디오나 종합유선방송 등 개별적인 매체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면서 "교육방송은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 등 국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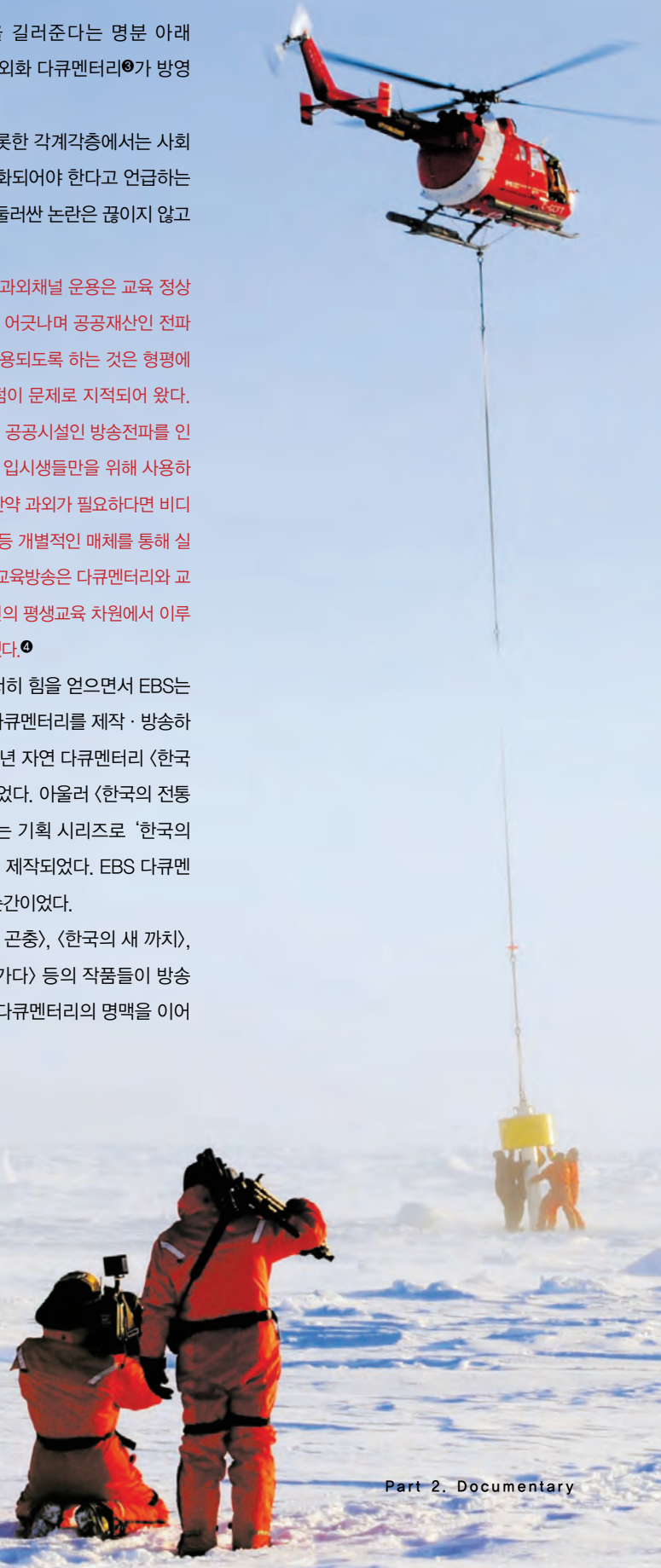
이러한 시각이 서서히 힘을 얻으면서 EBS는 특별편성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송하기 시작했다. 1992년 자연 다큐멘터리〈한국의 들꽃〉이 방송되었다. 아울러〈한국의 전통 문화를 찾아서〉라는 기획 시리즈로 '한국의 옛', '한국의 떡'이 제작되었다. EBS 다큐멘터리가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필두로〈꽃과 곤충〉,〈한국의 새 까치〉,〈DMZ, 판문점을 가다〉 등의 작품들이 방송되면서 EBS 자연 다큐멘터리의 명맥을 이어 나갔다.

② 동아일보 1991년 2월 25일자

③ 1992년〈자연의 신비-아기침팬지와 다람쥐〉,〈호반새와 삿갓새〉,〈그랜드캐년〉이 방송되었다. 1993년의〈서구문명사〉,〈일요 다큐-사라져가는 세계〉등도 우수 외화 다큐멘터리였다.

④ 동아일보 1992년 5월 25일자



자연 다큐멘터리의 놀라운 성공

1994년 가을, EBS에 특수촬영팀이 꾸려졌다. EBS 자연 다큐멘터리 신화의 주역이 된 이 조직은, 3명의 PD와 1명의 카메라감독으로 구성되었다. 약 1년간에 걸쳐 이들은 우리나라 강산에서 생생한 야생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199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그해 12월, <물총새 부부의 여름나기>를 필두로 이듬해인 1996년 <한국의 파충류>, <하늘 다람쥐의 숲>, <솔부엉이> 등이 선보이면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물총새 부부의 여름나기>는 EBS 자연 다큐멘터리의 놀라운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단일 생태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는 점과, 학술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⁵

<한국의 파충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다. 촬영 테이프만 300여 개에 달했고, 촬영 기간은 1년을 넘었다.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미국 ABC 등 외국에서 제작된 파충류 다큐멘터리만 소개된 터였기에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구렁이와 누룩뱀이 산란 후 알을 품는 장면을 포착했으며, 물뱀과 황구렁이의 교미 장면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⁶ 이 프로그램은 파충류 학계의 대부라 지칭되는 강원대 백남극 교수와 임업연구원의 신재한 박사가 자문을 맡아 학술적인 가치까지 뒷받침되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백상예술대상 외에도 자연 다큐멘터리가 연이어 다수의 상을 수상⁷하면서 EBS는 '자연 다큐멘터리 PD양성소'⁸라 지칭되기에 이르렀다.

<하늘 다람쥐의 숲>도 1년이라는 산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 다람쥐. 전국 각지를 뒤진 끝에 소백산 기슭에서



찾아낸 이 희귀동물은 EBS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 모습을 드러냈다. 새끼들의 성장과정과 어미의 지극한 모성 등 아름다운 영상과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코렐리의 라폴리아 등 거장들의 음악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한편의 서정 동화 같은 느낌을 전해준 수작이었다.⁹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옛 서당인 봉소루 주변의 아담한 숲.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 솔부엉이가 동지를 틀었다. EBS는 오직 밤에만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솔부엉이>를 2부작으로 제작·방송했다. 1부 '밤의 사냥꾼'에서는 솔부엉이가 다람쥐·박쥐·참새 등을 사냥하는 모습이, 2부 '어둠 속으로'에서는 새끼들의 독립과정

이 상세히 그려졌다. 한 언론은 밤마다 꿈쩍 않고 촬영한 덕분에 부엉이들이 마침내 제작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소개했다.¹⁰

EBS 자연 다큐멘터리는 이 시기부터 서서히 세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독일의 미디어재벌인 커치 그룹은 <물총새 부부의 여름나기>, <한국의 파충류> 등 EBS의 자연 다큐멘터리 11편을 구입, 자사의 위성 다큐멘터리 전문채널을 통해 방송했다. 그간 BBC와 NHK 등 우수 다큐멘터리를 수입했던 EBS가 이제 수출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바야흐로 EBS의 자연 다큐멘터리의 전성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⁵ 매일경제 1995년 12월 14일자

⁶ 그뿐만이 아니었다. 쉽게 보기 힘든 장면들인 수입종 황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생태계 이변의 현장, 자라들이 알에서 부화해 개울가로 달려가는 장면, 전문 땅꾼들도 평생 한 번 마주치기 힘들다는 백사,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뱀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인 대륙 유헤목이, 가장 큰 뱀인 흑구렁이, 동면 중인 살모사를 잡아먹는 쥐, 새끼를 낳는 살모사의 모습 등 진기한 장면들이 생생히 소개되었다.

⁷ 1996년 한국PD연합회 주최 우수작품상, 방송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백상예술대상, 방송위원회 선정 1996년 대상, 1997년 삼성언론재단 우수작품상등을 수상했다.

⁸ 경향신문 1996년 4월 25일자

⁹ 이 작품은 1997년 12월에 YMCA 환경 부문 으뜸상을,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주최 그리메상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¹⁰ 동아일보 1996년 12월 17일자



〈큐스무스〉



〈시베리아 호랑이〉

자연 다큐 + 인문 다큐

2000년 11월 3일 저녁 10시. 평양의 시민들이 TV를 켰다. 학생은 물론 성인들도 흥미롭게 즐겨보는 프로그램 〈흥미있는 동물세계〉가 방영되는 시간이었다. 화면 속으로 시선을 잡아끄는 타이틀이 지나갔다. 〈러시아 원동지방에 사는 조선범〉이 그것이다.

뒤이어 안내 문구가 하나 더 화면을 장식했다. '한국교육방송에서 촬영·제작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한국교육방송 사장 박흥수가 선물로 올린 것을 재편집했다.'

그리고 추운 시베리아의 휘몰아치는 눈보라, 호랑이 발자국으로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이 작품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그해 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를 해맨 5명의 자연 다큐팀이 생생한 호랑이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사 성격으로 1997년 12월에 한 차례 선보인 이후, 이듬해인 1998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총 7편¹¹⁾의 시리즈로 방송되었다. 2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시베리아 호랑이와 30마리도 채 안 된다는 아무르 표범¹²⁾ 등이 야생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파를 탔다.

이 작품의 반향은 상당했다. 1985년 이후 단 한 번도 생포된 적이 없는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를 세계 최초로 근접 촬영했다는 사실과 촬영팀이 자연을 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인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 결과 북한 조선 중

11 1·2편은 〈야생의 조선족 호랑이〉, 3편은 〈두만강의 조선 표범, 그 외로운 생존〉, 4편은 〈생명의 섬, 두만강에서 쿠릴 열도까지〉, 5편은 〈생명, 그 야생의 법칙〉, 6편은 〈야생의 시베리아 호랑이 생포기〉, 7편은 〈인간과 호랑이, 멸종과 공존의 갈림길〉 등이었다.

12 UN경제개발계획과 국제야생동물보호기금이 2위로 선정한 보호동물이 아무르 표범이다.



양TV에까지 소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높은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98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야생동물 보존연맹' 제3차총회가 EBS에 자료제출^⑭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전까지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촬영한 적이 있긴 했으나 헬기에서 촬영하거나, 혹은 20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인해 그 가치가 덜했다. 반면 이 작품은 무려 30분 분량의 테이프 600개를 촬영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을 자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이후, 한국PD연합회에서 주관한 올해의 한국프로듀서상, 제3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상, 제26회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EBS 자연 다큐멘터리의 명성을 높였다.^⑮

한편,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큐멘터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다. 그것은 1997년 EBS 위성방송의 개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위성방송 채널이 학교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자 지상파TV 채널도 전면 개편되었다. 고등학교 교과 프로그램이 위성채널로 자리를 옮겼다. 지상파 TV는 다양한 평생교육 및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우수 다큐멘터리를 매주 방영한 <EBS 스페셜>이 탄생했다. 다양한 시도가 시작되면서 휴먼 다큐멘터리인 <다큐 이 사람> 등이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 방송했다.^⑯

다큐멘터리, 본격화된 수출의 시작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출범하면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상파TV에서는 매일 밤 8시 40분부터 11시 25분까지 일반 성인 대상의 교양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제작여건도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대폭 개선되었다. 편성의 확대와 제작비 증가는 EBS 다큐멘터리를 보다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BS는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갔다. 우선 사전 다큐제작팀이 만들어졌다. 비정기적인 제작으로 인해 특별편성이 아니면 방송이 어려웠던 시스템에서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EBS 다큐멘터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나갔다.

이 시기부터 인문 다큐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전제작팀에 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문자>, <아기성장보고서>, <TV와 인간> 등이 있었다. 이들은 방송 즉시 큰 화제를 모으며 EBS가 자연 다큐 외에 인문 다큐 분야에서도 큰 역량을 갖고 있음을 만방에 과시했다.

2002년에 방송된 <문자>^⑰는 사전제작 제도에 의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준비된 프로그램이었다. 오랜 시간의 기획과 자료수집을 거쳤으며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유적지를 직접 취재하여 초기문자의 흔적과 고대 문명의 정취를 카메라에 담았다.^⑱

특히 제작진은 썩기문자의 대표적인 유적인 베히스툰비문을 높이 65미터의 가설치대 위에서 근접 촬영하는 성과도 올렸다. 지금까지 서양 방송 카메라가 해내지 못한 성과였다. 제작진은 또한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문자와 연관된 주요 지식 및 에피소드를 그래픽과 이

⑭ 호랑이와 아무르 표범 외에도 반달곰과 불곰, 흰꼬리수리 등 희귀동물도 대거 촬영된 이유도 있었다.

⑮ KBS 등 타 방송사도 EBS 다큐멘터리의 작품성을 인정했다. KBS는 1999년 이례적으로 이 작품과 또 다른 EBS 다큐멘터리 <눈>을 여름 특집으로 방송했다. 특히 프로그램 명 또한 'EBS 자연다큐멘터리'라는 타이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⑯ 1회 방송은 '새도 살아 나도 살고'였다. 조난당한 새들을 돌보는 한국조류보호협회 김성만 회장의 이야기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⑰ 이 작품은 총 3부작으로 이루어졌다. 1부 '위대한 탄생', 2부 '끝없는 도전', 3부 '알파벳 혁명' 등이다. 이 작품은 2002년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⑱ 해외 제작기간 동안 동원된 인원만 100여 명이었고, 방문한 국가도 9개국에 달했다. 제작진은 5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100여 미터의 암벽을 오르는 험난한 일정을 견뎌야 했다.

미지로 생생하게 구현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그간 감춰져있던 이라크 현지의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된 인문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⑯

국내 최초로 아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인문



과학 다큐멘터리 <아기성장보고서>⑯도 2002년에 방송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 36개월이 될 때까지의 신비로운 과정을 밀착·취재한 이 프로그램은 철저한 사전기획과 1년 2개월이라는 긴 제작기간이 걸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아기발달 전문가 15명을 직접 취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지발달 연구회'와 함께 20여 차례에 걸친 발달실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사람 대상의 실험과 통계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기법으로, 타 방송사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었다. 이런 노력과 우수한 기획 덕분에 EBS는 각종 수상⑰을 차지하면서 EBS의 인문 다큐멘터리 제작 역량을 만방에 떨치기도 했다.

이처럼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다큐멘터리들은 외국 유수의 방송사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자연 다큐멘터리는 물론, 인문 과학 다큐멘터리도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⑯ 2005년 1월, 이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에 판매·방송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서울신문 2006년 1월 4일자

⑰ 이 프로그램은 전체 5부로 구성되었다. 1부 '세상을 향한 첫 걸음', 2부 '아기는 과학자로 태어난다', 3부 '애착, 행복한 아기를 만드는 조건', 4부 '언어습득의 비밀', 5부 '육아의 키워드, 기질' 등이었다.

⑱ 2003년 PD연합회 주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이달의 PD상', '올해의 PD상', 방송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1월·2월), AIBD '우수교육 TV프로그램 부문상', 한국방송대상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제13회 한국가톨릭 매스컴TV 방송 부문상, 2003 EBU 바젤 카를스루에 페스티벌 성인교육 TV프로그램상, 방송위원회 우수작품상, 2004년 삼성연론상 '기획부문상 및 제작부문상' 등을 수상했다.

EBS의 선택, 다큐멘터리의 왕국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EBS의 다큐멘터리는 가히 중흥기를 구가했다. 2004년 'EBS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방송사로 인정받은 이후, 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제작되는 작품들은 시청자와 언론들의 호평을 받았고, 세계 방송가도 경이적인 시선으로 EBS를 바라보았다. 자연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인문·과학·휴먼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이룩했다.

EBS는 이러한 상황을 보다 확대시킨다는 전략 아래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장기 제작제가 시행되었고, 이전까지 3~4명에 불과했던 다큐멘터리 전문 PD의 수를 20명 가까이 보강했다. 다큐멘터리의 편성비율도

대거 강화했다. <다큐프라임>, <극한직업>, <리얼실험 프로젝트> 등 우수한 다큐멘터리가 데일리 편성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큐멘터리의 편성 비중은 무려 20%에 달했다.

화제작도 늘어났다. <아이의 사생활>, <한반도의 공룡>, <한반도의 매머드> 등이 큰 화제를 모으며 방영되었다.

2008년 봄, 첫 선을 보인 <다큐 프라임>^①은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특집이 아닌 '데일리 다큐 프로그램' 편성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상반기의 방송 아이템만 31개에 달했고, 총 82편의 엄청난 양의 다큐멘터리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송된 5부작 <아이의 사생활>은 충실한 사전기획과 내용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1년 여의 취재 기간 동안 자문한 국내·외 교수는 70명에 달했고, 실험에

직접 참여한 어린이는 500여 명,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만 4,200여 명에 달했다.

프로그램은 실험과 설문조사, 세계적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아들과 딸의 차이', '도덕성과 인생관 간의 관계', '자존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다중지능과 강점지능' 등과 관련된 이론을 도출해냄으로써 인문 다큐멘터리의 한 전형을 제시한 작품으로 각광받았다.^②

<한반도의 공룡>은 아시아 최초의 공룡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제작 이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1억 4,500만~6,500만 년 전 백악기 공룡의 마지막 낙원인 우리나라 호숫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주인공 타르보사우루스와 주변 공룡들의 모습을 영화처럼 담았다. 화석 발굴과 공룡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8,000만 년 전을 재현했으며, 100% 국내 기술력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하여 EBS 기술력을 뽐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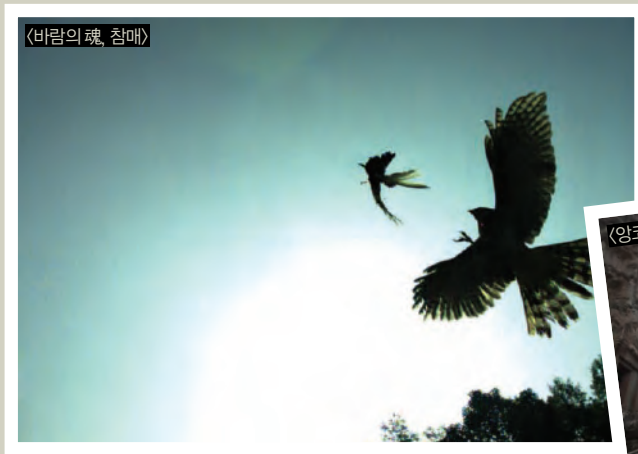


<한반도의 공룡>



① 헤럴드경제는 <다큐프라임>의 놀라운 성공을 소개하면서 '시청률 이상열기-EBS 다큐에 무슨 일이?' 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헤럴드경제 2008년 3월 16일자

② 2008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여성부장관상, 여성신문사 주관 '바른교육상', PD연합회 'TV교양 부문상', 방송통신위원회 '창의발전 프로그램상' 등을 수상했다.



2009년에는 한반도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인 <한반도의 인류>가 방송되었다. 자연 중심의 1·2부와 해당 추적과정인 3부를 통해 한반도에 호모 에렉투스 존재했는지, 현행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에렉투스에서 진화했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졌다. 자연 다큐 <바람의魂魄, 참매>도 화제 속에 방영되었다. 참매가 가진 특유의 사냥법과 비행술 등 1년 6개월간의 밀착기간과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화제를 모았다.^㉔

한편, 2010년 4월에 방송된 <한반도의 매머드>도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멸종된 매머드를 완벽하게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신생대 빙하기, 극심한 한파 속에서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태어난 매머드 '맘무'의 일생을 다룬 이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모으며 화제가 되었다.^㉕

이와 같이 다수의 대작 다큐멘터리들이 방송되면서 시청률도 크게 상승했다. 이전보다

EBS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유럽과 미주·아시아 등 굴지의 방송사들이 EBS의 대작 다큐멘터리를 수입해갔다. 특히 <한반도의 공룡>은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작품 가운데 최고가로 수출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EBS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 실적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EBS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EBS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매머드>는 일본 NHK와 중국 CCTV에 수출 계약을 체결해 11월경 일본과 중국 전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폴란드·인도네시아 등과도 수출 계약을 맺었다.

또 EBS <바람의魂魄, 참매>는 한국 다큐로는 처음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채널에 방영될 예정이며 이탈리아 RAI와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바람의魂魄, 참매>는 유려한 촬영기법과 자연 다큐로서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BS의 3D다큐멘터리 <앙코르 문명>은 영국 BSkyB와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 등에서 만든 3D전문채널들의 주목을 받았다. <앙코르 문명>은 2부작으로 내년 초 국내 방영될 예정이다.^㉖ 이제 EBS 다큐멘터리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다큐멘터리 시장 선점을 선언하고 있다.

^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09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다.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다큐멘터리 사상 처음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채널에 판매되었다.

^㉕ 중국의 대표 방송사 CCTV와 일본 NHK로 수출되는 개가를 거둔 작품이다.

^㉖ 연합뉴스 2010년 10월 27일자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 다큐의

신화.



● 세월을 넘어서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생명력

2010년 9월 29일, 그를 만나기로 했다. 박수용 PD. 한국 최고의 자연 다큐작가다. 인터뷰 당일 아침, 신문기사 검색을 한다. 그런데 눈에 띄는 기사가 있다.

EBS가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베리아호랑이-삼대(三代)의 죽음>(연출 박수용, 이효종)이 지난 9월 17일 열린 제8회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인 ‘암바(AMBA)’를 수상했다고 28일 전했다.

순간, 기사 입력 날짜를 확인한다. 인터뷰 당일 날의 기사다. 신작인가 싶었지만 <시베리아호랑이-삼대(三代)의 죽음>은 2003년에 제작된 작품이다. 7년이 지난 후의 국제영화제 수상. 발표 당시에도 국내외에서 각종 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이다. 그날 저녁, EBS에서 그를 만났다. 눈빛이 반짝인다. 먼저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연 다큐멘터리의 생명력.

“지금도 BBC나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유수의 방송사들로부터 <삼대의 죽음>과 연관해서 연락이 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렵겠지만 자연 다큐멘터리의 생명력은 참으로 깊니다. 2003년 작품이 지금 해외영화제에서 수상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다큐멘터리의 힘이겠지요.”

● 신화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다른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고 수없이 마음을 먹었지만, 나도 모르게 시베리아의 겨울 이야기를 질문하고 만다.

“제가 방송사 PD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냥꾼인 것 같기도 하고, 생물학자인가 싶을 때도 있고, 어찌 보면 산지기 같기도 합니다. 땅속에서의 잠복 생활은 무장공비와 비슷하죠.”

그러나 오래 잠복하다 보면 그는 관찰자에서 벗어난다. 스스로 자연이 되고 만다. 자연이 되지 않으면 호랑이는 물론이고, 그 어떤 생명체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수리부엉이를 촬영할 때의 일입니다. 수개월이 지나자 부엉이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의 하나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의 생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되지 않고서는 찍을 수 없는 자연과 생태. 유혹도 많다. 더 편하게 찍기 위해 동물을 가둬두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동물들은 스스로 간혀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특히 활동영역이 넓고 자신이 간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조류와 포유류가 그렇지요. 왜곡된 그들의 삶은 다큐멘터리의 본령이 아니지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와 뛰어난 기술·자본으로 무장한 BBC도, 내셔널지오그래픽도, NHK도, 제대로 시베리아 호랑이를 촬영한 적이 없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개별적으로 서식하고 그 수도 얼마 남지 않아 촬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작진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것 이라고는 생포된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에 무선 감지장치를 달아 헬기로 추적, 카메라에 담은 것이 전부다.

실제로 시베리아의 잠복 생활은 참혹했다. 수백 개의 주먹밥과 수십 권의 책만 들고 한 평 남짓한 땅 속의 잠복지로 들어간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연 그 자체가 되어간다. 그 때 비로소 호랑이가, 부엉이가 그에게 모습을 보여준다.

● 처음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할 때

“선배도, 전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



다큐멘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된 셈인데,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요.”

자연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고생이 참 많았다. 제작비 부족으로 자비를 들여 소형 카메라를 구입하기도 했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위해 휴가를 반납하기도 했다.

“물질적인 부족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다큐멘터리와 방송에 대한 철학과 윤리에 대해 체득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통의 힘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배들의 활동과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방송 36년·공사창립 10주년의 시간은 숫자로만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숫자 뒤편에 기록될 정신과 철학, 그것이 곧 전통일 것이다. 그의 눈빛은 먼 하늘을 향해 있었다.

3

학교교육방송 36년, 그 전환점의 기록



2010년 3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

EBS, 사교육 방지의 일선에서

2010년 3월 19일 오전, 대통령과 교과부장관이 도곡동 EBS 본사를 방문했다. 광덕훈 사장의 안내로 그는 7층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다. 이어 3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주역들이 간담회에 초청되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언제까지 학부모들이 학원에 정보를 얻으려 다녀야 하고, 학생들이 또 밤늦게까지 고생해야 합니까? 앞으로 출제될 수능시험에서는 EBS 교과방송에서 70% 이상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교육에 노심초사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EBS는 이제 새로운 길을 터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입시는 교육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중심의 과열은 우리

미래와 교육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없도록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EBS가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①

그 자리에 참석한 방송 제작진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강령을 떠올렸다. ‘우리는 국민들

의 건전한 교육관 형성에 힘쓰고, 지역간·계층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한다.’

지난 36년 동안 EBS가 걸어왔던 학교방송의 길, 우수한 교과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확산 방지의 책임이 새롭게 주어진 것이다.

① 많은 언론들은 대통령의 언급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다.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BS 강의만 듣고도 대학 갈 수 있어야”

- 조선일보 2010년 3월 20일자

“대통령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 수 있게” - 동아일보 2010년 3월 20일자

“EBS, 다양한 강의를... 우리 손자도 봐야 할테니” - 중앙일보 2010년 3월 20일자

일명 '과외 대체방송'의 시작

EBS 학교교과 프로그램의 역사는 멀리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1일, 중앙시청각교육원이 운영해오던 '라디오 학교방송'을 새로 설립된 KEDI가 인수하면서부터였다. 본격적인 방송은 이듬해인 1975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내 최초의 컬러TV 방송 프로젝트였던 티콤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1970년대 교육방송은 라디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프로그램은 모두 정규 수업과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데^② 오전에는 정규방송 프로그램, 오후에는 거의 재방송 프로그램이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편성은 1970년대 내내 큰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했다. 프로그램과 편성에 큰 변화가 야기된 것은 1980년 7월 30일, 전두환 대통령이 대입학력고사 폐지·사교육 전면 금지·대학 졸업정원제로 상징되는 '7·30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망국병'이라고 불리면서 성행하였던 과외·학원수강 등 사교육의 전면 금지는 학력 저하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중단된 상태였던 TV 학교방송을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전용 교육



1980년대 과외 금지조치 이후 실시된 학교교육 방송

방송국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

1981년 2월 2일, KBS 제3TV라는 이름으로 교육방송이 시작되었다. 개국 목적 자체가 금지된 과외 대체방송이었으므로 전체 편성의 대부분이 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최초의 방송시간은 평일 3시간 30분이었고, 일요일은 3시간으로 결정되었다. 방송시간의

대부분은 학교교과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③ 당시 교육방송의 편성 방향은 '학교교육의 보충심화'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과목이 학교교육에 맞추어 변경되기도 했으나 대개는 이러한 형태를 지속했다. 1980년대 교육방송은 그야말로 과외 대체방송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했던 것이다.



- ② 국어교실·국사교실·도덕교실·음악교실·음악감상 등이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송되었다. 영어교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 ③ 국민학교 방송 프로그램은 저학년·중학년·고학년으로 구분되었다. 저학년은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등이 편성되었다. 중학년은 음악, 미술, 도덕이, 고학년은 국어, 산수, 체육, 사회, 자연, 실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활동은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중학교는 전학년 대상의 도덕, 과학, 영어, 기술 과목이 방송되었다. 고등학교는 1·2학년 대상과 3학년으로 구분되었는데, 국어 외 14개 교과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사교육과의 경쟁, 〈TV고교가정학습〉

1988년 9월 1일, 문교부는 그간 전면 금지되었던 과외를 일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교사와 일반인의 과외는 여전히 금지했지만 재학생 학원 수강과 대학생들의 과외는 허용한다는 내용이였다. 즉시 사회 일각의 우려가 뒤따랐다. 또다시 망국병인 과외가 우리 사회를 폐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였다. 일부에서는 다각도의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문교부는 과외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교육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국민의 과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시제도 개선, 교육방송 활성화, 학벌 중시 사회풍토 개선,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등 여러 분야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접근을 보게 되었다.⁴

사교육 확산을 막을 유일한 방안은 TV를 통

한 교육방송밖에 없었다. 문교부는 독립된 교육전담방송기구의 설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외를 허용했기에 교육방송국의 설립을 기다릴 상황이 되지 못했다.

문교부는 1989년 3월 13일, 우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방송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V고교가정학습〉이 바로 그것이다. KEDI는 정상적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고 효율적으로 입시에 대비하는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교과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내용의 수준 및 대상은 중상위권 학생으로 설정했다.

KEDI는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최고의 강사를 섭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1989년 4월 15일, KEDI는 특집 프로그램 〈TV고교가정학습 이렇게 한다〉를 방송했으며, 뒤이어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송출했다. KEDI는 보다 많은 학

생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⁵ 해당과목은 당시 대입 학력고사에 맞춘 것으로 거의 모든 과목이 총망라되었다.

KEDI는 교과별로 학습영역을 나누어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기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며 교과서 이외의 내용도 학습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과 동시에 큰 인기를 모았다. 서한샘 등 스타강사들이 인기몰이를 했으며,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⁶가 발표되는 등 사교육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KEDI의 조사 결과, 그해 출제된 대입학력고사의 문제 가운데 77.5%의 반영률을 보임으로써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TV고교가정학습〉은 강의 형식과 과목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수험생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⁴ 문교부 장학편수실장의 기고문 중에서, 1988년 12월 19일

⁵ 전국 주요 일간지에는 〈TV고교가정학습〉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었다. “〈TV고교가정학습〉은 KEDI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과외를 척결하여 건전한 가정학습 풍토를 기르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제작한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광고 문구에서 볼 수 있듯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사교육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

⁶ 답지의 순서나 진술형태만 약간 바꾼 적응 문항은 20~60%였고, 주·객관식의 형태를 바꾸거나 문제와 답지를 바꾼 유사문제가 17~50%를 기록, 대입학력고사 반영률은 전체적으로 70~80%로 나타났다. ‘1990년 〈TV고교가정학습〉의 대입학력고사 반영률 조사’ 중에서

수능방송의 시작

1991년 4월 2일,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검토했던 대학입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 당시 처음 제기되었다가 1988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확정된 방안이었다.

새로운 제도의 특징과 골자는 내신성적 반영 비율의 상향조정, 대학 수능능력시험의 도입, 대학 본고사의 부활 등으로 요약되었다. 내신 성적의 비중을 크게 높여 미국의 SAT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학생 선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시험의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수능능력시험이 도입되면서 시험과목도 크게 변화되었다. 당시까지 시행된 9개 과목의 학력고사^⑦가 언어·수리 탐구·외국어^⑧ 등 3개 영역으로 바뀌었다.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처럼 개편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이었기에 수험생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재수를 피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하향지원을 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EBS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TV고교과정학습>의 체제를 큰 폭으로 바꾸었다. 시험문제의 양식과 체제에 맞추어 기본개념 이해와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지도방법을 바꾸었다.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수능시험 영역관련 교과 중심으로 편성했다. 수능시험이 두 차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1993년 3월 1일,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 방송은 1차 수능 직후인 8월 28일까지 방송되었다. 처음에는 언어·외국어 등의 과목에 대한 기초학습을 중점 방영했다. 학습내용은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의 복습·정리였다. 이 방송은 수험생과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1차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EBS는 즉시 제2차 수능시험에 대비한 2단계 <TV고교과정학습>을 방송했다. 2차 방송은 1993년 8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다. 언어와 수리탐구, 외국어 등의 영역에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차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도 함께 해설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해부터 시작된 EBS의 수능방송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으며, 새 대입제도에 대한 가이드 역할까지 했다. 이 제도가 초기의 우려와 혼란 속에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된 데에는 EBS의 역할도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1995년 5월 31일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특히 눈길을 모은

것은 대학입시제도를 큰 폭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교육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⑨로 평가받았다. 1997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 위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EBS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수능방송의 체제를 대폭 개편했다. 우선 교육개혁의 이념 구현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EBS 수능특강>을 신설했다. 각 과목들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새로 출제될 문제유형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점차 중요해지는 논술 학습을 위해 언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을 전화, 팩스, PC 통신 등으로 받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EBS의 새로운 시도는 많은 호평을 받았다. 게다가 이만기·천신일 등 스타강사의 출현으로 EBS 수능방송은 계속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되었다.

⑦ 국어, 수학, 영어, 국사, 국민윤리, 사회, 과학, 제2외국어, 실업 등 9개 교과과목이었다.

⑧ 언어 영역에서는 국어, 사회과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의 소재를 활용해서 언어와 연관된 능력을 평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수리 탐구 영역은 단순히 수학교과와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수학, 사회, 과학 등 여러 교과 영역의 소재를 활용해서 수리 및 탐구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 외국어 영역은 주로 '영어'에 집중되었다.

⑨ 경향신문 1995년 6월 1일자

위성교육방송, 학교교육 전문채널로

1997년 8월 25일 위성교육방송이 개국하면서 EBS의 학교교육 프로그램은 또 한번의 전기를 마련한다. 지상파 EBS TV에서 방송되던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위성교육방송으로 이관되면서, EBS TV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EBS 위성 1TV는 고교교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방송된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¹⁰ 정부 여당이 사교육비절감특위를 구성하고, EBS에 2개의 채널을 배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EBS는 2개의 채널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전용채널로 운영하기로 하고, 제1채널은 고등학생 대상의 방송으로, 제2채널은 초·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동시에 EBS는 방송을 진행할 강사 수급에 나섰는데, 현직교사 70%, 학원강사 30%의 비중으로 선발되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위성교육방송이 시작되었다.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교육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위성과외방송은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지책이다. 과외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외방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과외문제 해결이 워낙 절실한 만큼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생각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위성과외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위성과외방송은 과외수요를 줄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별도의 과외가 필요 없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강의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¹¹ 위성방송이 시작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다. 수강생의 20% 이상이 학원등록

을 포기했으며 학생들이 가정으로 향해가는 현상이 빚어졌다.¹²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저녁 보충수업 시간을 이용해 단체로 위성교육 방송을 시청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한편, 위성교육방송은 1채널의 경우 주당 55시간, 2채널의 경우 주당 72시간 방송되었다.¹³ 위성 1채널에서는 대학 입시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해 수능 시험 대비 프로그램이 집중 편성되었다. 특히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교과서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원강의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EBS 위성교육방송의 효과는 상당히 컸다. 사

교육비가 절감되었다는 여러 사례들이 나타난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EBS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위성교육방송이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났다. 사교육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범한 위성교육방송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고등학생의 시청률이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상당수가 입시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¹⁴

EBS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컸다. 이후 EBS는 지속적인 개편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¹⁰ 그 무렵, 우리나라 학생들의 연간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공교육 예산의 5배에 달했다. 특히 6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과외비는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였다. 경향신문 1997년 3월 28일자

¹¹ 동아일보 1997년 8월 25일자

¹² 매일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

¹³ 1채널은 평일 오후 5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송되었다. 2채널의 방송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다.

¹⁴ 동아일보 1997년 10월 6일자 | 한편, 매일경제신문은 1997년 11월 21일, 수능시험 이후 '위성교육방송 효과 컸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위성교육방송의 놀라운 성과였다.



EBS 수능전문 채널 개국

위성교육방송을 이용한 고등학생은 많았지만 음성적으로 늘어가는 사교육 시장을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EBS를 통해 수능전문방송을 시행하면서 사이버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특히 눈길을 모은 것은 EBS 수능강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곧, EBS의 강의내용이 수능시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의미였다.

EBS는 인터넷 기반의 e러닝 학습사이트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1대 1 맞춤형 강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었다. EBS는 200여 명 이상의 교사 및 박사급 강사를 초빙했으며 하루 20시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준비했다. 학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구축된 Q&A 섹션에 들어가 질문을 올리거나 출연강사별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4월 1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BS 수능강의가 방송된 데 이어, EBS 방송채널의 성격에도 변화가 생겼다. EBS플러스1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능전문채널로, EBS플러스2는 중등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한 초등·중학·직업전문채널로, 지상파TV는 전국민 대상 평생교육채널로, EBS FM은 어학, 교양, 정보채널로 특화되었다.

수능전문채널로 특화된 'EBS플러스1'에 <오답노트>, <2005대학입시 가이드>, <EBS NEW 포트리스>, <EBS 기술·심층면접>, <EBS 수능특강 선택>, <명상의 시간> 등 6개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오답노트>는 많은 수험생들이 오류를 범한 문제를 묶어 각 문제별 함정을 알아내고 극복 방안을 제시한 프로그램이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오답 형태를 풀이해 주는 방식이었다.

EBS 수능특강은 큰 화제를 모으며 성공적으로 방송되었다. 그해 EBS의 수능방송 반영률은 무려 80%에 달했다.^⑤

EBS의 수능전문채널은 이후에도 사교육시장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EBS 수능 교재

공교육 보완·사교육 확산 방지를 위하여

EBS의 수능방송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채널 개국 후 지난 5년간 EBS 수능방송을 통한 사교육비 억제액은 1조 3,941억 원에 달했다.^⑥ 큰 성과임에 분명했지만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억제액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1.9%에 불과했다.^⑦

EBS의 수능방송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교육 평등권을 위해서는 EBS 수능강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새로 취임한 박덕

훈 사장은 '사교육의 장점을 EBS 수능방송에 수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⑧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11월 17일, 교과부 이주호 차관이 EBS를 방문, 수능 및 영어방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EBS가 거둔 성과를 보다 확대시키는데 정부와 EBS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EBS는 학교교육 방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월, 학교교육본부 및 교육방송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수능강좌 서비스를 쇄신하고 가정학습 및 학교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학교교육 본부는 교육전문채널로 자리잡은 EBS플러스1(수능), EBS플러스2(초등·중학, 직업교육)와 수능강좌 구성 및 강사 선발 등 핵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교육방송연구소에서는 교육수용자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교육 콘텐츠 평가방법 개발, 국내외 교육 콘텐츠 조사 및 분석, 기타 교육 관련 정책 분석을 맡았다. 뒤이어 다양한 EBS 수능강의 강화방안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특징은 초호화 스타강사진의 구성, 최상급 및 초급 등 수준별 강좌 대

⑤ 언어 영역의 경우에는 86.7%를 기록했으며, 외국어 영역은 82%, 사회탐구는 평균 80%, 과학탐구는 평균 85%에 달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개 'EBS 교재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뉴스 2004년 11월 17일자

⑥ 2009년 9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5년 2,011억 원·2006년 2,205억 원·2007년 2,128억 원·2008년 3,492억 원·2009년 4,105억 원에 달했다.

⑦ 연합뉴스 2009년 9월 23일자

⑧ 한국일보 2009년 11월 11일자 | 박덕훈 사장과 그의 인터뷰 중에서

폭 보강, 스마트폰용 클립형 콘텐츠 제공 등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수험생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 모았다.

특히 스타강사진은 화제 속에 출범했는데, 언어영역의 윤혜정, 외국어영역의 윤연주, 수리영역의 심주석, 사탐영역의 최태성 등 유명

강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최고급 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⑩

그밖에도 EBS는 2010년 한해 동안 810개에 이르는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커리큘럼은 11월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과정평

가원의 6월·9월 두 차례의 모의고사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교재 강의를 사전에 기획 제작하여 인터넷에 탑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험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EBS 강의를 반복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IPTV·무선 인터넷 등의 미디어 발전 추세에 맞추어 압축강의, 혹은 개념사전 같은 클립형 콘텐츠를 제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시행되면서 EBS 수능강의는 최대의 화젯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사교육 시장보다 우수한 강의·다양한 경로를 통한 방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교육방송 36년의 역사에서 학교교육방송이 추구해 온 목표는 오직 하나.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 시장을 대체한다는, 흔들림 없는 이념이다. 지난 36년의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EBS를 통해 대입시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EBS를 통해 교과방송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EBS는 여기에 포기 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보태본다. 늦은 시간 학원을 해매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워 고액과외를 받지 못해도, EBS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바람이 그것이다.



⑩ 기존의 학교 교사 중심 강사진에 학원가의 최고 강사들이 합류함으로써 EBS는 초호화 스타강사 군단을 확보했다. 스타강사진의 수는 무려 52명에 달했다.

EBS 강사,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이력



● 교육, 아직도 뜨거운 그의 열정

1980년대 · 19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서한샘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그는 혜성처럼 나타났다. ‘공부는 원래 재미없는 것,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단번에 날려버린 서한샘 선생, 그를 만났다.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뭉친 그의 모습 속에서 이전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TV방송의 인기스타로 떠오른 때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학생 학원수강 허용, 과외금지조치 단계별 완화 등 우리나라 교육계가 휘몰아칠 무렵이었다.

“당시 저는 학원에서 인기를 모은 강사였습니다. 교육방송에서 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서 우편동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EBS는 과외금지조치에 대응하여 TV로 교육방송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경쟁상대는 사교육.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교육방송에 이름난 학원강사들을 영입하면 화제를 모을 수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교수법이 학원가에 도입되었을 무렵이었지요.”

그날부터 3개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다. 교재를 써야 했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수없이 고민했다. 그의 생각은 재미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밑줄 짝 · 돼지꼬리 땡야~

1989년, <TV고교가정학습> 서한샘 선생의 강의가 방송되었다. 첫 방송 이후 교육방송의 전화가 수없이 울려댔다. ‘강의가 너무 재미있다’는 반응들이었다. 언론의 호평도 이어졌다. <TV고교가정학습>의 시청률은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서한샘 선생의 흥미로운 교수법 덕분이었다.

“여러 방안을 고안하다가 학원에서 평소에 했던 교수법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밑줄 짝~ 돼지꼬리 땡아~ 하고 강조했지요.”

전국은 ‘밑줄 짝~ 돼지꼬리 땡아~’의 열풍이 불었다. 2010년에 방영된 MBC의 시트콤에도 이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개그맨 최형만 군이 제 흉내를 낸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와는 스승·제자의 관계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개그맨 최형만과 얽힌 이야기는 더 있다. 후일 그를 만났을 때 최형만은 그의 손을 잡으며 ‘개그맨으로 이끌어주신 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사건인즉슨 종강할 당시 그가 최형만의 장기자랑을 보고 ‘개그맨이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한다.

● 국회의원 서한샘보다 교육인 서한샘이 더 좋아

후일 그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향인 인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교육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것은 EBS였습니다. 만약 EBS가 아니었다면 결코 여의도 생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세기간 동안 그는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밑줄 짝·돼지꼬리 땡아~’하고 화답했다. 시

민들을 만나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었다.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 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만나는 분들 모두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달라고 부탁했지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 큰 과제를 주셨던 겁니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EBS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립법인 ‘한국교육방송원’은 그가 발의한 법안이다. 지금 그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터넷 교육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앞세방송이 그것이다. 2009년 9월 7일에 개국한 이 방송국의 대표이사로서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너무 아쉬운 것은 교육복지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재지원·방송수강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제작진에게 그는 이렇게 EBS 강사 출신의 자긍심을 이야기한다.

“사람을 만나면 저는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보다 EBS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더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 그만큼 훌륭한 이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년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만으로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5학년도 1학기 (Radio)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00		학 교 방 송 소 식					
10:05		1국어교실	2국어교실	3국어교실	4국어교실	5국어교실	6국어교실
10:20		전국사교실	5국사교실	6국사교실	전국사교실	5국사교실	6국사교실
10:30		저도덕교실	중도덕교실	고도덕교실	저도덕교실	중도덕교실	고도덕교실
10:45		6음악교실	1음악교실	2음악교실	3음악교실	4음악교실	5음악교실
11:00		저자연교실	중자연교실	고자연교실	저사회교실	중사회교실	고사회교실
11:15		(전 학 년) 이 야 기 동 산					
11:30		고음악감상	저음악감상	고음악감상	저음악감상	고음악감상	저음악감상
11:45		중1 영어교실	중2 영어교실	중3 영어교실	중1 영어교실	중2 영어교실	중3 영어교실
12:00		학 교 방 송 소 식					
13:00		학 교 방 송 소 식					
13:05		6국사교실(재)	전국사교실(재)	5국사교실(재)	6국사교실(재)	전국사교실(재)	5국사교실(재)
13:15		고도덕교실(재)	저도덕교실(재)	중도덕교실(재)	고도덕교실(재)	저도덕교실(재)	중도덕교실(재)
13:30		5음악교실(재)	6음악교실(재)	1음악교실(재)	2음악교실(재)	3음악교실(재)	4음악교실(재)
13:45		교 사 의 시 간					
14:00		교 사 의 시 간					

79학년도 2학기 (Radio)

학교 시간	여름시간 (8~10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겨울시간 (11~2월)
1 교 시	9:30 :35	교 육 방 송 소 식							10:00 :05
		4 학 년 (재 방 송)				자 연 의 세 계	세 계 의 여 행		
휴식	:50	도 덕	국 어	사 회	음 악			사 랑 하 는 어 린 이 들 에 게	:20
2 교 시		1 학 년	2 학 년						
	도 덕	음 악	국 어	음 악	도 덕				
	3 학 년				이 야 기 국 사	이 야 기 국 사(재)			
	국 어	사 회	음 악	도 덕					
휴식	:15	4 학 년				글 짓 기 교 실			
		사 회	음 악	도 덕	국 어	저 학 년	고 학 년		
		3 학 년 (재 방 송)				5 학 년(재)	특 별 활 동 (재)		
		도 덕	국 어	사 회	음 악	사 회			
3 교 시	:45	5 학 년							:15
		음 악	도 덕	국 사	사 회	국 어	건 강 교 실		
		6 학 년							
		국 사	국 어	음 악	도 덕	사 회	새 마 음 새 마 음		
휴식	:15	통일교실		빛 을 남 긴 사 람 들			통일교실		
11:30								12:00	
점 심 시 간	13:00	음 악 감 상						장 한 어 린 이	13:00
	:15	영 어 교 실						우 리 우 리	:15
	:30	5 학 년 (재 방 송)				명 작 교 실		다 함 께	:30
5 교 시	:45	국 어	음 악	도 덕	국 사	사 회			:45
		6 학 년 (재 방 송)							
	14:00	사 회	국 사	국 어	음 악	도 덕	교 사 와 학 부 모 시 간		14:00

KBS 사회교육방송 756KHz (서울, 경기, 강원 일부)
972KHz (충남북, 전북, 강원 일부, 전남 일부, 경남북 일부)
(10월 초순경 KBS 제2방송 <603KHz>으로 변경될 예정임)

81학년도 (TV)

81년 11월 ~ (12월부터 고교축소)

		화 면 조 정 시 간	教師의時間 (KEDI)
5	30		
	50		
6	10	幼 兒 教 育 (K E D I)	
	30	初 等 教 育 (K E D I)	
	30	中 學 教 育 (K E D I)	
7		성 인 교 육 (K B S)	
8	30	高 校 教 育 (1 , 2 學 年) (K E D I) (고1, 고2 국어, 영어, 수학)	
9	30	성 인 교 육 (K B S)	
10		高 校 教 育 (3 學 年) (K E D I) (고3 국어, 영어, 수학 및 기타과목)	
11	30	T V 公 開 大 學 (K B S)	國 樂 講 座 (K B S)

81학년도 1학기 (Radio)

(1981.8.1 ~ 1981.7.25)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00		교 육 방 송 소 식							
05		1 학 년			2 학 년				
15		음 악	도 덕	국 어	음 악	도 덕	우 리 의 소 원	개 구 장 이 들 의 합 창	
		2 학 년 (재)			1 학 년 (재)				
25		도 덕	국 어	음 악	도 덕	음 악			
45		음 악 감 상							
		3 학 년			고 마 운 사 람 들	나 의 길		내 마 음 내 마 음	
11:00		국 어	사 회	음 악	도 덕	자 랑 스 런 우 리 교 장	세 계 여 행	취 미 교 실	
		4 학 년				명 작 교 실		어 린 이 극 장	
15		사 회	음 악	도 덕	국 어				
30		3 학 년 (재)							
		도 덕	국 어	사 회	음 악				
45		5 학 년					과 학 교 실	우 리 우 리 다 함 께	
12:00		음 악	도 덕	국 사	사 회	국 어			
		6 학 년					국 약 교 실		
15		국 사	국 어	음 악	도 덕	사 회			
15		빛 을 남 긴 사 람 들							
40		음 악 을 들 으 며							
50		1 학 년			2 학 년			우 리 의 소 원 (재)	즐 거 운 한 자 리
		음 악	도 덕	국 어	음 악	도 덕			
13:00		2 학 년 (재)			1 학 년 (재)				
		도 덕	국 어	음 악	도 덕	음 악			
15		3 학 년				특 활 활 동	스 포 츠 교 실	어 린 이 극 장 (재)	
		국 어	사 회	음 악	도 덕				
30		5 학 년 (재)					과 학 교 실 (재)		
		국 어	음 악	도 덕	국 사	사 회			
45		6 학 년 (재)					음 악 교 실 (재)	우 리 우 리 다 함 께 (재)	
14:00		사 회	국 사	국 어	음 악	도 덕			
20		4 학 년 (재)				명 작 교 실 (재)			
		국 어	사 회	음 악	도 덕				
40		음 악 감 상 (재)							
15:00		영 어 교 실							
		어 머 니 교 실	어 머 니 교 실 (재)	어 머 니 교 실	어 머 니 교 실 (재)	어 머 니 교 실	어 머 니 교 실 (재)	천 재 는 어 마 가 만든 다	

86학년도 1학기 (TV)

(1986.8.1 ~ 1986.8.31)

시 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6 17							국교 도덕	
							교사의 시간	
		~~~~~ ( K B S ) ~~~~~						
	30	TV 유치원	TV 유치원	국교 1년	국교 2년	국교 3년	( K B S )	
	50							
18		국교 4년	국교 4년	국교 5년	국교 5년	국교 특활영어		
	10							
	30	국교 6년	국교 6년	음악·미술	체 육	실 과		
	50	중 1 영어	중 2 영어	중 3 영어	중 1 수학	중 2 수학	중 3 수학	
19		중학과학	중학과학	중학사회	중학국어	중학기술	중학가정	
	10							
	30	국어특집 (문학의 세계)	중등예능 (예술의 광장)	학습백과	철학교실	중등체육 (건강생활)	진로지도	
	50	고 1 국어	고 2 국어	고교영어	고교영어	고교수학	고교수학	
20		~~~~~ ( K B S ) ~~~~~						
22		고교 물리	고교 화학	고교 생물	고교 지구과학	고교 지리	고교 영어듣기	
	30	고 3 핵심정리 ( 1 학 기 )						
		국 어	영 어	수 학	국 사	세 계 사	사 회	부모의 시 간



## 86학년도 1학기 (Radio)

(1986.8.1 ~ 1986.8.24)

요일 시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시분		
10	교 육 방 송 소 식							10		
	05	1 바른생활	1 바른생활	1 즐거운생활	1 바른생활	우리함께그려요	우리네 글 동 산		시와함께 음악을	
	15	2 바른생활	2 즐거운생활	2 바른생활	2 바른생활	옛날에 옛날에				
	25	오늘의 명상								
	30	3 도 덕	3 국 어	3 사 회	3 국 어	3 음 악	토 요 특 집		3학년	어린이극장
	45	4 국 어	4 사 회	4 국 어	4 음 악	4 도 덕	4학년			
11	중 학 영 어							11		
	20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중 학 영 어 듣 기	
	40	5 사 회	5 국 어	5 음 악	5 도 덕	5 국 어	토 요 특 집		5학년	스포츠백과
		6 국 어	6 음 악	6 도 덕	6 국 어	6 사 회	6학년		자연의신비	
12	한 낮 의 음 악 선 물							12		
	25								우리말 고운말	
	35	국 민 학 교 특 활 영 어								
	40	왜 그 려 까 요 ?								
	이 주 일 의 명 작			빛 을 남 기 는 사 람			교 육 방 송 중 계 탑 (제)			
13	음 악 감 상							13		
	20	우리고장 우리모습	이야기 국 사	세 계 의 풍 물	이야기 세 계 사	교 사 의	교 단 을		우 리 나 라 천 통 음 악	
	40	어 머 니 교 실		교 육 방 송 중 계 탑	시 간	지 킨 다	교 사 의 시 간(재)			
	55	교 육 방 송 안 내								

방송 : KBS 교육 라디오 (FM)

# 90학년도 (TV)

(1990.12.27 ~ 1991.2.28)

요일 시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시분	
07:00							생각하는 삶	07:00	
							BBC 영어(재)	07:30	
							명저자 명강의	08:20	
							일요다큐멘터리(F)	09:10	
							오늘의 청소년	10:00	
							컴퓨터를 배웁시다(재)	10:50	
	12:00							예술의 광장	11:10
								함께 해봅시다	12:00
								부모의 시간	14:00
								교육방송 가족극장(F)	14:40
	16:00							일요목공	15:40
	16:30	딩동댕 유치원			특활영어	재미있는과학	우리동산	오늘의 청소년(재)	16:10
	16:45	국교 1년		국교 2년		꿈나무		*진주방송분	
	17:00	국교 3년		국교 4년		국교미술	중학 기술·가정	함께사는 사회 (민주시민교육)	17:00
17:15	국교 5년		국교 6년						17:20
17:35	하늘천따지			어린이 음악교실	컴퓨터를 배웁시다				
17:40	중1영어	중1국어	중1수학	중학사회	중학국사	(TV게시판) 교사의 시간	(TV게시판)(재) 교사의 시간(재)	17:40	
18:00	중학과학		중학영어	중학수학	중학국어				
18:20	우리말고운말					(종합정보)	(종합정보)(재)	18:25	
18:25	직업의 세계								
19:00	다큐멘터리(F)						교양한문	19:00	
19:35	독일어			중국어					인간과과학
19:55	불란서어			러시아어					
20:20	일본어			스페인어					
20:45	BBC 영어			영 어			알기쉬운 경제	21:00	
21:10							전통문화를 찾아서	21:30	
22:00	TV 고교 가정 학습						벽을 넘어서(통일교육)	22:00	
							문화의 세계	22:30	
							삶의 발자취	23:10	
23:10								00:10	
00:10	방송통신대학								

## 90학년도 (Radio)

(1990.12.27 ~ 1991.2.28)

요일 시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시분
05:00	방 통 대							05:00
07:00	영 어							07:00
07:15	토		플		강		(토플모의테스트)	
07:30	영		어		회			
07:45	러 시 아 어 강 좌							listening
08:00	일 본 어 강 좌							
08:15	제2외국어 불 어 강 좌							
08:30	중 국 어 강 좌							
08:45	서 반 어 강 좌							
09:00	독 어 강 좌							
10:00	학 부 모 의 시 간							09:00
10:05	라 디 오 계 시 판							10:00
10:15	1국어	1바른	1즐거운	1국어	1바른	1즐거운	우 리 합 계	10:05
10:25	2즐거운	2국어	2바른	2즐거운	2국어	2바른	옛 날 옛 날 에	10:15
10:30	오 늘 의 명 상							10:25
10:45	3도덕	3음악	3국어	3사회	3음악	3국어	우 리 네 글 동 산	10:30
11:00	4국어	4사회	4음악	4국어	4도덕	4음악		
11:10	이 야 기 썸							11:00
11:30	중1영어		중2영어		중3영어		영 어 들 기	11:10
11:45	5음악	5도덕	5국어	5음악	5사회	5국어	노래로 배우는 영어	11:30
12:00	6사회	6국어	6음악	6도덕	6국어	6음악		
12:20	한 낮 의 음 악 선 물							12:00
12:40	이주일의 명작			빛을 남긴 사람들				우 리 들 의 음 악 실
13:00	전통음악   음 악 감 상							
13:05	왜 그 려 까 요 ?							우 리 말 고 운 말
13:15	특 활 영 어							
13:25	이 야 기 썸 (재)							13:15
13:55	교사의 시간			교사의 시간 (재)			중 계 탑	13:25
14:00	오 늘 의 명 상 (재)							13:55
14:30	영 어 (재)							14:00
16:00	제 2 의 국 어 (재)							14:30
17:00	방 통 대							16:00
18:00	중 학 가 정 학 습							17:00
20:00	방 통 대							18:00
21:00	고 교 가 정 학 습							20:00
23:00	방 통 고							21:00
01:00	방 통 대							23:0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7								TV 방송대학		7	
8								TV TOEIC	30	8	
9	5	EBS 교육문화뉴스				육아일기					9
	35	EBS 문화센터									20
	55	딩동댕 유치원									50
10	5	과학놀이터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자랄까					10
	20	초등 1년		초등 5년(재)	15	헬로 잉글리시					40
	35	초등 2년		초등 4년(재)	30	초등 3년(재)					40
	50	초등 3년		초등 3년 영어		학교밖 미술여행 (재)	어린이 논리극장(재)				11
11	5	초등 4년		초등 3년(재)		도레미 여행 (재)	컴퓨터는 내친구(재)				11
	20	초등 5년		초등 2년(재)	10						30
	35	초등 6년		초등 1년(재)		초등교사 영어 연수					30
	40	하늘천 따지									40
		중학교학	중학사회	중학기술·산업	중학교학(재)	중학사회(재)	중학기술·산업(재)				40
12								EBS 장학퀴즈		12	
13								<만화극장> (재 × 2)	50	13	
14								돌보기로 보는 자연(재)	20	14	
15	30	딩동댕 유치원(재)									15
	50	과학놀이터(재)		만들어볼까요(재)		헬로 잉글리시(재)					15
16	15	초등 1년(재)		초등 3년(재)		초등 5년(재)					16
	30	초등 2년(재)		초등 4년(재)		초등 6년(재)					40
	50	<어린이 드라마>		웬지네 가족		<만화극장>					40
17	15	컴퓨터는 내친구	어린이 논리극장	학교밖 미술여행	도레미 여행	생생 과학실	책과 애니의 이야기탐험	영어 쉬워요 (재 × 2)			17
		<생방송> 선생님 질문 있어요						초등3년영어 (재 × 2)			30
18	15	하늘천 따지(재)				우리들의 동요		돌보기로 보는 자연			18
	20	미디어가 보인다	청소년 봉사대	책을 만나자	EBS 별명왕국	<청소년드라마> 감성세대	육아일기(재)	터놓고 말해요			18
19	25	과학다큐 2000		다큐멘터리의 세계			하나뿐인 지구(재)				19
	55	EBS 문화센터(재)				30		EBS 스페셜			19
		테마가 있는 창						그림을 그림시다			19
20	50	특선 다큐멘터리	가족극장	자연의 세계	직업의 세계	지금은 정보시대	인터넷 정보사냥	TV 인생노트			20
21	25	EBS 교육문화뉴스									21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독일어회화	프랑스어회화	<생방송> 수능 특강 - 언어영역	시네마천국(재)			40
		하나뿐인 지구	통일의 길	문학기행	<의학다큐> 건강을 위한 40분	시네마 천국		한국인 한국사회			22
22	5	<Survival English> 영어 쉬워요		영어회화		20	미리가본대학				22
	30	EBS 고교필수특강				50		EBS 예술의 광장			23
23		EBS 수능 특강				30		EBS 스페셜(재)			30
24	30	TV 방송대학				20		지구촌 에티켓			24
								TV 방송대학			24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5	라디오 방송대학							5
6	라디오 방송대학							6
7	토익 강좌			토플강좌			통일의 길	7
	30	중급 영어 회화			에스파냐어 회화(재)			
8	초급 영어 회화			모닝 스페셜(생방송)			독일어 회화(재)	8
	45	EBS 정보광장(생방송)			PD 리포터	프랑스어 회화(재)		
9	지금, 세계의 교육은							9
10	EBS 교양 강좌			이야기 샘			우리함께그려요	
	10	일본어 회화			부모의 시간(생방송)			
11	러시아어 회화			영어 퀴즈 쇼			11	
	30	에스파냐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30
12	독일어 회화			초등 교사 영어 연수			12	
	45	토익 강좌(재)			토플강좌(재)			
13	중급 영어 회화(재)			중급 영어 회화(재)			13	
	30	초급 영어 회화(재)			우리가락 노랫가락(생방송)			30
14	우리말 우리글(초등국어)			멜로디 여행(초등음악)	꿈나무 극장(초등도덕)			14
	20	초등 3년 영어			초등 3년 영어(재)			
15	열린 교실(생방송)			오후의 음악선물(생방송)			15	
	30	우리의 광장(생방송)			우리의 광장(생방송)			30
16	중학 영어 듣기			고교 영어 듣기	고교 국어 듣기			16
	40	방송 통신 고교강좌			토요초대석			
17	나의 길 나의 선택			청소년 상담실(생)			17	
	4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40
18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18	
	4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40
19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19	
	4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40
2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20	
	4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40
21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21	
	4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40
22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22	
	4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40
23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23	
	4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40
24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24	
	40	라디오 방송 대학			청소년 상담실(생)			4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5								5
6								6
7								7
8								8
9							언어영역	9
10							15 언어영역	10
11							30 언어영역	11
12							45 외국어영역	12
13							외국어영역	13
14						13:30 FINAL 오전 수 40:00차	언어영역	14
15						14:45	언어영역	15
16						16:00	수리탐구 영역 II -인문, 예-	16
17						17:15	수리탐구 영역 II -자연계-	17
18							수리탐구 영역 I -인문, 예-	18
19							수리탐구 영역 I -자연계-	19
20							수리탐구 영역 I -자연계-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18	외국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 I -인문, 예체능-	수리탐구 영역 I -자연계-	수리탐구 영역 II -인문, 예체능- 과학탐구	수리탐구 영역 II -자연계- 과학탐구			45
19	영어	수학 공통수학		수학 I	국어			45
21	외국어 영역	수리탐구 영역 I -인문, 예체능-	수리탐구 영역 I -자연계-	수리탐구 영역 II -인문, 예체능- 사회탐구	수리탐구 영역 II -자연계- 사회탐구			15
22	영어	수학 공통수학		수학 I	국어			3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17	FINAL 위성 수능강좌(1부)							30
18	위성 교과강좌 <중급과정>							45
19	FINAL 위성 수능강좌(2부)							30
20	위성 교과강좌 <중급과정>							45
21	EBS 교과필수특강							30
22	EBS 수능특강							30



시 분	일	화	수	목	금	토	일	시 분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00		13
14						14:00 14:20		14
15	15 20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6	30	자격을 올 땀시다				20	교양 한문	통일의 길	6	
		공무원시험 대비 강좌	50	EBS TV TEPS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알파 잉글리시 (재)			
7	20	SURVIVAL ENGLISH 영어 쉬워요 (재)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TV 영어회화 (재)		바둑교실	7	
		만화로 배워요 (재)		마지막 공룡 덴버 (재)		요술쟁이 지니 아저씨 (재)				
8	10	용용나라로 떠나요 (재)				관종이와 비키의 모험 (재)		#원시소년 크로X2	8	
		과학 놀이터 (재)		#만들어 볼까요 (재)		방귀대장 뽕뽕이 (재)				
9	10	EBS문화센터				20	건강 클리닉	EBS 장학퀴즈	9	
		특선 다큐멘터리 (재)	팝 뮤직스타 (재)	<시사다큐> 움직이는 세계 (재)	2차대전비사 (재)	미(美)의 세계 (재)	육아 일기			
10	30	어린이 영어 이렇게 하세요		유아교육교사연수	초등교육교사연수	학교현장보고	EBS 특선 버라이어티 (재)	대학가 총계	10	
		클릭! 쿨 사이트				#발명 O 원리를 찾아라				직업의 세계
11	30	깜짝 동물나라 (재)				#발명 O 원리를 찾아라	애니토피아 (재)	EBS 특선 버라이어티	11	
						잇혀져 가는 것들				30
12	30					30	EBS 예술의 광장 (재)	EBS 특선 버라이어티	12	
						00	#세계의 문초			
13	10	움영부문 : 변경프로그램				10	미래토크 (재)	일요초청특강	13	
		#표시 : 전면 재촬영				00	EBS 문화센터 (재)			
14	30					20	단편영화극장 (재)	일요시네마	14	
						20	애니토피아			
15	30					30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	철학 에세이	15	
						30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			
16	20	딩동댕 유치원 (재)				30	철학 에세이	#철소년 미술감상	16	
		용용나라로 떠나요 (외화)	공종이와 비키의 모험 (외화)			30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			
17	20	과학 놀이터	#만들어 볼까요		방귀대장 뽕뽕이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	17		
		만화로 배워요 (외화)	마지막 공룡 덴버 (외화)		요술쟁이 지니 아저씨 (외화)					
18	30	미루의 요술글방	슬기로운 생활 미미와 코코	수학나라 아라벨	즐거운생활 아호! 팽아랑 번개랑	빌 아저씨의 과학이야기	#철소년 드라마 내꿈을 펼쳐라	30		
		#Billy the Bat		#What's up Doogie?		45	#철소년 미술감상			
19	10	출동! 초록 수비대	난 할 수 있어요	콜롬부스의 달걀	도레미 여행	생방송 선생님 질문있어요	육아일기(재)	용용나라로 떠나요(재X2)	18	
		컴퓨터는 내친구				40	#지구촌 에티켓			
19	20	깜짝 동물나라 (외화)				50	어린이 영어 이렇게 하세요 (재)	다큐 이 사람	19	
		인터넷이 생활을 바꾼다		#위시본의 이야기 보따리 (외화)		EBS 세상보기				
20	50	특선 다큐멘터리	팝 뮤직스타	<시사다큐> 움직이는 세계	2차대전비사	미(美)의 세계	벤처강국 우리가 만든다		20	
		EBS 교육문화뉴스				55	#다큐멘터리의 세계	건강 클리닉 (재)		
21	20	#일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알파 잉글리시	생방송 난상토론	시네마 천국 (재)	21	
		#프랑스어 회화		#독일어 회화						
22	40	SURVIVAL ENGLISH 영어 쉬워요				TV 영어회화		미래토크 2000	22	
		하나뿐인 지구	컴퓨터 정보 광장	다큐 이 사람 (재)	EBS 리포트	시네마 천국	35			
23	20	EBS 세상보기 (재)				세계의 영화	EBS 예술의 광장	23		
		클릭! 쿨 사이트 (재)								
24	15	EBS 수능특강 1부 (위성 재전송)				세계의 영화	EBS 예술의 광장	24		
		클릭! 쿨 사이트 (재)								
1	20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의 전통문화		EBS 수능특강 2부 (위성 재전송)	단편영화극장	1		
		EBS 수능특강 2부 (위성 재전송)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5		라디오 방송대학								5		
6		라디오 방송대학								6		
7	30 45	토익 강좌			토플 강좌			중국어 회화(재)	30	7		
		초급 영어 회화			중급 영어 회화							
8		모닝 스페셜(생방송)								8		
9	57	EBS 정보광장 1부 (생방송)								30	9	
		정운영의 3분 칼럼										
10	58	EBS 정보광장 2부 (생방송)								일본어 회화(재)	10	
		바른 말 고운 말										
11		부부의 시간 (생방송)								일요 음악실	11	
12	15 30 45	일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에스파냐어 회화	독일어 회화		라디오 TEPS			프랑스어 회화				
13	30 45	토익 강좌(재)			토플 강좌(재)			사랑의 한가족	13			
		초급 영어 회화(재)										
		중급 영어 회화(재)										
14	58	우리가락 노랫가락 (생방송)								14		
		바른 말 고운 말										
15		열린 교실 (생방송)								15		
16		오후의 음악 선물 (생방송)								16		
17		EBS 교양강좌								고교독일어강좌	40	17
18		이브닝 스페셜 (생방송)								고교프랑스어강좌		
										고교국어듣기(종합)	20	18
19		라디오 방송 대학								19		
20		방송 통신 고등학교					팍스 1045	중학영어듣기 (종합)	40	20		
21							책과의 만남	고교영어듣기 (종합)				
								청소년 상담실(생)	20	21		
22	20	중학 영어 듣기	고교 영어 듣기			고교 국어 듣기			20	22		
		신세대 매거진(생방송)										
23		라디오 방송대학								23		
24		라디오 방송대학								24		



시 분	월	화	수	목	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 분	토	일	분	시
6	#일본어 회화	영어 위워요	40	6
7	#중국어 회화	TV 영어회화	20	7
8	#프랑스어 회화	알파 잉글리시	40	8
9	#독일어 회화	TV TEPS	40	9
10	EBS TV 고교 2학년 (종합)	국어	20	10
11		영어	40	11
12		수학 I	50	12
13	#즐거운 책읽기(재)	수리탐구 I (수학 II)	40	13
14	#청소년 미술감상(재)	수리탐구 I (공통수학, 수학 I)	40	14
15	철학 에세이(재)	수리탐구 II (과학탐구)	20	15
16	10대 표현 우리가 말한다(재)	수리탐구 II (사회탐구)	20	16
17	#테마 탐방(재)	물리 II	40	17
18		화학 II	50	18
19		생물 II	30	19
20		지학 II	20	20
21		정치	10	21
22		경제	30	22
23		사회문화	50	23
24		세계사	10	24
1		세계지리	30	1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9	30	미루의 요술글방	슬기로운생활 미미와 코코	수학나라 아라벨	즐거운생활 이호! 짱아람 번개람	#Billy the Bat(재)		9								
	45	#초등 3년		#초등 3년(재)		#What's up Doogie?(재)										
10	15	#초등 4년		#초등 4년(재)		#어린이 국악교실	드래미 여행(재)	10	#특기적성 교육활동 -별주노초파남보 (종합)							
	30	#초등 5년		#초등 5년(재)		20	난 할 수 있어요 (재)			출동 초록수비대 (재)						
	45	#초등 6년		#초등 6년(재)		40	홀컴버스의 달길 (재)			#발명O 원리를 찾아라 (재)						
	55	미루의 요술글방 (재)	슬기로운생활 미미와 코코 (재)	수학나라 아라벨 (재)	즐거운생활 아호! 짱아람 번개람 (재)											
11	10	#안들어 볼까요(재)		과학 놀이터(재)		방귀대장 뽕뽕이(재)		11	국어							
	30	컴퓨터는 내친구 (재)				#푸리가 안전일기(재)	만화로 배워요 (재) × 2			30	영어					
12	10	#중학영상학습		#중학영상학습(재)		#Listen Up!		20	50			#EBS TV 중학 2학년 (종합)				
	30									30	수학					
13	10	#표시는 생활용 음영표시는 조정 프로그램								13	30	과학				
	50	교사연수											10	14	사회	
15	20	어린이 영어 이렇게 하세요		유아교육 교사연수	초등교육 교사연수	학교현장보고		15	50	#EBS TV 중학 3학년 (종합)	50	국어				영어
	35	#Billy the Bat		#What's up, Doogie?		마지막 공룡 덴버 × 2 (50')							40	16	국어	
16	10	특기 적성 교육활동-별주노초파남보								16	10	16				국어
	30	#푸리가 안전일기	출동! 초록수비대	난 할 수 있어요	홀컴버스의 달길	도래미 여행		50	40				영어			
17	10	깜짝 동물나라				50				#EBS TV 중학 1학년 (종합)	50	17		40	수학	
	25	미루의 요술글방(재)	슬기로운생활 미미와 코코(재)	수학나라 아라벨(재)	즐거운생활 아호! 짱아람 번개람(재)	만화로 배워요 × 2										
	40	#초등 3년 (재)		#초등 4년(재)		#초등 6년(재)										
	50	컴퓨터는 내 친구				#Listen Up!(재)										
18	10	#EBS TV 중학 1학년								18	10	18	국어			
	30	국어	영어	수학					30					50	영어	
19	10	#EBS TV 중학 2학년								19	30	19	수학			
	30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0					30	영어	
20	10	EBS TV 중학 3학년								20	10	20	수학			
	30	교사 연수(재)												50	30	영어
	40	어린이 영어 이렇게 하세요		유아교육 교사연수	초등교육 교사연수	학교현장보고		10	10							
	50	#EBS TV 중학 1학년(재)												10	20	국어
10	국어	영어			수학		10	10	수학							
21	10	#EBS TV 중학 1학년		#EBS TV 중학 2학년		#중학영상학습 (재)				21	10	21	국어			
	40	과학	사회	과학	사회			40	30					영어		
22	10	#EBS TV 중학 2학년(재)								22	10	22	수학			
	40	국어	영어			수학		10	10					수학		
23	10	#EBS TV 중학 3학년(재)								23	10	23	사회			
	50	#EBS TV 중학 3학년 심화												10	23	사회
50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0	23	사회						



시분	월	화	수	목	금
6	명상의 시간				
30	TV 영어회화				
7	움직이는 세계 (재)				
20	유아들 세상 (프로그램 소개)				
25	#음악이 들린다				
30	#아빠, 이게 뭐예요?				
35	꼬마 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40	도라도라 영어나라	워치지컬 오리마을	토끼네 집으로 오세요		
8	Gol Go! Giggles				
25	덤동덤 유치원				
45	동화여행 까모랑 쓱쓱				
55	#방귀대장 뽕뽕이				
9	#바나나를 탄 끼끼 (한글)		#바나나를 탄 끼끼 (수학)		뽕뽕이랑 아야야
15	바나나를 탄 끼끼 (한글)		바나나를 탄 끼끼 (음악)		#다빈치를 찾아라
25	토끼가 까공				
40	#뽕뽕뽕 뽕뽕로 (국내)		령리한 너구리 (북한)		단짝친구 바리와 풍치
55	#인생, 오스월드		#하나 둘 쥐 박사님 이야기		
10	TV 에세이 좋은 생각 (국내)				
11	《생방송》 60분-부모				
30	# EBS 문화센터				
35	최고의 요리비결				
12	낮 정파				
13	낮 정파				
14	낮 정파				
15	TV 에세이 좋은 생각 (재), (국내)				
35	#있! 동화책이 움직이네 (국내)				
45	꼬마 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재)				
50	토끼가 까공 (재)				
55	#다빈치를 찾아라 (재)				
16	#바나나를 탄 끼끼 (한글) (재)		#바나나를 탄 끼끼 (수학) (재)		뽕뽕이랑 아야야 (재)
10	바나나를 탄 끼끼 (한글) (재)		바나나를 탄 끼끼 (음악) (재)		#방귀대장 뽕뽕이 (재)
20	덤동덤 유치원 (재)				
40	동화여행 까모랑 쓱쓱 (재)				
50	Gol Go! Giggles (재)				
17	코끼리왕 바바	우리는 곰돌이 가족	워치지컬 오리마을 (재)	#로봇축구 (국내)	야채극장 벤티테일
35	《생방송》 특! 특! 보니, 하니				
18	#어린이사회뉴스 깜짝 발견 유레카! #초등3년 영어	#아 미술이 보인다 깜짝 발견 유레카! #초등4년 영어	#초등사회 킷키드 지니 깜짝 발견 유레카! #초등5년 영어	#초등실과 유쾌한 마법사 깜짝 발견 유레카! #초등6년 영어	#까미의 종말종말 국어이야기 깜짝 발견 유레카! #수학 탐정 아리송
45	퀴즈 죽마고우		퀴즈 친하통일		
19	《EBS 어린이 미니시리즈》 네 손톱 끝에 빛이 남아 있어		《EBS 어린이 미니시리즈》 엄마와 함께 쓰는 동화		《앙코르》 TV로 보는 원작동화
55	English Cafe				
20	일과 사람들				
21	#과학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시사 다큐멘터리	특선 다큐멘터리	열린 다큐멘터리
40	《EBS 연속기획》 미래의 조건				
22	하나뿐인 지구	플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우리시대의 성 (性)	시인의 힘	시네마 천국
23	해외 특선 공연	문화, 문화인	예술의 경장 (HD)	새로운 영화 새로운 시각	테마여행 - 아는만큼 보인다
24	선택! 화제의 인물				
25	움직이는 세계				
30	사랑의 마을 에버우드				

시분	토	일	분	시	
6	명상의 시간			30	6
7	희망 풍경	바둑 교실	20	7	
10	프로그램 소개 (토)	테마여행 - 아는만큼 보인다 (재)	20	7	
15	#로봇축구 (재)				
40	코끼리왕 바바 (재)				
8	Go! Go! Giggles	#개구쟁이 안톤	20	8	
25	모여라 덩동댕 (HD)	리틀토미 (재), (국내)	25		
55		야채극장 벤티테일 (재)	30		
9	#뽕뽕뽕 뽕뽕로 (재), (국내)			10	9
10	동화여행 까모랑 쓱쓱 (재)	EBS 장학퀴즈	10	10	
11	최고의 요리비결 (재)	코리아 코리아 (재)	20	11	
12	리틀 토미 (국내)	사이언스 大戦	20	12	
35	우리는 곰돌이 가족 (재)	우리말 우리글			
13	《EBS 어린이 미니시리즈》 네 손톱 끝에 빛이 남아 있어 (재)	일요초청특강		13	
14	《EBS 어린이 미니시리즈》 엄마와 함께 쓰는 동화 (재)	일요시네마		14	
15	모여라 덩동댕 (재) (HD)			15	
16	#역사극장	조정용외화 (일) 1	10	16	
20		시인의 힘 (재)	20		
17	효도우미 0700	#문학산책 (HD)	40	17	
50	사이언스 大戦 (재)	세계영작드라마		18	
18	최소년 원탁토론	미디어 바로보기	20	19	
19	코리아 코리아	플레랑스 차이 혹은 다름 (재)	40	20	
20	애니토피아	상색토코 여자	20	21	
21		책, 내게로 오다			
22	21세기를 바꾸는 교양 (단, 3월 1주 : 특집 프로그램 방영)				22
23	세계의 명화	한국영화특선		23	
24		#잊혀져 가는 것들 (HD)	50	24	
25	#잊혀져 가는 것들 (HD)	새로운 영화 새로운 시각 (재)		25	
26	시네마천국 (재)			26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5								5
6				라디오 방송대학				6
7	20			김대균의 토익 완전정복			김대균의 토익 완전정복 (종합)	7
	40			초급 영어 회화				
				중급 영어 회화				
8				모닝 스페셜				8
9								9
10				한영애의 문화 한페이지(생)			윤석환의 토익 스타트 (종합)	10
11				부모의 시간(생)			# 웰컴투코리아	11
12	20			초급 일본어 회화			독일어 회화	30
	40			중급 일본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초급 중국어 회화				
13	20			중급 중국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30
	40			라디오 삼국지			러시아어 회화	
				EBS 국악세상				
14								14
15				진기현의 세계음악기행(생)			리스닝 스페셜 (종합)	15
16				EBS 생활 상담				16
17				권진원의 음악 선물(생)			초급 영어 회화 (종합)	17
18				왕초보 영어(생)			중학 영어 듣기 (종합)	18
19				투데이스 매거진(생)			고교 영어 듣기 (종합)	19
20	30			말문이 터지는 영문법		말문이 터지는 영문법(재)	고교 국어 듣기 (종합)	20
				중학 영어 듣기	고교 영어 듣기	고교 국어 듣기		
21	20			윤석환의 토익 스타트			# 라디오 회법여행	21
	40			리스닝 스페셜				
				라디오 토폴				
22						초급 일본어 회화 (종합)	초급 중국어 회화 (종합)	22
23				방송 통신 고등학교				23
24								24
25				라디오 방송 대학				25

시 분	월	화	수	목	금
0	EBS 수능특강(종합)				
30	EBS 수능특강 과학탐구 선택(제)				
1	수학 I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20	2005 대학입시 가이드(사)				
2	오답노트(삼)				
10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탐구영역	
3	인터넷강의(언어영역)	인터넷강의(사회탐구)	인터넷강의(과학탐구)	인터넷강의(언어영역)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50	언어종합	정치	물리 II	7차언어 유형으로 시작하기(1)	영어독해기법(1)
3	인터넷강의(언어영역)	인터넷강의(사회탐구)	인터넷강의(과학탐구)	인터넷강의(언어영역)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50	언어종합	경제	화학 II	7차언어 유형으로 시작하기(2)	영어독해기법(2)
4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인터넷강의(사회탐구)	인터넷강의(과학탐구)	인터넷강의(언어영역)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40	1등급 수능어휘 특강	세계사	생물 II	언어 오답풀이기(1)	영어독해연습(1)(1)
5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인터넷강의(사회탐구)	인터넷강의(과학탐구)	인터넷강의(언어영역)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30	1등급 수능어휘 특강	국사	지구과학 II	언어 오답풀이기(2)	영어독해연습(2)(2)
6	인터넷강의(수리영역)	인터넷강의(사회탐구)	인터넷강의(언어영역)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20	미분과 적분	한국근현대사	현대사 100선	비문학독해	수능영문법
50	명상의 시간				
7	이 시간 이후 EBS 플러스1 방송순서				
8	EBS NEW 포트리스				
50	국어(상)	과학			사회(1)
8	EBS NEW 포트리스				
40	영어	수학 10-가			사회(2)
9	단기완성강좌				
30	시문학	수능영문법			미분과 적분(1)
10	오답노트				
20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탐구영역	미분과 적분(2)
11	EBS 수능 CHOICE				
10	컴퓨터일반	정보기술기초	상업경제	국사	도덕
12	EBS 수능 CHOICE				
50	영어 I	사회문화	윤리	화학 I	
13	EBS NEW 포트리스(제)				
40	국어(상)	과학			사회(1)
14	EBS NEW 포트리스(제)				
30	영어	수학 10-가			사회(2)
15	EBS 수능 CHOICE(제)				
20	컴퓨터일반	정보기술기초	상업경제	국사	도덕
16	EBS NEW 포트리스(제)				
10	단기완성강좌 (제)				
17	EBS 수능특강				
50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중국어
18	EBS 수능특강				
40	수학 I	수학 II	인문계	자연계	2005 대학입시 가이드
19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 선택				
30	사회문화	윤리	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20	EBS 수능특강 과학탐구 선택				
20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일본어
21	EBS 수능 CHOICE(제)				
10	현대문학	수학 I	수학 II	생물 I	
22	EBS 수능 CHOICE(제)				
50	영어 I	사회문화	윤리	화학 I	
23	EBS 수능특강(제)				
50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중국어
24	EBS 수능특강(제)				
40	수학 I	수학 II	인문계	자연계	2005 대학입시 가이드(제)
24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 선택(제)				
30	사회문화	윤리	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시 분	토	일	분 시
0	EBS 수능특강선택(제)		0
30	EBS CHOICE(종합)		30
1	일본어	현대문학(2)	1
20	인터넷강의(수리영역)	인터넷강의(언어영역)	20
2	수학 I 고급(1)	고용직 문학특강(1)	2
10	인터넷강의(수리영역)	인터넷강의(언어영역)	10
50	수학 I 고급(2)	고용직 문학특강(2)	50
3	인터넷강의(수리영역)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3
50	수학 I 초급(1)	영어독해연습(2)(1)	50
4	인터넷강의(수리영역)	인터넷강의(외국어영역)	4
40	수학 I 초급(2)	영어독해연습(2)(2)	40
5	인터넷강의(수리영역)	인터넷강의(수리영역)	5
30	수학 I 초급	수학 I 초급	30
6	명상의 시간		
10	이 시간 이후 EBS 플러스1 방송순서		
7	시문학	2005 대학입시 가이드 (삼)	7
50	시문학	사회문화	50
8	미분과 적분	EBS 수능특강 사회탐구 선택(종합)	8
40	미분과 적분	윤리	40
9	수능영문법	한국지리	9
30	수능영문법	국사	30
10	수능영문법	한국근현대사	10
11	수능영문법	한국근현대사	11
12	국사	물리 I	12
50	영어	EBS 수능특강 과학탐구 선택 (종합)	50
13	영어	화학 I	13
40	영어	생물 I	40
14	수학 10-가	지구과학 I	14
30	수학 10-가	국어(상)	30
15	수학 10-가	국어(상)	15
20	사회	국어(상)	20
16	사회	EBS NEW 포트리스 (종합)	16
10	사회	도덕	10
17	생물 I	과학	17
50	화학 I	과학	50
18	화학 I	과학	18
40	수학 I	EBS구술 & 심층면접 (종합)	40
19	수학 II	인문계	19
30	수학 II	자연계	30
20	영어 I	언어영역	20
21	영어 I	언어영역	21
10	사회문화	EBS 수능특강 (종합)	10
50	사회문화	외국어영역	50
22	윤리	외국어영역	22
23	윤리	외국어영역	23
40	현대문학(1)	수학 I	40
30	현대문학(1)	수학 I	3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6	30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9급 공무원시험 대비 강좌				
7	30	경찰임용고시대비강좌		# 해외 직업교육		
		현장설비관리실무	커뮤니케이션 스킬	직업탐구		
8	30	#PLC와 프로세서를 이용한 생산 시스템 제어	#디지털 마케팅 실무	#FA 시스템과 제어		
		일과 사람들				
9	40	EBS TV 중학 3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0	10	EBS TV 중학 2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0	40	EBS TV 중학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1	10	EBS TV 중학 2학년 마스터		EBS TV 중학 3학년 마스터	#재미있게 공부하자 - 영어	
		영어	수학	영어	수학	
11	40	사고력 훈련 수업 - 마인드맵		한자야 놀자 (재)		
		#학습자료실 과학실험실	한국사박물관	영상사회과부도	#우리들의 성	#이주현의 미술기행
12	10	#테마자연다큐				
		EBS 무용학교				
12	40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English Cafe				
13	5	#서바이벌 잉글리시				
		TV 영어 회화				
13	25	#English Tips				
		#중국어 회화				
13	45	#프랑스어 회화				
		#독일어 회화				
13	50	9급 공무원시험 대비 강좌 (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재)				
14	10	현장설비관리실무 (재)	커뮤니케이션 스킬(재)	직업탐구 (재)		
		#PLC와 프로세서를 이용한 생산 시스템 제어 (재)	#디지털 마케팅 실무 (재)	#FA 시스템과 제어 (재)		
14	30	사고력 훈련 수업 - 마인드맵 (재)		#해외 직업교육 (재)		
		#학습자료실 (재)	한국사박물관	영상사회과부도	#우리들의 성 (재)	#이주현의 미술기행 (재)
14	20	한자야 놀자		#눈놀이 명심보감	#교양 한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4	30	EBS TV 중학 1학년 (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4	30	EBS TV 중학 2학년 (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4	30	EBS TV 중학 2학년 마스터 (재)		EBS TV 중학 3학년 마스터 (재)	EBS 중학 - 나만의 노트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영어
14	40	EBS TV 중학 3학년 (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4	10	#진리의 오딧세이		EBS 중학 - 나만의 노트		
		국어토론방	한국사이야기	수학이야기	과학이야기	수학
14	40	EBS 무용 학교 (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14	10	#우리말 우리글		#EBS 기획 시리즈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삼)				
14	4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삼)				
		경찰임용고시대비강좌 (재)		#해외 직업 교육 (삼)		
14	10	현장설비관리실무 (삼)	커뮤니케이션스킬 (삼)	직업탐구 (삼)		
		일과 사람들 (재)				
14	35	English Cafe (재)				
		#서바이벌 잉글리시 (재)				
14	55	TV 영어 회화 (재)				
		#중국어 회화 (재)		#일본어 회화 (재)		
14	15	#프랑스어 회화 (재)		#독일어 회화 (재)		
		#프랑스어 회화 (재)		#독일어 회화 (재)	따옴표 영어회화 (재)	
14	55	별이 빛나는 밤에				

시 분	토	일	분	시			
6	20	#프랑스어 회화 (종합)	월	#일본어 회화 (종합)	수	20	6
		화	목	40			
7	20	TV 영어 회화 (종합)	월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종합)	월	30	7
			화		화	30	
8	20	#독일 음악 여행	수		수	30	8
			목		목	30	
9	30	현장설비 관리실무 (종합)	월		목	30	9
		화	금		30		
10	30	커뮤니케이션 스킬 (종합)	수		월	30	10
		목	화		30		
11	30	직업탐구 (사)	금		수	30	11
		#PLC와 프로세서를 이용한 생산 시스템 제어 (종합)	월		목	30	
12	30	#디지털 마케팅 실무 (종합)	수		월	30	12
		목	화		30		
13	30	#FA 시스템과 제어 (삼)	금		수	30	13
		한국사 박물관	월		#해외 직업 교육 (종합)	목	
14	10	#학습자료실 (종합)	영상 사회과부도		금	10	14
		과학 실험실	과학 1		#재미있게 공부하자	사회 1	
15	30	#재미있게 공부하자	과학 2		사회 2	30	15
			국어		국어	30	
16	30	EBS TV 중학 1학년 (종합)	영어		영어	30	16
			수학		수학	30	
17	30	EBS TV 중학 2학년 (종합)	과학		과학	30	17
			사회		사회	30	
18	30	EBS TV 중학 2학년 마스터 (종합)	영어		국어	40	18
			수학		영어	20	
19	30	EBS TV 중학 3학년 마스터 (종합)	수학		수학	40	19
			사회		과학	40	
20	30	EBS 중학 - 나만의 노트 (종합)	영어		사회	20	20
			수학		수학	40	
21	30	#진리의 오딧세이 (종합)	월	#새로운 창 - 인성교육 (종합)	우리들의 성	20	21
			화		눈놀이 명심보감	50	
22	30	수	목		이주현의 미술여행	20	21
			월		월	50	
23	30	사고력 훈련수업 - 마인드 맵 (종합)	월	#서바이벌 잉글리시 (종합)	화	10	23
			화		수	30	
24	30	#중국어 회화 (종합)	수		목	50	24
			월		수	30	
1	10	#프랑스어 회화 (종합)	화		목	50	1
			화		해외 다큐멘터리	1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6	10		건강을 위한 10분		
	35		영어 단기정복		
7	25	이상한 나라의 지니(재)	아호 윙가네 (재)	꼬마음악가 모차르트(재)	
	30	안녕, 호올라	아빠, 맞혀보세요!	뭐 하나, 패즈?	
	50		Go Go Giggles		
8	10		딩동댕 유치원		
	20		만들어 볼까요		
	35		알록 달록 콩콩이		
	55	행방 그림책 버스	천사랑	한글이 아호!	
		궁금해요 핑퐁	리아의 수학놀이	뽀로로와 노래해요	
9	15	뽀롱뽀롱 뽀로로	핑키의 이야기 상자	선물공룡 디보	
	30		방귀대장 뽀롱이		
	45	구두신고 꼬까꼬까	내 이름은 올라	내 친구 드래곤	
		루나 짐의 달나라 탐사대	빨간 트랙터 통통	몬스터 트랙, 메테오	
10			60분-부모		
11	30		최고의 요리비결		
	50		알짜 살림의 여왕		
12	20	다큐-인(사)(재)		다큐-여자(재)	
	50		다큐-맞수		
			우리말 우리글		
13	10	똑딱똑딱 밥아저씨	연진박사 연진팬지	후시의 꿈나라 이야기	
	25	달려라! 닥터링	투모어 친구들	애 찾았다	
	35	꼬마 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꼬마로봇	반짝모자 노피	
		꼬마돼지 피글리의 모험	사랑해 콜리로드	호아네집	마비의 신나는 지구여행
14			빙과 후 반가운 시간		
	20	요리극 사이극	상상공상 미술방	변변한 영어	한자지존 도로롱
	40		동물대탐험 구리구리 덩멍		
			감칠 수염과 게으른 동네		
15	05		알록달록 콩콩이(재)		
	20		방귀대장 뽀롱이(재)		
	35		만들어 볼까요(재)		
	50		방울이랑 비누		
16	05	루나 짐의 달나라 탐사대(재)	빨간 트랙터 통통(재)	몬스터 트랙, 메테오(재)	
	20	구두신고 꼬까꼬까(재)	내 이름은 올라(재)	내 친구 드래곤(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Go! Giggles(재)		
17	05	궁금해요 핑퐁(재)	리아의 수학놀이(재)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25	행방 그림책 버스(재)		천사랑(재)	한글이 아호!(재)
	50	이상한 나라의 지니	아호 윙가네	꼬마음악가 모차르트	
18			생방송 특집! 보니 하니		
19	30	아바타-아왕의 전설	빛의 전사 레나	네모네모 스피치송	
20	50	세계견문록	한자퀴즈 王	개구쟁이 길들이기	독독 교육충전소
	55			로봇파워	
			지식채널 @ (1)		
21	20		잉글리시 카페		
	50	다큐-인(사)		다큐-여자	
22	40		다큐 10		
	50		지식채널 @ (2)		
23	40	하나무인 지구	시대의 초상	시시다큐멘터리	명의(名醫)
	45			EBS 시사-세상에 알린다	
			지식채널 @ (3)		
24	15	책 읽어주는 여자	예술의 광장	특선 EIDF 우수작	생방송 토론카페
	35	EBS 스페이스-공감베스트			시네마 천국
					독립영화극장

생방송 HD방송 자막 방송 수화 방송

시 분	토	일	분 시
6	20	이 명의 곤	한국말 쉬워요
		HD특집기획다큐멘터리 <오리엔탈의 빛>	바둑교실
7	10		20
		회랑 풍경	축마고우
	50	지혜나라 동화여행	생각하는 동화
8		모여라 덩동댕	행방 그림책 버스(금주종합)
	40	뽀롱뽀롱 뽀로로(재)	
	55	행방이랑 남남	모여라 덩동댕(재)
9	15	선물공룡 디보	35
	40	핑키의 이야기 상자(재)	행방이랑 남남(재)
	55	천사랑 (금주종합)	
10	15	물리와 나	15
	20	아바타-아왕의 전설(재1)	호아네 집(재)
	45	아바타-아왕의 전설(재2)	꼬마돼지 피글리의 모험(재)
11	10	신기한 스쿨버스	10
	35	마비의 신나는 지구여행(재)	도전 유레카
12			로봇파워(재)
			50
13		최고의 요리비결 (재)	13
			30
			시네마천국(재)
14			14
	30		20
15	50	어린이 역사드라마 <점프> (종합)	15
			일요 시네마
16	20	음악기행-클래식	16
			40
		효도우미 0700	이명의 곤(재)
17	10	한자퀴즈 王(재)	17
			장학퀴즈
18		독독 교육충전소(재)	18
	50		사람의 공부방-네 발 자전거
	55	아라리 쇼	
		배움	
19		다큐-인(사) (종합)	19
			다큐-여자 (종합)
20		세계 명작드라마	20
			EBS 걸작 다큐멘터리
			30
21			21
	40	지식채널 @ Weekly	30
22		EBS 스페이스-공감	
23			23
24		세계의 명화	24
			한국 영화 특선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5			라디오 방송대학					5
6	30		귀가 트이는 영어				김대균의 NEW토익 (종합)	6
	50		조오제의 토익 리스닝					
7			이보영의 포켓 English					
	20		김대균의 NEW 토익					
	40		Easy English					
8			Power English				문덕의 어휘대첩 (종합)	8
			☞ 모닝 스페셜					
9			☞ 한영애의 문화 한 페이지				사랑해요 코리아	9
10			☞ 이광기, 이지희의 알토란 (1부)				스페인어 회화	10
				러시아어 회화				
11			☞ 이광기, 이지희의 알토란 (2부)				독일어 회화	11
				프랑스어 회화				
12			☞ 세계 음악 기행 (1부)					12
13			☞ 세계 음악 기행 (2부)					13
14			☞ 최형만, 이상희의 속시원한 라디오 (1부)				이름다운동요세상	14
15			☞ 최형만, 이상희의 속시원한 라디오 (2부)				☞ 최광기, 황현희의 시사난타	15
16			☞ 교육매거진 오늘					16
17			☞ English Go! Go! (1부)					17
18			☞ English Go! Go! (2부)				책으로 보는 세상	18
19	20		귀가 트이는 영어 (재)				중학 영어듣기(종합)	19
	50		Power English (재)					
			이보영의 포켓 English (재)					
20	10		문덕의 어휘대첩				고교 영어 듣기(종합)	20
	30		Easy English (재)					
21			중학 영어 듣기	고교 영어 듣기	고교 국어 듣기		고교 국어 듣기 (종합)	21
	20		강주영의 HSK 중국어 능력 시험					
22	40		라디오 초급 일본어		라디오 중급 일본어		고교 국어 듣기 (종합)	22
			라디오 초급 중국어		라디오 중급 중국어			
23			방송통신고등학교			차이나 스페셜	조오제의 토익 리스닝 (종합)	23
24						서경원의 JPT		24
1								1
2			라디오 방송대학					2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0	오답노트				2008 대학입시 가이드			0
50	언어영역	수리영역-가	수리영역-나	외국어영역		일본어	국어(상)(1)	50
1	EBS 수능특강-고3				오답노트(재)			1
40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언어영역		중국어	국어(상)(2)	40
2	EBS 수능특강-고3				오답노트(재)			2
30	수리영역-수학		수리영역-수학II		수리영역-가	한문	수학10-가(1)	30
3	EBS 수능특강 선택-고3				오답노트(재)			3
20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수리영역-나	한국근·현대사	수학10-가(2)	20
4	EBS 탐스런				오답노트(재)			4
10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외국어영역	한국지리	국사	10
5	EBS 수능특강 선택-고3				사회·문화	윤리	국사	5
50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EBS 포스	사회·문화	사회	50
55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영어구문투어	윤리	물리	55
6	EBS 포스				건강 선체조1			6
50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독해유형	국사	50
7	EBS 수능특강 선택(종합)				국사	EBS 탐스런(종합)	한국근·현대사	7
50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독해유형	한국지리	50
8	EBS 포스				Vocabulary			8
50	수학I				수학II	영어테마독해	한국지리	50
9	EBS 기본과 특별한				수학10-가	영문법즐거찾기	EBS 탐스런(종합)	9
40	국어(상)	수학10-가		국사		사회·문화	8	
10	EBS 내신 6강				수학10-가	국사	윤리	10
30	국어(상)	수학10-가		국사		과학	9	
11	EBS 기본과 특별한				영어테마독해	사회	도덕	11
20	과학	영문법즐거찾기	영어테마독해	사회	도덕	수학10-가(1)	10	
11	EBS 내신 6강				지구과학	수학10-가(2)	사회	20
10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		수학10-가(1)	11	
11	EBS 수능특강 선택-고3		EBS 사고와 논술			수학10-가(2)	11	
12	일본어	중국어	한문			국어(상)(1)	물리I	12
12	EBS 포스(재)				영어독해유형	국어(상)(2)	화학I	12
50	고전문학				현대문학	EBS 수능특강 선택(종합)-고3	50	
13	EBS 포스(재)				Vocabulary	도덕	생물I	13
40	수학I				수학II		지구과학I	40
14	EBS 기본과 특별한(재)				수학10-가	국사		14
30	국어(상)	수학10-가		국사		수학II(1)	14	
15	EBS 내신 6강(재)				수학10-가	국사	수리영역-수학I(1)	15
20	국어(상)	수학10-가		국사		수학II(2)	50	
16	EBS 기본과 특별한(재)				영어테마독해	사회	도덕	16
10	과학	영문법즐거찾기	영어테마독해	사회	도덕	영어구문투어	수리영역-수학I(2)	10
17	EBS 내신 6강(재)				지구과학	수학I(1)	언어영역(1)	17
50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		수학I(2)	언어영역(2)	50
55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국사			55
18	EBS 탐스런(재)				TV로 보는 박물관			18
50	EBS 탐스런(재)				지식채널e			50
55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EBS 포스(재)	EBS포스(종합)	영어독해유형	55
19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오답노트(삼)			19
50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언어영역	EBS포스(종합)	Vocabulary	50
55	EBS 탐스런(재)				영어영역	EBS 수능특강 (종합)-고3	외국어영역(2)	55
20	EBS 탐스런(재)				영어영역			20
50	EBS 탐스런(재)				오답노트(삼)			50
55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수리영역-가	EBS포스(종합)	현대문학(1)	55
21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건강 선체조3			21
5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지식채널e			50
55	일본어	중국어	한문	EBS 사고와 논술(재)	EBS포스(종합)	현대문학(2)	EBS 수능특강	55
22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수리영역-수학II(2)			22
50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TV로 보는 박물관(재)			50
55	EBS 수능특강 선택-고3(재)				지식채널e			55
23	EBS 수능특강-고3(재)				오답노트(삼)			23
50	수리영역-수학I		수리영역-수학II		수리영역-나	EBS포스(종합)	고전문학(1)	50
55	EBS 수능특강-고3(재)				건강 선체조4			55
23	EBS 수능특강-고3(재)				지식채널e			23
50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오답노트(삼)			50
55	EBS 수능특강-고3(재)				외국어영역	EBS포스(종합)	고전문학(2)	55
55	EBS 수능특강-고3(재)				건강 선체조5			55
55	EBS 수능특강-고3(재)				지식채널e			55



시 분	월	화	수	목	금	
6	30	끝장 토익 II				
		2007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이론편				
7	30	교원임용고사 시험대비 강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검정고시 강좌-문제풀이		
8	40	EBS TV 중학 3학년				
		국어(1학기)	영어(1학기)		국사	
9	20	수학 9-가		한문	과학	사회
		EBS 중학3학년 퍼펙트 체크업		EBS TV 중학 3학년	EBS 중학3학년 퍼펙트 체크업	
10	40	국어	수학	도덕	과학	사회·국사
		EBS TV 중학 1학년				
11	20	수학 7-가		도덕	과학	사회
		EBS 중학1학년 퍼펙트 체크업		EBS TV 중학 3학년	EBS 중학1학년 퍼펙트 체크업	
12	40	국어	수학	기술·가정	과학	사회
		EBS TV 중학 2학년				
13	20	수학 8-가		한문	과학	사회
		EBS 중학2학년 퍼펙트 체크업		EBS TV 중학2학년	EBS 중학2학년 퍼펙트 체크업	
14	40	국어	수학	기술·가정	과학	사회·국사
		EBS 중학 토말		EBSTV 중학2학년	EBS 중학 토말	
15	30	EBS 중학3학년 난제공략 9-가		EBS 중학2학년 난제공략 8-가		EBS 중학1학년 난제공략 7-가(1)
		2007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이론편(재)				
16	30	교원임용고사 시험대비 강좌(재)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강좌(재)		검정고시 강좌-문제풀이(재)		
17	30	초등 3년		사회	과학	초등3년 영어(1)(2)
		국어	수학	초등 4년	초등4년 영어(1)(2)	
18	30	초등 5년		사회	과학	초등5년 영어(1)(2)
		국어	수학	초등 6년	초등6년 영어(1)(2)	
19	40	EBS TV 중학 1학년(재)				
		국어(1학기)	영어(1학기)		기술·가정	
20	20	수학 7-가		도덕	과학	사회
		EBS 중학1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EBS TV 중학 3학년(재)	EBS 중학1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21	40	국어	수학	기술·가정	과학	사회·국사
		EBS TV 중학 2학년(재)				
22	20	수학 8-가		한문	과학	사회
		EBS 중학2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EBS TV 중학2학년(재)	EBS 중학2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23	40	국어	수학	기술·가정	과학	사회·국사
		EBS TV 중학 3학년(재)				
24	20	수학 9-가		한문	과학	사회
		EBS 중학3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EBS TV 중학 3학년(재)	EBS 중학3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1	40	국어	수학	도덕	과학	사회·국사
		EBS 중학 토말(재)		EBSTV 중학2학년(재)	EBS 중학 토말(재)	
1	40	Dynamic 영어독해		도덕	수학	

시 분	토	일	분 시	
6	30	교원 임용고사 시험대비 강좌(종합)	2007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이론편(종합)	6
		월	월	30
7	30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강좌(종합)	검정고시 강좌-문제풀이(종합)	7
		수	수	30
8	30	주책 관리사 시험대비 강좌(종합)	역사 드라마 <점프>(1)	8
		목	목	30
9	30	청소년 드라마 <비밀의 교정>(1)	역사 드라마<점프>(2)	9
		월	월	30
10	40	청소년 드라마 <비밀의 교정>(2)	일일드라마-강순이(종합1)	10
		화	화	50
11	20	아하! 이렇게 만드는구나	일일드라마-강순이(종합2)	11
		수	수	20
12	30	농촌체험 만나맞나	일일드라마-강순이(종합3)	12
		목	목	20
13	30	출주는 소녀 와와	일일드라마-강순이(종합4)	13
		금	금	50
14	30	자연의 신비 (어린이 콘텐트)(1)(2)(3)	일일드라마-강순이(종합5)	14
		토	토	20
15	30	초등3년 영어(1)(2)(재)	초등4년 영어(1)(2)(재)	15
		일	일	30
16	20	초등5년 영어(1)(2)(재)	초등6년 영어(1)(2)(재)	16
		토	토	45
17	10	초등3년(재)	초등3년(재)	17
		국어	사회	30
18	30	초등4년(재)	초등4년(재)	18
		수학	과학	45
19	40	초등5년(재)	초등5년(재)	19
		국어	사회	10
20	20	초등6년(재)	초등6년(재)	20
		수학	과학	35
21	20	발과후반가운시간	발과후반가운시간	21
		번역한영어 영어(1)(2)	번역한영어 영어(1)(2)	40
22	40	한자지존 도로롱(차재방)	한자지존 도로롱	22
		발과후 반가운 시간	발과후 반가운 시간	40
23	20	뽕뽕! 그림책 버스	뽕뽕! 그림책 버스	23
		천사랑	천사랑	40
24	40	뽕뽕이랑 남남(차주재방)	뽕뽕이랑남남	24
		한글이 아호!(차주재방)	한글이 아호!	20
1	40	모여라딩동댕(차주재방)	모여라 딩동댕	1
		모여라딩동댕(차주재방)	모여라 딩동댕	40
1	40	EBS TV 중학 3학년 종합	EBS TV 중학 3학년 종합	1
		국어(1)	영어(1)	40
1	40	수학9-가(1)	사회	23
		수학9-가(2)	과학	20
1	40	지혜나라 동화여행(재)	해의 다큐멘터리	24
		국사	40	
1	40	이땅의 꿈	40	
		40	4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6	World News Review				
40	Hello! 안녕하세요				
7	The World Today				
40	TV 영어회화			서바이벌 잉글리시	
8	Sunny Town ABC		Sunny Town ABC(삼)		Sunny Town Theater
20	SEL 1 : Alice's Wondergarden		SEL 1(삼방)		Magic World
40	지나의 팽팡 잉글리시	지나의 팽팡(삼)	지나의 팽팡(오)	지나의 팽팡(칠)	지나의 팽팡(구)
45	Franny's Feet(무자막)				
9	SEL 2		SEL 2(삼)		Enjoy Reading
20	Go! Go! Time Girl	English cook cook / Drama			
40	SEL 3		SEL 3(삼)		Word Champ
	Wow! Game Land	English cook cook / Drama			
	Milk Time - Moomoo				
10	SEL 4		SEL 4(삼)		Story Land
20	Spy Zone	Science / Social			
40	SEL 5		SEL 5(삼)		Time Warp Trio(무자막)
	Tok Tok English	Science / Social			
11	Mom's Time				
15	SEL 6		SEL 6(사)		Korean History
30	Non-stop English	Science / History / Math			Korean Culture
	SEL 7		SEL 7(사)		Classic Destinations
	English Burger	Science / History / Math			
12	Pororo, the little Penguin(무자막)				
15	Dragon(무자막)				
30	Cows N Crayons(무자막)		Maddigan's Quest (무자막)	Mortified(무자막)	The Best of Joy of Painting
55	헬로 쓱쓱 잉글리시	헬로 쓱쓱(삼)	헬로 쓱쓱(오)	헬로 쓱쓱(칠)	헬로 쓱쓱(구)
13	Sunny Town ABC(재)		Sunny Town ABC(사)		Sunny Town Theater(재)
20	SEL 1 : Alice's Wondergarden(재)		SEL 1(사)		Magic World(재)
40	지나의 팽팡(재)	지나의 팽팡(사)	지나의 팽팡(육)	지나의 팽팡(팔)	지나의 팽팡(십)
45	헬로 쓱쓱(재)	헬로 쓱쓱(사)	헬로 쓱쓱(육)	헬로 쓱쓱(팔)	헬로 쓱쓱(십)
50	Koala Brothers(무자막)				
14	SEL 2(재)		SEL 2(사)		Enjoy Reading(재)
20	Go!Go! Time Girl	English cook cook / Drama			
40	SEL 3(재)		SEL 3(사)		Word Champ(재)
	Wow! Game Land	English cook cook / Drama			
	Go Go Giggles				
15	SEL 4(재)		SEL 4(사)		Magic World(삼)
20	Spy Zone	Science / Social			
35	SEL 5(재)		SEL 5(사)		Story Land
40	Tok Tok English	Science / Social			
45	Michael, my Friend	Settie&Jetti	Me?Min!	Kids' Quiz Camp	Time Warp Trio (영문자막)
55	Asian World Tra(베트남 편)	A W T(삼)	A W T(오)	A W T(칠)	
16	SEL 6(재)		SEL 6(오)		Korean History(재)
15	Non-stop English	Science / History / Math			Korean Culture(재)
30	SEL 7(재)		SEL 7(오)		Classic Destinations(재)
	English Burger	Science / History / Math			
17	Pororo, the little Penguin(영어자막)				
15	Dragon(영어자막)				
30	Franny's Feet(영어자막)				
45	English Cafe				
18	London 친구들				
10	Cows N Crayons(영어자막)				
35	Maddigan's Quest(영어자막)	Mortified(영어자막)	Best of Joy of Painting(재)		
19	클래스룸 잉글리시				
20	Mom's Time(재)				
40	A W T(태국 편)	A W T(재)	A W T(삼)	A W T(사)	A W T(오)
45	Michael, my Friend(재)	Settie&Jetti(재)	Me?Min!(재)	Kids' Quiz Camp	Story Land(삼)
20	SEL 6(삼)		SEL 6(육)		Korean History(삼)
30	Non-stop English	Science / History / Math			Korean Culture(삼)
	SEL 7(삼)		SEL 7(육)		Classic Destinations(삼)
	English Burger	Science / History / Math			
21	Koala Brothers(영어자막)				
10	Cow's N Crayons(무자막/재)		Maddigan's Quest(무자막/재)	Mortified(무자막/재)	The Best of Joy of Painting(삼)
35	A W T(베트남 편/재)	A W T(사)	A W T(육)	A W T(팔)	A W T(구)
40	Easy Job English				
55	A W T(인도네시아 편)	A W T(재)	A W T(삼)	A W T(사)	A W T(오)
22	초등교사 영어연수				
20	Teachers' Guide 1 : Elementary School				
30	Teachers' Guide 1 : Middle School				
40	Teachers' Guide 3 : Native Teachers		Teachers' Guide 3 : Native Teachers(재)		
23	The World Today(재)				
20	World News View(재)				

* SEL : School English Level

시 분	토	일	분 시
6	The World Today 월~수 종합	The World Today 목~금 종합	6
7		20	
8	20/20	Cow's N Crayons (영어자막/종합/재)	8
		Maddigan's Quest(영어자막/재) Mortified(영어자막/재)	10 35
9	Debate Survival	Junior Quiz Champ	9
30			50
10	Pororo, the little Penguin (영어자막/종합)	Franny's Feet (영어자막/종합/재)	10
45			5
11	Dragon(영어자막 / 종합)	AWT(인도네시아/칠)	11
		AWT(태국/팔)	10
		Koala Brothers (영어자막/종합/재)	15
		AWT(인도네시아/육)	5
12	5	AWT(태국/육)	12
	10	Mortified(영어자막/재) Time Warp Trio(영어자막/재) AWT(인도네시아/팔방)	30 55
13	SEL 1 월, 화 (종합)	SEL 6 월, 화 (종합)	13
40	SEL 2 월, 화 (종합)		
14	SEL 3 월, 화 (종합)	SEL 7 월, 화 (종합)	14
15	Magic World(삼)		15
20	SEL 4 월, 화 (종합)	Korean History / Culture(종합)	30
16	SEL 5 월, 화 (종합)	Debate Survival(재)	16
40	Enjoy Reading(삼)	Word Champ(삼)	20
17	Teachers' Guide 1(재)	Mom's Time(종합)	17
40	Teachers' Guide 2(재)		
18	Time Warp Trio(무자막/재)	20/20(재)	18
5	Maddigan's Quest(무자막/삼)		
30	Mortified(무자막/삼)		
55	AWT(태국/칠)		
19	Koala Brothers(무자막/종합/재)	Junior Quiz Champ(재)	19
50	Best of Joy of Painting(사)		50
20	EBS Special(재)		20
15			40
21	Franny's Feet(무자막/종합)		21
30	EBS Special		
22	초등교사 영어연수(종합)		
20	Korean History(사)		22
35	Korean Culture(사)		40
50	20/20(삼)		23
23	Easy Job English(종합)		
	Classic Destinations(사)		4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분
6	세계의 교육현장(HD)(전주재방)				세계테마기행(HD)(전주재방)	40
	한국기행(HD)(전주재방)					
7	신나는 인생 5678(HD)		다큐-인생 2막(HD)(전주재방)		요리비결(HD)	30
	당동맹 신나는 아침(HD)					
	특수 요원 오소		출동 원더멧		리틀 아인슈타인	
8	당동맹 유치원(HD)					20
	키득키득 맛있는 실험실(HD)		키득키득 실험실(HD)		우당탕탕 아이쿠(HD)	
	고마버스 타요(HD)		부릉! 부릉! 부루미즈(HD)		냉장고 나라, 코코몽(HD)	
	방귀대장 뽕뽕이(HD)					
9	뽕뽕보로 보로로		아기공룡 버디(HD)		올리비아(HD)	15
	동물나라 수수께끼(HD)		보로로와 노래해요		칙칙묵묵 차린된 도넛 할금까지	
	깨미랑 부키채카		다큐동화-달팽이(HD)		고관맛어와 해산 마흔매(HD)	
	제로니모의 모험(HD)		클로이의 오솔웃장(HD)		두근두근 신나는 뒷마당(HD)	
EBS 10시 뉴스(HD)						10
〈생방송〉 60분-부모(HD)						10
11	최고의 요리비결(HD)					10
	〈생방송〉 교육마당(HD)					
12	세계의 교육현장(HD)(전주재방)		생방송 TV입학사정관(HD)		교육 초대석(HD)(전주재방)	30
	세계의 교육현장(HD)(전주재방)					
13	EBS 스페이스-공감(HD)(전주재방)		TV평생대학(HD)(전주재방)			10
	프로열전(HD)		극한직업(HD)(전주재방)		희망풍경(HD)(전주재방)	
14	세계 테마기행 스페셜(HD)(전주재방)				지식공유 프로젝트-글로벌 토크	20
	두근두근 우리들 세살이					
15	신기한 스쿨버스		메이저			5
	당동맹 유치원(HD)(재)					
	꼬마세 머핀		밀라의 뒤죽박죽 동화여행		달리라 카카	
16	두바두바 눈보리		알쏭달쏭 호기심 마을		치모와 친구들	15
	키득키득 맛있는 실험실(HD)(재)		키득키득 실험실(HD)(재)		우당탕탕 아이쿠(HD)(재)	
	호기심 대장 포코요(HD)(재)		못 말리는 어린 양 손(HD)		우리는 긴급구조대	
	방귀대장 뽕뽕이(HD)(재)					
17	뽕뽕보로 보로로(재)		아기공룡 버디(재)		올리비아(HD)(재)	15
	수퍼 와이		강철수염과 게으른 동네(HD)		워드 월드	
	특수 요원 오소(HD)(재)		출동 원더멧(재)		리틀 아인슈타인(재)	
18	〈생방송〉 특! 특! 보니 하나(HD)					5
	〈생방송〉 특! 특! 보니 하나(HD)					
19	삼국지(HD)		소피는 일생구러기		크로스 게임(HD)	5
	다문화 가족 드라마-미주보며 웃어(HD)		리얼리티 쇼 (유아독존)(HD)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HD)	
20	세계의 교육현장(HD)				최고의 교사(HD)	30
	EBS 뉴스(HD)					
	자식재널 @					
21	세계 테마기행(HD)			세계테마기행(HD)		30
	한국기행(HD)					
22	EBS 다크프라임(HD)					50
	교육기획 다크멘터리		원더풀 사이언스			
23	다큐-인생 2막(HD)		극한직업(HD)		희망풍경(HD)	10
	다큐10+		하나뿐인 지구(HD)		시네마 천국	
24	자연		과학		특선	5
	자식재널 @ (재)					
	세계 테마기행 스페셜(HD)				공부의 왕도(HD)	
25	TV평생대학(HD)			EBS스페이스 공감(HD)		35

시 분	토	일	분	시
6	최고의 교사(HD)(재)		Talk N Issue 영어강국 코리아	6
	한국기행(HD)(차주종합)			
7	교육 초대석(HD)		50	7
	배달 스모츠(HD)			
	우당탕탕 아이쿠(HD)(삼)			
8	영어 유치원-요 7버거(재)		40	8
	모여라 당동맹(HD)			
9	모여라 당동맹(HD)(전주재방)		10	9
	크로스게임(HD)(종합)			
10	목		35	10
	부릉! 부릉! 부루미즈(HD)(종합)			
11	삼국지(HD)(종합)		25	11
	우당탕탕 아이쿠(HD)			
12	월		50	12
	신나는 과학 애니메이션 <why??>			
13	월		20	13
	리틀와 스티치			
14	월		50	14
	요절복통 사중사(HD)			
15	월		20	15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HD)(재)			
16	월		50	16
	로봇파워(HD)(재)			
17	수		40	17
	최고의 요리비결(HD)(종합)			
18	수		40	18
	시네마 천국(재)			
19	목		40	19
	다큐 인생 2막(HD)(재)			
20	목		40	20
	금			
21	월		40	21
	하나뿐인 지구(HD)(재)			
22	월		40	22
	원더풀 사이언스(HD)(재)			
23	월		40	23
	나눔 0700(HD)			
24	월		40	24
	지구촌 다크멘터리			
25	월		40	25
	원더풀 사이언스(HD)(재)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분	시
5	20				Dynamic Writing			EBS TEPS (종합)		5
	40				EBS TEPS					
6	30				김대균 토크링					
	50				귀가 트이는 영어					
7	20				이현호의 포켓 English			김대균 토크링 (종합)		7
	40				입이 트이는 영어					
8	생				Easy English					
					Power English				8	
9					모닝 스페셜			사랑해요 코리아		9
10	생							아름다운 동료세상		10
11	생				라디오 멘토 - 부모			월드뉴스 리뷰		11
	50									
12	생				EBS 월드뉴스			이현호의 포켓 English (종합)		12
13	생				대한민국 상공시대			클래식 드라이브		13
	50									
14	생				EBS 월드뉴스				14	
					World Entertainment Report					
15	생							세계 음악 기행		15
16	생							팝스 잉글리시		16
17	생									
					EBS 월드뉴스				17	
18	생				ENGLISH GO! GO!			재즈 No.1		18
19	생									
	30				대한민국 영어본부				19	
	50							중학영어듣기 Level 1 (종합)		20
20	20									
	50				EBS 월드뉴스					
21	20				라디오 초급 일본어			중학영어듣기 Level 3 (종합)		21
	40				라디오 중급 일본어					
					라디오 초급 중국어					
					현일의 쉽게 배우는 영문법			현대시 100선		
22	30				중학영어듣기 Level 1			중학영어듣기 Level 2		22
					중학영어듣기 Level 3			중학영어듣기 Level 3		
					고교영어듣기 Basic			고교 영어 듣기		
					고교 영어 듣기			고교 국어 듣기		
23	생							고교영어듣기 (종합)		23
24	20							비즈니스 영어 (종합)		24
	40				아름다운 밤, 우리들의 라디오					
					Power English(재)					
25	20				Dynamic Writing(재)				25	
	40				〈입에서 톱〉 이탈리아어			〈입에서 톱〉 인도네시아어		
					〈입에서 톱〉 프랑스어			〈입에서 톱〉 스페인어		
								〈입에서 톱〉 아랍어		

시 분	월	화	수	목	금
0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50	수리영역 가형		외국어영역		
1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40	수리영역 나형		언어영역		
2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30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EBS 기본과 특별한 영어테마특혜2
3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20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법과 사회
4	EBS 탐스런				
10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EBS 포스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5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국사
EBS 탐스런					
50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EBS 포스
55	영어 독해의 유형2				
6	EBS 포스				
50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구문투어	
7	EBS 포스				
50	EBS 수단계 정현경의 포스 수학 I	EBS 이은비의 풀~통 수학 II	EBS 최경희의 개념탄탄 미적분과 통계 기본	EBS 에나지이저 여사의 행복수학 적분과 통계	EBS '기 백의 신' 으로 만들어주마
8	EBS 기본과 특별한				
40	국어(하)		수학(상)	국사	
9	EBS 기본과 특별한				
30	과학	사회	수학(하)		도덕
EBS 필승전략 김윤순의 언어등급		EBS 심생의 고득점을 향한 수리영역 프로파일러		EBS 수능특강 외국어영역-프로파일러	
10	세계의 교육현장				EBS 기본과 특별한
30					영문법 즐겨찾기
50	생방송 TV입학사정관	생방송 교육마당			공부의 왕도
11	EBS 기본과 특별한				
30	EBS 수능특강 외국어영역-개념완성 하이킥				
12	EBS 내신 6강				
50	국어(하)		수학(상)	국사	
13	EBS 내신 6강				
40	물리	화학	수학(하)	사회	
14	EBS 기본과 특별한(재)				
30	국어(하)		수학(상)	국사	
15	EBS 기본과 특별한(재)				
20	과학	사회	수학(하)		도덕
16	EBS 탐스런(재)				
10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영어 독해 유형2
EBS 탐스런(재)					
17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영어테마특혜2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50	경제	정치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지리
55	EBS 포스(재)				
18	EBS 포스(재)				
50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구문투어	
19	EBS 포스(재)				
50	EBS 수단계 정현경의 포스 수학 I	EBS 이은비의 풀~통 수학 II	EBS 최경희의 개념탄탄 미적분과 통계 기본	EBS 에나지이저 여사의 행복수학 적분과 통계	EBS '기 백의 신' 으로 만들어주마
55	EBS 학습자료실-글로벌 사이언스				
20	EBS FINAL 실전모의고사(재)				
50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EBS 포스(재)
55	EBS 학습자료실-과학사 3월 VOCAL(재)				
21	EBS FINAL 실전모의고사(재)		EBS 내신 6강		
50	경제	정치	세계사	생물	지구과학
22	EBS 학습자료실-문학사 3월 VOCAL(재)				
20	최태성의 한국근현대사	김봉군의 한국지리	김인민-사회·문화	송기백의 윤리	박철의 정치
40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과학논술
50	EBS 뉴스 문학사랑(재)				
55	EBS FINAL 실전모의고사(재)				
23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윤리	국사
50	EBS 학습자료실-문학사(재) 3월 VOCAL(재)				

시 분	토	일	분 시
0	수능 고득점 300제 외국어 상위 4%의 꿈은 이루어진다!		0
1	SWEET 인고 200제(고득점 외국어영역 300제 Digest)		1
2	고득점 300제 - 최원용의 언어영역		2
3	고득점 300제 - 강운순의 언어영역		3
4	고득점 N제 황성록샘의 수학 I 300제		4
5	고득점 N제 손광근샘의 수학 II 200제		5
6	고득점 어법&어휘 150제 - 오렌지 VOCA DOMINO	[언어] Speed개념완성-해점생의 개념으로 제대로 독(讀)하게-비문연변	6
7	수능 고득점 어법&어휘 150제 - 외국어 어법 Digest	BOB speed 개념완성 김성은의 EBS 수능 VISION 영어	7
8	김우택의 문법광 평되기	성정혜의 수특핵문 333	8
9	황현필의 국사	[외국어]석정수의 고득점 300제 Digest	9
10	최경석의 한국근현대사	수리 나형 Upgrade Project	10
11	박필의 사회·문화	둘레대장의 수리가형 완전정복	11
12	사회탐구 480제	윤미영의 정치	12
13	윤희석의 경제	EBS 기본과 특별한(재)	13
14	민병권의 한국지리	수리영역 가형(1)	14
15	강승희의 윤리	수리영역 가형(2)	15
16	EBS 수단계 정현경의 포스 수학 I	수리영역 가형(3)	16
17	EBS 이은비의 풀~통 수학 II	언어영역(1)	17
18	EBS 최경희의 개념탄탄 미적분과 통계 기본	언어영역(2)	18
19	EBS 에나지이저 여사의 행복수학 적분과 통계	EBS FINAL 실전 모의 고사 (종합)	19
20	EBS '기 백의 신' 으로 만들어주마 포스 기하와 벡터	수리영역 나형(1)	20
21	현대문학(1)	수리영역 나형(2)	21
22	현대문학(2)	수리영역 나형(3)	22
23	고전문학(1)	외국어영역(1)	23
24	고전문학(2)	외국어영역(2)	24
25	고전문학(3)	세계지리	25
26	고전문학(4)	경제지리	26
27	최고의 교과	최고의 교과(재)	27
28	세계의 교육현장(종합1)	세계의 교육현장(종합3)	28
29	세계의 교육현장(종합2)	세계의 교육현장(종합4)	29



시 분	월	화	수	목	금
7	2010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문제풀이				
30	EBSe 영어회화 365				
8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3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검정고시 강좌		
9	EBS TV 중학 1학년				
40	문학	비문학	영어		기술가정
10	EBS TV 중학 1학년				
20	수학1-2		도덕	과학	사회
	EBS TV 중학 2학년	EBS TV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	EBS TV 중학 3학년	EBS TV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	
	한문	수학1-2	한문	과학	사회
11	방귀대장 뽕뽕이				
15	딩동댕 유치원				
35	Easy Job English				
50	EBS TV 중학 2학년				
12	EBS TV 중학 2학년				
30	국어	영어		국사	
13	EBS TV 중학 2학년				
10	수학2-2		도덕	과학	사회
	EBS TV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	EBS TV 중학 2학년	EBS TV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		
	국어	수학2-2	기술가정	과학	사회국사
14	왕초보 중학영어 리스닝				
30	중학영어 독해 Level 1		중학영어독해 level 2	중학영어독해 level 3	왕초보 중학영어 스피킹
50	EBSe 초등영어 어휘				
	통합	문법	어휘	회화	회화2
15	EBS 클럽뱅크				
10	Sing Sing 영어동요				
20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		마주보며 웃어		
50	EBS 초등-내공남남				
16	국어 3-2	수학3-1	사회3-2	과학3-2	리얼리티 쇼 유아독존
20	EBS 초등-내공남남				
40	국어 4-2	수학4-1	사회4-2	과학4-2	발라드 반가운 시간 -별별한 영어1)
50	EBS 초등-내공남남				
	국어 5-2	수학5-1	사회5-2	과학5-2	발라드 반가운 시간 -별별한 영어2)
17	EBS 초등-내공남남				
20	국어 6-2	수학6-1	사회6-2	과학6-2	발라드 반가운 시간 -상상공화 미술방
40	EBS 초등-내공남남				
50	국어 6-2	수학6-1	사회6-2	과학6-2	발라드 반가운 시간 -스바라 생활실 Key Key Writing
18	EBS TV 중학 1학년(재)				
10	문학	비문학	영어	기술가정	
30	EBS TV 중학 1학년(재)				
19	수학1-2		도덕	과학	사회
10	EBS TV 중학 2학년(재)	EBS TV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EBS TV 중학 3학년	EBS TV 중학 1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50	한문	수학1-2	도덕	과학	사회
20	EBS TV 중학 2학년(재)				
30	국어	영어		국사	
21	EBS TV 중학 2학년(재)				
10	수학2-2		도덕	과학	사회
	EBS TV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EBS TV 중학 2학년(재)	EBS TV 중학 2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50	국어	수학2-2	기술가정	과학	사회국사
22	EBS TV 중학 3학년(재)				
20	국어	영어		국사	
23	EBS TV 중학 3학년(재)				
10	수학3-1		기술가정	과학	사회
	EBS TV 중학 3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EBS TV 중학 3학년(재)	EBS TV 중학 3학년 퍼펙트 체크업(재)		
50	국어	수학3-1	도덕	과학	사회국사
24	EBS TV 중학 3학년(재)				
30	국어	Magic 중학영문법 level 1	Magic 중학영문법 level 2	Magic 중학영문법 level 3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재)		검정고시 강좌(재)		

시 분	토	일	분 시
7	월	월	7
30	화	화	30
8	수	수	8
30	목	목	30
9	금	금	9
30	극한직업		
10	미래를 보는 소년	초등 3학년 영어 Go For It! 3학년(1)	10
30	EBS 로봇파워	초등 3학년 영어 Go For It! 3학년(2)	20
		초등 4학년 영어 Here We Go! 4학년(1)	40
		초등 4학년 영어 Here We Go! 4학년(2)	
11	모여라 덩동댕	노다지 English(1)	11
30	레이와 함께하는 영어과학교실	노다지 English(2)	20
12	World Circus 스페셜	드라마 잉글리시 스페셜	
40	Gra Gra Grammar 스페셜		
13	Wow! Gmeland 스페셜	어린이 역사드라마 <점프>	
20	Spy Zone 스페셜	TV로 보는 원작동화	
14	Cyber Tales 스페셜	바둑교실	
40	Woolly Bully Magic ENGLISH		
15	발라드 반가운 시간 한자지은 도루롱		
16	EBS초등-내공남남 (재)	국어 3-2	EBS초등-내공남남 (재)
30		수학 3-1	사회 3-2
			과학 3-2
17	EBS초등-내공남남 (재)	국어 4-2	EBS초등-내공남남 (재)
30		수학 4-1	사회 4-2
			과학 4-2
18	EBS초등-내공남남 (재)	국어 5-2	EBS초등-내공남남 (재)
30		수학 5-1	사회 5-2
			과학 5-2
19	EBS초등-내공남남 (재)	국어 6-2	EBS초등-내공남남 (재)
30		수학 6-1	사회 6-2
			과학 6-2
20	특별 스토리텔링		
30	공부의 왕도		
21	중학영단어 30일 완성 level 1	왕초보 중학영어 독해	
40	중학영단어 30일 완성 level 2	왕초보 중학영어 영작	
22	중학영단어 30일 완성 level 3	나의 두번째 영어쓰기 노트(1)	
20	중학영단어 30일 완성 level 3	나의 두번째 영어쓰기 노트(2)	
23	Enjoy Stories! level 1	스타 잉글리시	
40	Enjoy Stories! level 2	무비 콘서트	
24	Enjoy Stories! level 3		
20			



시 분	월	화	수	목	금
6	박윤주의 Classroom English		Teacher's Time		최고의 영어수업
EBSe 생활영어					
7	World News Review				
sing, sing 영어동요					
8	도라도라 영어나라(영어자막)		변신로봇 5(영어자막)		아기공룡 버디(영어자막)
출동! 윈디 팻(영어자막)		영어 유치원 요 기러기(영어자막)		니하오 카이린(영어자막)	
초등3학년 영어 Go For It		초등4학년 영어 Here We Go!		초등3학년 영어 Go For It	
초등4학년 영어 Here We Go!		Alice's Wondergarden 2			
9	Sunny Town ABC				Sunny Town ABC Theater
똑똑 영어놀이터					
Alice's Wondergarden					
10	엄마표 영어특강		Mom's Time 스페셜		English 119
11	Brain Pops			엄마표 영어 특강 레벨 업	
			Asian Word Traveler 스페셜(무자막)		Talk'n Issue- 영어강국 코리아
			심야를 아이들 영어를 만나자(제)		
12	Easy Job English 스페셜		영어로 하는 세계 여행		
자신모반 생활영어			문턱의 어휘 보강		
13	키의의 수확놀이		다큐동화 담쟁이		베이비 피카부
key key writing					
클로이의 요술웃쟁(영어자막)		재로니모의 모험(영어자막)		강철수염과 게으른 동네(영어자막)	
웃이박고, 제스와 함께(영어자막)		올리비아(영어자막)		드고 톨을 만나다(영어자막)	
귀염둥이 마늘(영어자막)		넬리와 시체(영어자막)		두근두근 신나는 핫이름(영어자막)	
요일복용 사중사(영어자막)		고민 있어오 하나 아줌마(영어자막)		우리는 건달구조대(영어자막)	
14	Bed Time Story				
특별 스토리 텔링					
Wooly Bully Magic English		Magic World		Magic English	
				Korean Culture 국가 이야기(영어자막)	
				Milk Time Moo Moo	
15	GoGo Timegirl(2)		Gra Gra Grammar(3)		New Spy Zone(4)
Word Circus(2)		Spy Zone(4)		Enjoy Reading	
Wow! Gameland(3)		Cyber Tales(3)		I Love Reading	
16	Tok Tok English(5)		노다지 English		고기잡이 English(19)
Three Golden Keys(7)		English Diary(8)		맛있는 English(10)	
제이강 부가재(가)		달려라 도라(가)		달려라 도라(가)	
똑똑! 영어놀이터(제)					
17	Alice's Wondergarden(제)				
도라도라 영어나라(무자막)			변신로봇 5(무자막)		
			아기공룡 버디(무자막)		
18	출동! 윈디 팻(무자막)		영어 유치원 요 기러기(무자막)		니하오 카이린(무자막)
클로이의 요술웃쟁(무자막)		재로니모의 모험(무자막)		올리비아(무자막)	
웃이박고, 제스와 함께(무자막)		넬리와 시체(무자막)		두근두근 신나는 핫이름(무자막)	
귀염둥이 마늘(무자막)		고민 있어오 하나 아줌마(무자막)		우리는 건달구조대(무자막)	
요일복용 사중사(무자막)		Alice's Wondergarden(2)제			
19	초등3학년 Go For It(제)		초등4학년 Here We Go!(제)		초등3학년 Go For It(제)
초등4학년 Here We Go!(제)		Alice's Wondergarden(2)제			
통합		문법	어휘	회화	회화2
나의 첫번째 영어쓰기 노트					
20	왕초보 중학영어 리스닝				
왕초보 중학영어 독해		왕초보 중학영어 영작		왕초보 중학영어 스피킹	
				영어로 배우는 신나는 과학 Why	
				레이의 우주대모험	
21	스타 잉글리시		무비 콘서트		Debate Survival 스페셜
심야를 아이들 영어를 만나자		Road Diary		Wooly Bully Magic English(제)	
				Korean Culture(제)	
				국가 이야기(영어자막)(제)	
22	드라마 잉글리시				
신나는 예나의 무작정 잉글리시					
Rainbow English 스페셜					
23	세계의 명연설				
선진화해인의 비즈니스 잉글리시					
24	EBSe 생활영어(제)				
World News Review(제)					
25	EBS Special			특집 영어고수의 공부비법 특강	
			3월 영어 종합		
			20/20		

시 분	토	일	분 시
6	박윤주의 Classroom English 스페셜	영어로 하는 세계여행 스페셜	6
7	Easy Job English 스페셜(제)		7
8	변신로봇 5(영어자막)	엄마표 영어 특강 레벨업 스페셜	8
Asian Word Traveler 스페셜			30
초등3학년 영어 Go For It 스페셜			40
초등4학년 영어 Here We Go! 스페셜			40
9	동물 대탐험 구리구리 땀방 스페셜		9
20			
10	노다지 English 스페셜	I Love Reading 스페셜	10
11	도라도라 영어나라 스페셜		11
50			
12	강철수염과 게으른 동네 스페셜	아기공룡 버디 스페셜	12
40			
변신로봇 5 스페셜		두근두근 신나는 핫이름 스페셜	40
13	호기심 대장 포코요 스페셜		13
14	피마기관자 토마스왕 친구들 스페셜		14
40			
출동! 윈디 팻 스페셜			15
15	30		
16	고양이 탐정 허클 스페셜	알쓸달콤 호기심 마을 스페셜	16
20			
출동 소방관 샘 스페셜		둘러라 시간나침반 스페셜	20
17	안젤리나 발레리나 스페셜		17
50		Telling Tale 스페셜	
국가 이야기 스페셜			
18	Key Key writing 스페셜		18
30			
Go Go Timegirl 스페셜		Gra Gra Grammar 스페셜	
19	10		
Word Circus 스페셜		Spy Zone 스페셜	
50			
Wow Gameland 스페셜		Cyber Tales 스페셜	
30			
왕초보중학영어 스페셜			
21	50		
Road Diary(제)		드라마 잉글리시 스페셜	
최고의 영어수업(제)			
22	10		
40		세계의 명연설 스페셜	
신나는 예나의 무작정 잉글리시 스페셜			
23	30		
24		신나는 예나의 무작정 잉글리시 스페셜	
25			



# A P P E N D I X

- 01 한국교육방송원법 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03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04 한국교육방송공사 강령  
05 임원 및 이사회 명단 06 주요 조직도 변천 07 EBS 사외보가 걸어온 길 08 EBS 연표 09 EBS 사람들

# 1 한국교육방송원법

[1997. 1. 13] [법률 제5273호, 1997. 1. 13,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원을 설립하여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 교육을 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사회교육을 확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멀티미디어”라 함은 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저장·전달·재생하는 정보활용체제를 말한다.
- ② “멀티미디어교육”이라 함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③ “교육정보제공체제”라 함은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국내·외의 교육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체제로서 한국교육방송원이 구축·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한국교육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 ① 방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목적
  - ② 명칭
  - ③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 ④ 임원의 성명과 주소
  - ⑤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정관)**

- ① 방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목적
  - ② 명칭
  -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④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 ⑤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⑥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⑦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⑧ 이사회에 관한 사항
-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⑩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방송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업무)**

- ① 방송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①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제작 및 교육방송의 실시
  - ② 교육방송 및 멀티미디어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 ③ 교육방송의 교재 및 영상 매체물, 멀티미디어교육 및 학습자료·정보의 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 ④ 원격교육 및 원격교습의 지원
  - ⑤ 교원연수 및 멀티미디어교육관련인력의 육성
  - ⑥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운영
  - ⑦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 ⑧ 각종 교육용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지원
  - ⑨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② 방송원은 교육방송을 실시함에 있어 방송의 편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 ① 방송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이사장,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의 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감사는 방송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9조 (이사회)**

- ① 방송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방송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원장)**

- ① 원장은 방송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부설기관)** 방송원은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업무 중 멀티미디어교육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방송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부설기관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재원)** 방송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①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 ② 교육방송의 운영에 의한 수익금
- ③ 교육정보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수익금 및 협찬금
- ④ 기타 수입금

**제14조 (사업연도)** 방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등)**

- ① 방송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방송원은 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방송시설의 사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방송원의 방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인력의 파견)**

- ① 방송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방송원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자료의 제공 등)**

- ① 방송원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방송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방송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방송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① 교육방송의 내용과 교육정보·자료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방송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 (민법의 준용)** 방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과태료)**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법을 제5273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 1 교육부장관은 방송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 3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설립당시의 원장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기관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5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방송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6 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7 방송원이 설립될 때까지 설립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한국교육개발원 부설의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가 부담한다.

**제3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 1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토지·건물·시설 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교육개발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방송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방송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임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개발원부설의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방송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성과의 보급·활용을 위한 교육방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를 "그 성과의 보급·활용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최초공사법

[시행 2000. 3. 13] [법률 제6136호, 2000. 1. 12,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 (자본금)

- 1 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2 제1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8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등기)

-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 6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기관

### 제9조 (임원)

-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둔다.
- 2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3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4 부사장 및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 1 사장·부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2조 (임원의 직무)

-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3조 (이사회회의 설치 및 운영)

- 1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상임이사 2인과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5인을 포함하여 9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7 비상임이사의 임기·결격사유 및 직무상 의무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제1항·제3항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이사회회의 기능)

-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 ② 예산·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 ③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④ 결산
  - ⑤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⑥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 ⑦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⑧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⑨ 손익금의 처리
  - ⑩ 정관의 변경
  - ⑪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⑫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임원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 1 공사의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3장 회계

### 제18조 (회계처리)

- 1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2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법 준용한다.

**제19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① 방송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 ② 방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④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 ⑤ 기타 수입금

**제20조 (예산의 편성)**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준예산)

- 1 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 (운영계획의 수립)

- ① 공사의 사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 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결산)**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5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 (감사)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②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 부칙 <제6136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 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조 (보고·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 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 중 “학교·공공의료기관”을 “학교·교육방송기관·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 ② 부가가치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③ 조세특례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 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현행공사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 (자본금)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 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목적
  - ② 명칭
  -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④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⑤ 이사회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⑦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⑧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⑨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⑩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6조 (등기)

-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①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 ②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 ③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 ④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⑤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 ⑥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 ⑦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 ⑧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기관

##### 제9조 (임원)

-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1인, 부사장1인과 감사1인을 둔다. (개정 2003. 8. 21)
-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 8. 21)

##### 제10조 (임원의 임기)

- ① 사장·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 8. 21)
- ②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만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② 정당법에 의한 당원
-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2조 (임원의 직무)**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3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8. 21) (개정 2008. 2. 29)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개정 2003. 8. 21) (개정 2008. 2. 29)
-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8. 21)
- ⑤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1)
- ⑦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8. 21)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 ② 예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 ③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④ 결산
  - ⑤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⑥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 ⑦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⑧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⑨ 손익금의 처리
  - ⑩ 정관의 변경
  - ⑪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폐기
  - ⑫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3. 8. 21)
-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공사의 이사·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8. 21)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 3 장 회 계

**제18조 (회계처리)**

-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에 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19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① 방송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 ② 방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일부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④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 · 수수료 · 수익금
- ⑤ 기타 수입금

**제20조 (예산의 편성)**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 8. 21) (개정 2008. 2. 29)

**제21조 (준예산)**

- ① 공사의 사장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운영계획의 수립)**

- ① 공사의 사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 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3조 (결산)**

-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② 그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⑤ 감사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3. 8. 21)

**제24조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5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②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위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위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되어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 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조 (보고·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 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 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 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 중 “학교·공공의료기관”을 “학교·교육방송기관·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생략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및 임원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3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제정 [2000. 6. 12 방송위원회 인가]

개정 [2000. 6. 19 방송위원회 인가]

개정 [2004. 12. 14 방송위원회 인가]

개정 [2008. 1. 30 방송위원회 인가]

개정 [2008. 7. 23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 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공사”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약칭 “EBS”)이라 한다.

**제3조 (목적)** 공사는 교육방송 실시와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 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자본금 및 출자)

- 1 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2 제1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7.23)
- 3 공사는 정부로부터 출자금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방송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장 이사회

#### 제7조 (구성)

-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14) (개정 2008.7.23)
- 3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14) (개정 2008.7.23)

#### 제8조(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 중 결원이 발생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14)
- 3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9조 (직무)

-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14)
- 2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제10조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4.12.14)
- 2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 3 사장과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 제11조 (의결방법)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제12조 (의견진술)**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4.12.14)

### 제13조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 ② 예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 ③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④ 결산
  - ⑤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⑥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 ⑦ 지역사무소의 설치 및 폐지
  - ⑧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⑨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⑩ 손익금의 처리
  - ⑪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 ⑫ 정관의 변경
  - ⑬ 직제, 인사, 보수, 퇴직금 및 이사회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기 (개정 2004.12.14)
  - ⑭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사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 ②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 ③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 ④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 ⑤ 시설투자의 평가
  - ⑥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①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4인
  - ② 공사의이사및직원 중 2인 (개정 2004.12.14)
  - ③ 공사의 감사
- ⑤ 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경영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①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 ②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 ⑦ 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⑧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 의결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이사의 결격사유 및 직무상 의무)

- ①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14)
- ② 이사의 직무상 의무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임원과 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4.12.14)

**제15조 (이사회회의 의사록)** 이사회는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16조 (임원)

-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12.14)
-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개정 2008.7.23)
-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7.23)
-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4. 12. 14)

####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사장·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14)
- ②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18조 (임원의 직무)

-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부사장은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사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2.14)
- 4️⃣ 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감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 1️⃣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제21조 (직원의 임면)

- 1️⃣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2️⃣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23조 (임원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 1️⃣ 공사의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12.14)
-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3️⃣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부사장 및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4)

**제25조 (보수)**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보수와 기타 업무의 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는다.

### 제26조 (조직 및 업무)

**제26조 (조직)** 공사의 조직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전문조직의 설치)** 공사는 전문적 업무와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의 재량으로 한시적으로 전문조직을 둘 수 있다.

### 제28조 (업무)

- 1️⃣ 공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방송실시  
가. 텔레비전 교육방송  
나. 라디오 교육방송  
다. 위성 교육방송
    - 2️⃣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3️⃣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사업
    - 4️⃣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 5️⃣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 6️⃣ 부대 사업  
가. 출판 및 음반, 테이프의 제작 배포 사업  
나. 시청자 서비스를 위한 사업다. 인터넷 방송 등 정보통신 매체의 운영  
라. 광고방송 사업  
마. 방송제작상 필요한 전속단체의 유지 및 육성  
바. 기타 방송문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직원복지 후생단체에 대한 지도 육성
  -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공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 (방송기준)**
- 1️⃣ 공사는 방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송실시 기준을 제정·준수한다.
  - 2️⃣ 공사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록 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30조 (자문위원회)

- 1 공사는 전문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기본재산)** 공사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2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장비 및 기계설비
-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제32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처분·양도·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개정 2008.7.23)

**제33조 (재원)** 공사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 1 방송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 2 방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일부
-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 5 사업수입
- 6 방송광고수입
- 7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8 사채 또는 차입금
- 9 전년도이월금
- 10 기타 접수입

**제34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 (회계원칙)**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 제36조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제출)

- 1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14) (개정 2008.7.23)
-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3)

### 제37조 (결산)

- 1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개정 2008.7.23)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04.12.14)
- 2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이 경우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 제38조 (손익금의 처리)

- 1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 3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08.1.30)
  - 4 국고예의 납입 (신설 2008.1.30)
- 2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립금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0.6.19) (개정 2008.7.23)

**제39조 (사채의 발행)** 공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40조 (자금차입)** 공사는 업무수행상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장기 차입(차관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제41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 ① 공사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 방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한다.
- ② 공사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3)

**제6장 해산**

**제42조 (해산)**

- ① 공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 ② 공사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 (정관의 변경)**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23)

**제44조 (규정의 제정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직제, 인사, 보수, 퇴직금 및 이사회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14)

**제45조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공사의 직원이 업무 수행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등은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2000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 당시의 임원과 비상임이사의 임기)** 공사 설립 당시의 임원과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4 한국교육방송공사 강령

### 전문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변모되는 사회 환경속에서 가정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 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 총강

#### ① 인간성 회복

우리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며,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진력한다.

#### ② 민족의 정체성 확립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므로써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쓴다.

#### ③ 국제화에 대응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이해 교육을 통하여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 ④ 평생교육의 구현

우리는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개인적·사회적·직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육발전의 선도

우리는 국민들의 건전한 교육관 형성에 힘쓰고, 지역간·계층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한다.

#### ⑥ 책임 의식

우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는 교육방송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직업윤리를 충실히 지켜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품위를 지킨다.

### 프로그램 준칙

우리는 교육방송을 통하여 시·청취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준칙을 설정하여, 교육방송의 편성, 기획, 제작 및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침으로 삼고자한다.

#### I. 기본 사항

##### ① 기획 및 목표 설정

- ① 프로그램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②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단위 프로그램의 학습내용과 분량은 시·청취자의 수준과 시간량에 적합하도록 한다.
- ④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② 내용 선정

- ① 프로그램의 내용은 체계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② 프로그램에서 다룰 내용은 교육과정이나 시·청취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
- ④ 방송매체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 ⑤ 프로그램의 내용은 시·청취자의 사고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 ③ 제작

- ① 시·청취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방송매체의 시각적·청각적 기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형식을 택한다.



- ③ 대상 시·청취자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와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제작한다.
- ④ 내용의 전개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⑤ 구체적인 설명이나 실제의 예를 통하여 시·청취자의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⑥ 프로그램 대상에 따라 사용 용어, 억양, 발음, 말의 속도에 유의한다.
- ⑦ 주요 내용은 반복 제시되어야 한다.
- ⑧ 시·청취자로 하여금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4 평가

- ① 프로그램은 기획된 목표 및 내용과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② 평가된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의 효과는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지속적인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 5 방송교재

- ① 방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방송교재의 발행 보급을 통하여 방송의 계획과 내용을 미리 시·청취자에게 고지한다.
- ② 방송교재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 ③ 방송교재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매체 특성을 잘 이해하는 자가 집필해야 하며, 가능한 한 집필자와 출연자가 일치하도록 한다.
- ④ 방송교재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 특성상 인쇄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 6 출연자

- ① 출연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라야 한다.
- ② 외국인 출연자는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는 자로 한다.
- ③ 출연자를 선정할 때에는 적절한 평가 및 협의 과정을 거친다.
- ④ 어린이는 보호자나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출연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적절치 않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 7 자료

- ①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과 내용의 지도 방법이나 자료보다 더 좋은 지도 방법이나 자료를 연구개발하고, 제작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② 제작에 사용되는 자료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취득된 것에 한한다.
- ③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삽입할 경우에는 수정 등의 방법을 거쳐 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자료 공급원을 밝힌다.

## II. 일반 사항

### 1 인권·인격·명예의 존중

- 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②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③ 시청 대상자의 환경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다룬다.

### 2 인종·민족·통일

- ①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배제한다.
- ② 남북 관계를 취급하는 프로그램은 통일 지향적이어야 하며,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민족 화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3 정치·경제

- ① 특정 정파나 업체 및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다룬다.
- ② 정치나 경제 문제에 관해 공표된 의견은 명백히 그 근거를 밝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문제는 신중하게 다룬다.

### 4 종교

- ①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종교나 종파를 취급할 때에는 공정하게 다룬다.
- ②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5 가치관

- ①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 의식 개혁을 선도한다.
- ② 전통적 가치관과 민주적 가치관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 6 학술·의약·신종 사업

- ① 학술연구, 예술 작품 등 전문적인 내용은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관례에 따른다.
- ② 의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에 관한 정보는 신중히 다룬다.
- ③ 수면제 등 합법적인 약품일지라도 그것의 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 ④ 생활 정보로서 제공되는 신종 사업을 소개할 때, 그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하여 확신할수 없는 단계에서는 시·청취자가 오판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풍속·사회 생활**

- ①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②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③ 가능한 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8 가정·가족**

- ①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가족간의 지나친 갈등을 강조하지 않는다.
- ② 이혼을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암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9 비판과 밝은 미래 제시**

- ① 비판으로 일관하거나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삼간다.
- ② 비판은 어디까지나 시청자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0 성**

- ①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피한다.
- ② 불건전한 남녀 관계를 매력적으로 다루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1 폭력·범죄**

- ① 폭력은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 ② 총, 칼 등 흉기의 사용을 표현할 때에는 살상의 방법을 흉내 내거나,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③ 범죄에 관해서는 법률을 존중하도록 하고, 범죄를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④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이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모방할 만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표현하지 않는다.

**12 논쟁·재판**

- ①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다룬다.

- ②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13 언어·표현**

- ①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되도록 알기 쉽게 표현한다.
- ② 시청자에게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주는 품위없는 언어나 동작에 의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 ③ 내용 구성상 또는 연출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 내용에 특정한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이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와 같은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기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장애자에 대한 호칭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장애자를 웃음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된다.
- ⑤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지나친 성인적 표현이나 총동적 표현을 자제하며, 출연한 청소년들에게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14 오류의 정정**

- ① 방송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취소, 또는 정정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5 시·청취자의 참여 및 현상금(품)**

- ① 시·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보수나 현상금(품)만으로 시청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 ② 현상금(품)은 현행의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기준의 것이어야 하며, 상품을 소개할 때는 그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 ③ 작품을 공모할 때는 심사절차와 상품의 내용을 명백히 사전에 공표한다.

**행동준칙**

우리는 항상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교육방송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쓸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교육의 장에 종사함을 항상 명심하고 이에 합당한 품성과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의 행동준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 1 책임·권리

- ① 우리는 방송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국민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한다.
- ② 우리는 방송을 통하여 사회적 목표와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계도한다.
- ③ 우리는 시청자 앞에 책임을 지는 공인인식을 가지며, 방송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
- ④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의 어떤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 2 취재·제작

- ① 우리는 프로그램의 취재·제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는 직무 및 직위를 이용하여 외부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③ 우리는 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해치고 프로그램의 취재·제작에 영향을 줄 지도 모를 금전, 선물,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
- ④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취재·제작 활동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시설 및 장비, 교통편의 또는 숙박 등을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⑤ 불가피한 사유로 제작 관련 시설, 장비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것이 프로그램의 편집 및 내용구성 등에 불건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이때, 제공자의 신원이나 제공받은 시설, 장소, 장비 등이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를 밝히는 것이 시·청취자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에 절제있게 소개할 수 있다.
- ⑥ 우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 있어서 직능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 3 직무 외 활동

- ① 우리는 교육방송의 권위와 신뢰에 손상을 끼치는 사업이나 투자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②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부취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제한적이지만 각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전에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본업 이외의 정규, 비정규 업무(기고, 집필, 수강, 강연 등)에 종사할 수 있다.
- ③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정규, 비정규적으로 고용되어 댓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④ 우리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 수행되는 공동제작, 상호협력제작, 수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 4 정당 및 단체활동

- ① 우리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방송을 통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치적·사회적 및 기타 이익 단체에 대한 취재·제작에 참여할 때에는 당해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사전에 기관장에게 밝힌다.
- ③ 우리는 본인의 전공이나 해당직무 및 취미와 관련하여 각종 학회나 동호인 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 5 대외 관계

- ① 우리는 특정기관의 일방적 홍보 또는 이익을 대변하는 등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는 무분별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제작과정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또는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② 우리는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로부터 이의 제기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 교육방송의 목표 및 프로그램 구성 내용의 범위 안에서 충분하고 정중하게 답변한다.
- ③ 우리는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사의 개인신상이나 취재원을 공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한다.

### 6 자료·시설

- ① 우리는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취득된 각종 화면, 음향자료 및 기타 정보를 기관장의 허락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우리는 기관장의 허락없이 방송 시설과 장비를 외부에 대여하지 않으며, 이것을 사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

### 7 집필자·출연자

- ① 우리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참여하는 외부의 집필자 및 출연자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그들의 인격과 견해를 존중한다.
- ② 우리는 집필자 및 출연자와의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로 인하여 편집권에 영향을 받거나 교육방송의 권위와 신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③ 우리는 집필자 및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



# 5 임원 및 이사회 명단

**전·현직 임원 현황** 공사창립 이전: 원장, 부원장 | 공사창립 이후: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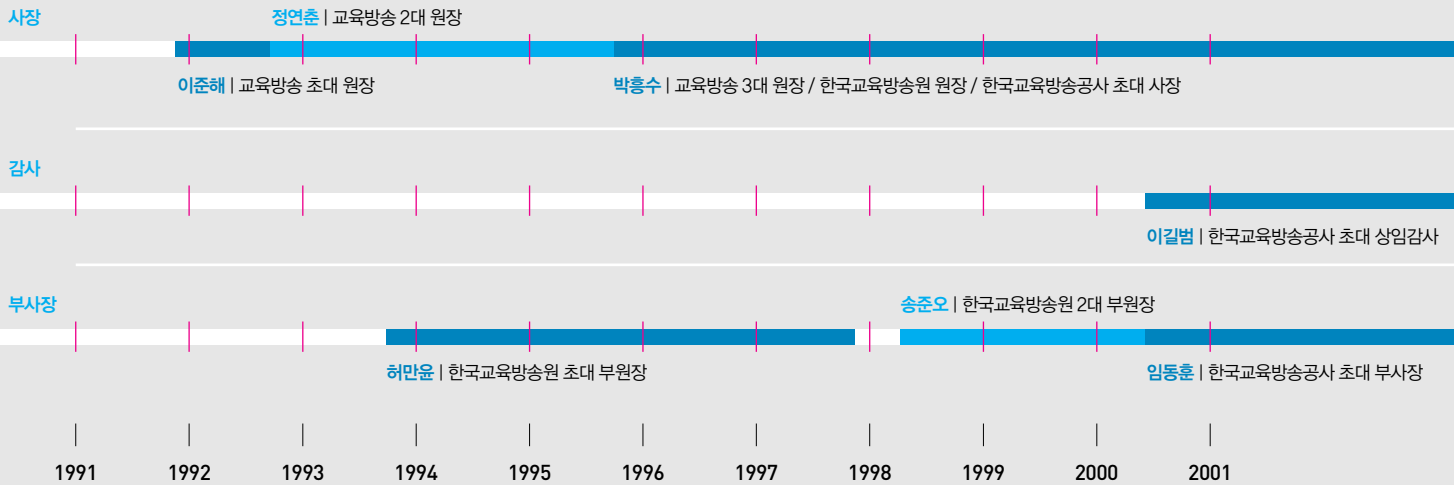
이준해



정연춘



박흥수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기

1기

성명	임기	근무형태
박흥수	2000. 05. 09 ~ 2001. 10. 21	사장
김학천	2001. 10. 22 ~ 2003. 07. 10	사장
임동훈	2000. 06. 01 ~ 2003. 07. 24	부사장
홍태희		상임 이사
이덕선	2000. 05. 09 ~ 2003. 07. 22	비상임 이사
강대인		
강순원		
김현숙		
채수연		
천승준		

2기

성명	임기	근무형태
김세원	2003. 09. 09 ~ 2006. 09. 14	비상임 이사장
윤충모	2003. 07. 23 ~ 2006. 09. 14	비상임 이사
손인식		
조종흠		
안정임		
김선우	2003. 09. 09 ~ 2006. 09. 14	비상임 이사
정국록		
신태섭	2003. 09. 09 ~ 2006. 08. 31	



김학천



고석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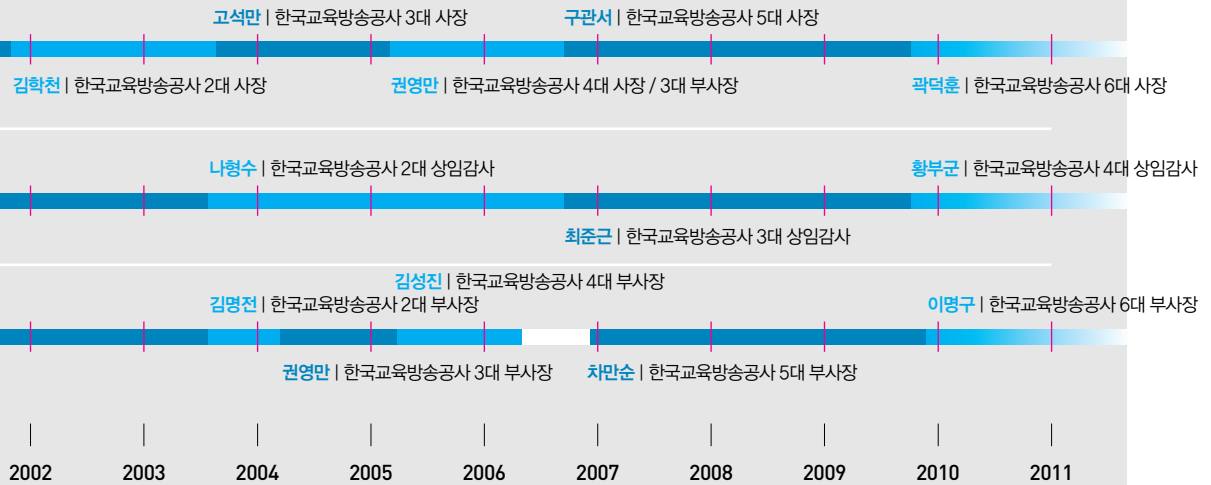
권영만



구관서



박덕훈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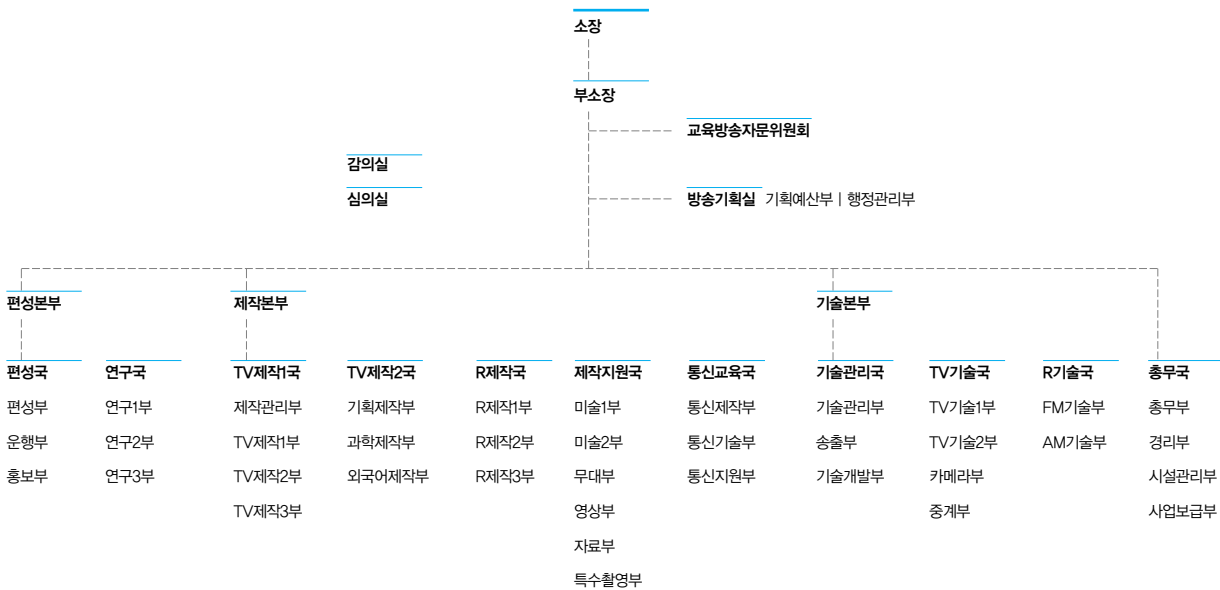
성명	임기	근무형태
성영소	2006. 09. 15 ~ 2009. 09. 14	비상임 이사장
이세진		비상임 이사
윤수경		
원철호		
임천순		
박종렬		
정기연		
황의인		
조흥순		

4기

성명	임기	근무형태
이준호	2009. 09. 15 ~ (2012. 09. 14)	비상임 이사장
고영진	2009. 09. 15 ~ 2010. 02. 15	
강성철	2009. 09. 15 ~ (2012. 09. 14)	비상임 이사
김경운		
김영배		
김정특		
김학인		
박종렬		
우석호		
한견표	2010. 03. 18 ~ (2012. 0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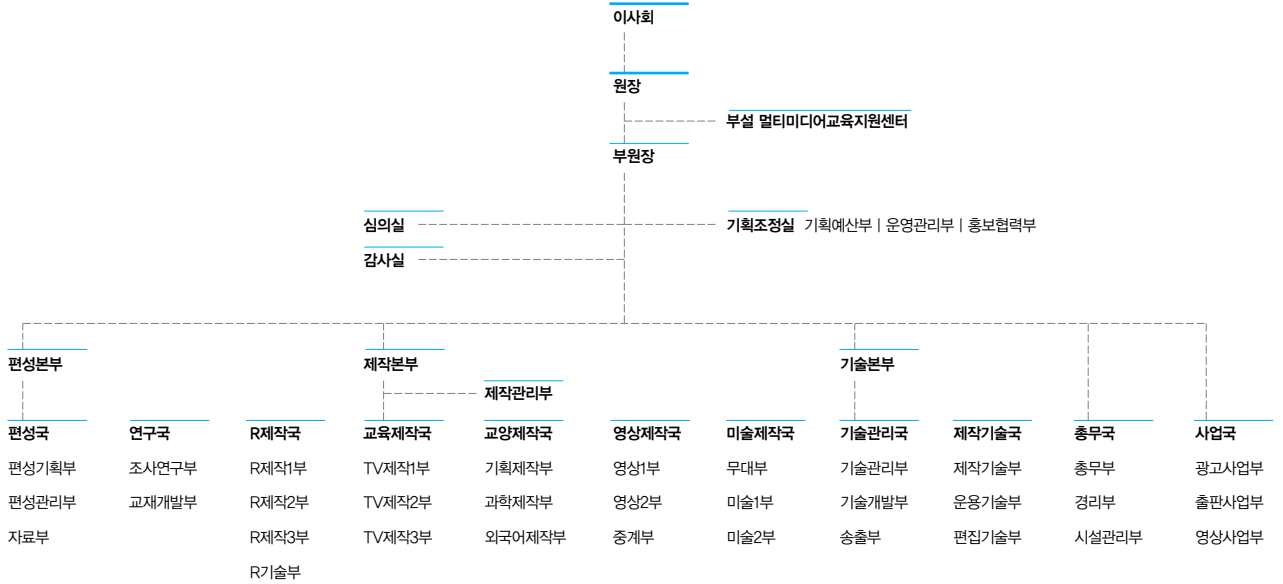
# 6 주요 조직도 변천

## 교육방송 개국 (199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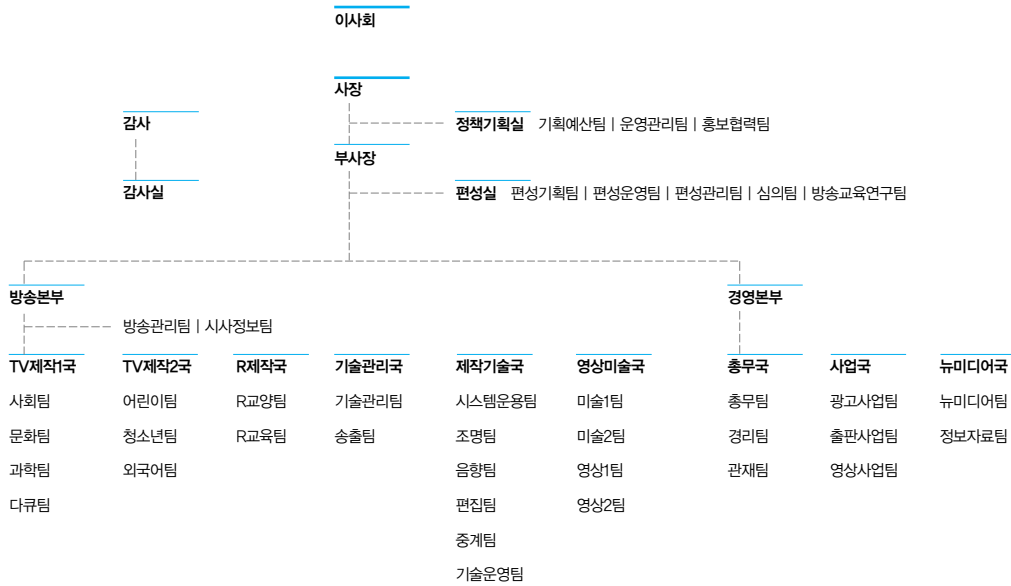
### 한국교육방송원 설립 (1997.3)



### 위성교육방송 개국 (199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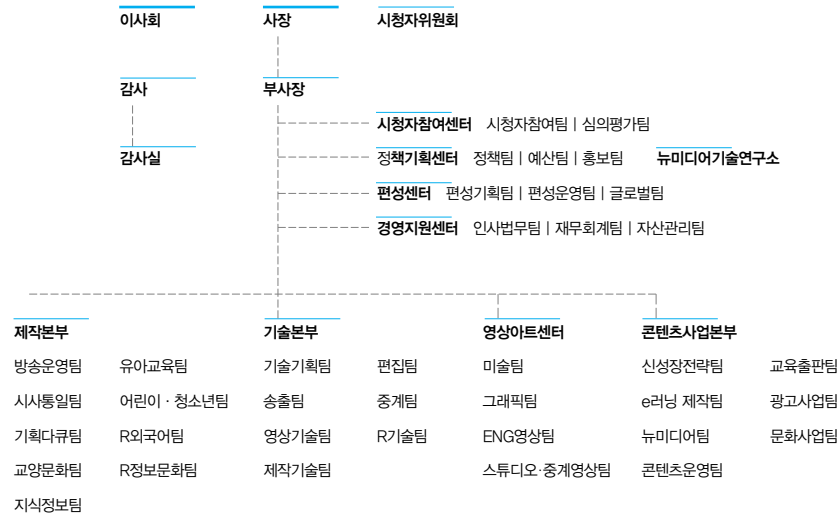
한국교육방송공사 출범 (200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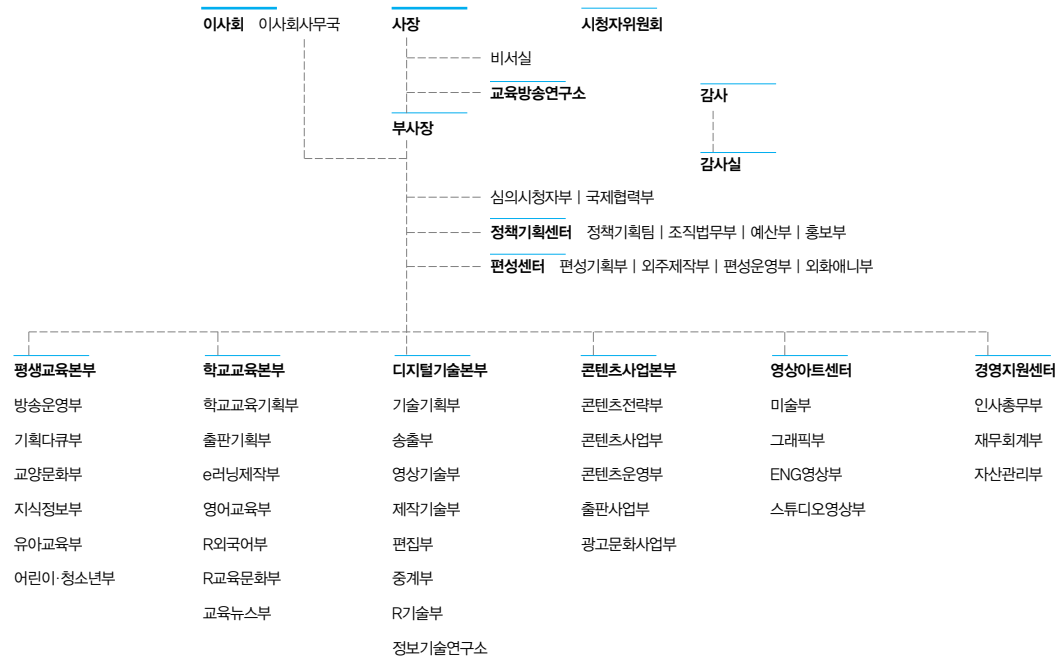
CP제 실시 (2003. 12)



국 단위 폐지 및 조직단계 축소 (2005. 11)



한국교육방송공사 조직 현황 (2010. 1)





# 7 EBS 사외보가 걸어온 길















**1951**

**1951.06.18** <라디오 학교> 방송 개시(문교부 · KBS)

**1962**

**1962.08.19** <라디오 학교> 방송 중단

**1963**

**1963.03.11** <라디오 학교> 방송 재개(중앙시청각교육원 · KBS)

**1969**

**1969.05.05** TV 학교방송 시작

**1972**

**1972.08.30**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1972.12.**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T-COM 사업 가계약 체결

**1973**

**1973.03.14** 교육방송 설치 근거 법제화(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 공포)

**1973.04.09** TV 학교방송 중단(중앙시청각교육원)

**1974**

**1974.03.18** 방송통신고등학교 프로그램(라디오) 제작방송

**1974.03.28** 라디오 학교방송 인수(한국교육개발원)

**1974.04.01** 중앙시청각교육원으로부터 라디오 학교 방송사업 KEDI로 이관,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 업무 시작

**1974.05.14** 교육방송 청사(우면동) 기공식

**1974.11.18** 우면동 청사 뒷산에 송신철탑(57m) 건립

**1975**

**1975.01.16** 교육방송 무선국 가허가 취득(전파관리법 제7조 의거)

**1975.03.22** 시험전파 발사 허가 취득

**1975.08.31** 교육방송 청사 준공

**1975.09.27** 교육방송 우면동 청사로 이전

**1975.12.** UHF TV 2개 채널 시험 전파 발사(기구방식에 의한 송신

체계, 컬러방송)

**1975.12.12**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TV 프로그램 수신을 통한 공개수업 실시(안양서국교)

**1977**

**1977.02.** 기구 송신체계 취소  
(교육방송 송신망의 지상방식 전환 결정)

**1978**

**1978.07.26** 교육방송 기본편성은 교육방송심의위원회가, 세부편성 및 제작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송출은 KBS로 하는 3원화 체제, 국무총리 지시각서

**1980**

**1980.09.01** <TV고교 교육방송> 제작으로 TV방송 개시(한국교육개발원)

**1981**

**1981.02.02** 교육전문채널 KBS 제3TV(UHF)와 교육라디오(FM) 신설, 컬러 TV방송 실시

**1985**

**1985.09.** 우면동 방송동 증축 공사 준공

**1989**

**1989.04.17** <TV고교가정학습> 방송 실시

**1990**

**1990.12.27** 교육방송(EBS) 개국(한국교육개발원 부설), EBS TV(호출부호 HLQL-TV), EBS FM(호출부호 HLQL-FM) 등 두 개의 독립 교육 채널 운영, 김학천 소장 직무대리 취임

**1991**

**1991.10.30** 교육방송 운영 규정 개정(소장 및 부소장을 원장 및 부원장으로 직명 개칭)

**1991.11.01** 교육방송 자체 송출 개시

**1991.12.03** 이준해 교육방송 초대 원장 취임

## 1992

- 1992. 07. 교육방송 강령 제정 공포
- 1992. 09. 09 정연춘 교육방송 2대 원장 취임

## 1995

- 1995. 02. EBS, ABU 가입으로 국제무대 진출
- 1995. 03. 20 교육방송 별관, 해동빌딩으로 이전
- 1995. 09. 16 박흥수 교육방송 3대 원장 취임

## 1996

- 1996. 12. 17 한국교육방송원법 국회본회의 통과

## 1997

- 1997. 01. 13 한국교육방송원법 공포(법률 제 5273호)
- 1997. 03. 03 TV 오전방송 개시
- 1997. 03. 12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 1997. 08. 25 위성방송(위성 1,2TV) 개국

## 1998

- 1998. 12. 01 교육방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998. 12. 07 위성TV 주조정실(디지털) 완공

## 1999

- 1999. 12. 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국회 통과

## 2000

- 2000. 03.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법률 제 6,136호)
- 2000. 05. 09 박흥수 한국교육방송공사 초대 사장 취임
- 2000. 06. 01 한국교육방송공사 첫 이사회 개최
- 2000. 06. 22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인 설립 등기
- 2000. 12. 22 EBS 인터넷 방송(www.ebs.co.kr) 개국

## 2001

- 2001. 10. 22 김학천 한국교육방송공사 2대 사장 취임

## 2002

- 2002. 04. 11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옥 매입(강남구 도곡동 소재)

## 2003

- 2003. 07. 23 고석만 한국교육방송공사 3대 사장 취임
- 2003. 08.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공포(법률 제6970호)

## 2004

- 2004. 04. 01 EBS 인터넷 수능강의(www.ebsi.co.kr) 실시
- 2004. 04. 01 라이브 상설무대 EBS 스페이스 개관
- 2004. 08. 30 제1회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EIDF) 개최

## 2005

- 2005. 03. 16 권영만 한국교육방송공사 4대 사장 취임
- 2005. 07. 01 EBSu 위성 DMB 방송 실시
- 2005. 12. 01 낮방송시간 확대 실시

## 2006

- 2006. 07. 24 인터넷 라디오 플레이어 반디서비스 실시
- 2006. 07. 27 외국어학습전문사이트 EBSlang (www.ebslang.co.kr) 개시
- 2006. 09. 05 EBS 위성 멀티 송출 시스템 구축완료
- 2006. 09. 19 구관서 한국교육방송공사 5대 사장 취임

## 2007

- 2007. 04. 06 영어교육전문채널(위성TV) 개국
- 2007. 11. 03 EBS 플러스1 · 플러스2 · English 공익채널로 선정

## 2008

- 2008. 01. 16 경기도와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MOU 체결
- 2008. 10. 지상파 재허가 심사평가 결과 1위 획득

## 2009

- 2009. 10. 15 광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 6대 사장 취임

## 2010

- 2010. 03. 10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BS · 교과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MOU 체결
- 2010. 05. 11 광덕훈 사장, 한국방송협회 부회장에 선임



퇴직자	김경숙	김승화	김지연	남혜승	박원영	서창만	안재권	윤화중	이영상	임민호	정윤정	최기순	하 범
●	김경아	김시업	김지영	노류하	박원호	서화수	안정희	윤효임	이영석	임병주	정은실	최기술	하선영
강경아	김광섭	김신영	김지왕	노순자	박운순	석재민	안주국	이 혁	이영순	임성문	정은정	최남영	하성용
강명일	김광진	김애송	김지용	노승완	박은경	성재환	안 중	이가영	이영아	임은선	정의준	최남호	하정현
강태자	김권재	김연희	김지은	노장춘	박은영	성주환	안지혜	이강국	이영태	임재석	정인경	최명길	한강우
강민수	김규숙	김영길	김지현	노종만	박은주	손금선	양도경	이경아	이용문	임종수	정재욱	최영훈	한경국
강보혜	김기은	김영식	김지혜	노지원	박인선	손태수	양문석	이경희	이용진	임진선	정재윤	최미영	한관중
강성명	김기정	김영우	김진웅	노의종	박일수	손홍문	양석주	이규영	이우근	임한수	정재희	최민호	한동희
강승민	김기준	김영욱	김진팔	류근수	박장순	손희경	양순열	이규옥	이원상	장경희	정정일	최병욱	한성용
강원준	김낙성	김영준	김진환	류상수	박재범	손희영	양재희	이규택	이원석	장길찬	정지성	최병일	한인규
강지규	김대근	김영철	김창식	류인환	박정수	송미정	양희천	이근웅	이윤규	장범용	정지운	최병일	한정주
강찬규	김덕용	김은아	김창열	류현주	박종숙	송충수	양성천	이기봉	이윤숙	장성순	정하연	최병주	한정호
강태길	김동균	김완수	김철민	문애라	박종열	송수진	엄인권	이기주	이윤화	장성욱	정현재	최보윤	한지원
강태만	김동우	김용성	김태균	문일창	박종필	송승숙	연병성	이기호	이은미	장성준	정홍기	최성화	한충희
강태웅	김동훈	김용원	김태남	문정희	박준실	송영환	연창윤	이기훈	이은숙	장영숙	정효순	최성록	한현정
강현석	김명남	김용진	김태식	문태호	박종권	송인덕	오남주	이길범	이은정	장은숙	조경래	최성윤	한형범
고문산	김명수	김유태	김태영	문현정	박지영	송인화	오병조	이대호	이은주	장인권	조금기	최성호	한진수
고석만	김명애	김유재	김태원	문호철	박진영	송준오	오성빈	이덕선	이익수	장인식	조동춘	최송학	허강일
고성근	김명원	김유준	김태호	민상근	박진옥	송현주	오승임	이동식	이인길	장재현	조민주	최연의	허근혁
고아라	김명원	김윤근	김태훈	민성필	박진우	시길수	오승임	이동주	이일영	장정민	조병록	최영이	허리리
고연정	김명전	김은미	김필호	박경민	박창순	신경아	오우용	이동창	이정민	전강식	조상제	최영일	허만운
고윤정	김미영	김은희	김학봉	박경찬	박창운	신경자	오유정	이동호	이정환	전기수	조석진	최영일	허백규
고진영	김미정	김은비	김학천	박광인	박창준	신경택	오윤석	이두수	이재윤	전동주	조석호	최용남	허지영
고형석	김미진	김은아	김혁조	박동찬	박천기	신금이	오재영	이명우	이종복	전석운	조성도	최용순	허 철
고형숙	김미현	김인호	김현아	박명규	박종호	신대식	오종실	이미영	이종엽	전성철	조애경	최운용	한민형
곽민성	김민승	김재원	김현일	박명하	박대규	신동만	오지현	이민상	이종현	전성호	조운경	최윤석	한성원
곽인철	김민정	김재철	김현정	박미숙	박형률	신문일	오혜원	이민호	이종훈	전소영	조윤상	최윤정	홍남희
구관서	김재훈	김재철	김형욱	박민호	박형욱	신미옥	우정균	이범수	이주성	전용환	조은경	최윤태	홍두현
구 훈	김보라	김재희	김형조	박범익	박형길	신세림	원철호	이범구	이주연	전우삼	조은희	최윤정	홍성욱
국 용	김복진	김정근	김형직	박봉곤	박홍수	신양식	유기연	이병권	이주영	전인태	조정미	최을인	홍성현
국승연	김본기	김정규	김호창	박상미	박희은	신영숙	유기훈	이병현	이주희	전일우	조종윤	최을인	홍소영
권경안	김봉식	김정록	김화섭	박상욱	박희준	신영한	유덕준	이보영	이준해	전재명	조철훈	최인용	홍순열
권경익	김분이	김정신	김화영	박석철	방원석	신용필	유동욱	이봉희	이진석	전종원	조항림	최자영	홍승현
권남식	김상규	김정제	김화진	박선하	배미란	신용철	유명호	이상진	이진호	전진학	조현철	최장근	홍용석
권봉중	김성영	김정환	김희목	박선희	배용식	신윤철	유세인	이상철	이진홍	전태열	조형근	최재화	홍용선
권성학	김성원	김중국	김효진	박설림	배인수	신장식	유승화	이상흠	이찬휘	전해리	조혜린	최정연	홍종화
권영만	김석호	김중범	김홍수	박성경	배종대	신현구	유영애	이서윤	이창기	전홍구	주현숙	최정인	홍준기
권영미	김선영	김종삼	김희정	박성민	백경희	신현진	유원규	이상엽	이철완	정대영	주희정	최정훈	홍지영
권영준	김선오	김중윤	김희진	박성일	백명수	신현철	유 일	이소영	이철호	정려진	지연희	최준근	홍창욱
권오석	김선자	김중일	김희철	박성혁	백선기	신형묵	유주하	이수근	이광엽	정미라	차경희	최지환	홍태희
권옥훈	김성두	김중천	니강홍	박성호	백영학	신혜숙	유지현	이수영	이현구	정 민	차만순	최향윤	홍희경
권좌중	김성렬	김중철	니현정	박소라	서교철	심위진	유혜란	이숙현	이현수	정선경	차석봉	최학수	홍희숙
권중문	김성수	김주린	니형수	박소윤	서대운	심은진	윤명림	이승석	이현숙	정연승	차승현	최현업	황경혜
권혁호	김성진	김주홍	남경표	박수남	서상석	안강현	윤석구	이승조	이형식	정연춘	차영규	최형규	황낙연
김갑주	김성호	김준걸	남경호	박수미	서연석	안병규	윤성수	이승주	이혜영	정영숙	차준락	최형미	황동규
김강윤	김성훈	김준기	남대일	박승해	서연만	안병준	윤우람	이승희	이훈구	정영웅	차형석	최홍준	황병훈
김건재	김성희	김준한	남상문	박영호	서재희	안영아	윤우승	이영규	이희신	정용길	채정림	최화욱	황중구
김경림	김승필	김지수	남은영	박웅선	서정화	안윤수	윤정일	이영규	임동훈	정우상	최경선	추광선	황진성

1974년 라디오 학교방송 시절부터 2010년 전 국민의 평생교육채널 EBS까지,  
36년간 교육방송에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 온 'EBS 사람들'입니다.

현직원	김경아	김영인	김창진	문민경	박정규	서현아	안종관	윤이섭	이순경	이진수	전상욱	조광익	최진근
●	김경은	김영인	김철범	문상덕	박정남	성기호	안지영	윤인로	이승민	이진호	전영균	조규백	최현엄
강경호	김경제	김영창	김철홍	문영주	박정민	성양기	안태근	윤중성	이승훈	이창미	전영빈	조기호	최혜경
강기범	김광범	김영희	김태봉	문현식	박정혜	손복희	안현정	윤중원	이양섭	이창열	전용수	조능수	최희재
강남수	김규석	김용남	김태현	민병갑	박종근	손승우	양성부	윤지현	이여진	이창용	전주현	조대형	추덕담
강민경	김규석	김용남	김태현	민정홍	박종문	손익희	양전욱	윤현철	이연규	이철수	전준우	조덕준	추신호
강부석	김기홍	김용덕	김태호	민진기	박종화	손정환	양정식	이경미	이연승	이태림	전형영	조선행	편정현
강 산	김길호	김용민	김평진	박강순	박진주	손홍석	양준호	이경희	이영봉	이한규	전홍구	조성도	하지윤
강수용	김나미	김용상	김필수	박규현	박찬모	손홍선	어윤혁	이기남	이영완	이 혁	정경란	조세권	하태익
강순도	김난영	김용수	김한동	박남일	박창홍	손희준	엄한숙	이대경	이영호	이현수	정경희	조승동	한명진
강승우	김남시	김용주	김한신	박달화	박치대	송경화	여윤길	이대섭	이영환	이현호	정구송	조영순	한미리
강신화	김남호	김우영	김한중	박대영	박치형	송대갑	여운성	이대호	이오욱	이협희	정규호	조영준	한성익
강영숙	김도연	김우철	김해윤	박돌희	박희숙	송선자	연병욱	이덕희	이용수	이희관	정동욱	조영환	한상호
강유진	김도영	김원정	김 현	박미나	박혜순	송은경	오기선	이동섭	이우한	이혜정	정문환	조용상	한승희
강중규	김동관	김유라	김현수	박민순	박효영	송인호	오명희	이동수	이유자	이혜진	정미선	조우철	한순복
강지영	김동수	김유열	김현우	박민희	박희용	송인희	오보경	이동훈	이은자	이 호	정민수	조유미	한승훈
강태욱	김동순	김윤희	김현주	박병진	박희정	송주호	오수미	이두일	이은정	이호준	정민희	조종희	한용술
강한숲	김동신	김은수	김형순							이호준	정보라	조혜경	한정자
강혜정	김동열	김은용	김형우							이홍식	정봉식	조휘진	한진숙
계민석	김동준	김이기	김형준							이효림	정상대	조희성	한현정
고민정	김명경	김인수	김혜영							이효종	정선경	주우영	한혜원
고벽석	김명구	김재근	김혜원							이희신	정성무	지재용	허동영
고승우	김명세	김재석	김호문							임기재	정성욱	진대중	허성호
고영준	김명희	김재천	김호식							임남수	정아란	진정일	허중희
고장원	김문식	김정기	김환용							임동완	정연도	차공근	허지영
고중훈	김미경	김정철	김훈석	박봉일	박희환	송준봉	오신영	이명구	이은희	임만순	정영재	채라다	현신주
고주진	김 민	김정철	김희정	박상호	방규석	송춘실	오정석	이명희	이은석	임민정	정영홍	채수영	형 건
고창욱	김민규	김정호	김희환	박선아	방영찬	송효은	오정호	이미숙	이의호	임상식	정우철	채연식	홍대용
고현미	김민정	김제범	나상희	박선하	방원석	신동근	오한샘	이미애	이인정	임석태	정윤원	최강석	홍봉진
공찬식	김민태	김종균	남내원	박성균	방주혁	신동수	우동철	이민수	이일주	임선경	정윤환	최광성	홍석훈
곽덕훈	김병수	김종기	남선숙	박성섭	방현철	신동인	원지혜	이민정	이자영	임수정	정은실	최권용	홍성구
곽상영	김봉렬	김종대	남시욱	박성오	배석진	신삼수	위광오	이법석	이재명	임영환	정은영	최기창	홍의권
곽성욱	김상수	김종무	남한길	박성우	배영식	신상민	유규성	이법희	이재용	임정훈	정일생	최기화	홍정배
곽철준	김상철	김종범	남형수	박성웅	배정수	신숙정	유규오	이병우	이재우	임 철	정장춘	최남숙	황경선
곽태규	김석중	김주호	노 건	박성호	백경석	신연미	유명하	이병익	이정민	임태식	정재우	최동은	황부근
구강모	김석태	김준범	노만기	박성환	백지영	신영대	유무영	이봉식	이정옥	임학수	정재용	최미자	황선민
구분길	김성두	김준성	노순자	박수용	반정현	신용실	유병욱	이봉욱	이정옥	장군성	정재호	최범석	황성환
구한나	김성숙	김지원	노은주	박승건	서경수	신용옥	유승재	이봉재	이정택	장달용	정정화	최병갑	황연수
구혜나	김성욱	김지현	류경선	박시열	서대원	신은미	유재인	이상범	이정환	장대균	정지은	최병문	황인수
권오민	김성화	김진석	류남이	박영근	서동섭	신일수	유혜연	이상철	이종일	장대성	정진성	최병민	황정원
권윤혜	김세화	김진국	류성우	박영수	서동원	신점용	윤문상	이상필	이종풍	장도훈	정현숙	최봉균	황정민
권찬선	김수현	김진숙	류재호	박영아	서보창	심예원	윤미선	이종희	이종호	장명선	정현일	최수진	황종태
권혁미	김시준	김진혁	류필수	박용규	서상석	심은진	이성원	이성수	이성훈	장민수	정혜영	최 영	황준성
김경남	김양선	김진호	류현위	박유림	서상일	심효무	윤설영	이성용	이종희	장원진	정호균	최원석	황혜영
김경미	김영호	김진희	류희경	박유준	서영호	안병준	윤여상	이성준	이주연	장재호	정호영	최재규	황해정
김경수	김영상	김창용	문교병	박은상	서우식	안성식	윤영란	이성호	이주희	장종호	정효성	최재주	
	김영아	김창의	문대로	박장규	서인철	안소진	윤영아	이수복	이지연	전병중	정희영	최재환	
			문동현	박재훈	서 준	안재희	윤영원	이숙현	이지현	전봉훈	제승명	최지영	

교육의 중심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주년



## 편찬 후기

EBS가 걸어온 지난 36년이 <대한민국, 교육의 길을 묻다 -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주년>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공사창립 10주년을 맞은 해에, 그동안 우리 EBS 가족들의 가슴에 자부심으로 남아있던 EBS의 역사, 또 시청자 한 분 한 분에게 소중하게 새겨진 EBS의 추억들. 이들을 한 땀 한 땀 떼서 발간된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주년>.

기획 기간을 제외하고도, 지난 5월 (주)비파를 제작업체로 선정하 뒤 편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는 등 긴 산고 끝에 책이 나오기까지 꼬박 7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6년 교육방송의 긴 역사를 정리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생한 증언과 자료제공, 원고 감사까지 전·현직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주년>은 교육방송 36년을 통사로 정리한 후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학교교육 등 세 분야에 걸쳐 부문사를 작성했습니다. 각 부문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주는 자부심과, 누구도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방송의 첫 社史 발간인 만큼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사라지고 바랜 옛 자료의 수집과 고증이 쉽지 않아 다 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주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꼼꼼히 되새겨봅니다. 학교교육 보완·사교육비 경감·평생교육·시청자 중심... 되돌아보니 교육방송의 지난 36년은 이러한 명제와 원칙에서 벗어나 본적이 없습니다. EBS가 가져야할 이념과 정체성의 중심에는 항상 교육과 시청자가 있었습니다. 공사창립 10년을 맞은 올해, 지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10년, 100년의 미래를 공유하는 데 있어 社史 발간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EBS를 만들어 온 EBS의 모든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BS여, 영원하라!!!

2010년 12월

사사 편찬위원장

EBS 부사장 이명구



## 만든 사람들



### 사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부사장
위원	이상범 평생교육본부장
	박상호 학교교육본부장
	강순도 디지털기술본부장
	손홍석 콘텐츠사업본부장
	윤문상 정책기획센터장
	황인수 편성센터장
	정호영 경영지원센터장
	박강순 영상아트센터장



### 사사 편찬실무위원회

위원	류경선 디지털통합사옥추진단 부단장
	최혜경 방송운영부장
	김석태 영상기술부장
	김혜영 홍보부장
	정경희 인사총무부 차장
사진	장중호 홍보부
진행	김민정 홍보부

### 도움주신분들

기획·제작	(주)비파
기획·진행	안철환, 이슬지
디자인	권의휘, 이환천
집필	강한기
포토그래퍼	박병혁
캘리그래피	가연

대한민국.  
교육의 길을 묻다

1974 - 2010  
교육방송 36년, EBS공사창립 10주년

인쇄일 | 2010년 12월 21일

발행일 | 2010년 12월 31일

발행인 | 곽덕훈

발행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63 | 02-526-2000 | [www.ebs.co.kr](http://www.ebs.co.kr))

기획·제작 | (주)비파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13 비파빌딩 | 02-762-6721 | [www.bpa.co.kr](http://www.bpa.co.kr))

인쇄 | 은성프린팅 (02-461-0313)